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학년도

박사학위논문

제주와 산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선교신학 전공

민 경 운



제주와 산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

지도 김 영 동 교수

이 논문을 신학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민 경 운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선교신학 전공

2015년 8월



민 경 운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 김 영 동 교수 _____(인)

부심 : 한 국 일 교수 _____(인)

부심 : 박 보 경 교수 _____(인)

부심 : 안 교 성 교수 _____(인)

부심 : 서 원 모 교수 _____(인)

부심 : 임 희 모 교수 _____(인)

부심 : 김 광 성 교수 _____(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5년 8월



감사의 글

먼저 본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담임목사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신 성덕교회의 당회와 온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덕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족한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도교수이신 김영동 교수님의 격려와 지도로 논문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논문을 심사하면서 새로운 통찰력과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일 교수님과 박보경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격려와 용기를 주신 변창욱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를 맡아 학문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생각의 폭을 확장시켜주신 안교성 교수님과 서원모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논문을 심사하면서 과분한 칭찬으로 격려해주시고 꼼꼼하게 논문을 읽어주시고 도움을 주신 임희모 교수님과 김광성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읽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여러모로 큰 도움을 준 정기묵 교수님과 여러 자료를 아낌없이 보내준 김교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늘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시는 민경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부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곁에서 지금까지 항상 용기를 북돋워주고 언제나 기다려 주며 인생을 함께 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삶의 활력소가 되는 아들 건이와 딸 주은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여러 교수님들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담임목사를 위해서 쉽 없이 기도해 주시는 성덕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8월

민 경 운



차 례

I. 서론	1
A.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B. 연구 방법	3
C. 연구사	5
D. 연구 범위	8
II. 초기 선교사 파송	9
A. 초기 선교사	9
B. 제주와 산동 선교사 파송의 연관성	11
III. 제주 선교	20
A. 제1회 독노회 설립의 이유	20
B. 파송	37
1. 파송 동기	37
a. 노회의 설립을 축하하는 기쁨의 표시	38
b.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헌물	40
c. 영적인 빛을 갹는 심정	41
2. 파송 제의	41
a. 길선주의 제의	42
b. 한국 교회가 제의	42
3. 파송 청원	43
C. 선정	45
1. 파송지 선정: 제주를 해외선교지로 보는 이유	45
a. 거리 등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45
b. 전적인 선교비 후원으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47
c. 교단 차원에서 이뤄진 공식적인 선교였기 때문에	47
2. 선교사 선정	48
a. 이기풍의 자원	49
b. 이기풍이 지명됨	52



c. 최초 목사 7인의 제안	54
d. 전도국의 추천	57
3. 파송 결정	58
D. 결과	59
1. 파송 헌금	60
2. 파송 결과	70
IV. 산동 선교	78
A. 제1회 총회 설립의 이유	78
B. 파송	93
1. 파송 동기	94
a. 중국으로부터의 요청으로	99
b. 민족의 장래를 위해 세계무대에 진출하는 방법의 하나로	99
c. 중국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100
d. 총회 창립일을 기념하는 기쁨의 감사의 헌물로	100
2. 파송 제의	102
a. 길선주의 제의	103
b. 한국 사람들의 제안	105
3. 파송 청원	106
C. 선정	121
1. 파송지 선정	121
a. 선정 이유	122
b. 파송지 결정	125
c. 협의 과정	131
2. 선교사 선정	139
a. 박태로의 선정	139
b. 사병순의 선정	141
c. 김영훈의 선정	144
D. 결과	147
1. 파송 원칙	147



2. 선교사 이명	150
3. 파송 헌금	159
4. 파송 결과	168
V. 초기 선교사 파송의 의의와 교훈	199
A. 선교적 교회의 출발	199
B. 한국 교회의 자립 선언	200
C. 성경공부의 산물	204
D. 협력 선교의 모델	207
VI. 결론	212
A. 요약	213
B. 제언	215
참고문헌	221
부록	230
국문초록	240
Abstract	243



표 차 례

<표1>	한국 교회 독노회 시절 전도위원 명단(1907~1911)	16
<표2>	한국 교회 독노회 시절 임원 명단(1907~1911)	33
<표3>	선교사 이기풍과 전도인 월급	61
<표4>	선교비(연보) 수입과 지출 내역	61
<표5>	전도국 재정예산	61
<표6>	1908년도 전도국 재정 현황	63
<표7>	제5회 독노회 전도국 회계보고	66
<표8>	1910년과 1911년의 한국 교회의 교인 증가 비교	67
<표9>	1911년도 전도국 회계 보고	68
<표10>	1911년 전도국 회계 지출 내역	69
<표11>	1912년도 전도국 회계보고	69
<표12>	1912년도 전도국 회계 수입 내역	69
<표13>	1912년 9월 현재 제주 교회 상황보고	72
<표14>	1913년 9월까지의 제주 교회의 총계	75
<표15>	1912년도와 1913년도 제주 교회에 대한 총회의 총계 비교	75
<표16>	장로공의회 통계보고표 1907년 6월 30일까지	80
<표17>	1907년 6월 30일까지의 장로공의회 통계보고표 정정(訂正)	82
<표18>	1905년에서 1907년 6월까지 한국 교회의 진전	82
<표19>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총계	83
<표20>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총계 정정	85
<표21>	제1회 독노회의 통계와 제1회 총회의 총계의 용어 차이	87
<표22>	제1회 독노회의 통계와 제1회 총회의 총계와의 비교	87
<표23>	1911년과 1912년의 교인 증감 비교표	88
<표24>	1911년도 전도국 회계 보고	160
<표25>	1911년 전도국 회계 지출 내역	160
<표26>	1914년 제3회 총회 회계보고 (1913년 포함)	173
<표27>	1914년 제3회 총회 회계보고 (1914년 예산에 관한 회계보고)	174
<표28>	제4회 총회 전도국 회계 보고 (수입)	178



<표29>	제4회 총회 전도국 회계 보고 (지출)	179
<표30>	산동 선교에 대한 총회 전도국 예산 비교	181
<표31>	1915년~1917년 산동 선교에 대한 총회 전도국 예산 비교 ...	185
<표32>	산동 래양교회의 성장	192
<표33>	1917년에 새로 파송할 선교사 3인에 대한 예산	194
<표34>	1916년 제5회 총회와 1917년 제6회 총회 전도국 수입	195
<표35>	1916년 제5회 총회와 1917년 제6회 총회 전도국 지출	196



I. 서론

A.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0회 총회는 2015년 9월 14일 청주상당교회에서 회집될 예정이다.¹⁾ 2015년으로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게 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세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노회 수는 65개, 교회 수는 8,592, 세례교인수는 1,734,983명이고, 전체교인수는 2,806,839명이다.²⁾ 이런 교세를 가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총회선교사는 2014년 6월 20일 현재 장기, 수습, 단기, 견습, 자원, 고문, 현지, 위탁, 본부 선교사, 기타 등을 합쳐서 파송국가는 87개국이며, 가정으로는 708가정이고, 선교사 인원은 1,327명이다.³⁾ 이 중에서 장기선교사만 살펴보면 파송국가는 74개국이고, 496가정의 950명이다.⁴⁾ 총회 파송 선교사만 이런 정도이고,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중에는 노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있고, 소속 총회와 노회와는 별도로 지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들도 있는데 이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또 본 교단 이외의 타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계산한다면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말 현재 169개국에 2만5천7백45명에 이른다고 한다.⁵⁾ 그러니 한국 교회를 두고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교회의 선교 운동이 60년대 및 7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가 한국동란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하는 데 이것은 잘못이다.⁶⁾ 이런 생각은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에 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연유일 것이다.

2015년 올해로 제100회 총회를 맞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제1회 총회

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총회 회의록』 (2014), 71.

2)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총회 개요』 (2014), 4.

3) 위의 책, 391.

4) 위의 책,

5) <https://www.youtube.com/watch?v=1PWq7nKygxo>

6) 김교철, “한국장로교회의 초기3인의 선교사-박태로, 사병순, 김영훈목사,” 『한국선교KMQ』 Vol.9 No.2 통권32호 (2009 겨울), 101.



는 주후1912년 9월 1일에 개회가 되었다.⁷⁾ 그 당시 한국 교회의 교세는 노회 수는 7개였으며, 예배당집이 1,438개였으며 예배처소가 2,054개였으며, 세례교인의 도합(都合)이 53,008명이었고, 교인의 도합이 127,228명이었다.⁸⁾ 100여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교회의 전체 교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형편이다. 그러나 100여년 전(前)인 1912년에 한국 교회는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決議)하고, 1913년 9월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이 세 사람을 그 가족들과 함께 중국 산둥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 뿐이 아니라 제1회 총회가 회집된 1912년으로부터 5년 전 1907년 9월 17일에 한국 교회는 제1회 독노회(獨老會)를 설립하면서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그 당시 한국 교회의 교세는 1907년 6월 30일 현재 장로공의회 통계보고표⁹⁾에 의하면 지교회가 785개요, 회당(會堂)이 687개였으며 ‘성찬참례홀인’ 곧 세례교인의 도합이 18,611명이고, ‘속훈이의 도합’ 곧 교인의 수가 72,968명이었다. 100여년 전의 한국 교회의 교세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속한 65개의 노회 중 하나인 서울동노회의 현재의 교세와도 비교되지 않는 형편이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서울동노회에 속한 교회 수는 204개요, 세례교인수는 56,124명이고, 전체교인수는 88,678명이었다.¹⁰⁾ 그런데 한국 교회는 1907년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겨우 일곱 명밖에는 없는 한국 목사 중에서 한 명, 그것도 그 해에 처음으로 목사로 장립된 그 일곱 명 중에 한 사람인 이기풍(李基豐)을 제주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 일은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들은 제1회 독노회 회의록의 서두에 1907년 9월 17일은 한국 장로교회의 달력에는 붉은 글자(a red-letter)의 날이라고 적었다. 왜냐하면 이날에 한국 내에 장로회 노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이었다.¹¹⁾ 이렇게 한국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한국

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1. 참고로 1942년 제31회 총회 후에 1943년에서 1945년까지는 총회가 모이지 못하고, 1946년 6월 11일에 개최된 “제1회 남부총회를 1942년 이후 정지되었던 「조선예수교장로회」 제31회를 계승한 제32회 총회로 개칭하다.” [『남부총회 회의록』, 1]. 이후 1950년 4월 21일에 제36회 총회가 회집된 이후 1951년에는 총회가 열리지 못하고, 1952년 4월 29일에 제37회 총회가 개최되어 오를 때까지 매년 정한 날에 총회로 모이고 있다(필자의 주).

8) 위의 책, 부록; 본 논문 83쪽의 <표19>를 참조할 것.

9)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부록; 본 논문 80쪽의 <표16>을 참조할 것.

10)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총회 회의록』 (2014), 588, 597-98.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을 너무 등한시 하거나 그 소중한 의미를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잘 새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또 1907년 제1회 독노회와 1912년 제1회 총회는 왜 조직이 되었으며, 노회와 총회가 설립이 되면서 왜 제주와 산동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리된 설명이 부족한 편이다. 특별히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그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제주와 산동으로 이기풍과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파송할 때에 그 파송 헌금을 어떻게 마련하였으며, 이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선교 헌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후원하였는지와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07년 제1회 독노회와 1912년 제1회 총회가 왜 설립이 되었는지, 그 설립의 동기(動機)를 살펴보고, 제1회 독노회와 제1회 총회가 설립되면서 왜 제주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그 당시의 선교사 파송이 제1회 독노회와 제1회 총회와 제2회 총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제주로 이기풍을, 중국 산동으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그 파송 헌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후원하게 되었는지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의 의의와 직결된다. 본 논문은 이 모든 것을 살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때에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의 정신을 되새기고 적용할 수 있는 통찰(洞察)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한국 교회에서 파송 받아서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역에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초기 선교사 파송의 의미를 기억하고 더욱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 연구 방법

본 논문은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11) *Minute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1907)*, 19.



확실하며 소중한 문헌은 독노회의 회의록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이다. 노회록과 총회록은 그 어떤 1차 자료보다도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노회록이나 총회록과 같은 회의록은 회의 중에 작성된 회의록을 노회나 총회에 다시 보고(報告)하고 난 다음에 수정(修訂)할 것들은 수정하여서 반기로 결의한다. 따라서 회의록은 그 자구(字句)나 문장의 표현 하나도 철저하게 확인해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료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노회나 총회 중에 보고된 내용이나 결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노회와 총회가 그 어떤 사건이나 대두(擡頭)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결정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와 산동 선교에 관한 제1회(1907)로부터 제5회(1911)까지의 독노회 회의록과 제1회(1912)로부터 제6회(1917)까지의 총회의 회의록을 철저하고 집중적으로 살펴서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 이 모든 회의록을 살살이 살피고 서로 연결하고 분석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고 그 선교적 의미를 파악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특별히 이렇게 비교 분석한 내용을 표(表)로 만들어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나타내려고 한다. 노회나 총회 회의록에는 그 당시 교세를 알 수 있는 총계표 정도만 그 부록에 실려 있다. 우선 이런 총계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석하고 수년간의 총계보고를 비교해서 그 당시의 선교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이해를 돕도록 할 것이다. 그 외에 회의 때에 보고된 내용을 표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특별히 제주나 산동의 선교 진전과 상황, 그리고 선교 결과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총회에 보고된 전도국 회계 보고를 살펴보면 당시의 선교 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짐작하고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교비의 예산 책정과 재정 지출의 항목과 그 금액을 살펴보면 지금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파송 헌금과 선교비 항목 등을 자세히 살펴서 표로 만들어서 비교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선교적 의미를 밝혀내려고 한다. 이렇게 본 논문에서는 최대한 표를 만들어서 활용할 것이다.

또 본 논문에서는 독노회 노회록이나 총회록과 더불어 당시 노회와 총회의 회의 결과를 정리해 놓은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와 곽안련(郭安連)의 『長老教會史典彙集』 등을 참고하여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독노회 회의록이나 총회 회의록



등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100여년 전의 한글 고어(古語)로 되어있고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읽기가 불편할 수 있다. 또한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와 곽안련(郭安連)의 『長老教會史典彙集』 등의 자료가 국한문(國漢文) 혼용(混用)으로 되어있거나 본 논문에서 참고하는 기타 1차 자료 중에는 완전 한문(漢文)으로 되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1차 자료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당시 자료의 맛을 살리려고 한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현재의 한글 어투(語套)로 바꾸거나 한문(漢文) 문장은 번역(翻譯)해서 본 논문에 실어 최대한 그 이해를 도우려 한다. 그 외의 자료로는 미국 선교사들이 작성한 독노회 이전(以前)의 공의회(公議會) 회의록과 제1회 독노회의 영문 회의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뿐 아니라, 산동 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1회(1911)와 제2회(1912)의 황해도노회의 회의록을 살펴볼 것이다. 이 모든 회의록과 자료들을 자세하게 살펴서 원래의 회의록과 자료들의 오류(誤謬)는 찾아내 수정해서 인용하고 본 논문에서 참고할 것이다.

그 다음의 중요한 자료는 제주와 산동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보고와 서신이다. 이들이 노회나 총회에 출석하여 보고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교회보』와 『基督申報』 등과 같은 신문에 기고(寄稿)한 이들의 글들은 생생한 그 당시의 상황과 선교사들의 심중(心中)과 형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최대한 찾아서 살펴볼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해외선교부로 보낸 편지와 이들의 보고(報告)는 또 다른 중요한 문헌이다. 이런 자료들은 미국 필라델피아 장로교역사협회(PHS)의 아카이브(archive)에 보관되어 있다.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한국선교 관련 보고서(*Record of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U.S.A.*)를 입수하여 필요한 내용을 참고할 것이다. 그 외에 많이 살펴볼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The Korea Mission Field*에 실은 글들이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 그 당시의 상황 등을 *The Korea Mission Field*에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자료들을 최대한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C. 연구사



본 논문은 제주와 산동 선교에 대한 선행연구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동안 안에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에 관한 박사 학위 논문이 몇 편 나왔다. 그런 박사학위 논문 중에 김활영의 논문은 산동 선교를 성경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 하는 것에 비유한 그의 석사 학위 논문 "Mission to 'SAMARIA': A History of Chin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1912-1959)"를 발전시켜서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 제출한 "From Asia to Asia: A History of Cross-cultural Missionary Work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Hapdong), 1959-1992"이다. 김활영은 그의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에서 이기풍목사(1865-1942)는 유다 지역으로 파송된 조선의 사도였다고 하면서 제주 선교는 유사문화의 선교로 보았다. 그러나 “주 조선 미국장로교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사역에 끼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도에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에 제출된 박사학위논문에서 김성환은 이기풍을 제주도로 파송할 때에 해외선교사라고 한 것은 분명히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제주 선교는 전적으로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영향이었고, 산동 선교는 전적으로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선교회가 이 일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창영은 1997년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 제출한 선교신학 박사학위(D.Miss.) 논문인 "The Contributions of the North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s to the Missionary Movement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890-1939: A Historical Study"에서 한국 교회의 선교운동은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초기 선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는 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의 영향이었다고 주장한다.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선교 운동은 한국 장로교회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고, 한국 교회는 그 시작부터 선교적 교회(a missionary church)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은 산동 선교에서도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런 김창영의 주장은 옳은 지적이지만 그렇다고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이 전적으로 미국 선교사들에게 의존적이었던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에 끼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도 없지만 산동 선교뿐만 아니라 제주 선교 때부터 한국 교회는 스



스로의 힘으로 선교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자립 선교의 의지가 있었다.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는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산동으로 파송할 때는 말할 것 없고, 이기풍을 제주로 파송할 때부터 자립 선교를 지향(指向)했다.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인 제주와 산동 선교가 자립 선교였다는 사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은 한국 교회의 자립 선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 다른 논문으로는 백정성이 풀러선교대학원에 제출한 “한국 교회의 초기 산동성 선교에 관한 선교학적 연구”라는 목회학박사학위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한국 교회의 초기 산동성 선교』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이 되었다. 백정성은 그의 논문에서 산동선교를 역사적으로 살피고, 그 당시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외의 학위논문으로 김재오(金在五)의 “宣教師 方孝元家の 中國 山東省 宣敎에 關한 研究-副題: 方孝元, 洪承漢, 方之日 宣教師의 生涯와 神學思想을 中心으로-”라는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김재오가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1994년에 제출한 석사학위논문(M.Div.)인 “初期 韓國 敎會의 中國 山東省 宣敎에 關한 研究-副題: 方孝元, 方之日 牧師 山東省 宣敎使役을 中心으로-”를 확장해서 1996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논문(Th.M.)이다. 김재오는 비교적 많은 자료를 찾아서 산동선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외에 2006년에 석사학위논문으로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에 제출한 민은아의 “중국 산동선교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2013년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에 석사학위논문으로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 중도탈락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교사 멤버케어 측면에서 본 산동선교(1913-1957년) 연구”가 있다. 그런데 산동선교에 관한 자료를 찾다보면 김교철(金敎哲)의 연구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김교철의 연구 결과는 학위논문은 아니지만 무척이나 깊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발굴하고 폭넓은 연구 결과물을 만들었다. 중국연구협회에서 펴낸 『中國研究』에 실린 그의 글이나, 산동선교 초기 선교사인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에 대한 개별적 인물 연구와 그들과 관계된 자료를 개인적으로 수집해서 묶어둔 자료집들은 다른 그 어떤 이들의 연구에 비해서 그 가치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김교철의 그 모든 자료를 직접 받아서 살펴보았을 때에 훌륭한 자료로서 큰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선행 연구 논문의 결과들을 살펴보고 참고를 하려고 한



다. 그 외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에 관한 학위논문과 소논문들과 여러 책들을 참고 문헌으로 삼고 본 논문을 진행하려고 한다.

D. 연구 범위

본 논문에서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을 연구할 때에 그 연구 범위로 는 첫째로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로 국한한다. 둘째로 제주 선교는 이기풍 선교사 로 연구 범위를 한정한다. 제주에 이기풍 선교사 이외에 함께 파송된 전도인들과 이기풍 선교사 파송 이후에 계속해서 파송되는 전도인들의 선교 활동을 참고는 하 되 주로 이기풍 선교사로 그 연구 범위를 국한(局限)한다. 셋째로 산동 선교는 1913년 9월에 최초로 중국 산동으로 파송된 박태로(朴泰魯), 사병순(史秉淳), 김영 훈(金永勳) 세 사람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한다. 따라서 넷째로 본 연구의 시기적 (時期的)인 범위는 이기풍이 제주로 파송된 1907년부터, 산동으로 파송된 세 명의 선교사들 중에 사병순과 김영훈이 임의로 귀국하고, 박태로가 완전 귀국한 1917년 까지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물론 제1회 독노회가 설립되기 이전 제1회 독노회의 설립과 관계된 공의회의 시기와 박태로와 사병순, 김영훈의 뒤를 이어서 산동으로 파송되는 방효원, 홍승한에 대한 언급은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의 범위는 다섯째로 1907년 제1회 독노회로부터 1917년 제6회 총회에 집중하 고자 한다. 아울러 산동 선교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국(淸國)으로 외국전도를 청 원하였던 황해도노회의 제1회와 제2회 노회를 연구 범위에 포함시켜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II. 초기 선교사 파송

A. 초기 선교사

한국 교회는 1907년 9월 17일 오전 9시에 평양 장대재예배당에서 개회(開會)된¹²⁾ 제1회 독노회에서 전도국 위원인 길선주는 “제주 선교소는 리기풍씨로 전도인 한두 사람과 동반하여 파송할 일”¹³⁾을 청원하게 된다. 그리고 제1회 독노회는 전도인 한 두 사람을 붙여서 이기풍을 제주¹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 그렇게 이기풍은 한국 교회의 독노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가 된다. 이때 제1회 독노회는 이기풍을 선교사로 호칭하고 있다. 안교성은 현지인을 전도사¹⁵⁾가 아닌 선교사로 부르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으로, 그것은 미국 선교사와 대등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¹⁶⁾ 객안련(郭安連, Charles Allen Clark)은 그가 펴낸 『長老教會史典彙集』에서 전도국에서 제주에 선교사를 파송하되 선교사는 이기

12)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4.

13) 위의 책, 17.

14) 제주도는 예로부터 탁라(毛羅: 풀로 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곳), 혹은 탐라(耽羅: 깊고 먼 바다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제주(濟州: 바다를 건너가는 고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제주라는 이름은 고려 충렬왕 21년, 129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김봉옥, 제주통사, 제주: 제주문화, 1987, 9-30);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 기독교 100년사(1908~2008)』 (서울: 쿤란출판사, 2009), 19 각주1)에서 재인용.

15) 안교성이 말하는 전도사란 전도목사의 의미라고 본다. 한국 교회는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목사의 명칭을 12가지로 정리하였다. 그 중에 “7. 전도(傳道)목사...이는 교회 서지 못한 지경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 8. 선교사(宣教師)...이는 외국인의게 전도하는 목사”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대륙회 회록』 (1917), 15-1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헌법은 이런 전통을 이어 받아서 헌법에 전도목사와 선교목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제4항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또 제6항은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4), 181]. 그런데 제1회 독노회는 이기풍을 선교사로 호칭하고 있다.

16) 안교성, “한국교회 선교의 기원에 관한 소고: 제주 선교와 이기풍 선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선교KMQ』 Vol.9 No. 1 통권31호 (2009, 가을), 90.



풍씨 내외(內外)로 선정하였다고 하였다.¹⁷⁾ 곽안련의 표현으로는 이기풍의 부부(夫婦)를 선교사로 부른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가 선교사 부부를 모두 선교사로 부르기로 결의한 것은 1993년 제78회 총회 때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부 선교사 파송 규정(안)을 만들면서 제6조 “선교사의 선발은 인선위원회에서 선교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되 면접과 서류심사를 하며 총회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 통보한다. 단, 선교사는 부부 선교사를 원칙으로 한다.”¹⁸⁾라고 정한 때부터였다. 곽안련이 이기풍 부부를 선교사로 부른 때보다 많이 늦었다.

또 제1회 독노회는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전도인 한 두 사람을 동반하여 제주로 보내게 된다. 그리고 독노회는 그 이후에 기회가 되는대로 계속해서 전도인들을 제주로 파송한다. 그럴 때에 독노회 회의록에서는 그들을 모두 전도인으로 부른다. 일례로 1909년 제3회 독노회 시(時)에 전도국장 길선주의 보고 중에 “평양성교회 즈미들이 연보하야 리씨선광을 제주 녀전도인으로 파송하야 저간에 부인네 중에 열심히 주를 믿는 즈미들이 싱겝스오며”¹⁹⁾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선광을 여전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곽안련의 『長老教會史典彙集』은 평양에 있는 여전도회에서 이선광을 택하여 제주에 여선교사(女宣教師)로 파송하여 오년간 계속 전도케 되었다고 하였다.²⁰⁾ 한국 교회 내에서도 선교사라는 호칭 사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곽안련은 이어지는 제3회 독노회의 전도국장 길선주의 보고인 “평양대중학도들이 연보하야 대학도 김형지씨를 제주 전도인으로 파송하야 녀달동안 열심히 전도하엿스오며”²¹⁾라는 보고를 “平壤男大中學校(평양남대중학교) 學生等(학생들)이 捐補(연보)을 收畧(수합)하야 金亨哉氏(김형지씨)를 傳道人(전도인)으로 濟州(제주)에 派送(파송)하야 一年間(일년간) 傳道(전도)하얏느니라”²²⁾고 기록하였다. 이때는 곽안련도 김형재를 선교사가 아닌 전도인으로 부르고 있다. 독노회록은 김형재가 전도인으로 사역한 기간을 녀 달이라고 하는데 곽안련은 일 년이라고 한 것도 차이가 난다. 사역의 기간에 따라서 선교사로

17) 郭安連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京城: 朝鮮耶穌教書會, 1918), 49.

18)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8회 총회 회의록』 (1993), 183.

19)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대삼회회록』 (1909), 12.

20) 郭安連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52.

21)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대삼회회록』 (1909), 12-13.

22) 郭安連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52.



부르거나 전도인으로 불렀다는 기준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아서 선교사들은 전도인과 선교사의 호칭을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1회 독노회가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한 1907년으로부터 5년 후(後)가 되는 1912년 9월 1일 오전10시30분에 평안남도 평양 경창문(景昌門) 안 여성경학원(女聖經學院)에서 개최된²³⁾ 제1회 총회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총회 전도국이 총회 앞에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중국 선교사로 산동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하고, 총대들 앞에서 이 세 사람을 지면례(知面禮)²⁴⁾를 시킨 것은 1913년 9월 7일 오후2시에 경성 소안동 예배당에서 개최된²⁵⁾ 제2회 총회 때였다. 한국 교회가 1913년에 중국 산동으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 세 사람 중에 박태로는 신병(身病)으로 1916년에 5월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임시로 산동 선교사로 파송되는 방효원(方孝元)과 함께 1917년 5월에 산동으로 다시 떠났다가 결국 병이 중해져서 곧바로 1917년 5월에 영구(永久) 귀국한다. 사병순, 김영훈은 총회 전도국의 보고 없이 1917년 4월에 귀국하게 된다. 이 후에 한국 교회는 1917년에 방효원과 홍승한(洪承漢)을 산동으로 파송하고, 1918년에 박상순을, 1922년에는 이대영을, 1931년에는 김순호를, 그런 다음 1937년에 방지일을 중국 산동으로 파송한 산동 선교는 1957년에 방지일이 귀국함으로써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라고 하면 제주로 파송 받은 이기풍 선교사뿐만 아니라, 산동으로 파송을 받은 이 모두를 지칭(指稱)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초기 선교사라 함은 제주로 파송 받은 이기풍과 중국 산동으로 제일 처음 파송 받은 최초의 선교사 세 사람인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으로 국한한다.

B. 제주와 산동 선교사 파송의 연관성

2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1.

24) 1913년 9월 9일 오전9시에 경성 승동예배당에서 속회된 제2회 총회에서 전도국장의 보고와 전도국 회계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중화민국 선교사로 택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이 총회 앞에 일어서서 지면례를 거행하고 윤식명의 기도로 동 3인을 하나님과 그 말씀에게 부탁하게 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3), 7-8].

25) 위의 책, 1.



한국 교회가 제주로 이기풍을 파송한 것은 1907년이며 중국 산동으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세 사람을 파송한 것은 1913년이다.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보낸 6년 후(後)가 된다.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는 이렇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중국 선교를 결의한 1912년으로 따져도 최소한 5년이라는 기간의 차이가 난다. 또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파송 기관(機關)이 다르다.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한 기관은 노회(老會)였다. 노회가 선교사 파송을 결의하고 파송을 추진하였고, 그 후원을 주관하여서 진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중국 산동으로 파송한 기관은 총회(總會)다. 물론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보낸 노회가 그 당시 한국 교회에서는 단 하나뿐인 노회였다. 아직 총회가 설립되기 전이었으니 독노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래도 독노회도 노회다. 그런데 총회가 설립되면서 그동안 독노회 아래에서 대리회(代理會)로 있던 일곱 개 대리회가 노회로 바뀌게 된다.²⁶⁾ 그렇게 7개의 노회가 조직이 되었지만 중국 산동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진행한 기관은 총회였다. 물론 총회가 이제는 모든 노회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기관이 되었지만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기관은 그래도 노회가 아니라 총회였다.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는 그 시기적으로도 5, 6년의 차이가 나고, 그 파송 기관도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교를 같이 다루어 살펴보는 이유는 제주 선교와 중국 선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는 릴레이에서 앞서 달린 선수와 그 바통을 이어받은 그 다음 선수와도 같다. 그러면 이제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를 반드시 같이 살펴봐야 하는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는 동일(同一)한 상징성(象徵性)을 가지고 있다. 한국 교회가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한 때는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할 때였다. 한국 교회가 중국 산동으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세 사람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결의한 때는 제1회 총회를 설립할 때였다. 이처럼 제주와 산동

26) 제5회 노회 때(1911년 9월 17일) 1912년에 총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7대리회를 7노회로 승격시키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1911년 10월 15일 전라노회 조직을 위시하여 연속적으로 7개 노회가 전부 조직되었다 [李贊英, 『韓國基督教會史總覽』 (서울: 圖書出版 所望社, 1994), 254];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오회회록』 (1911), 43-44.



선교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역사적인 제1회 노회를 설립하고 제1회 총회를 설립할 때에 결의하였다.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는 동일하게 이런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상징성이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를 같이 살펴보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이다.

둘째로 제주 선교는 산동 선교의 맺줄과 같다. 1912년 9월 1일에 개최된 총회에서 총회전도국은 총회 앞에 청원(請願)하기를

로회를 시작(始作)할 때에 제주에 선교사(宣教師)를 보냄으로 신령(神靈)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榮光)을 돌림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充滿)한바이온즉 지금(至今) 총회(總會)를 시작(始作)할 때에도 외국전도(外國傳道)를 시작하디 지라 등디(支那等地)에 선교사(宣教師)를 파송(派送)하기를 청원하오며²⁷⁾

제1회 총회전도국은 총회를 설립하는 이 때에 중국 지나등지(支那等地)²⁸⁾로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청원을 하면서 그 청원의 서두를 노회를 시작하면서 제주에 선교사를 보낸 일을 언급하고 있다. 제주 선교가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니 이제 총회를 설립하면서도 지나등지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청원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 선교는 산동 선교를 이어주는 맺줄과 같다. 제주 선교가 해외 선교의 시작이었다면 산동 선교는 그 맺줄을 타고 진정한 해외 선교로 자란 아이와 같다. 따라서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는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세째로 제주 선교는 산동 선교의 동기가 된다. 제1회 총회에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청원하는 전도국은 그 이유를 제주 선교를 통해서 신령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이제는 외국전도(外國傳道)를 실시할 때에 지나등지

2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1.

28) 지나(支那)는 '중국(中國)'의 딴 이름이다 [한컴오피스 한글 F9 한자로 바꾸기]. 컴퓨터 Daum 사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서북쪽, 아시아 동부에 있는 나라. 황허 강(黃河江)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이 일어난 곳으로, 전설적인 삼황오제(三皇五帝)의 평화 시대를 기점으로, 하(夏), 은(殷), 주(周), 춘추 전국 시대, 진(秦), 한(漢), 삼국 시대, 진(晉), 남북조 시대, 수(隋), 당(唐), 오대(五代), 송(宋), 원(元), 명(明), 청(淸)을 거쳐 1912년 중화민국이 성립되었다. 그 뒤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에서 공산당이 승리함으로써, 1949년 중국 본토에 중화 인민 공화국이 세워졌다. 수도는 북경(北京)이며 면적은 9,596,960제곱킬로미터이다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40743&q=%EC%A7%80%EB%82%98>] .



로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청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주 선교는 총회가 산동 선교를 계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는 제주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런 선교의 즐거움이 동기가 되어서 총회의 전도국은 외국전도를 실시하면서 산동 선교를 청원하게 된 것이다. 당시 한국 교회가 제주 선교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동 선교를 실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총회에서 중국 선교를 청원하게 되는 것은 제1회 독노회를 조직하면서 제주에 선교를 시작했던 것이 동기가 되어서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중국 선교에 도전하게 되는 동기 부여가 된 것이다.

네 번째로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는 한국 교회가 시작한 해외선교(海外宣敎)였다. 제주 선교를 해외선교로 보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제주 선교는 유사문화(類似文化)의 선교로 보는 입장이 있다.²⁹⁾ 곽안련(郭安連, Charles Allen Clark)도 산동 선교가 진정한 해외 선교사역(a real Foreign Mission work)³⁰⁾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당시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들은 제주 선교를 해외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³¹⁾ 당시 제주는 탐라국(耽羅國)이라 칭(稱)하면서 해외로 간주했다. 그 이유는

29) 김활영은 그의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에서 “이기풍목사(1865-1942)는 유다 지역으로 파송된 조선의 사도였다.”고 하면서 제주 선교는 유사문화의 선교로 보았다 [Hwal Young Kim, "Mission to 'SAMARIA': A History of Chin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1912-1959)" (Unpublished Th.M. thesis, Jackson, Mississippi: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1993), 33; Hwal Young Kim, "From Asia to Asia: A History of Cross-cultural Missionary Work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Hapdong), 1959-1992" (Unpublished D.Miss. dissertation, Jackson, Mississippi: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1993), 35], 한편 김활영은 한국 교회에게 중국은 “Samaria”라고 말한다 [Hwal Young Kim, "From Asia to Asia: A History of Cross-cultural Missionary Work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Hapdong), 1959-1992", 45] .

30) C. A. Clark, “The Missionary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The Korea Mission Field* 30 (August, 1934), 169 (이하 *The Korea Mission Field*는 KMF로 표기함).

31) 김성환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제주도에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영향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가장 강력한 뒷받침이 바로 제주도를 외국의 영역으로 보았다는 점으로 조선인들에게는 불가능한 발상이었다고 한다 [김성환, “주 조선 미국장로교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사역에 끼친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2008), 79] .



제주는 언어와 풍습 등이 내지(內地)와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³²⁾ 따라서 한국 교회가 제주로 이기품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해외선교를 실시한 것으로 산동 선교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 번째로 제주 선교는 산동 선교의 모본(模本)이다. 제주 선교는 제1회 독노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노회가 회집될 때마다 끊임없이 제주 선교에 대한 보고가 이어진다. 제주로 이기품을 선교사로 파송한 그 다음 해인 1908년 9월 6일 오후2시에 황성 연동예배당에서 모였다³³⁾가 1908년 9월 10일 오후4시에 폐회한³⁴⁾ 제2회 노회에서는 노회가 개최되고 그 다음날 임원선거를 마친 다음에 그 첫 번째로 전도국의 보고를 듣는다.³⁵⁾ 전도국위원 김찬성은 8가지³⁶⁾를 보고하는 데 그 중에서 전도국 사무국 직원을 둔 일과 전도국 회(會)의 참석에 관한 일, 그리고 전도국 규칙을 출판하겠다는 보고 이외에는 모두 제주 선교에 관한 보고였다. 전도국위원 김찬성의 보고 후에 제주 전도인 김홍년의 설명을 듣고³⁷⁾ 제주 전도사로 결정한다.³⁸⁾ 또 노회 중에 전도국장 길선주의 청원으로 전도국 규칙을 반포하기로 허락받기도 한다.³⁹⁾ 또 노회는 제주 부인(婦人)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국이 할 수 있는 대로 여전도인 한 사람을 택하여 파송하기로 결정하기

32) 정석기, 『위대한 선교사열전』 (서울: 쿤란출판사, 2002), 17.

33)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이회회록』 (1908), 1.

34) 위의 책, 22.

35) 위의 책, 6.

36) 전도국의 보고 8가지는 (1)사무국은 국장과 회계를 두어 사무를 보았으며 (2)통신원을 두어 제주 전도 형편을 편지대로 신문에 기재하고 (3)선교사의 월급은 매 달 이십원과 전도인의 월급은 매 월 십오원으로 지출한 일 (4)전도국에 들어온 연보는 모두 1,558원 64전과 은반지 한 쌍이고 쓴 돈은 합계 693원 16전 6리로 남은 돈이 865원 47전 4리 오며 (5)전도국회를 일 년에 두 번 모이되 만일 위원의 로비(漢字로는 路費이고 이는 여비를 말한다, 필자의 주)가 부족하여 못 오는 경우에는 그곳 대리회에서 도와주고 다른 일로 못 오는 경우에는 그곳 대리회에서 대신 보낼 일 (6)전도국 재정예산은 선교사의 년급이 270원, 전도여비 50원, 사랑부비(舍廊浮費, 사랑방을 운영하는 비용, 필자의 주) 30원, 집중수비(집수리비, 필자의 주) 100원, 전도인 연급 180원, 전도여비 110원, 제주별비 50원, 전도국 용비 15원 47전 4리, 집에 래왕비 60원으로 시재전과 같으며 (7) 전도국 규칙을 출판하여 노회 회원에게 분급할 일 (8)제주 전도하는 일은 잘 되옵는데 원입인이 아홉 사람이며 매주일 모이는 사람은 이십여명이오며 [위의 책, 6-7] (필자가 회의록의 옛 말투를 할 수 있는 대로 현대어 말투로 바꾸고, 가급적 띄어쓰기를 하였음).

37) 위의 책, 10.

38) 위의 책, 11.

39) 위의 책,



도 하였다.⁴⁰⁾ 또 노회 중에 부서 회의를 거치고 전도국 임원 선정한 일과 전도국 위원 12명을 발표하는 등의 보고를 하였다.⁴¹⁾ 이렇게 제2회 독노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안건과 보고가 주로 전도국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런 제주 선교는 후에 제1회 총회가 설립되면서 중국 산둥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모본(模本)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연관성은 제주와 산둥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관계된 인물을 살펴볼 때에도 알 수 있다. 제주 선교에서 산둥 선교까지를 이어가는 인물은 여러 명이 있다. 그 중에는 길선주와 김찬성이 있다. 길선주와 김찬성은 아래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군례빈과 함께 제1회 독노회로부터 제5회 독노회 시절까지 5년간 계속해서 전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표1> 한국 교회 독노회 시절 전도위원 명단(1907~1911)

제1회(1907) ⁴²⁾	제2회(1908) ⁴³⁾	제3회(1909) ⁴⁴⁾	제4회(1910) ⁴⁵⁾	제5회(1911) ⁴⁶⁾
방위량 김찬성 리눌서 길선주 송순명 박덕일 량던빅 소안론 군례빈 (추가 선정) ⁴⁷⁾ 심취명 하요한 구례선	방위량 김찬성 리눌서 길선주 송순명 김성호 량던빅 쇼안륜 군례빈 심취명 변요한 구례선	일년: 길선주 소안론 김성호 리여한 곽안년 이년: 변요한 심취명 구례선 덩기명 군례빈 삼년: 리길함 부위량 량던빅 윤식명 김찬성	일년: 변요한 심취명 구례선 덩기명 군례빈 이년: 리길함 부위량 량던빅 윤식명 김찬성 삼년: 길선주 방위량 박덕일 리여한 마노덕	일년: 이길함 부위량 량던빅 윤식명 김찬성 이년: 길선주 방위량 박덕일 리여한 마노덕 삼년: 나부열 군례빈 구례선 정덕싱 리원민
총12명	총12명	총15명	총15명	총15명
	전도국장: 길선주 ⁴⁸⁾	전도국장: 길선주 ⁴⁹⁾	전도국장: 길선주 ⁵⁰⁾	전도국장: 길선주 ⁵¹⁾

40) 위의 책,

41) 위의 책, 19.

42)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일회회록』(1907), 14; *Minute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1907), 21.



길선주는 1907년 9월 17일 개최된⁵²⁾ 제1회 노회에서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양전백, 방기창, 이기풍과 함께 목사(牧師)로 장립(將立)되었다.⁵³⁾ 그리고 노회 중에 전도국(전도회위원⁵⁴⁾) 위원 9인 중에 한 사람으로 공천된다.⁵⁵⁾ 이렇게 제1회 독노회에서 전도위원으로 공천된 길선주가 1907년 9월 19일 평양 장대재예배당에서 회장 마삼열(馬三悅)의 사회로 속회된⁵⁶⁾ 해(該) 노회의 셋째 날에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하자는 보고로 시작되는 7가지 보고를 하게 된다.⁵⁷⁾ 길선주는 제2회 독노회 때에는 방위량, 김찬성, 리눌서, 길선주, 송순명, 김성호, 양전백, 소안론, 군례빈, 심취명, 변요한, 구례선 이상의 12명⁵⁸⁾의 전도위원 중에서 전도국장이 되어 전도규칙 반포를 청원하기도 한다.⁵⁹⁾ 길선주는 제5회 독노회의 전

43)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이회회록』 (1908), 8.

44)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삼회회록』 (1909), 31.

45)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스회회록』 (1910), 27.

46)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오회회록』 (1911), 66.

47) “전도국 위원 아홉 사람 받게 경상도 심취명 전라도 하요한 함경도 구례선 삼씨를 더 선명하기를 청원할일”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이회회록』 (1907), 17].

48)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이회회록』 (1908), 7; ‘전도국장 길선주’는 ‘전도국장 길선주’의 오기인 듯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이회회록』 (1908), 10].

49)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삼회회록』 (1909), 12.

50)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스회회록』 (1910), 1.

51)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오회회록』 (1911), 15, 33.

52)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이회회록』 (1907), 4.

53) 위의 책, 10.

54) 전도국의 처음 명칭은 ‘전도회 위원’이었다. 제1회 독노회 때에 “전도회 위원은 명칭이 불합흔듯하니 공천위원의게 다시 지정하기로 동의하며” [위의 책, 14], 그렇게 해서 전도국으로 개정되었다.

55) 위의 책, 14.

56) 위의 책, 16.

57) —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할일 二 선교사의 월은과 전도 용비는 각 교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하게 부탁할일 三 연보할 때는 각 교회에서 연보할 편지 보는 주일에 광고하고 그 다음 주일에 연보할일 四 제주 선교사는 리기풍씨로 전도인 훈두 사름과 동반하야 파송할일 五 원회계는 박치록씨로 턱명하며 부회계는 방위량씨로 턱명하기를 청원할일 六 전도국 위원 아홉 사람 받게 경상도 심취명 전라도 하요한 함경도 구례선 삼씨를 더 선명하기를 청원할일 七 제주 선교사와 전도인 월급 받쳐 리왕비와 가사비와 전도회 인허 특별비를 본 전도국에서 지출할일 [위의 책, 16-17].

58)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이회회록』 (1908), 8, 이상의 전도국위원 12명은 1년조 방위량, 김찬성, 리눌서, 양전백, 2년조 길선주, 소안론, 김성호, 송순명, 3년조 군례빈, 변요한, 심취명, 구례선 이었다 [위의 책, 19].

59) 위의 책, 11.



도국위원 15명⁶⁰⁾ 중에 한 명이면서 전도국장이었다.⁶¹⁾ 그리고 길선주는 제1회 총회 때에는 부회장으로 피선되고⁶²⁾ 제2회 총회 때에는 전도국위원 21명⁶³⁾ 중에서 한 명이다. 이렇게 길선주는 제1회 독노회 때부터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중국 산둥으로 파송하는 제2회 총회 때까지 전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찬성도 길선주와 같이 제1회 독노회로부터 제5회 독노회 때까지 전도위원이었으며, 제2회 총회 때에는 산둥 선교사로 선정된 박태로가 중국 산둥으로 시찰을 다녀오도록 청원될 때에 김찬성도 한 달 가량 산둥성 방면을 임의 시찰하도록 청원되었다.⁶⁴⁾ 박태로가 중국 산둥으로 갈 때에 김찬성은 박태로와 동행했다.⁶⁵⁾ 김찬성은 길선주와 같이 제2회 총회 때에도 전도국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⁶⁶⁾ 이처럼 김찬성은 길선주와 함께 제주로 이기풍을 파송한 제1회 독노회 때부터 산둥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제2회 총회 때까지 전도국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기도 하였으니, 제주 선교와 직간접으로 관계된 이들은 틀림없이 산둥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에 제주 선교를 모본으로 삼았을 것이다. 한국 교회는 제주 선교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학습(學習)을 하고,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중국 산둥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 선교와 산둥 선교는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제주 선교와 산둥 선교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여섯째로 제주 선교와 산둥 선교를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교회가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제주로 이기풍을 파송하고,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한 데에는 두 사건 모두에게

60) 전도위원 15명은 일년조 리길함, 부위량, 양전백, 윤식명, 김찬성, 이년조 길선주, 방위량, 박덕일, 리여한, 마노덕, 삼년조 나부열, 군례빈, 구례선, 정덕생, 리원민 이었다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대회회록』 (1911), 66].

61) 위의 책, 15, 33.

6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리 회록』 (1912), 6.

63) 전도국위원 21명은 다음과 같다. “1914年 한위렴 라부열 마누덕 곽안연 오월번 군례빈 장례학, 15年 김익두 길선두 한석진 김창건 방위량 리일영 안승원, 16年 홍승한 마삼열 박례헌 원두우 김필슈 김찬성 한승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리 회록』 (1913), 63].

64) “김찬성목사로 산둥성 방면을 일약 동안 임의 시찰하였느니라” [위의 책, 59].

65) “평남 안주교회 김찬성목사와 흠뻑왔든고로 곳치 전도디경을 명히려고 산둥 뎡고을노 순행출제” [“사설,” 『예수교회보』 제4권 제26호, 1913. 7. 1].

6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리 회록』 (1913), 63.



동일하고 분명한 한국 교회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초기 선교사들을 제주와 중국으로 파송한 일은 한국 교회의 자립의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제1회 독노회를 조직하면서 이기풍을 제주로 파송한 것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자립하게 되었다는 선포요,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한국 교회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한 것은 온 세계에 한국 교회가 자립하였다는 천명을 한 것이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는 같이 살펴보아야 할 충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의 선교사 파송을 본 논문에서 같이 살펴보게 되는 데 이기풍 선교사 파송 연대(年代)의 시기(時期)와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선교사의 파송 시기의 순서는 곧 이들의 파송을 결의한 기관인 제1회 독노회와 제1회 총회 설립의 시기와 같으므로 이런 시기의 순위(順位)를 따라서 제주 선교를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산동 선교를 살펴보려고 한다.



III. 제주 선교

한국 교회가 제주로 이기풍⁶⁷⁾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한 것은 1907년 9월 17일에 설립된 제1회 독노회이다. 제1회 노회는 한국인 일곱 명을 안수(按手)하여 목사로 장립(將立)하고 그 중에 한 명인 이기풍을 제주로 파송하였다. 그러면 노회의 설립과 목사 안수, 그리고 이기풍의 제주 선교사 파송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A. 제1회 독노회 설립의 이유

한국 교회의 제1회 독노회는 1907년 9월 17일 오전9시에 평양 장대재예배당에서 개회되었다.⁶⁸⁾ 그러면 한국 교회는 왜 이 때에 노회를 설립하게 되었는가? 노회를 설립하는 취지(趣旨)는 무엇이었는가?

1907년 공의회⁶⁹⁾ 회장 마삼열(馬三悅) 목사가 독노회가 개회되기 직전에 노회 취지를 설명하기를 “그 개의는 미국 남북 장로회와 영국 가나다와 오스트렐

67) 이기풍은 1868년 11월 21일 평양(平壤) 남수구내(南水口內)(지금(只今) 순영(巡營)리(里))에서 출생하였다. 이기풍의 막내 딸 이사례는 이기풍의 생년월일을 1865년 12월 23일이라고 하였지만 1868년 11월 21일이 맞는다. 많은 기록들이 이기풍이 1868년에 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 기독교 100년사』, 46; “朝鮮敎會 初代 七牧師,” 『계자씨』 제70호(1937), 이사례,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 (서울: 기독교문사, 2003), 247에서 재인용] .

68) 제1회 독노회 회의록은 노회가 개회할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다. “쥬강싱 일천 구백칠년 구월 십칠일 상오구시에 평양 장대재예배당에서 작년 공의회 회장 비유진 목사가 스도형전 일장 팔절에 우리쥬 예수씨서 므즈막 분부헌신대로 증언이라고 강도훈후에 괴일 목사는 썩을 가지고 축사하야 장로들노 난호며 비유진 목사는 포도즙을 가지고 축사하야 장로들노 돌려서 성찬례식을 거행하니라 금년 공의회 회장 마삼열 목사가 노회 취지를 설명하넌디 그 개의는 미국 남북 장로회와 영국 가나다와 오스트렐나 장로회 네 곳 총회에서 엇은 권리대로 여러 선교스를 디표하야 대한 예수교 장로회 노회를 창설하노라하고 기도함으로 기회하디” [『예수교장로회대한노회데일회회록』 (1907), 4] .

69) 1893년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 빈톤(Dr. C. C. Vinton)의 집에서 미국 남.북 장로교 선교회와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참석하여 ‘장로회 정치를 쓰는 미션공의회(The Council of Mission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를 조직하였다 [김인수, 『레널즈(W. D. Reynolds)가 한국장로교 선교 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끼친 영향 연구』 (서울: 전국신학대학협의회.한들출판사, 2012), 81] .



나 장로회 네 곳 총회에서 얻은 권리대로 여러 선교소를 디표하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로회를 창설호노라”⁷⁰⁾고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장로회 최초 노회를 설립하는 것을 미국 남북 장로회 총회 등에서 허락⁷¹⁾하였다는 사실이다. 장로회 공의회의 결의에 따라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즉 독노회가 조직이 되었다.⁷²⁾ 장로회 공의회의 결의란 미국 남장로회, 미국 북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등 네 교파 선교사 공의회의 결정을 말한다.⁷³⁾ 이 공의회는 1893년에 설립이 된 이후에 다음과 같이 1기와 2기로 나눌 수가 있다.

基督教가 我朝鮮에 來傳한지 十年에 未滿하야 教徒蔚興하고 教會가 成立하난 同時에 治理하나 上會가 無함으로 諸委員等이 一公議會를 組織하얏스니 是會난 將來의 適法대로 設立할 治理會가 現出하기 前에 난 專權으로 治理하난 上會가 되 었나니라 此公議會를 二期에 分하니 第一期난 宣教師公議會時代인데 卽 一千八百 九十三年 至 一千九百年이라 惟外國宣教師만 會員이 되었고 第二期난 合同公議會 時代인데 卽 一千九百一年 至 一千九百六年이니 內外國委員이 함씩 會員이 되었 나니라⁷⁴⁾

이런 공의회의 설립에 대하여 곽안련(郭安連, Charles Allen Clark)은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一八九三年년에 長老會政治장로회정치를 쓰는 미션公會公회라 稱칭호난會회를 組織조직호얏스니 次會차회는 京城경성빈돈의 家가에서 組織조직호얏스디 設立者 설립자는 南長老會남장로회 미션會員회원牧師목사 李訥瑞이눌서, 全緯廉전위렴, 崔義德최의덕, 張장씨 北長老북장로미션會員회원牧師목사 裴緯良배위량, 썬보, 馬布

70)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4.

71) 캐나다 외지선교회와 호주 외지선교회가 제일 먼저 찬성하였고 미국 남북장로 교 외지선교회는 한 사람의 장립목사도 없는 한국 교회가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 라는 이유를 들어 처음에는 노회 설립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뒤 현지 선교 사들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한 나머지 1905년에 가서야 미국 남북장로교는 노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蔡弼近, 『韓國基督教開拓者 韓錫晉과 그 時代』 (서울: 光明印刷公社, 1971), 144].

72) 김인수, 『레널즈(W. D. Reynolds)가 한국장로교 선교 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끼친 영향 연구』, 86.

73) 위의 책, 87.

74) 차재명 편,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경성: 조선기독교창문사, 1928), 1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18.



三悅마포삼열, 李吉咸이길함, 蘇安論소안론, 閔老雅민로아, 牟三悅모삼열, 醫士의사
빈톤諸氏제씨러라⁷⁵⁾

이 공회의 목적은 “朝鮮地(조선땅)에 更定敎⁷⁶⁾信經(김덩교신경)과 長老會政
治(장로회정치)를 使用(스용)하는 聯合敎會(연합교회)를 設立(설립)하는 事⁷⁷⁾으로
定(명)히얏는디 此公會(이공회)가 各其(각기) 所屬(소속) 敎會에 對(대)히야 勸告
權(권고권)만 있다.”⁷⁸⁾ 그리고 “各 支敎會의 治理는 諸 宣敎師에게 仍屬(영속)하엿
나니 是會난 將來의 正式治理會의 豫備的公會라 可謂하리로다”⁷⁹⁾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공의회 밑에는 여러 도의 지방회(church session)들이 있었다. 공
의회는 평양과 서울에 각각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위해 두 개의 ‘공의회 지
부’(Committee of Council)들을 두었고, 1901년에는 남쪽의 전라도와 경상도에
두 개를 더 설치했고, 1905년에는 가장 북쪽에 있는 함경도에 다섯 번째로 설치했
다. ‘지방회’들은 ‘공의회 지부’들을 통해서 중앙 공의회에 보고했다. 나중에 ‘공의
회 지부’는 ‘소회’(Presbyterian Committee, So-hoi)라고 불렸다. 안수 받은 선교
사들과 한국인 장로들 및 조사들이 이 소회의 회원이 되었다.⁸⁰⁾

이러한 공의회는 공의회를 조직하게 되는 처음부터 공의회를 조직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基督教가 我朝鮮에 來傳한지 十年에 未滿
하야 敎徒蔚興하고 敎會가 成立하난 同時에 治理하나 上會가 無함으로 諸委員等
이 一公議會를 組織하얏스니”⁸¹⁾라는 표현 속에 있다.

75) 郭安連 編, 『長老敎會史典彙集』, 15.

76) 更定敎(갱정교)는 개신교(改新敎)를 말한다.

77) 장로회공의회(the Presbyterian Council)의 목적은 조직될 때부터 이 나라에
서 사역하고 있는 네 개의 장로교 선교회의 후원을 받는 한국 내에 단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는데 있었다 [George Thompson Brown, *Mission to Korea*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62), 71; George
Thompson Brown, *Mission to Korea*, 천사무엘.김근태.오승재 역, 『한국 선교 이야기-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 역사(1892~1962)』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0), 107] .

78) 郭安連 編, 『長老敎會史典彙集』, 15.

79) 차재명 편,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1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
수교장로회사기』, 상권, 18.

80)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최재건 역,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370.

81) 차재명 편,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1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
수교장로회사기』, 상권, 18.



공의회를 조직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가 우리 조선에 전해진지 10년이 아직 차기도 전에 믿는 성도들이 들끓어 자라나듯이 부흥⁸²⁾하였기 때문이다. 그 두 번째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들을 치리하게 되었는데 그런 교회들을 치리할 상회가 없어서 공의회를 조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의회를 조직할 때부터 공의회 존재 기한을 분명하고 있다. 곧 그것은 “是會난 將來의 適法대로 設立할 治理會가 現出하기 前에 난 專權으로 治理하난 上會”⁸³⁾라는 표현 속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공의회는 앞으로 적법으로 설립할 치리회(治理會)가 조직되기 전까지만 단지 그 권한을 갖고 치리하는 상회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 공의회는 “各其 所屬 司會에 對하야 勸告權만 있다.”⁸⁴⁾는 것이다. 공의회는 단지 각 소속 선교회에 권고권(勸告權)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各 支教會의 治理는 諸 宣教師에게 仍屬(인속)하였나니 是會난 將來의 正式治理會의 豫備的公會라 可謂하리로다”⁸⁵⁾라고 하였다. 공의회는 장래 정식 치리회가 설립되기 전까지의 예비적인 공적 모임이라고 가(可)히 이를 뿐이라고 하였다. 장로교공의회는 단순한 협력 기관이 아니라, 노회 조직을 위한 예비 기구였다.⁸⁶⁾ 이것은 1893년 선교사들의 공의회를 조직하면서 설립의 취지를 설명한 “主後一八九三年(癸巳) 是時各處에 信徒가 雖多하나 治理會가 現無함으로 宣教師等이 一公會를 組織하야 朝鮮예수敎長老會가 完全히 成立될 時期까지 全國教會에 專權治理하난 上會가 되얏스니”⁸⁷⁾라는 언급에 분명히 나타난다. 지금 선교사들의 공의회를 설립하려는 이 때에 각처(各處)에 신도들이 비록 많기는 하지만 치리회(治理會)가 없어서 조선예수교장로회가

82) 선교사 로이 쉐러(Roy E. Shearer)는 1888년에 조선에 들어온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 기포드(D. L. Gifford)가 미국 장로교회의 해외선교국(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 S. A.)으로 보낸 편지(Seoul, Korea: September 1, 1896)에서 언급한 “The work in the country has spread like wildfire.”라는 말에서 따온 '들에 난 불'(WILDFIRE)이라는 말로 한국 교회의 성장을 표현하고 있다 [Roy E.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17].

83) 차재명 편,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1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18.

84) 郭安連 編, 『長老敎會史典彙集』, 15.

85) 차재명 편,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1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18.

86) 박용규, 이은선 편, 『총회100년 한국장로교회 회고와 전망』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4), 138.

8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20.



완전히 성립할 시기까지만 예비적인 모임으로 상회를 만들려고 하니 그것이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장래의 정식 치리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또 ‘장래의 적법대로 설립한 치리회’가 무엇인가? 그것이 노회이다.

노회는 교회의 치리회 중에 하나다. 현재도 치리회는 당회(堂會), 노회, 총회 이 세 개뿐이다.⁸⁸⁾ 그리고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⁸⁹⁾ 치리회에 관(關)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헌법은 이미 제1회 독노회 때에 만들어졌다. 제1회 독노회 회록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규칙이 첨부되어 있다.⁹⁰⁾ 당시 장로회 규칙 제4조 교회의 치리의 제1항은 “교회를 다스리는자는 곳 당회와 로회와 총회 니 이 여러 회는 일년에 일츠 이상으로 맞당히 모힐거시라”⁹¹⁾고 되어 있다. 또 장로회 규칙 제4조 교회의 치리 제2항 당회의 직무와 권리에서 “당회의 회원이 될자는 지교회의 목수와 장로 니”⁹²⁾라고 분명히 명시(明示)하고 있다. 따라서 장로가 있어도 목사가 없거나, 목사는 있어도 장로가 없다면 그 교회는 당회를 조직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교회 초기는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워서 목사로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장로를 세웠다. 장로는 해(該) 교회에서 임직(任職)을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 한국인 목사가 안수 받게 될 때까지 선교사인 목사가 당회장을 맡는 교회로 조직되었다. 물론 지금도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에 반드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⁹³⁾ 그러나 그때는 이런 치리(治理)의 일은 공의회가 처리하였다. 여하튼 당시(當時)는 교회를 담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손에 의(依)해서 장로가 세워져 조직된 최초의 교회는 1887년에 이루어진 서울의 서대문 교회이고, 소래교회는 1900년에, 평양교회는 1901년에 조직되었다. 1904년에는 전 교회적으로 24명의 장로들이 있었다.⁹⁴⁾ 이렇게 장로는 세웠지만 아직 노회가 없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인 외국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그들만으로 노회를 세운다고 하면 진정한 한국 교회의

88)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9장 치리회 제6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190] .

89)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9장 치리회 제61조 치리회의 구성.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190] .

90)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31-41.

91) 위의 책, 33-34.

92) 위의 책, 34.

93)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장로 제41조 장로의 선택 제1항은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로 되어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186] .

94) Harry A. Rhodes, 『미국 복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370.



노회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소위 진정으로 한국인에 의해서 자립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인들 중에서 목사가 나와야 하는데, 목사를 안수해서 세울 수 있는 치리회는 오직 노회밖에는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총회 헌법은 이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총회 헌법은 노회의 직무 9가지⁹⁵⁾를 명시하고 있는 데 그 중에 다섯 번째가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펴전4:14, 행13:2-3).”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임직 이외의 목사의 신상(身上)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세 개의 치리회 중에서 오직 노회만이 담당하는 고유의 직무가 된다. 이것은 이미 제1회 독노회 때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 속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장로회 규칙 제4조 교회의 치리 제3항 노회의 직무와 권리에는 “목사와 강도인의 년세가 늙은후에는 샤면흙을 허긔기도허며 또 안슈흙으로 목사로 세우며 위임 레식을 행긔기도허며 전임도 식히며 또 강도인의게 강도긔는 인허를 주기도허며 원위 목사인을 시취긔야 공부를 쥬장긔기도허며”⁹⁶⁾라고 되어있다. 노회가 목사를 안수하여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목사의 사면과 전임 등을 모두 노회의 직무라고 밝히고 있다.

목사가 노회에서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규칙 제3조 직원 제3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3항은 목사에 관한 조항으로 “목사는 로회의 안슈흙으로 세움을 밧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긔며 성례를 베풀며 교회를 다스리느니 혼두 지교회나 여러 지교회를 총찰긔는쟈를 지교회 목사라 호고 로

95)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노회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6:1-8, 딤펴전5:19). 4.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펴전4:14, 행13:2-3). 6.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7.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8.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9.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195-196].

96)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34-35.



회에서 직분을 맞아 두루둔니며 전도하는자를 전도 목사라 칭하는니라”⁹⁷⁾고 하여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사를 세우려고 하면 목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안수할 수 있는 치리회인 노회가 없다면 목사의 임직을 거행할 수 없다.

그러면 목사의 자격(資格)은 무엇인가?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총회 헌법은 목사의 자격으로 크게 두 가지⁹⁸⁾를 말하고 있는 데, 그 첫 번째로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후3: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⁹⁹⁾ 그 다음 사항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¹⁰⁰⁾이다. 지금은 목사의 자격으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되는데 당시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목사로 세우려고 할 때에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있어도 그들을 안수해서 목사로 임직시킬 수 있는 치리회인 노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는 노회가 없었다.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될 자격을 갖게 되는 일곱 명의 한국 사람은 생겼는데 그들을 안수하여 목사로 세울 치리회인 노회가 없었다. 1907년 9월에 한국 교회가 노회를 설립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교회가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는 7명의 신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이들을 안수하여 목사로 임직시키려고 하면 그들을 안수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치리회인 노회의 설립이 필요했다. 따라서 공의회는 한국 교회 최초로 한국사람 일곱을 목사로 안수할 노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¹⁰¹⁾

97) 위의 책, 32-33.

98)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6조 목사의 자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180].

99)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6조 목사의 자격 제1항 [위의 책, 180].

100)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6조 목사의 자격 제1항 2 [위의 책, 180].

101) 백락준(白樂濬)도 노회 설립에 관하여 “1907년에는 제1회 졸업생 7명이 목사 按手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장노교의 治理規定에 따라 노회가 아니면 목사를 안수할 수 없었다. 이 규칙 하에서 한국인 목사의 안수는 한국 교회에 老會가 조직된 다음이 아니면,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예수교장로회의 제1회 노회가 1907년 9월 17일에 개최된 것에 대하여 박용규는 “본래 1907년을 독립노회 설립 시기로 잡은 것이 부흥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¹⁰²⁾ 한국 교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평양 장로회신학교가 1907년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할 때를 기다려 한국 교회의 설립 날짜를 그 해로 정했을 뿐이다.”¹⁰³⁾라고 하였는데 정확한 지적이다. 채필근(蔡弼近)도 “노회의 조직을 가능하게 만든 첫째의 이유는 1907년에 韓錫晉牧師를 비롯한 7인의 신학생이 平壤 장로회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게 된 때문이다.”¹⁰⁴⁾라고 하였다. 방위량(邦偉良, William N. Blair)은 1907년에 설립된 제1회 독노회 설립의 시점을 평양신학교가 첫 번째로 일곱 명을 졸업시키고 난 3개월 후(後)라고 말하고 있다.¹⁰⁵⁾ 길선주(吉善宙), 방기창(邦基昌), 송인서(宋麟瑞), 한석진(韓錫晉), 이기풍(李基豐), 양전백(梁甸伯), 서경조(徐景祚) 이상의 일곱 명이 평양선교부 신학반을 졸업한 날은 1907년 6월 20일이다.¹⁰⁶⁾

1907년 6월 20일에 평양(平壤) 장대현(章臺峴) 예배당에서 제1회 졸업식(卒業式)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졸업생은 7인이었는데 그 출신지는 한석진과 서경조는 의주(義州)였고, 양전백은 구성(龜城)이며, 길선주, 방기창, 이기풍, 송인서 4명은 평양(平壤)이었다. 연령별로는 서경조와 방기창이 58세로 가장 많았고, 한석진이

이 나라에 선교한 母敎會에 소속한 老會의 일원이 되어 안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노회 설립을 말하고 있다 [白樂濬, 『韓國改新敎史 1832-1910』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93), 406-407] .

102) 문백란은 박사학위논문에서 장로교공의회가 한국교회들의 上會로서 장로를 세우고 목사후보자를 뽑는 일을 맡아오다 독노회의 수립을 추진한 것은 목사안수가 장로교 체제에서는 노회에게만 고유하게 귀속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며 그 각주 537)에서 부흥운동이 독노회 구성에 필요한 장로들을 속성으로 배출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문백란, “한말 미국 복장로교 선교사들의 한국인식과 선교활동”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217] .

103)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16.

104) 蔡弼近, 『韓國基督教開拓者 韓錫晉과 그 時代』, 144.

105) William N. Blair, “Mission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KMF 11 (July, 1915), 190.

10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역사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 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203;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 기독교 100년사(1908~2008)』, 36; Jong Hyeong Lee, “Samuel Austin Moffett: His Life and Work in the Develop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890-1936”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1983), 148.



41세, 길선주, 이기풍, 송인서가 40세였고, 양전백이 39세로 가장 젊었다.¹⁰⁷⁾ 물론 평양선교부 신학반¹⁰⁸⁾은 한국 내에 있는 여러 장로교회 선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는 신학반은 아니었으나, 타 선교회에서 신학반 학생의 교육을 의뢰하게 됨으로써 점차 신학반 교육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신학반 졸업생이 배출되는 때를 맞추어 4개 장로교회 선교회는 평양 선교부 소속 신학반을 ‘조선장로교회신학교’(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라는 공식 명칭으로 부르기로 하였다.¹⁰⁹⁾ 이렇게 졸업한 7명을 목사로 임직시키기 위해서는 장로교회 헌법에 따라 노회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선교하는 4개 장로교회 선교회(공의회)는 본국 교단의 허가를 얻어서 4개 선교회가 하나의 노회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¹⁰⁾ 물론 제1회 노회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노회 설립에 대한 의견(意見)들은 공의회 안에서 상의(相議)하고 결의된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것들을 간추려서 연도별로 발췌(拔萃)하면 다음과 같다.

朝鮮自由長老會를設立할時에如何한性質로組織하는것이可合한지公議會가相議하고諸性質에對한基礎될幾個條文을議定한後聯合하는契約을定하고且朝鮮自由長老會高等會(老會가되던지大會가되던지總會가되던지)에서適用할政治를臨時提出한것은디詳細思究하기위한兩件을一年間留案한것은나라(一九〇五年英文會錄二九頁)一九〇五年에各宣教師의本國各會에서朝鮮聯合自由長老會設立을許諾한것은故로公議會에서左記와如히議定한것은나라(一九〇五年英文會錄三三頁)(一)一九〇七年에朝鮮耶穌教長老會를組織할事(二)此에對한準備委員을選定할일(三)老會를組織하는日에는朝鮮牧

107) 蔡弼近, 『韓國基督教開拓者 韓錫晉과 그 時代』, 125;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37.

108) 마펫(Samuel A. Moffett)이 1901년 자기 사랑에 김종섭, 방기창 두 사람을 데리고 시작한 신학반이었다. 1901년 2명으로 시작한 평양 선교부의 신학반은 1902년에 6명으로 늘어나고, 1904년에는 19명, 그리고 1905년에는 3학급이 되면서 40명으로 학생 숫자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마펫은 1904년부터는 타 선교회에 교수 요원을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평양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과 서울에 거주하던 북장로회의 언더우드, 남장로회의 전킨(William M. Junkin: 전위렴), 캐나다 장로회의 푸트(W. R. Foote: 부두일)등이 가세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주노회 제주기독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 기독교 100년사(1908~2008)』, 35].

10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역사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 상, 203;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 기독교 100년사(1908~2008)』, 36, Jong Hyeong Lee, "Samuel Austin Moffett: His Life and Work in the Develop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890-1936", 150.

11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역사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 상, 203.



師를將立 할터인디該牧師는傳道牧師로將立 할일(一九〇五年英文會錄三七頁)公議會에서作定하기를老會가組織後에는朝鮮語公議會는廢止되고老會總代員은牧師,長老만許諾할것이오該總代員에게는言權及投票權이잇는니라(一九〇六年英文會錄二四頁)老會組織節次委員이左와如히作定하였는니라(一九〇六年英文會錄二四頁)(一)今年公議會長輩裕祕¹¹¹⁾氏가老會開會講道를 할事(二)來年公議會會長이老會開會時會長의職務를行하되先次組織할老會의性質과如何한模樣으로組織할것과組織에基礎되는道理를簡短히說明한後祈禱로老會를設立하고老會의組織된것을公布 할事其後에老會가合當한任員을選舉할거시오該職員等이即時視務할事(三)公議會는老會에請願을提出하야神學을卒業한牧師候補者를試驗하기를要求할거시오該試驗을公議會神學教育委員이主管할것試驗을畢한後에老會가採納하면該候補者等을傳道牧師로將立 하는것이可함(四)老會開會前에神學教育委員은可合한牧師候補者에게講道一度와解釋文一度를準備케 하야老會開會時에老會에提呈할것¹¹²⁾

위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어 어투(語套)로 풀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자유 장로회를 설립할 때에 어떠한 성질로 조직하는 것이 합당한지 공의회가 서로 상의하고 모든 성질에 대하여 기초가 될 몇 개의 조문을 의논하고 정해서 연합하는 계약을 정하고 또 조선 자유 장로회 고등회(노회가 되든지 대회가 되든지 총회가 되든지)에서 적용할 정치를 임시 제출하였는데 상세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두 건을 일 년간 유안하였다(1905년 영문회록 29쪽). 1905년에 각 선교사의 본국 각 회에서 조선 연합 자유 장로회 설립을 허락한 까닭에 공의회에서 왼쪽에 기록한 것과 같이 의논하여 정하였다(1905년 영문회록 33쪽). (일) 1907년에 조선예수교장로회를 조직할 일. (이) 이에 대한 준비위원을 선정할 일. (삼) 노회를 조직하는 날에는 조선목사를 장립할 것인데 그 목사는 전도목사로 장립할 일(1905년 영문회록 37쪽). 공의회에서 작성하기를 노회가 조직된 후에는 조선어 공의회는 폐지되고 노회 총대원은 목사, 장로만 허락할 것이요. 그 총대원에게는 언권 및 투표권이 있다(1906년 영문회록 24쪽). 노회 조직 절차위원이 왼쪽과 같이 정해졌다(1906년 영문회록 24쪽). (일) 금년 공의회 회장 배유지씨가 노회 개회 설교를 할 일. (이) 내년 공의회 회장이 노회 개회 시 회장의 직무를 행하되 먼저 조직할 노회의 성질과 어떠한 모양으로 조직할 것과 조직에 기초가 되는 도리를 간단히 설명한 후에 기도로 노회를 설립하고 노회가 조직된 것을 공포할 일. 그 후에 노회가 합당

111) 祕, 이 글자는 ‘귀신 비’라는 한자(漢字)로서 輩裕祕(배유비)는 배유지(裴裕祉, Eugene Bell)의 한자명(漢字名)을 곽안련(郭安連)이 『長老教會史典彙集』에 잘못 기재한 것이다(필자의 주). 배유지(裴裕祉)선교사의 묘지석(墓地石)에 정확하게 배유지(裴裕祉)라고 새겨져 있다. 묘지석에는 ‘EUGENE BELL 裴裕祉 1868-1925’로 되어있음 [<http://ykdc.org/ytboard/view.php?id=photo&no=229>] .

112) 郭安連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41-46.



한 임원을 선거할 것이고 그 직원 등이 즉시 시무할 일. (삼) 공의회는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신학을 졸업한 목사 후보자를 시험하기를 요구할 것이고 그 시험을 공의회 신학교육위원이 주관할 것. 시험을 마친 후에 노회가 받아들이면 그 후보자들을 전도목사로 장립하는 것이 옳음. (사) 노회 개회 전에 신학교육위원은 합당한 목사 후보자에게 설교 한 편과 해석문 한 편을 준비케 하여 노회 개회 시에 노회에 제출할 것.¹¹³⁾

위 글을 살펴보면 공의회는 1907년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기 2년 전인 1905년부터 구체적으로 노회 설립을 상의하고 준비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노회를 어떤 성질(性質)로 조직할 것인가를 상의했다. 또 선교사들의 본국으로부터 노회 설립의 허락¹¹⁴⁾을 받았으며, 노회 설립 준비위원도 선정해 놓았다. 또 노회가 설립이 되면 한국말로 모이는 공의회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1906년에는 노회가 설립되는 개회시(開會時)의 순서 담당자를 선정하고 그 말은 일까지 정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한국인 목사를 장립하는 일이었다. 노회를 설립하는 그때를 맞추어서 신학 졸업자들을 시험(試驗) 볼 것이고, 목사 안수 여부를 확인할 시험 주관은 신학교육위원에게 맡기는 등 목사 안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목사로 장립할 때에 전도목사로 허락한다는 조건도 달고 있다. 또 노회가 개회하기 전에 목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설교 한편과 그 해석문(解釋文)을 준비해서 노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모든 사항을 살펴볼 때에 제1회 노회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국인 목사 후보자를 안수하는 일이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노회 설립을 공의회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노회를 설립하는 일은 선교사들에게도 한국에서의 선교의 결실을 보는 일이었기에 여러 해 전부터 많은 기대를 갖고, 철저히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회 설립은 한국인 목사를 세워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한국인 목사가 목회하는 한국 교회를 천명(闡明)하는 일이었다. 이런 교회가 진정 한국 교회로 자립된 교회라고 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13) 필자의 풀이.

114) 미국 장로회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the PCUSA)는 1905년 5월 24일에 마침내 한국에서 독노회를 조직하는 계획을 허락했으며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다른 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연합하도록 권위를 부여했다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PCUSA, 1905, 118, 124*] ; Jong Hyeong Lee, "Samuel Austin Moffett: His Life and Work in the Develop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890-1936", 147에서 재인용] .



한국 교회가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게 되는 이유를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 바로 제1회 독노회 회록의 서문(序文)이다. 제1회 노회록의 서문은 제1회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7명의 학생 중 한 명이며, 제1회 노회 때에 안수 받게 되는 일곱 명 중 한 사람인 길선주가 작성하여¹¹⁵⁾ 노회 시에 포고(布告)하매 채용(採用)하기로 결정되었다.¹¹⁶⁾ 제1회 독노회의 회록 서문은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의 독노회가 시작이 되었고, 왜 노회를 설립하게 되었는지와 노회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이제 것처럼 소중한 자료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제1회 독노회 회록 서문을 원문(原文) 그대로 소개한다.¹¹⁷⁾

대한국 예수교 장로회 노회 회록서문

신령하고 크도다 이 아름다운 노회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스도와 문도를 택명하여 세우샤 천국의 복음을 천하에 전하여 만민의 영혼을 구원케 하셨스니 주 예수에게 직분을 받은 스도와 문도들이 주께서 승전하실때에 특별히 명령하심을 삼가 직히 예루살렘 다락에 일제히 모여 마음을 갓치하고 기도를 힘써 하느님의 허락하신 성신의 권능을 충만히 받은 후에 능히 각국 방언을 말하고 모든 이적을 베풀며 천하 각국에 헤여져 복음을 전할시 회기하고 주를 믿는 자에게 주의 일함으로 세례를 주어 문도를 삼으며 믿는 형제 중에 사움을 택하여 장로와 목사를 세워 교회를 치리케 하였스니 넷적에 안디옥에서 총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과 바나바와 믿는 두어 형제가 예루살렘 본교회에 여러 목사와 장로들과 훈가지로 모여 교회에 맛당히 직할 규모를 의논하여 작명하였스니 이 거시 실노 노회의 시작이라 만유의 주지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갑하신 사랑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씨의 넓으신 은혜와 보혜스 성신의 크신 권능을 할넬누야 찬송하리보다 우리 대한 인민들이 하느님을 아지못하고 사신과 우상을 섬기매 장차 하느님의 형벌을 피할수업더니 준비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나라 인민을 도라보샤 미국 남 장로교회와 북 장로교회와 영국 오스트렐냐 장로교회와 가나나 장로교회의 주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감동시혀 이 네곳 교회 총회로 선교사를 택명하여 이 곳에 보내시매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선교사들이 갑신년에 이 곳으로 나와 도를 전한지 이십삼년 동안에 회기하고 주씨로 도라온자가 근지 십여만명이라 곳곳이 장로를 장립하며 교회를 설립하여 영미량국 선교사들과 한국 각처 장로들이

115) 채필근은 그의 책, 『韓國基督教開拓者 韓錫晉牧師와 그 時代』에서 회록 서문을 韓牧師와 吉善宙牧師 양인이 함께 기초하였다고 하였다 [蔡弼近, 『韓國基督教開拓者 韓錫晉과 그 時代』, 146] .

116)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21.

117) 위의 책, 1.



모혀 교회 일을 의론하나 그러나 아직 한국 목사를 장립치못함으로 노회를 일으키 못하고 그 회 일홈을 장로공의회라 칭하고 저간에 십오초를 모히더니 하나님씩서 은혜를 풍부히 주심으로 수년전에 미국 남 장로교회와 북 장로교회와 영국 오스트렐냐 장로교회와 가나다 장로교회 이 네곳 총회에서 특별히 대한국 장로회 노회를 세우기로 허락한고로 장로 공의회 회장 마포삼열 목사씩서 네 곳 총회의 권을 얻어 한국 교회에 노회 되는 취지를 설명하시되 이 노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십자가를 튼튼히 의지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말고 세상 사름 압헤 영화로운 빛치 되며 하나님 압헤 거룩하고 정결한 노회를 일으켜야 하겠다 하시고 주강성 일천 구백 칠년 구월 십칠일 오정에 한국 노회를 설립한후에 대한에 신학교 졸업학사 일곱 사름을 목사로 장립하고 대한국 예수교 장로회 노회라 하였스니 이는 실로 대한국 독립 노회로다 할넬누야 찬송으로 성부 성자 성신님씩 세세토록 영광을 돌니세 아멘¹¹⁸⁾

길선주는 회록 서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형제 두어 사람과 예루살렘 공의회에 올라간 것¹¹⁹⁾을 안디옥교회의 총대로 예루살렘 본교회의 여러 목사와 장로들과 여러 가지 지킬 일을 의론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며 그것이 노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길선주는 노회 서문에서 선교사들이 갑신년(甲申年)¹²⁰⁾에 한국에 나와서 복음을 전한지 23년 동안에 믿는 사람이 10여만명이 되어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설립하여 영미 양국 선교사들과 한국 각처의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 일을 의론하나 아직 한국 목사를 장립하지 못함으로 노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장로공의회라고 칭하였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안수 받은 한국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노회를 조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목사로 장립(將立)할 수 있는 신학교 졸업학사 일곱 사람이 있으니 1907년 9월 17일 오전에 한국 노회를 설립한 후에 그 일곱 사름을 목사로 장립하고 대한국 예수교 장로회 노회라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대한국 독립 노회라고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성부, 성자, 성신께 영원토록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1회 독노회는 1907년 9월 17일 오전9시에 평양 장대재예배당에서 78인¹²¹⁾의 회원이 모

118) 회록 서문 중에 한 줄 밑줄 친 단어는 사람 이름을 나타내고, 두 줄 밑줄 친 단어는 나라 이름이나 장소를 표시하는 당시의 구분 방식이었다. 이전에 많이 사용하던 국한문(國漢文)혼용(混用)성경(聖經)도 이런 전통을 따르고 있다(필자의 주).

119) 행15:1-21.

120) 여기서 말하는 갑신년(甲申年)은 1884년이다(필자의 주).

121)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5. “지정훈측 서국 회원은 三十八인이요 한국 회원은 四十인” 제1회 독노회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한국 회원이 과반(過半)을 넘은 40인이었다. 숫자상으로는 한국 회원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1912년 제1회 총회



여서 개회되었다.¹²²⁾ 이 때 초대 노회장(老會長)으로는 마삼열(馬三悅), 서기는 한석진, 부서기는 송인서, 회계는 이길함(Graham Lee)이 선출되었다.¹²³⁾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외국 선교사와 한국 목사들이 함께 하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노회를 이루고 목사를 안수하여 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치리회인 노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1회 독노회가 설립됨으로 선교사 공의회에서 바라던 ‘장래의 정식 치리회’ 곧 ‘적법대로 설립한 치리회’를 갖게 되었다. 명실상부하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제1회 독노회가 설립이 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창립9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에서는 조선예수교장로회가 노회를 설립한 의미(意味)로 그 첫째는 조선예수교장로회가 크게 성장하였음을 의미하고 둘째는 선교사의 전적(全的)인 치리에 의존하던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과 협력하면서 신생 교회로서의 걸음마를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¹²⁴⁾ 이것은 한국 교회가 명실상부하게 한국 교회라고 하는 자립 교회의 첫 발을 내 디디게 된 것이다. 제1회 독노회의 조직은 한국 교회가 자립 선언으로 나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1907년에 제1회 독노회로부터 1912년 제1회 총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모두 5회에 걸친 독노회 시절의 임원 명단을 살펴보면 <표2>과 같다.

<표2> 한국 교회 독노회 시절 임원 명단(1907~1911)

	제1회 ¹²⁵⁾	제2회 ¹²⁶⁾	제3회 ¹²⁷⁾	제4회 ¹²⁸⁾	제5회 ¹²⁹⁾
회장	마삼열	그일	원두우	그일	리눌서
부회장	방기창 ¹³⁰⁾	리눌서	리기풍	길선두	량던빅

를 설립할 때에는 목사의 합이 96인 인데, 그 중 외국 목사는 44인, 조선목사는 52인으로 과반을 넘어 8명이 더 많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1] .

122) 제1회 독노회 회의록은 노회가 개회할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다. “쥬강싱 일천 구백칠년 구월 십칠일 상오구시에 평양 장디재레비당에서 작년 공의회 회장 비유진 목스가 스도헝전 일장 팔절에 우리쥬 예수씨서 ㅁ즈막 분부ㅎ신대로 증언이라고 강도ㅎ후에 그일 목스는 썩을 가지고 축사ㅎ야 장로들노 난호며 비유진 목스는 포도즙을 가지고 축사ㅎ야 장로들노 돌녀서 성찬례식을 거행ㅎ니라 금년 공의회 회장 마삼열 목스가 로회 취지를 설명ㅎ논디 그 개의는 미국 남북 장로회와 영국 가나다와 오스트렐냐 장로회 네 곳 총회에서 었은 권리대로 여러 선교스를 디표ㅎ야 대한 예수교 장로회 로회를 창설ㅎ노라ㅎ고 기도ㅎ으로 기회ㅎ다”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4] .

123) 위의 책, 7.

12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역사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 상, 203-204.

125)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일회회록』 (1907), 6-7.



서기	한석진	한석진	한석진	한석진	한석진
부서기	송린서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
회계	리길함	리길함	리길함	사락수	사락수
부회계			김성택	김성택	김석창

위의 <표2>를 살펴보면 제1회 노회로부터 제5회 노회까지 회장은 모두 선교사들이다. 부회장은 제2회 이눌서¹³¹⁾를 제외하고는 한국인이고, 서기는 한석진이 5회에 연속 서기가 되었다.¹³²⁾ 회계는 모두 선교사들이 맞고 있다. 제3회 노회 때부터 한국인을 부회계로 두고 있다. 박용규는 이은선과 함께 편찬한 『총회100년 한국장로교회 회고와 전망』에서 제1회부터 제5회 노회의 임원의 구성을 보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독노회는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동참하는 조직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각각 임원진에 참여하여 리더십을 분담한데서 알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모두 선교사들이 맡음으로

126)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이회회록』 (1908), 3.

127)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삼회회록』 (1909), 31.

128)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스회회록』 (1910), 27.

129)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오회회록』 (1911), 65.

130) “會長은 宣教師馬布三悅副會長邦基昌書記韓錫晉副書記宋麟瑞會計宣教師李吉威이러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183]; 박용규와 이은선이 편집한 『총회100년 한국장로교회 회고와 전망』에는 제1회 독노회 부회장이 방기창으로 되어 있다 [박용규, 이은선 편, 『총회100년 한국장로교회 회고와 전망』, 142]; “그(방기창)는 1907년 독노회가 성립될 시 목사안수를 받으면서 최초로 부회장직의 중임까지 맡게 되었다.” [장로회신학대학, 『長老會神學大學七〇年史』 (서울: 성광인쇄사, 1971), 42], 그런데 제1회 독노회에서 회장과 서기와 회계를 선거할 때에는 부회장을 선거하지 않았다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이회회록』 (1907), 6-7; *Minute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1907)*, 21], 그런데 제1회 노회가 개최된 둘째 날인 1907년 9월 18일 오전8시45분에 속회된 이후에 “회장이 부회장 일인을 청원하시매 최익덕씨가 방기창씨로 선명하기를 동의하여 가로 결명”하였다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이회회록』 (1907), 12; *Minute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1907)*, 54].

131) 이눌서가 부회장이 된 것은 회장을 선거하고 난 다음에 길선주가 부회장은 다수표에 다음 되는 리눌서씨로 선거하기를 동의하여 가(可)로 결정하였다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이회회록』 (1908), 3].

132) 한석진은 1907년 제1회 독노회 서기가 된 후 1911년 제5회 독노회때까지 5대를 계속했고, 1912년 제1회 총회의 창설과 함께 다시 서기가 된다 [蔡弼近, 『韓國基督教開拓者 韓錫晉과 그 時代』, 19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리 회록』 (1912), 6.



주도권을 선교사들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기 전 일종의 정착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풀이된다. 셋째, 게일 선교사가 2회에 걸쳐 노회장에 피선된 것은 노회장이 단임제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다른 임직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서기의 경우는 한석진이 5년에 걸쳐 연임되었고 부서기에 김필수가 4년 연속으로 맡았으며 이길함이 회계를 3년 연속으로 맡았고 김성택이 부회계를 2년 연속으로 연임했다.¹³³⁾

제1회 노회에서 제5회 노회의 임원 구성을 살펴보면 5년 동안 회장만 선교사들이 계속 맡은 것이 아니라 회계(會計)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맡고 있다. 이것은 1912년에 총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도 몇 년간 계속된다. 한국인이 최초로 한국 교회의 총회장이 된 것은 1915년 9월 4일에 회집된 제4회 총회에서 김필수(金弼秀)가 처음이었다.¹³⁴⁾ 제4회 총회 회록에는 이 때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임원을 택하느니 회중이 투표하야 회장은 김필수시로 택명되미 김필수시가 고소함으로 회장이 회원중 二인으로 기도후 후 스면히지 아니함을 구하미 김필수시가 회중에 순복하느 뜻으로 회장의 직임을 담당하기로 허락하고”¹³⁵⁾ 회장에 당선이 되었다.

노회와 총회의 임원인 회계를 한국인이 맡기까지는 한국인이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되는 것보다 그 기간이 좀 더 길었다. 제5회까지 독노회의 회계를 선교사가 맡은 것뿐만 아니라 제1회 총회로부터 1919년 제8회 총회까지 선교사들이 맡았다. 회계를 한국인이 맡게 된 것은 1920년 10월 2일에 개최된 제9회 총회¹³⁶⁾에서 주공삼(朱孔三)이 회계가 된 때부터이다. 아마도 회계는 노회나 총회의 살림을 책임지는 중책(重責)이므로 한국인에게 맡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노회나 총회내의 선교를 전담했던 전도국은 그 임원 조직이 달랐다. 전도국장은 앞의 <표1>에 나타나는 것처럼 길선주였다. 그리고 회계는 한국 사람 박치록장로였다.¹³⁷⁾ 제1회 독노회 때에 전도국은 “원회계는 박치록씨로 택명하며 부회계는 방위량씨로 택명하기를 청원할일”¹³⁸⁾을 청원하게 된다. 전도국

133) 박용규, 이은선 편, 『총회100년 한국장로교회 회고와 전망』, 142.

13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대사회 회록』 (1915), 4.

135) 위의 책, 4-5.

13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대구회 회록』 (1920), 6.

137) “박치록장로를 전도국 회계로 또 택하기를 청원이오며”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대삼회회록』 (1909), 14].

138)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대일회회록』 (1907), 17.



의 회계는 한국 사람인 박치록이 되고, 부회계가 미국 선교사 방위량(邦偉良)이 된 것이다. 당시 제1회 독노회의 회계는 선교사 리길함이었고, 부회계는 두지를 앉았다. 부회계라도 한국 사람에게 맡기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전도국에서 회계를 한국 사람이 맡고, 부회계는 미국 선교사에게 맡겼다. 당시 전도국 위원은 “방위량, 김찬성, 리눌서, 길선주, 송순명, 박덕일, 량던빅, 소안론, 군례빈, 심취명, 하요한, 구례선”¹³⁹⁾ 이 중에서 리눌서(李訥瑞), 소안론(蘇安論), 군례빈(君芮彬), 구례선(具禮善) 등이 선교사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전도국 국장이나 회계를 맡은 것이 아니었다. 그 이유가 전도국이 노회의 한 부서라 선교사들이 부서의 국장이나 회계까지는 맡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부서의 장이나 회계를 선교사들이 맡지 않은 것이 아니다. 노회와 전도국의 국장과 회계, 부회계를 한국 사람이 맡은 것은 노회와 전도국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은 한국 사람들이 맡아서 자립으로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3회 독노회 때에 전도국장 길선주가 보고하기를 “전도국위원 방위량 김찬성 리눌서 량던빅 스씨는 기한이 되었소오며”¹⁴⁰⁾ 그런데 이 네 사람 중에서 김찬성, 양전백 두 한국 사람은 다시 제3회 독노회의 전도국원으로 들어온다.¹⁴¹⁾ <표 1>을 살펴보면 길선주는 제3회 독노회(1909) 때에 일년조였다. 그런 다음에 제4회 독노회(1910)에 다시 전도국위원 삼년조에 공천되었다. 그러니까 길선주는 전도국 일년조가 끝난 다음에 다른 부서로 간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전도국으로 들어간 것이다. 보통 어느 부서든지 처음으로 공천되면 삼년조가 되고, 그 다음해에는 이년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일년조가 된다.¹⁴²⁾ 그 다음 해에는 그 부서를 떠나 다른 부서로 공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길선주는 계속해서 전도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선주는 제4회 독노회(1910) 때에는 회중이 투표하여 노회의 부회장이 된다.¹⁴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전도국에 속하게 된다. 이것은 길선주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속해서 전도국위원으로 남기를 바랐기 때문일

139) 위의 책, 14, 17.

140)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삼회회록』 (1909), 13.

141) 위의 책, 31.

142) <표 1>를 살펴보면 김찬성은 제3회 독노회(1909) 때에 전도국 삼년조로 공천되었기 때문에 제4회 독노회(1910) 때에는 이년조가 되고, 그 다음 해인 제5회 독노회(1911) 때에는 일년조로 올라갔다(필자의 주).

143)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스회회록』 (1910), 4.



것이다. 이것은 전도국 내에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해보자는 자립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특별히 박치록은 제1회 독노회에서부터 제5회 독노회 때까지¹⁴⁴⁾, 그리고 제1회 총회에서 제3회 총회 때까지 회계를 맡다가 제4회 총회에서 사면되고 한국 사람인 이일영(李一永)으로 교체되기까지 계속해서 전도국 회계를 맡았다.¹⁴⁵⁾ 이렇게 노회와 총회의 전도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국장과 회계를 맡아서 제주에 이기풍을 파송하여 선교한 일이나, 중국 산둥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파송하여 선교하는 일을 주관하게 된 것이다.

B. 파송

1. 파송 동기

원두우(元杜尤, Horace Grant Underwood)는 1907년 9월에 조직된 제1회 독노회에서 회장이 된 마포삼열(馬布三悅, 馬三悅, Samuel Austin Moffett)로부터 노회 설립 후에 받은 편지에서 마삼열(馬三悅)은 “금년은 한국에 있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해(a great year)”라고 했다고 소개했다.¹⁴⁶⁾ 그렇게 뜻 깊은 해에 설립된 제1회 독노회에 대하여 곽안련(郭安連)은 제1회 독노회 때에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최초로 일곱 명이 목회를 위해서 안수 받은 사건¹⁴⁷⁾이고 또 다른 큰

144)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7;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이회회록』 (1908), 19;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삼회회록』 (1909), 13;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삼회회록』 (1909), 33;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스회회록』 (1910), 29;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오회회록』 (1911), 67.

14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3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12.

146) Horace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172.

147) 제1회 독노회가 개최 될 때에 공의회 서기였던 리눌서(李訥瑞, W. D. Reynolds)는 그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무척 상세하고 감동적으로 소개했다. “1907년 9월 17일 오후 7시 30분. 모든 관심의 절정인 한국 장로교회의 첫 열매들인 전도사 일곱 명의 형제들을 목사로 안수하는 시간이 되었다. 회장이 일곱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마쳤음을 선포하였다. (중략) 이들은 오년 이상의 신학 과정을 마치고 조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였다. 이들 일곱 명이 다 일어나서 거룩하게 목회 사역을 위해 선서를 하였고, 장로회의 규칙에 충성하기로 선서하였다. 일곱 명은 무릎을 꿇었



사건은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국(the 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n Church)¹⁴⁸⁾의 설치와 고귀한 일곱 명의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을 해외 선교사(a foreign missionary)로 파송하기 위하여 따로 세운 일이라고 말한다.¹⁴⁹⁾ 그러면 한국 교회는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왜 제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인가? 한국 교회가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처음으로 안수 받은 일곱 명의 목사 중에서 이기풍을 제주로 파송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인가?

a. 노회의 설립을 축하하는 기쁨의 표시

곽안련(郭安連)은 1907년에 한국 교회가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제주에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장로교회는 설립이 된 때부터 특별히 1907년도에 자치적이며 독립적인 교회로서 노회가 설립된 이후로 거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조직이었다. 1907년에는 교회가 전국적인 조직을 설립하게 된 일에 대한 그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국의 남쪽 황해 바다에(in the Yellow Sea) 있는 켈파트(Quelpart)¹⁵⁰⁾라는 큰 섬에서 “해외 선교사”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큰 헌금을 거두게 되었다. 그 해(年)에 한국 교회는 단지 일곱 명의 목사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저 너머의 지역

고 회원들이 이들을 둘러서서 각각 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회장이 거룩한 성별의 기도를 하였다. 그런 다음에 각 회원들이 새로 안수 받은 목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대로 돌려가며 오른 손으로 친교의 악수(갈2:9)를 하면서 사랑스러운 환영의 말과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진심어린 격려가 이어졌다. 악수례가 끝나고 게일(J. S. Gale)과 리놀서(W. D. Reynolds)가 새로 안수 받은 목사들에게 간단한 권면을 하였다. (중략) 일곱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서경조목사가 축도를 하였다.”[W. D. Reynolds, “The Presbytery of Korea,” KMF 3 (November, 1907), 163].

148) 제1회 노회에서 傳道委員을 外地傳道局(외지전도국)으로 變更하고 局員은 12인으로 定하였다[郭安連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49].

149) Charles Al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7), 160; 곽안련 저, 박용규, 김춘섭 옮김,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89-90.

150)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은 제주를 켈파트 섬(the Island of Quelpart)라고 불렀다 [William N. Blair, “Mission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90]; Miss Julia Martin, “Three Pictures,” KMF 7 (June, 1911), 172;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ume 1 1884-1934*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84), 392.



(regions beyond)”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쁨으로 내주었다.¹⁵¹⁾

곽안전(Allen D. Clark)도 제1회 독노회에서 12명으로 구성된 해외선교국(a Board of Foreign of the Church, 외지전도국)이 세워지고, 새로 안수 받은 일곱 명의 목사들 중에서 한 사람, 이기풍을 제주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 일을 새로운 노회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한 감사의 헌물로 여겼다고 말한다.

노회에 12명의 외지전도국(a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Church)이 설립이 되었다. 새로 안수 받은 일곱 명의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인 이기풍이 제주 섬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일은 새로운 노회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한 감사의 헌물(a thank-offering)로 전국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 여겨졌다.¹⁵²⁾

채필근(蔡弼近)은 제1회 독노회가 제주로 이기풍을 파송한 것은 노회의 설립을 감사하며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의미에서 목사 안수 받은 7인 중에 이기풍을 선교사로 선정하여 제주에 파송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하였다.¹⁵³⁾ 박기호도 한국 교회가 열강들의 간섭과 침략으로 국권이 상실되어가던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외지 선교를 위해 일곱밖에 안 되는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독노회를 조직하게 된 데 대한 교회의 기쁨의 표현이요 받은바 축복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시라고 하였다.¹⁵⁴⁾ 방위량(邦偉良, William N. Blair)은 1907년에 설립된 제1회 독노회 설립의 시점을 평양신학교가 첫 번째로 일곱 명을 졸업시키고 3개월 후(後)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에 그 일곱 명의 졸업생 중에 한 사람, 이기풍이 켈파트(Quelpart) 섬의 전도자와 선교사로 안수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¹⁵⁵⁾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아직 단 한 명의 한국 목사들이 없었지만 이제 일곱 명이나 목사로 안수를 받아

151) C. A. Clark, “The Missionary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69.

152) 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1), 173.

153) 蔡弼近, 『韓國基督教開拓者 韓錫晉과 그 時代』, 133.

154)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1999), 53.

155) William N. Blair, “Mission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90.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해서 명실상부하게 한국 교회의 노회가 된 이날은 참으로 뜻 깊은 날이니, 이 날을 기념해서 그 일곱 명 중에 한 사람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제 주로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b.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헌물

곽안전(郭安全)은 한국 교회가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은 노회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주님께 드린 감사의 헌물(a thank-offering)이라고 말한다.¹⁵⁶⁾

이기풍을 선교사를 지명하는데 대해서 중요한 점은 한국교회가 그들이 받은 복에 대해 그리스도에게 깊은 감사의 빚진 마음을 느꼈으며, 새롭게 안수 받은 고귀한 일곱 명의 목사들 중에서 한 사람을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역을 위하여 봉헌하였고,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주님께 드리는 그들의 감사의 헌물(thank-offering)로 삼았다.¹⁵⁷⁾

한국 교회가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이기풍을 선교사로 제주에 파송한 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드린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산동 선교도 다르지 않다. 방효원은 『계자씨』에 실린 글에서 산동선교에 내린 주의 축복, 네 가지를 언급하는 데 그 첫째는 창설(創設)의 축복이요, 둘째는 물질의 축복이요, 셋째는 신령(神靈)한 방면(方面)의 축복이고, 네 번째는 실제적(實際的)인 면(面)의 축복이라고 했다.¹⁵⁸⁾ 그러면서 산동선교(山東宣敎)는 한국 교회의 ‘감사(感謝)의 헌물(獻物)’로 되었다고 역설(力說)하면서 주의 자녀들이 일 년 간에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는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⁵⁹⁾ 이것은 산동선교의 선교비가 각 교회들이 감사 일에 드린 헌금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곽안전의 글과 방효원의 글을 살펴보면 한국 교회는 제주와 산동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새롭게 목사로 안수 받은 일곱 명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로 드리고,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선교비는 온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 받은 축복을

156) 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173.

157) 위의 책, 174.

158) 방효원, “山東宣敎에 對하여,” 『계자씨』 제66호(1937. 2), 30-36.

159) 위의 책, 31.



감사하는 ‘감사의 헌물’로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c. 영적인 빛을 갠 심정

제1회 독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노회 때 노회록 서문을 포고(布告)했던 길선주는 복음에 빛진 우리 민족이 빛을 갠 길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라 여겼다.¹⁶⁰⁾ 제1회 독노회가 조직이 되자마자 바로 결정하고 시행한 가장 중대한 일은 선교였다. 외국 선교사들을 통한 복음전도로 교회가 설립되고 노회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도의 빛을 진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착안한 것이 선교였다. 이로서 한국 교회는 주께로부터 받은 대 사명을 수행하는 선교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¹⁶¹⁾ 또 이것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립하였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었다.

제1회 독노회가 설립되면서 회장이 된 마포삼열은 노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노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십자가를 튼튼히 의지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말고 세상 사름 압헤 영화로운 빛이 되며 하느님 압헤 거룩하고 정결한 노회를 일우어야 하겠다”¹⁶²⁾고 하였다. 마포삼열의 이런 노회 설립의 취지 설명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존재여야 하며 또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세상의 빛이다. 마포삼열의 노회 설립의 취지는 교회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1회 독노회가 설립되면서 한국 교회는 노회 설립을 기념하는 기쁨과,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그동안 받은 영적인 빛을 갠 심정으로 이제는 우리도 제주에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요 그렇게 자립한 교회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2. 파송 제의

160) 길진경, 『길선주』 (서울: 두란노서원, 2007), 168.

161)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8), 146.

162)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3, 4.



한국 교회가 제1회 독노회를 조직하면서 제주에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러면 제1회 노회를 설립하면서 제주로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제의(提議)는 과연 누가 시작한 것인가?

a. 길선주의 제의

길선주의 아들 길진경은 길선주가 선교사 파송을 노회에 제의했다고 한다. 길선주 목사는 복음에 빛진 우리 민족이 빛을 갠 길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라 여겼다. 노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미 시베리아, 중국의 남북 만주, 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 전도 사업을 펼치고 있었으나 정식으로 목사를 파송한 것은 처음이었다. 길목사가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제의했던 것은, 그때부터 중국 산둥성에 선교의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⁶³⁾ 길선주가 1907년 9월 17일에 개최된 제1회 독노회가 개최된 지 이틀 후(後)가 되는 1907년 9월 19일¹⁶⁴⁾ 노회에서 전도국 위원으로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할일”과 “선교사는 이기풍씨로 전도인 훈두 사림과 동반하야 파송할일”¹⁶⁵⁾ 등을 보고하게 된다. 이것을 길진경은 길선주가 제주 선교사로 이기풍을 파송하도록 제의했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길선주 개인의 제의라고 보기보다는 전도국 전체의 제의요, 전도국의 청원이라고 본다.

b. 한국 교회가 제의

허순길은 제1회 독노회가 제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한국 교회의 착안’¹⁶⁶⁾이라고 말한다. 허순길은 전체 교회를 지칭해서 한국 교회라고 본 듯하다. 허순길의 한국 교회라는 표현이 모호한듯하지만 이것은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제1

163) 길진경, 『길선주』, 168.

164)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대일회회록』 (1907), 16.

165) 위의 책, 16-17.

166)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146.



회 독노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더 좁혀서 말하면 제1회 독노회 안에 있는 전도국이다. 제1회 독노회가 조직되면서 전도국이 제주로 이기품을 선교사로 파송하자고 제안하고, 독노회는 이 제안을 결의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전국의 모든 지교회들이 헌금으로 동참하게 된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제주로 이기품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한국 교회의 착안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3. 파송 청원

1907년 9월 17일에 개최된 제1회 독노회가 개최된 지 이틀 후(後)가 되는 1907년 9월 19일 오전8시45분에 평양 장대재예배당에서 회장 마삼열(馬三悅)의 사회로 속회된¹⁶⁷⁾ 노회의 셋째 날에 전도국 위원(당시는 전도회 위원) 길선주가 다음과 같은 7가지를 보고한다.

一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할 일 二 선교사의 월은과 전도 용비는 각 교회의게 감사헌 무음으로 연보할 일 三 연보할 때는 각 교회에서 연보할 편지 보는 주일에 광고하고 그 다음 주일에 연보할 일 四 제주 선교사는 리기풍씨로 전도인 한두 사람과 동반하여 파송할 일 五 원회게는 박치록씨로 턱덩히며 부회게는 방위량씨로 턱덩히기를 청원할 일 六 전도국 위원 아홉 사람 받게 경상도 심취명 전라도 하요한 함경도 구례선 삼씨를 더 선덩히기를 청원할 일 七 제주 선교사와 전도인 월급 받쳐 리왕비와 가샤비와 전도회 인허 특별비를 본 전도국에서 지출할 일¹⁶⁸⁾

이상 일곱 가지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할 것을 청원하고 있다. 둘째로 선교사의 월신수비(薪水費)와 전도 용비(用費) 마련에 대한 계획이 나왔다. 그것은 각 교회의 감사헌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선교비로 사용된 감사헌금의 모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노회가 각 교회에 선교비 마련을 위한 연보(捐補)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고, 교회는 노회의 편지를 받아서 광고하고, 그렇게 광고한 다음 주일에 헌금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네 번째로 제주에 보낼 선교사로는 이기품을 청원하고 있다. 이것은 전도국이 노회 석상에서 보고하기 이전에 이미 전도

167)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6.

168) 위의 책, 16-17.



국 내에서는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파송 청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전도국의 보고에서 제주 선교사로 이기풍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인 한 두 사람까지 동반하여 보낼 것을 청원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제주 선교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도국 내의 회계와 부회계를 선정하였음을 보고하고, 전도국원의 보강을 요청하여 3인의 추가 허락 청원을 하고 있으며 끝으로 제주 선교사 월급 밖에 내왕비와 가사비를 전도국에서 지출할 것을 청원하고 있다. 제1회 독노회의 회록은 전도국 위원 길선주의 이상 7가지의 보고가 결의되는 순간을 “회장이 우항의 칠도를 일일이 무르스매 회중이 동의하야 가로 결명하다”¹⁶⁹⁾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1회 독노회가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청원이 결정되게 된다. 그런 다음 곧바로 “전도국 위원 량던빅씨가 각 교회의 제주 연보할 편지를 포고하매 한위렴씨가 이 편지를 치용하야 서기로 속히 간출하야 헛치게 하기를 동의하야 가로 결명하다”¹⁷⁰⁾ 또 “한위렴씨가 지정 위원이 각항 용비를 예산하야 보고하기를 동의하야 가로 결명하다”¹⁷¹⁾ 이렇게 제주 선교는 진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제주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선교비는 한국 교회 내의 각 교회들의 연보로 감당하겠다는 점이다. 전도국은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보낼 때에 드는 모든 경비, 곧 선교사의 월급이나 전도인의 월급을 등을 각 교회가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제주 선교를 하겠다는 것이다. 각 교회의 헌금 이외에 다른 어떤 재원(財源)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다. 이 일을 위해서 제1회 독노회 내의 전도국 위원 중의 한 사람인 양전백은 이미 각 교회에 보낼 제주 선교를 위한 헌금해 달라는 편지를 만들어서 노회에서 발표하였다. 그러자 당시는 전도국 위원은 아니었던 한위렴(韓衛廉)¹⁷²⁾이 그 편지를 채용하여 속히 간출(刊出)하여 각 교회로 보내기를 동의하여 결정한다. 한위렴은 걱정이 되었는지 재정위원이 각 항의 용비(用費)를 계산하여 제주 선교에 필요한 예산을 보고하도록 동의(動議)하여 결정하였다. 이렇게 제주 선교에 필요한 선교비는 각 교회가 헌금해서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한국 교회가 자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제1회 독노회에서 결정된 이후에 한국 교회는 외부의 그 어떤 도움도 없

169) 위의 책, 17.

170) 위의 책,

171) 위의 책, 18.

172) 한위렴(韓衛廉)은 앞의 <표1>에서 살펴보면 제1회 독노회에서 제5회 독노회까지 독노회 시절에는 전도국 위원이 된 적이 없다(필자의 주).



이 제주 선교에 필요한 선교비를 각 교회들이 헌금하고, 각 교회 내의 여전도회 등이 헌금하고, 심지어는 학생들까지 헌금하여 능히 감당하였던 것이다.

C. 선정

1. 파송지 선정: 제주를 해외선교지로 보는 이유

한국 교회는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이기풍을 해외선교사라고 하면서 제주로 파송하였다. 그러니까 이기풍을 제주로 파송한 것을 그 당시 한국 교회는 해외선교로 인식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제주 선교를 해외선교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를 해외선교지로 보는 이들은 주로 당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었다. 선교사들은 제주를 해외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제주로 보내는 이기풍을 해외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다. 곽안련(郭安連)은 제주도로 이기풍을 보낸 일을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사업(a "Foreign Mission" project)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⁷³⁾ 그러면 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제주를 왜 해외선교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a. 거리 등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제주도를 해외선교라고 보는 이유는 기차가 생기기 전 그 당시 제주는 미국보다도 더 멀리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¹⁷⁴⁾ 곽안련(郭安連)은 제주를 소개하기를 한국의 남쪽, 황해 바다에 켈파트(Quelpart)¹⁷⁵⁾라는 큰 섬이 있는 데 한국 사람

173) Charles Al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242.

174) 위의 책,

175) 당시 외국인들은 제주도를 켈파트(Quelpart)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제주를 그렇게 부르게 된 시작은 프랑스 항해사들 때문으로 여겨진다. “제주도는 본토에서 증기선으로 약12시간 정도 걸리는 커다란 섬으로 목포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신들이 당시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프랑스 항해사들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디라고”(Quelparte)하고 소리쳤다. 이렇게 하여 제주도는 Quelparte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Anabel Major Nisbet, *Day In and Day Out in Korea*, 한인수 역, 『호남 선교 초



들은 제주라고 부른다. 이 섬에는 거의 10만 명¹⁷⁶⁾이 살고 있는 데 그곳에 사는 주민은 비록 한국 사람들이지만 본토와는 거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 또 이 섬은 여자들이 남자의 일을 하고, 깊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며 근처 해안에서 여러 시간을 깊이 잠수해서 고기를 잡으며 해안에서 조개와 다른 수산물을 잡으며 생활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곳에는 그 어떤 기독교 사역(Christian Work)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⁷⁷⁾고 말한다.¹⁷⁸⁾

곽안련의 아들인 곽안전(郭安全, Allen D. Clark)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기 역사(1892-1919)』(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8), 88], 『제주 기독교100년사』는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제주도를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Cyprus) 섬으로 인식하고 켈파트(Quelpart)라고 불렀다.”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 기독교 100년사』, 19에서 재인용],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1630년에 동아시아 지역을 운항하는 배를 건조하고서 그 배의 이름을 (t' Galjodt Quelpart)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배가 일본으로 가다가 1642년에 제주를 발견하고서 제주도를 배의 이름을 따서 Quelpart라고 하였다. 그 후 하멜이 1653년에 8월 18일에 제주도에 도착하여 해도에 나오는 좌표와 일치하는 것을 알았으며, 나중에 하멜이 자신의 표류기에 제주도를 Quelpart라고 기록함으로써 17세기 중반 이후로 서양인들에게는 제주도가 Quelpart로 알려지게 되었다(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제주: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pp. 427-428) [제주노회 제주기독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 기독교 100년사』, 43에서 재인용] .

176) 『제주 기독교 100년사(1908~2008)』는 제주 인구 10만 명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제주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던 시기에는 제주도까지의 거리가 목포에서 240km 혹은 48km이며 인구는 10만 명이라고 보기도 하였다.”고 하며 1900년 제주도 인구를 4만 명으로 보았다 [유홍렬, 『천주교회사』, 하권 (서울: 분도출판사, 1962), 361] ;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 기독교 100년사』, 20에서 재인용.

177) 제주도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외국 선박들의 표류로 인하여 외국인 접촉이 가끔씩 있었으나, 이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다가 1899년 로마 가톨릭의 선교로부터 기독교 전래가 시작된다. 배가록(Jean Charles Peynet) 신부와 김원영(아오스딩) 신부가 선교를 시작하였으나 배가록 신부는 제주도 풍토에 맞지 않아서 타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1900년에 구마술(Marcel Lacrouts) 신부가 도착하였고, 1901년에는 문제만(Jean Germain Mousset) 신부가 도착하여 선교에 임하였으며, 1901년에 세례 받은 신자가 242명, 예비신자가 700명에 이름으로써 가톨릭 선교는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유홍렬, 『천주교회사』, 하권, 361] ;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 기독교 100년사』, 20에서 재인용, 그러다가 1901년 흔히 말하는 ‘신축교난’ 혹은 ‘이재수의 난’을 통하여 가톨릭 선교가 주춤할 즈음인 1908년에 이기풍 목사의 입도(入道)와 선교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다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 기독교 100년사』, 21] .

178) Charles Al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160.



제주는 그 당시까지는 그 어떤 기독교 사역도 행해지지 않았고, 본토로부터 너무 멀어서 그 문화나 방언들이 본토와는 크게 달랐다.¹⁷⁹⁾ 제주도가 한국 땅인데도 그 곳에 보내는 목사를 선교사라 부른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제주도는 다른 나라처럼 외진 섬이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⁸⁰⁾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남단 끝에 있는 절해고도(絶海孤島)일 뿐 아니라, 제주도는 분명 한 민족이면서도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달랐고, 제주도는 마치 외국처럼 멀리 떨어진 섬이었다.¹⁸¹⁾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은 제주로 이기풍을 파송할 때에 그를 해외선교사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b. 전적인 선교비 후원으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곽안련(郭安連)은 제주가 최초의 해외 선교지(a field)로 선택되었고, 이기풍이 선교사로 보내졌다고 말한다.¹⁸²⁾ 제주 선교 사역을 해외선교로 보는 이유는 다른 모든 해외선교 계획이 그래야하듯이 전적으로 선교비 후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⁸³⁾ 그러나 그런 곽안련도 실제적인 해외선교 사역은 1913년의 중국 산둥선교를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¹⁸⁴⁾ 그러나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는 제주가 너무 멀고, 또 문화와 언어도 육지와는 많이 다르긴 해도 제주를 해외, 곧 다른 나라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한국 교회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우선은 이 땅에서 땅 끝과 같은 지역인 제주로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c. 교단 차원에서 이뤄진 공식적인 선교였기 때문에

안교성은 한국 교회의 선교의 기원을 어디로부터 잡아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주 선교를 한국 교회의 선교의 기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주장 중에

179) 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173.

180)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146.

181) 정석기, 『위대한 선교사열전』, 34-35.

182) Charles Al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160-161.

183) 위의 책, 160.

184) 위의 책, 242.



하나는 제주 선교는 한국 교회의 교단차원에서 이뤄진 선교이기에 한국 교회의 선교 기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한다.¹⁸⁵⁾ 그 한 사람으로 변창욱을 소개한다. 변창욱은 한국 교회가 1902년 인천 내리 감리교회의 하와이 선교는 교단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서 교단 차원에서 이뤄진 제주 선교를 한국 교회의 선교의 기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입장이다.¹⁸⁶⁾ 김창영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1907년에 한국 장로교회가 켈파트섬(제주)으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공식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¹⁸⁷⁾고 하였다.

2. 선교사 선정

한국 교회는 1907년 9월 17일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객안련은 『長老教會史典彙集』에서 1907년 9월 17일 전일(前日)에 준비한대로 朝鮮全國獨老會(조선전국독노회)가 평양에서 조직되었고 이 때 전도국에서 제주에 선교사를 파송하되 선교사는 이기풍씨 내외로 선정(選定)하였다¹⁸⁸⁾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노회록에 근거해서 노회의 결의 사항을 정리 기록한 것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上卷)도 第3篇 獨老會時代 第1章 總論 第2 老會處理 事項 2에서 ‘牧師 李基豐을 濟州宣教師로 派送한 일(事)’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⁸⁹⁾

한국 교회는 노회 조직(組織)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고 제주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면서 그 인물로 이기풍을 결정했다. 제1회 노회를 준비하면서 전도국을 설치하고, 그 전도국이 제주로 선교사를 보내려고 청원할 때에 분명

185) 안교성, “한국교회 선교의 기원에 관한 소고: 제주 선교와 이기풍 선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84.

186) 변창욱,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 『선교와 신학』 제19집(2007, 봄), 16, 각주6.

187) Chang Young Kim, "The Contributions of the North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s to the Missionary Movement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890-1939: A Historical Study" (Unpublished D.Miss. dissertation, Jackson, Mississippi: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1997), 129-30.

188) 郭安連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47-49.

189) 차재명 편,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1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18.



누구를 선정해서 선교사로 파송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결코 아무나 선정하고 노회에 청원해서 결정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 왜 제1회 독노회는 제주 선교사로 이기풍을 선정한 것인가? 제1회 노회 전도국은 왜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파송을 청원한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기풍이 제주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것인가? 여기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

a. 이기풍의 자원

제1회 독노회 영문 회의록인 *Minute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1907)*은 제1회 독노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事項) 7가지를 요약 정리하면서 그 네 번째로 “새로 목사로 안수 받은 일곱 명 중에 한 사람인 이기풍 목사가 해외선교사로 켈파트(제주)로 가기로 자원했다(volunteered)”¹⁹⁰⁾고 기록하고 있다. 김영동은 “한국 교회 타문화권 선교의 문을 연 제주도 선교는 이기풍의 자원에 의하여 시작되었다.”¹⁹¹⁾고 하면서 “죄사함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 복음의 빛을 갹으려는 것이 선교의 동기요, 자기와 같이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받은 기쁨의 삶을 전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었다.”¹⁹²⁾고 하였다. 박기호는 1907년 9월 17일 독노회가 조직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양전백,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이 목사로 안수 받은 “이튿날 이기풍은 노회에 제주도 선교사로 자원하여 파송을 청원하였다.”¹⁹³⁾고 하였다. “막 조직된 독노회는 그의 청원을 크게 환영하며 받아들였고, 그를 한국교회의 첫 타문화권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¹⁹⁴⁾이라고 하였다. 리눌서도 이기풍이 자원했다고 말하고 있다.

190) *Minute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1907)*, 20-21.

191) 김영동, “한국 교회의 선교: 선교 초기부터 6.25 이전까지,” 『선교와 신학』 제19집(2007, 봄), 41.

192) 위의 책, 42.

193)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44.

194) 위의 책,



(목사 안수식이 끝난) 다음 이틀 동안 노회는 각각 두 번씩의 개회 중에 조직의 세부 사항과 위원회 사역 그리고 그런 모임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바빴다. 그러나 한 가지 사건을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데 그것은 광범위하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로 안수 받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인 이기풍목사가 한국의 남쪽 해안에서 거의 60마일이나 떨어진 켈파트섬(the Island of Quelpart)으로 노회의 해외선교사로 자원(volunteered)하였다. 그의 제안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선교실행위원회(an Executive Committee of Missions)이 선출되었으며 이 한국 선교사와 그와 함께 가게 될 한 두 명의 조력자를 후원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본토 교회들에게 감사의 헌물(a thank-offering)을 드리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준비해서 인쇄하도록 하였다.¹⁹⁵⁾

차종순도 이기풍이 제주도 선교사로 지원하였다고 한다.¹⁹⁶⁾ 이기풍이 제주도 선교사로 지원한 이유는 첫째로 집안의 무인 기질을 발휘하여 진취적이며 도전적으로 동기생 목회자들은 출신지역 혹은 연고가 있는 지역의 담임목사 혹은 전도목사로 파송 받았는데 이기풍은 출신 지역과는 전혀 다른 무연고 지역으로, 그것도 교회가 하나도 없는 황무지로 떠났다.¹⁹⁷⁾ 둘째는 그의 올 곧은 기질로 제주도 선교사를 자원하였다고 한다.¹⁹⁸⁾ 이재열도 이기풍이 제주도 선교사로 자원하였다고 한다. 1907년 9월 17일 독노회가 설립되면서 최초 한국인 7명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 다음 날 오전¹⁹⁹⁾에 노회가 속개되면서, 이기풍은 회장 마포삼열 선교사의 요청으로 대표기도를 하게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설립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 선교사로 자원하였다.²⁰⁰⁾ 정석기는 이기풍의 막내딸인 이사례를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하길 독노회에서는 제주도로 파송할 선교사 선정을 놓고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7명의 목사 중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때의 이기풍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인 윤함애²⁰¹⁾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한다.

195) W. D. Reynolds, "The Presbytery of Korea," 163.

196) 김수진 외 3인, 『장로교 최초 목사 7인 리더십』 (서울: 쿤란출판사, 2010), 111.

197) 위의 책, 112.

198) 위의 책, 114.

199) 1907년 9월 18일 오전8시 45분에 개회되다[『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1].

200) 이재열, "초기 한국 장로교 목회자들의 활동에 관한 연구," 황재범 외 6인, 『초기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160.

201) 이기풍의 부인 윤함애는 초학병(말라리아)으로 3년간 고생하여 뼈만 앙상하게



그날 아버지가 귀가했을 때 어머니가 매우 궁금해 하며 물었다. “제주도 선교사로 누가 선정되었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구려.” “그럼, 우리가 가서 선교합시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불쌍한 영혼을 어찌하려고요.” 아버지는 강력히 조언하는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였다.²⁰²⁾

정석기의 글을 보면 이기풍이 제주 선교사로 자원하였고, 이기풍이 자원하게 된 배후에는 그의 부인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기풍은 제주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던 그날 밤, 부인인 윤함애와 같이 철야기도로 밤을 새웠다고 한다.²⁰³⁾ 그런데 이기풍의 딸 이사례는 『순교보』에서 그 순서를 달리 말하고 있다.

아버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준비하기 위해서 마포삼열 목사의 집을 자주 드나드셨다. 사실 아버지는 노회의 결의대로 제주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된 후부터는 스스로 영력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자주 기도하러 평양신학교를 드나들기 시작하셨다. 드디어 평양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위력이 대한민국의 남단인 제주도까지 확산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때가 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제주도 선교사로 가는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주 약해져 있었다. 이때 어머니는 강력하게 아버지에게 항변을 하였다. “우리가 안 가면 누가 불쌍한 영혼을 구하겠어요. 두 말 말고 속히 떠납시다.”²⁰⁴⁾

이사례의 증언²⁰⁵⁾으로는 이기풍은 이미 노회에서 제주 선교사로 파송 결정

남은 18세에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 그녀는 마펏 선교사를 찾아 가서 마펏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게일 선교사의 집에서 5년을 살았다. 마펏 선교사와 게일 선교사의 중매로 이기풍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때 이기풍은 재혼이었다. 이기풍은 이미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았으나 부인의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일이 시급하였다. 그때 마펏 선교사의 중매로 윤함애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정석기, 『위대한 선교사열전』, 36-37] .

202) 위의 책, 36.

203) 위의 책, 37.

204) 이사례, 『순교보』 (서울: 기독교문사, 1991), 46; 같은 책을 제목을 바꾸어 개정한 책, 이사례,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 46.

205) 차종순은 『제주 기독교 100년사(1908~2008)』를 집필하면서 이기풍의 딸 이사례의 증언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이기풍 목사의 출생과 삶 그리고 목회에 대한 기록은 막내 딸 이사례 권사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기록들은 역사적 기술이 지녀야 하는 정확성이 상당수 결여되어 있으므로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제주 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 기독교 100년사(1908~2008)』, 45] .



이 났고, 그 후에 제주로 파송 받아 가는 일을 두고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기풍의 아내가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었다. 또한 노회 중에 이기풍이 자원했다면 그 다음 날 속회된 노회에서 노회 전도위원이 이기풍을 전도인 한 두 사람과 동반하여 파송할 것을 보고하였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노회 중에 전도회 위원(전도국) 길선주²⁰⁶⁾가 제주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전도를 시작할 일과 제주 선교사는 이기풍으로 청원하고 전도인 한두 사람과 동반하여 파송할 일 등을 보고한 날은 노회가 개최되고 제3일이 되는 1907년 9월 19일 오전이었기 때문이다.²⁰⁷⁾ 노회 중에 그것도 선교사 파송을 청원하기 하루 전에 선교사로 파송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본인이 자원하자 그 다음 날에 발표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무리다. 전도국의 파송 계획 보고도 7가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청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기풍이 자원을 했다고 해도 노회 전도국은 노회가 개최되기 여러 날 전에 의사를 타진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b. 이기풍이 지명됨

제1회 독노회는 조직되면서 12명으로 구성된 해외선교국(a Board of Foreign of the Church, 외지전도국)을 세우고, 새로 안수 받은 일곱 명의 목사들 중에서 한 사람, 이기풍을 제주의 해외 선교사로의 파송을 결정했다.²⁰⁸⁾ 콕안전(Allen D. Clark)은 이기풍이 제주 선교사가 된 이 일을 지명(appointment)라고 말한다.²⁰⁹⁾

원두우(元杜尤, Horace G. Underwood)는 1907년 9월에 조직된 제1회 독노회에서 회장이 된 직후 마포삼열(馬布三悅, Samuel A. Moffett)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마포삼열은 독노회가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따로 구별했다고 소개한다.

노회는 평양에 있는 장대재교회²¹⁰⁾의 목사로 청빙을 받은 길선주가 담임목사직을

206) 이기풍의 딸 이사례는 길선주가 ‘전도위원회 위원장’이었다고 증언한다 [이사례, 『순교보』, 45; 같은 책을 제목을 바꾸어 개정한 책, 이사례,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 45] .

207)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6-17.

208) 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173.

209) 위의 책, 174.



말도록 허락하고 그의 임지를 마련했다. 다른 안수 받은 이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노회의 다음 모임 때까지 모두들 여러 교회들의 목사²¹¹⁾ 또는 동사무사(同事牧師)²¹²⁾로 지명되었다(appointed). 그 한 사람의 경우는 아마도 노회가 이번 회기 중에 취한 가장 의미가 있는 조치가 되었다. 안수 받은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기풍을 제주(the island of Quelpart) 선교사로 따로 세운 것이고 노회는 이기풍을 그의 아내와 한두 명의 전도인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파송하여 그 섬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재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16년 전 그는 평양의 거리에서 내게 돌을 던진 사람인데 지금은 한국 장로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로 나갔다.²¹³⁾

210) 마펏은 그의 편지에서 장대재교회(장대현교회)를 ‘중앙교회(the Central Church)’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장대재교회가 그 당시 평양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하는 것이다(필자의 주) [Horace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173].

211) 실제로 길선주 목사만 장대재교회 담임목사로, 다른 이들은 이전 공의회에서 상의한대로 모두 전도목사(傳道牧師)로 안수를 받았다. 방기창은 주달교회의 전도목사로, 한석진은 리천교회의 전도목사로, 송인서는 허리물교회의 전도목사로, 양전백은 위대모(魏大模)목사와 동사(同事)하는 전도목사로, 서경조는 사우업 목사와 동사하는 전도목사로 정해졌다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8-19].

212)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목사의 명칭을 정리하였다. “1. 전임(專任)목스... 이는 위임을 받아 조직한 지교회 스무를 혼자 담임한자 2. 동스(同事)목스...이는 선교스와 갓치 일 보는자 一. 위임(委任)동스목사...위임을 받고 선교스와 갓치 지교회 일을 맡은자 二. 립시(臨時)동스목스...이는 위임을 받지 못하고 선교스와 갓치 지교회 일을 맡은자 3. 립시(臨時)목스...이는 위임을 받지 못하고 립시로 지교회 일을 맡은자 4. 무임(無任)목스...이는 명칭만 있고 로회에서 스무를 맡지 못한자 5. 피택(被擇)목스...이는 지교회의 청원을 받고 아직 시무치 못한자 6. 이명(移名)목스...이는 본 로회의 이명을 받고 다른 로회에 아직 록 명치 안은자 7. 전도(傳道)목스...이는 교회서지 못한 지경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셔우는자 8. 선교사(宣敎師)...이는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목스 9. 디방(地方)목스...수다한 지교회 디방에서 립시 시무하는자 10. 양로(養老)목스...지교회에서 시무하다가 로혼(老昏)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샤면하거나 본지교회가 그 공로를 연하여 은양(恩養)하는자 11. 퇴로(退老)목스...이는 양로목스와 갓흔 형제로 로회에 청원하고 샤직하는자 12. 부목스(副牧師)라는 명칭 작명은 명년 썻지 류안홀 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15-16].

213) Horace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173. 참고로 원두우(元杜尤)의 책, *The Call of Korea*를 번역한 『와서 우릴 도우라』는 위 본문을 번역하면서 ‘Presbytery’를 ‘장로회’라고 하였는데 ‘노회’라고 하는 것이 좋겠고, ‘the next meeting of the Presbytery’를 ‘다음 번 총회’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한 회기의 노회 중에 정회(停會)하고 난 다음에 속회(續會)되는 ‘노회의 다음 모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고, ‘the other ordained men’을 ‘다른 안수목사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안수목사’라는 호칭은 어색하니 ‘안수 받은 목사’라고 하는 것이 좋겠고, ‘co-pastors’를 ‘부목사’라고 번역했는데 당시는 지금과 같은 부목사라는 개념이 아니었으니 이것은 ‘동사무사(同事牧師)’라고 하는 것이 좋겠고, ‘the whole Church’를 ‘온 교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새로 조직



마포삼열은 원두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1회 독노회 중에 같은 날 안수 받은 일곱 명 중에서 다른 이들은 교회의 담임목사로 혹은 미국 선교사와 동사(同事)하는 전도목사로 그 임지를 정했지만 이기풍은 목사로 안수하면서 제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²¹⁴⁾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회가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지명하여 따로 세웠다는 해석이 된다. 김성환은 박사학위논문에서 마포삼열의 아들 마삼락(Samuel Hugh Moffett)이 한국 신학생들에게 행한 특강 자료에서 마포삼열이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지명했다고 소개했다.

7명의 졸업생이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펏 목사님이 7명들[에게]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노회에서 안수 받기 전 누가 선교사로 갈 것인가? 서로들 얼굴만 쳐다보는데 노회장인 마펏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에게 ‘네가 선교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마펏 목사님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라고 했습니다.²¹⁵⁾

이렇게 이기풍이 제주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것은 이기풍이 먼저 제주 선교사로 자원했다기보다는 먼저 제주 선교사로 지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c. 최초 목사 7인의 제안

변창욱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 지도 교수인 마삼락의 증언(證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907년 장로교 독노회 직전 모임에서 목사로 임직 받을 7명 모두가 “선교하지

된 노회를 두고 하는 말이니 ‘노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고, ‘6년 전’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sixteen years ago’을 잘못 번역한 것이니 ‘16년 전’으로 바로 잡는다 [호레이스 G. 언더우드, *The Call of Korea*, 한동수 역, 『와서 우릴 도우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189-90].

214)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8-19.

215) 마포삼열(馬布三悅, Samuel Austin Moffett)의 아들 마삼락(Samuel Hugh Moffett)이 한국 신학생들에게 행한 특강한 자료(2009년 5월 25일자. 강의 요약자. 고희석) [김성환, “주 조선 미국장로교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사역에 끼친 영향”, 79].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새로 조직되는 한국 장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누가 갈 것인가 이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1890년 마펏(마포삼열, Samuel A. Moffett) 선교사가 처음 평양에 입성했을 때 돌팔매질을 하여 마펏에게 상처를 입혔던 이기풍²¹⁶⁾이 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이에 이기풍은 선교사로 가기로 하였고, 독노회 회장인 마펏이 이기풍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다.²¹⁷⁾

김성환과 변창욱은 다같이 이기풍이 제주 선교사가 된 일에 대한 마삼열의 증언을 소개하고 있다. 이 두 소개의 차이는 김성환은 마포삼열이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지명했다는 것이고, 변창욱의 소개는 이기풍이 제주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은 같이 안수 받은 이들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증언의 차이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마포삼열이 이기풍에게 제주 선교사로 가라고 지명했을 때에 같이 안수 받은 목사들이 동의했다고 볼 수 있고, 거꾸로 한국 목사들이 이기풍에게 제주 선교사로 ‘당신이 가야되지 않겠느냐’고 할 때에 마포삼열이 그 말이 맞다고 하면서 이기풍을 지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차이는 마포삼열의 지명과 이기풍의 동료들의 제안의 시점(時點)의 차이(差異)이다. ‘안수 받기 전’이나 ‘독노회 직전 모임’이라는 시점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안수 받기 전’이라는 것을 노회 중에 안수를 받기 직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생각이다. 노회에서 일곱 명을 안수하기 직전에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수 받는 사

216) 에너벨 메이저 니스벳(Mrs. Anabel Major Nisbet)은 그녀의 책, 『호남 선교 초기 역사(1892-1919)』, 88에서 마펏의 편지를 인용하기를, “16년 전 그(이기풍)는 평양 거리에서 나에게 돌을 던졌지만 지금은 첫 번째 한국인 선교사가 되어 떠나려 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방지일 목사는 “내가 듣는 대로는 길선주 목사 아버지가 가서 때렸다 한다. 이기풍 목사님은 호남분으로 황주까지 오실 수 있을까?” [방지일, 『야사(野史)도 정사(正史)로』 (서울: 선교문화사, 2001), 20]. 방지일은 오해했다. 이기풍은 평안도 출신으로 1868년 11월 21일 평양 순영리에서 출생하였고 1894년 5월 마포삼열 목사에게 돌을 던져 턱을 깨뜨렸다[김수진 외 4인, 『장로교 최초 목사 7인 리더십』, 118]. 마삼열은 한국에서의 지난 사역을 회고하며 KMF에 기고한 글에서 “다시 반복해도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돌을 던진 경찰 중에 한 사람인 이기풍이 그 후에 한국에서 최초로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고, 그는 한국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로 켈파트 섬으로 가서 이제는 그곳 사람으로부터 돌에 맞고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Samuel A. Moffett, "Early Days," KMF 32 (January, 1936), 4].

217) 변창욱,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 17, 각주 9.



람의 임지(任地)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노회에서 안수를 줄 때에는 안수 받는 사람을 청빙(請聘)하는 교회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은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 석상에서 임직한다.”²¹⁸⁾라고 정해 놓았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속한 노회는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만 안수를 한다. 제1회 독노회가 개최될 때에도 안수 받기 전에 이미 이번 노회 중에 안수 받게 된 일곱 사람들의 임지는 정해졌다. 길선주는 장대재교회 목사로, 방기창은 주달교회의 전도목사로, 한석진은 리천교회의 전도목사로, 송인서는 허리물교회의 전도목사로, 양전백은 위대모(魏大模)목사와 동사(同事)하는 전도목사로, 서경조는 사우업(史于業)목사와 동사(同事)하는 전도목사로 정해졌다.²¹⁹⁾ 따라서 이들과 함께 안수를 받은 이기풍도 그의 임지가 정해지고 안수를 받은 것이다. 그의 임지는 제주로, 그는 제주 선교사로 안수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안수 받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수를 받기 직전을 말하기 보다는 노회를 앞둔 어떤 시점을 말한다.

노회에서 일곱 사람에게 안수를 주는 일을 상의하기 위한 그 어떤 모임이 독노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반드시 모였을 것이다. 제1회 독노회가 개최되기 전에 노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 목사 안수를 위해서 모임을 가졌을 것이 분명하다. 제1회 독노회에서 한국인 일곱 명에게 안수하여 목사로 장립하는 일은 공의회에서 상의(相議)되었던 일이다.²²⁰⁾ 그것도 최소한 일 년 이전부터 상의되었던 일이다. 그리고 공의회 때에 이미 목사를 안수하면 전도목사로 세운다는 것까지 다 결정하였다. 또 목사를 안수하기 전에 안수 받은 이들에게 시험을 치는 일을 교육위원이 주관하도록 결정했다. 이미 노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그 모든 일들을 상의하고 결정해 놓았다. 그럴 때에 이기풍을 목사로 세울 때에 그의 임지는 제주로, 그는 선교사로 정하고 이기풍을 안수하기로 결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독노회 직전 모임’이란 노회를 앞두고 이미 제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누가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모임이 적어도 ‘독노회 직전’에 모였을 것이니 ‘독노회 직전 모임’이나 ‘안수 받기 전’이나 그 시점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218)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32조 목사의 임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184].

219)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8-19.

220) 郭安連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41-46.



d. 전도국의 추천

이만열은 “이기풍(李基豐) 목사의 행적”이라는 글에서 이기풍이 제주 선교사로 파송 받았던 것은 전도사명에 불탔던 본인의 희망도 있었지만 거기에 부응하여 전도회 회원들이 전도인으로는 이기풍 목사만한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²¹⁾ 이기풍 목사를 제주의 선교사로 파송한 전도회의 구성원들이 이기풍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풍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제1회 독노회의 전도국(당시는 전도회 위원) 위원은 블래어, 레이놀즈, 스왈론, 쿤스 등의 선교사와 김찬성, 길선주, 송순명, 박덕일, 양전백 등의 9명²²²⁾이었는데, 그 중 선교사 스왈론은 일찍이 원산에서 이기풍을 회개시켜 세례를 베푼 분으로 누구보다도 전도인으로서의 이기풍을 잘 이해했고, 한국인 중 길선주, 양전백은 신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던 분들이고, 송순명은 새문안교회 출신으로 이기풍이 일찍이 경험했던 매서직에 오랫동안 종사하며 전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²²³⁾ 제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를 상의할 때에 전도국 위원들이 이기풍을 추천하였다는 것이다.

이기풍이 제1회 독노회에서 제주로 파송받게 된 것은 이기풍의 자원이나 지원, 혹은 지명이나 추천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한 가지로 딱 잘라 말 할 수 없다.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있다. 이기풍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기풍이 한국 교회가 제1회 독노회를 조직하고 처음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로서 적격이라는 추천과 지명과 권고가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이기풍이 제주 선교사로 결정되었다. 중요한 것은 제1회 독노회가 설립되면서 한국 교회가 독노회의 설립을 기념하고 이를 축하하며 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221) 이만열, “이기풍(李基豐) 목사의 행적,” 이사례, 『순교보』, 268; 같은 책을 제목을 바꾸어 개정한 책, 이사례,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 268.

222) 제1회 독노회에서 전도국 위원을 3명을 더 선정해서 전도국 위원은 12명이었다. “전도국 위원 아홉 사름 받게 경상도 심취명 전라도 하요한 함경도 구례선 삼씨를 더 선명하기를 청원홀일” [『예수교장로회조선로교회대회회록』 (1907), 17]. 본 논문의 <표1>을 참조할 것.

223) 이만열, “이기풍(李基豐) 목사의 행적,” 이사례, 『순교보』, 268; 같은 책을 제목을 바꾸어 개정한 책, 이사례,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 268.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사 파송이라는 헌물로 드리되 한국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한국 목사를 한국의 제일 땅 끝인 제주로 파송한 것이다. 그러면 제1회 독노회에서 이기풍의 파송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가?

3. 파송 결정

1907년 9월 17일 오전9시에 평양 장대재예배당에서 개최된²²⁴⁾ 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 중, 같은 날 오후 7시에 속회해서 “서경조 한석진 송린서 량던빅 방괴창 길선주 리괴풍 칠인”²²⁵⁾을 목사 장립할 것을 공포(公布)한 후에 안수하여 목사로 장립하였다. 그리고 노회 중에 공천위원(公薦委員)이 여러 부서를 공천하는 중 전도국 위원으로 9인을 공천한다. 그 9인은 “방위량 김찬성 리눌서 길선주 송순명 박덕일 량던빅 소안론 군례빈”²²⁶⁾이었다. 이렇게 전도위원으로 공천된 길선주가 노회 시(時) 전도국 보고를 하게 된다. 1907년 9월 19일 오전8시45분에 평양 장대재예배당에서 회장 마삼열의 사회로 속회된²²⁷⁾ 노회의 셋째 날에 전도국위원 길선주가 7가지를 보고한다.²²⁸⁾ 그 일곱 가지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도국위원 길선주는 첫째로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할 것을 청원하고 있다. 둘째로 선교사의 월 사례와 전도 용비는 각 교회의 감사헌금으로 하기를 청원하였다. 셋째로 선교비로 사용될 감사헌금의 모금을 위한 연보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고, 교회는 노회의 편지를 받아서 광고하고, 그렇게 광고한 다음 주일에 헌금하도록 청원하고 있다. 네 번째로 제주에 보낼 선교사로 이기풍을 청원하고 있다. 또 제주로 이기풍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인 한 두 사람까지 동반하여 보낼 것을 청원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전도국 내의 회계와 부회계를 선정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 전도국원의 보강을 요청하여 새로 선정된 3인의 추가 허락 청원을 했다. 일곱 번째로 제주 선교사 월급 밖에 내왕비와 가사비와 특별비를 전도국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청원하고 있다. 전도국의 보고와 허락 청원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왔다. 이것은 전도국이 노회에 보

224)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4.

225) 위의 책, 10.

226) 위의 책, 14.

227) 위의 책, 16.

228) 위의 책, 16-17.



고하기 이전에 많은 논의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1회 노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전도국에서는 일곱 명의 목사 안수와 제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누구를 파송할 것인지, 이에 대한 상당한 상의가 있었고, 그 후에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전도국은 노회에 보고를 하게 된 것이다. 제1회 노회 회장인 마삼열(馬三悅)은 전도국의 일곱 가지를 일일이 묻고 회중이 동의(同議)하여 가(可)로 결정하였다.²²⁹⁾ 이렇게 해서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보내는 역사적인 청원이 허락되었다. 전도국의 보고가 결정이 된 다음 전도국 위원 양전백이 각(各) 교회로 보낼 제주 선교를 위해 연보할 편지를 발표하니 한위림이 이 편지를 채용(採用)하고 서기로 속히 간출(刊出)하여 보내기로 제안하여 회중이 동의(同議)하여 가(可)로 결정하였다.²³⁰⁾ 이기풍이 제주 선교사로 결정되어 파송을 받고 제주로 떠날 때, 줄리아 마틴 양(Miss Julia Martin)은 이기풍을 파송하는 송별식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소개하였다.

1908년 1월 11일, 평양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에 많은 청중이 모였다. 이는 한국 장로교회에 의해서 한국의 남쪽 켈파트(Quelpart)섬으로 파송되는 최초의 해외선교사의 송별식을 갖기 위함이었다. 선교사가 간단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담임목사인 길선주가 인사말을 하는 중에서 ‘만약에 당신이 켈파트 사람에게 의해서 돌팔매를 당한다면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최초의 평양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길선주가 말하는 동안에 선교사 이기풍의 뺨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장면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날 이기풍은 그의 아내와 함께 그들의 미래의 고생스러운 사역지로 떠났다.²³¹⁾

이렇게 이기풍은 제1회 독노회에서 제주 선교사로 파송이 결정되어 미지의 땅 제주로 출발해서 선교사의 사역을 훌륭하게 이루어 한국 교회의 선교의 첫 장을 아름답게 열었다.

D. 결과

229) 위의 책, 17.

230) 위의 책,

231) Miss Julia Martin, "Three Pictures," 172.



1. 파송 헌금

한국 교회가 제1회 독노회를 조직하면서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 때에 전도국위원 길선주는 7가지를 보고하는 중에는 파송 헌금에 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고가 들어있다.

二 선교사의 월은과 전도 용비는 각 교회의게 감사헌 마음으로 연보헌게 부탁할 일 三 연보할 때는 각 교회에서 연보할 편지 보는 주일에 광고하고 그 다음 주일에 연보할 일 七 제주 선교사와 전도인 월급 받쳐 리왕비와 가사비와 전도회 인허 특별비를 본 전도국에서 지출할 일²³²⁾

제1회 독노회의 전도국은 제주로 보내는 선교사 이기풍의 월은(月銀)²³³⁾과 전도 용비(用費)는 각 교회의 연보로 충당(充當)하겠다고 보고한다. 각 교회가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해서 그렇게 모인 헌금으로 제주 이기풍 선교사의 월급(月給)과 전도용비를 마련하고, 이기풍과 함께 제주로 보내는 전도인의 월급과 선교사와 전도인들의 내왕비(來往費)와 가사비(家事費)와 전도회 인허(認許) 특별비는 전도국에서 지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제주 선교사 선교비는 각 교회의 헌금으로 모아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제1회 노회에서는 전도국의 7가지 보고를 받고 그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이런 전도국의 청원이 허락을 받자마자 전도국위원 양전백이 각 교회에게 제주 연보할 편지를 포고하자 한위령이 이 편지를 채용하여 서기(書記)로 속히 간출(刊出)하여 발송하기를 결정하였다.²³⁴⁾ 그러면 이후의 제주 선교비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08년 9월 6일 개최된 제2회 독노회 때에 전도국위원 김찬성(金燦星)이 다음과 같은 8가지를 보고한다.

(1) 스무국은 국장과 회계를 두어 스무를 보았스으며 (2)통신원을 두어 제주 전도 형편을 편지디로 신문에 기치함 (3)선교사의 월급은 미삭 이십원과 전도인의 월급은 미삭 십오원으로 지출한 일 (4)전도국에 드러온 연보전 합 일천오백오십팔원륙십스전과 은지환 일쌍이오 쓴돈 합은 륵백구십삼원십륙전륙리오니 지문 팔백륙십오원

232)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6-17.

233) 월은(月銀)은 월급(月給)으로 주는 돈을 말한다(필자의 주).

234)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7.



스십칠전스리오며 (5)전도국회를 일년에 두 번 모히되 만일 위원의 로비가 부족하
여 못오는 경우에는 그곳 대리회에서 도와주고 다른 일노 못오는 그곳 대리회에서
디신 보낼일 (6)전도국 지정예산이온즉 선교스의 년급이 빅칠십원 전도로비 오십원
샤랑부비 삼십원 집중수비 일빅원 전도인 년급 일빅팔십원 전도로비 일빅십원 제주
별비 오십원 전도국 용비 십오원스십칠전스리 집에 리왕비 륙십원으로 시지전과 곳
스오며 (7)전도국 규칙을 출판하여 로회 회원의게 분급홀일 (8)제주 전도하는 일은
잘 되옵논디 원입인 아홉 사름이오며 미쥬일 모히는 사름은 이십여명이오며²³⁵⁾

독노회 내(內)의 전도국은 제주 선교를 위해서 전도국 내에 국장과 회계를
두고 사무를 보았고, 통신원을 두어서 제주 전도형편을 선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으
면 받은 대로 신문에 게재를 하여서 알렸다고 보고하였다. 이기풍 선교사의 월급은
매월 초하루에 20원, 전도인의 월급은 매월 초하루에 15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
다. 그동안 전도국으로 들어온 헌금 합계와 지출과 전도국의 제주 선교비 예산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票)와 같다.

<표3> 선교사 이기풍과 전도인 월급

지급일	선교사(이기풍)	전도인
매월 1일	20원	15원

<표4> 선교비(연보) 수입과 지출 내역

총 수입(收入)	총 지출(支出)	잔액(殘額)
1,558원(圓) 64전(錢) ²³⁶⁾ 은반지 한 쌍(雙)	693원 16전 6리(厘)	865원 47전 4리

<표5> 전도국 재정예산

	연급(年給)	전도로비 237)	샤랑부비 238)	집중수비 239)	제주별비	50원
선교사	170원	50원	30원	100원	전도국 용비	15원 47전 4리
전도인	180원	110원			래왕비 ²⁴⁰⁾	60원

235)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이회회록』 (1908), 6-7.

236) 전(錢)은 1)화폐의 단위로 《‘원’·‘환(圓)’의 1/100》 2)예전에, 엽전(葉錢) 열 푼
을 일컫던 말 [한컴오피스 한글 한자바꾸기(한자 사전)] .

237) ‘전도로비’는 ‘傳道路費’로서 ‘전도여비’를 말한다(필자의 주).



<표5>에서 전도인의 연급(年給)이 선교사 이기풍보다 많은 것은 전도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도국은 선교사 이기풍의 선교비 후원을 위해서 나름으로 예산(豫算)을 세워서 지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전도국의 이 모든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선교사 이기풍과 전도국장 길선주의 설명을 듣고서 노회는 전도국의 보고를 통과시킨다. 그런 다음에 선교사 이기풍의 제주 전도형편을 설명하니 모든 회원들이 박수를 치며 감사하였다.²⁴¹⁾

이후에 노회 중에 제주 전도인 김홍년과 전도국장 길선주가 제주 형편을 설명한 다음에 전도사를 보내자고 청원하게 된다. 이 청원은 “방긋창씨가 제주 부인들의 정형이 위선 가척호오니 전도국으로 흡수 잇스오면 녀전도인 한 사람만 턱송케 호기를 동의호야 가로 결명”²⁴²⁾하였다. 제주 전도인 김홍년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주 주민들의 형편이 딱하니 전도국으로 할 수 있으면 여전도인 한 사람을 택해서 파송하자고 결의한 것이다. ‘할 수 있으면’이란 말은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파송하라고 전도국에 맡긴 것이다. 전도국은 제주 선교에 열의를 갖고 있으나 그러려고 하면 선교비로 사용할 연보가 많이 모아져야 하였다. 따라서 양전백이 제주 연보에 대하여 전도국으로 속(速)히 전도 형편과 연보할 편지를 각 대리회의 회원들에게 보내기로 제안해서 그렇게 결정한다.²⁴³⁾

1909년 9월 3일에 개최된 제3회 독노회에서 전도국장 길선주는 다음과 같이 무려 13가지를 보고한다.

(1)리기풍목스와 김홍련 전도는 열심 전도호엿소오며 (2)평양성교회 즈미들이 연보호야 리씨선광을 제주 녀전도인으로 파송호야 저간에 부인네 중에 열심히 쥬를 밋는 즈미들이 싱겝소오며 (3)평양대중학도들이 연보호야 대학도 김형지씨를 제주 전도인으로 파송호야 녀달동안 열심 전도호엿소오며 (4)제주 전도된 형편이온즉 열심 밋는 형데들이 싱겝소오며 쏘 쥬를 위호야 꺾박밧는 형데도 잇소오며 (5)성서

238) ‘사랑부비’는 ‘舍廊浮費’로서 ‘사랑방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필자의 주).

239) ‘집중수비’는 ‘집 重修費’로 ‘집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여겨진다(필자의 주).

240) ‘래왕비’는 ‘來往費’로 ‘오고 가는 데 드는 비용으로 교통비’라고 할 수 있다(필자의 주). 참고로 “선교사의 로회에 래왕호는 부비는 로회에서 지출호기를 청원호매”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스회회록』 (1910), 10].

241)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이회회록』 (1908), 7.

242) 위의 책, 10-11.

243) 위의 책, 11.



공회에 교섭하여 제주에 미쳐 온 사함을 두되 제주에서 밋는 형제중에서 턱하기를 경륜이오며 (6)지금 히삼위 형편이온즉 고국 강산을 리별하고 의지할곳 업시 외로 온 나그니로 불상히 죽어가는 심명을 구원케하기를 청원이오며 (7)성서공회에 교섭하여 미쳐 온 사함을 선교스와 갓치 파송하기를 청원이오며 (8)전도국위원 방위량 김찬성 리눌서 량던빅 스씨는 기한이 되었소오며 (9)히삼위로 선교스를 파송할 경위이오면 신학소 최관흘씨로 턱명하기를 청원이오며 (10)지정온 작년도로 드리온 돈이 신화로 팔빅륙십오환 스십칠전 스리이온디 쓴돈은 률빅륙십구환 십일전이오니 남은 돈이 일빅구십륙환 삼십륙전 스리이오며 (11)각 교회에서 드러온 연보 총익은 전도국 회계가 련하여 보고하겠소오며 (12)제주 녀전도인 리씨선광을 일년동안 또 보니기로 작명하였소오며 (13)박치륙장로를 전도국 회계로 또 턱하기를 청원이오며²⁴⁴⁾

전도국장 길선주는 평양성교회 자매들이 헌금을 해서 이선광을 제주 여전도인으로 파송하여 전도한 결과 제주의 부인들 중에서 열심히 주를 믿는 자매들이 생겼으며 평양대중학교 학생들이 연보를 하여서 대학생 김형재를 제주 전도인으로 파송해서 녀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보고는 당시 한국 교회 내에서 제주 선교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고, 열정이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또 한국 교회 내에 우리의 헌금으로 선교비를 마련하자는 생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회 중에 선교사 이기풍이 제주의 전도되는 형편을 일일이 설명하며 평양대중학교들이 파송한 김형재의 열심과 부인 전도회로 파송된 이선광이 수고함을 일장 감사하자 회중이 방기창과 이치수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찬송하며 감사하였다.²⁴⁵⁾ 전도국장 길선주는 계속 보고하기를 이제 제주에서는 믿는 형제들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서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형제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는 와중에 해삼위 동포를 위해서 최관흘을 선교사로 파송하자는 청원을 하기도 한다. 전도국장 길선주는 작년조로 들어온 전도국 재정 현황을 보고한다.

<표6> 1908년도 전도국 재정 현황

총 수입(收入)	총 지출(支出)	잔액(殘額)
865환(圓) ²⁴⁶⁾ 47전 4리(厘)	669환 11전(錢)	196환 36전 4리

244)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삼회회록』 (1909), 12-14.

245) 위의 책, 16.

246) 환(圓)은 1)대한 제국 때의 화폐 단위 2)1953년부터 1962년까지 우리나라 화



이어서 전도국 회계 박치록장로가 각 교회에서 들어온 연보 총액을 보고하자 위대모(魏大模)가 이 보고는 재정위원에게 맡기기로 동의(動議)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²⁴⁷⁾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전도국으로 들어온 연보 곧 선교비의 수입과 총 지출의 상세한 보고는 노회 전체에 앞에서 일일이 보고하지 말고 재정위원이 맡아서 살펴보라는 결정이었다. 전도국 회계 박치록은 이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의 보고를 하는 데 그것은 “(1)회삼위에 선교소를 파송할 때에 선천 평양 함흥 성진 네 곳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함으로 전송홀일 (2)용비 지출은 예산 외에 부족하는 돈은 연보전 첫 번 드려오는 것으로 쓰게 할일 (3)미서는 목수와 굿치 보낼 일”²⁴⁸⁾ 등이었다.

1910년 9월 18일에 개최된 제4회 독노회에서 제3회 독노회 때에 부회장으로 당선된 선교사 이기풍의 인도로 성찬예식을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속회를 하자마자 해삼위(海蔘威) 선교사 최관홀이 다음과 같이 선교보고를 하였다.

회삼위와 슈청과 소왕령과 허바루지와 합이빈 등디에 하느님의 권능과 은혜가 나타나므로 회기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 형데도 만코 교회가 성립될뿐 아니라 일반 교인의 믿음이 흥기됨을 일장 설명후후에 전도국장 길선듀씨와 평북다리회위원 랑던박씨가 금년에 전도국에 연보 수입익이 부족함으로 회삼 등디에 선교소 다시 파송할 경비가 말유하다고 보고하매 일반회석이 연보하기를 즈원하야 신화 오빅여환(圓)을 즉시 연보후후에 깃븐 찬송과 감사기도로 폐회하다.”²⁴⁹⁾

최관홀이 해삼위(海蔘威) 선교의 기쁜 소식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전도국장 길선주가 전도국의 연보 수입액(收入額)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한 것이다. 각 교회로부터 선교비가 그렇게 잘 모아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주 선교비뿐만 아니라 해삼위 선교비 지원등에 부족하다는 말로 들린다. 그렇게 연보 수입이 부족해서 해삼위 등지에 선교사 다시 파송할 경비가 없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현금하자고 자원해서 신화²⁵⁰⁾로 500환(圓)을 연보한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처럼 선교에 힘을 다

폐 단위의 하나 [한컴오피스 한글 한자바꾸기(한자 사전)] .

247)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삼회회록』 (1909), 14.

248) 위의 책, 26.

249)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삼회회록』 (1910), 1.

250) ‘신화(新貨)’는 1905년부터 실시된 조선화폐개혁(朝鮮貨幣改革)에 의해서 이전에 사용하던 구화(舊貨)를 대신하여 새로 사용하는 화폐를 신화(新貨)라고 부른 것이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9j2567a>] .



하는 교회였다.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스스로 힘을 모았다.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제4회 노회 중 전도국의 보고에서 잘 나타난다. 전도국위원이 다음과 같은 8가지를 보고한다.

(1)제주전도 형편에 디허야 교인수효와 레비당과 기도회 처소와 직분과 연보와 신자형편이오며 (2)로국령디에 전도형편에 디허야 교인수효와 레비처소와 연보이오며 (3)제주와 로국령디 선교스의 용비 예산에 <1>제주에 七百二十여원 <2>로국령디 九百三十여원이오며 (4)명년에 제주와 히삼위와 일본에 쓸 예산은 三千원으로 로회에 부탁하느일 (5)서간도 선교스 청원에 디허야 선전교회에 맞겨 주선케 하느일 (6)일본 동경에 박영일씨를 전도인으로 스기월 동안만 파송하느일 (7)히삼위 조스 보닐 예산을 二百원을 二百五十원으로 증가이오며 보닐 사름은 강도스 한병직씨로 턱명하느일 (8)제주 전도인 턱출일은 전도 사무국에 맞길일²⁵¹⁾

위 보고에서 제4회 독노회의 전도국에서는 선교사의 용비(用費)를 예산으로 책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 선교사의 용비로 720여원을 책정하고 노회의 허락을 청원한 것이다. 선교사 용비의 구체적인 용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선교사가 전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역비로 생각할 수 있겠다. 또 전도국은 제주와 해삼위와 일본에 쓸 예산 3천원을 노회에 청원하고 있다. 이것은 전도국 자체의 예산으로는 늘어가는 선교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노회에 그 예산을 청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도국의 보고와 청원이 있고 난 다음 전도국 회계가 보고하니 회중이 재정위원께 맡겨 검사하기로 동의하여 결정하였다. 이것은 요즈음 노회나 총회를 할 때에도 이대로 회의를 진행한다. 그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보고를 하며 재정을 청원하는 경우에 ‘보고는 받고, 재정은 재정부로’라고 하여서 결의한다. 이것은 그 부서의 보고와 청원 사항은 노회나 총회에서 그대로 받되 재정 청원은 후에 재정부에서 살펴보고 그 부서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한 지 4년이 되는 1911년 9월 17일에 개최된 제5회 독노회에서 보고되는 제주 선교와 선교헌금에 관한 사항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5회 노회에서 전도국위원은 크게 네 개로 나누어서 보고를 하는데 첫째는 제주 전도형편이고 둘째는 로국영지와 청국 등지 전도형편이고 셋째는 일본 동경 전도형편을 보고한다. 넷째로 재정 예산을 보고한다.²⁵²⁾ 그 첫 번째

251)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스회회록』 (1910), 14-15.

252)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오회회록』 (1911), 9-11.



제주 전도형편 보고는 다음과 같다.

(1)선교사 리기풍시는 열심 전도이오며 (2)전도인 김창문시를 육개월간 보내여 전도하였소오며 (3)목포 계신 미국 마부인의 연보로 녀전도인 두 사람을 보내여 전도한 중이오며 (4)평양대중학교학도의 연보로 대학도 강병담시를 보내여 전도한 중이며 (5)평양 녀전도회에서 리선광 부인을 또 보내여 전도케호오며 (6)레비당은 세 곳이오 또 레비처소가 두 곳이며 교인은 一百六十여인이오 연보낸 돈은 八十一圓 五十七錢 六리이오며 (7)믿는 형제의 열심 기도로 이적이 만스오며²⁵³⁾

위 보고에서 미국 선교사 부인의 연보, 평양대중학교의 학생들의 연보, 여전도회의 헌금으로 제주에 전도인을 파송해서 전도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이제 제주에 예배당이 세 곳이 세워지고, 예배처소가 두 곳이 생겼고, 교인이 160여명이 되고, 이들이 헌금한 돈이 81圓 57錢 6리가 되었다는 보고를 통해서 제주 선교는 선교사 이기풍과 전도인을 보낸 4년 후에 적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믿는 형제들이 열심히 기도하여서 많은 이적도 일어나서 전도하는 일과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큰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도국위원이 재정예산을 보고하는 데 “(1)제주 위하야 四百五十圓이오며 (2)히삼위하야 八百九十圓이오며”²⁵⁴⁾였다. 이런 전도국의 보고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전도국 회계가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다.

(一)수입금 (1)작년 수입금 九百四十圓 二十四錢 八리 (2)금년 수입금 二千二百八十一圓 十一錢 (3)동경 전도비 수입금 三百九十一圓 五十錢 (二)지출금 (1)제주 지출금 一千一百二十三圓 二十八錢 四리 (2)히삼 지출금 二千六圓 六十二錢 (3)동경 지출금 三百九十一圓 五十錢 (三)현존 금익 九十五圓 四十五錢 四리²⁵⁵⁾

위 전도국 회계의 보고를 표로 만들면 <표7>와 같다.

<표7> 제5회 독노회 전도국 회계보고

253) 위의 책, 9-10.

254) 위의 책, 11-12.

255) 위의 책, 12.



총 수입		총 지출		현존 금액
1910년(작년)	940원 24전 8리	제주	1,123원 28전 4리	
1911년(금년)	2,281원 11전	해삼위	2,006원 62전	95원 45전 4리
동경 전도비	391원 50전	동경	391원 50전	

위의 <표7>를 살펴보면 1910년 전도국 수입은 940원 정도였는데, 1911년에는 2,281원 정도로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교인이 늘면 선교비로 쓰이는 전도국의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제1회 독노회에서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그 선교비는 각 교회의 연보로 충당하자고 결의하고 전국 교회에게 협조를 구했던 것이다.²⁵⁶⁾ 그러면 1910년과 1911년에 전국 교회의 교인들의 수(數)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매(每) 독노회 회록의 부록(附錄)에는 총계(總計)를 첨부하였다. 1910년과 1911년의 총계에서 몇 가지만 비교하면 <표8>와 같다.

<표8> 1910년과 1911년의 한국 교회의 교인 증가 비교²⁵⁷⁾

연도	세례교인 도합	교인 도합
1910년 (4회 독노회)	39,394명	140,470명
1911년 (5회 독노회)	46,934명	144,261명
차이(差異)	7,540명 증가	3,791명 증가

위의 <표8>를 살펴보면 1910년 제4회 독노회가 발표한 총계와 1911년 제5회 독노회가 발표한 총계에서 세례교인은 1년 사이에 7,540명이 증가하였고, 전국 교회의 교인들의 도합으로는 3,791명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교인이 증가하면 아무

256) “一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할일 二 선교사의 월은과 전도 용비는 각 교회에게 감사헌 마음으로 연보하게 부탁할일 三 연보할 때는 각 교회에서 연보할 편지 보는 주일에 광고하고 그 다음 주일에 연보할일”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6-17].

257)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스회회록』 (1910), 부록,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오회회록』 (1911), 부록.



래도 각 교회의 연보가 늘 것이고, 그러면 선교비로 보내는 전도국의 수입도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1년 사이에 교인의 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役事) 그리고 교인들의 전도와 믿음의 진보가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은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원두우(元杜尤, H. G. Underwood)는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를 고종(高宗) 황제의 폐위를 들고 있다. 원두우는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고 한다.²⁵⁸⁾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일로 일제의 강요로 한일협약 위배라는 책임을 지고 1907년 7월 20일에 양위(讓位) 조서(詔書)를 내려 순종(純宗)에게 통치권을 물려준 후에 퇴위(退位)한다.²⁵⁹⁾ 그리고 난 다음에 1910년 8월 29일에 한일합방(韓日合邦)이 된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암울(暗鬱)한 현실이 교회의 부흥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교인수의 증가는 전도국 예산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표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전도국 총 수입이 1910년도에는 940원 24전 8리였는데 1911년에는 무려 2,281원 11전이 된 것이다.

1912년 제1회 총회가 회집이 되었을 때에 전도국 회계가 1911년도와 1912년도 회계 보고를 한다.²⁶⁰⁾ 그 내용을 표로 만들어 살펴보자.

<표9> 1911년도 전도국 회계 보고

수입(收入)	지출(支出)	여재금(余在金) ²⁶¹⁾
1,400원(圓) 15전 5리	1,329원 2전 8리	71원 42전 7리

전도국 회계는 1911년 전도국 회계의 지출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258) H. G. Underwood, "Korea's Crisis Hour," KMF 4 (September, 1908), 130; 이만열, 옥성득 편, 『언더우드 자료집』, III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253.

259) “제26대 고종.”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882yh&logNo=30116942681>] .

26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2-25.

261) 여재금(余在金)이란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으로 잔액(殘額)을 말한다. ‘여(余)’ 자(字)는 나머지 여(餘) 자(字)의 속자(俗字)로 쓰인다(필자의 주).



<표10> 1911년 전도국 회계 지출 내역

리괴풍시 월급	270원(圓)	잡용비	30원
전도비	20원	한병직시 월급	145원
사랑비	15원	잡용비	75원 36전 5리
특별비	3원 4전 8리	한병직시 리왕비 부족	12원 88전
최관흠시 월급	600원	김창문시 신학시 월급	30원
최관흠 전도비	100원	전도국 용비	27원 73전 5리

이제 1912년도 전도국의 회계보고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11> 1912년도 전도국 회계보고²⁶²⁾

수입(收入)	지출(支出)	여재금(余在金)
1,660원 90전 9리	867원 22전	783원 68전 9리 평양전도회 연보 200원

위의 <표11>의 1912년도 수입은 <표9>의 1911년도 수입에 비해서 약 260원 75전이 증가하였다. 그것도 1912년 9월까지의 보고였으니 수입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도국 회계는 1912년도 전도국 수입의 내역(內譯)을 <표12>와 같이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12> 1912년도 전도국 회계 수입 내역

작년여지 (前期推越)	로회시 연보	평양 전도회 연보	히삼교회 연보	각교회 연보	변리	대중학교 연보
71원 12전 7리	416원 8전 5리	100원	57원 80전	749원 30전 8리	54원 1전	211원 30전

262) 1912년도 전도국 회계보고는 1912년 9월 1일 제1회 총회 때까지를 말한다 (필자의 주).



위의 <표12>의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노회 시(時)에 헌금한 것을 알 수 있고, 평양전도회와 대중학교에서 꾸준히 제주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 각 교회가 제주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1회 독노회를 조직하면서 제주로 선교사 파송을 결의할 때에 각 교회의 헌금으로 선교비를 충당하겠다고 결의한 그대로 각 교회들이 계속해서 협조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한 수입은 해삼위교회의 헌금을 전도국 수입으로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제주 선교를 위한 헌금이 부족하지 않고, 제주뿐만 아니라 해삼위의 최관홀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까지 감당했던 한국 교회는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외국전도를 계획하게 되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교회가 자립하여 해외에도 선교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 것이다. 또 제5회 노회 때에 해삼위 최관홀 선교사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결국 제1회 총회 때에는 해삼위 선교를 정지(停止)하게 된다.²⁶³⁾ 해삼위 선교의 정지가 선교의 끝이 아니라, 이 일로 진정한 외국전도의 뜻을 품고, 또 그 재정을 해외선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중국 선교를 계획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 기풍을 제주로 파송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2. 파송 결과

1907년 제1회 독노회가 조직되면서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한 후에 노회가 열릴 때마다 이기풍의 보고와 제주 전도인들이 제주 선교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다. 제3회 노회 중에는 제주 전도인 김홍련이 제주 선교에 관한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김홍련의 설명에 대하여 회록은 “제주 삼빅여 동리에 이십만명 되는 동포 중으로 리왕하며 전도하던 형편과 그 풍속에 이동되을 설명하미 회중이 박장 답사하다”²⁶⁴⁾라고 하였다. 김홍련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김홍련은 300여 동리(洞里)에 사는 20만명이나 되는 제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

263) 1912년 9월 1일 회집된 제1회 총회때에 전도국은 무려 23가지의 보고를 하는 중에 열세 번째로 “히삼위(海蔘威) 전도는 스세 부득이호와 덩지(停止)이옵고 최관홀 목사의 사무도 고만두웠소오며”라고 보고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18].

264)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삼회회록』 (1909), 17.



도하였다. 또 김홍련이 전도하던 형편과 육지(陸地)와 다른 제주의 풍속(風俗)을 설명하였으니 한편 감사하고, 한편 재미가 있어서 박수를 치면서 감사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김필수가 제주 형제들에게 노회에서 감격한다는 편지를 보내기를 동의(動議)하여 그렇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선교사와 전도인들은 제주 선교에 열심을 다하였다.

제4회 독노회 중에 “선도스 리기풍씨와 전도인 김홍년씨가 제주 전도형편과 교회 성립되어 가는거슨 일일이 설명하니 회중이 일절 감사헌 후에”²⁶⁵⁾ 김필수가 기도하고 정회하게 된다. 노회 중에 선교사와 전도인으로 하여금 제주 선교의 상황을 보고하게 한 것이고, 그런 보고를 듣고 노회는 모두 감사한 것으로 볼 때에 제주 선교는 잘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회 독노회 중에 전도국장 길선주가 노회 셋째날인 9월 19일 오후7시에 제주 선교사 이기풍과 청국 북간도 선교사 김영제의 강론(講論)을 같이 듣기로 동의(動議)하여 결정한다.²⁶⁶⁾ 이렇게 결정한 대로 오후7시30분에 전도국장 길선주의 인도와 김익두의 기도로 속회하여 이기풍과 김영제의 강론을 들으니 “제주 선교스 리기풍씨는 성신의 권능이 제주에 나타남과 북간도 선교스 김영제씨는 북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민의 구원에 시작되였다”²⁶⁷⁾는 강론을 하자 회중이 모두 감사하였다. 이렇게 제주의 선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役事)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5회 독노회 중에 전도국위원의 계속되는 보고 중에 “리기풍 목사를 다시 제주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청원호오며”²⁶⁸⁾라는 청원을 하게 된다. 이런 청원은 전도국의 다른 보고와 함께 채용된다. 이런 결정으로 이기풍은 제1회 독노회가 설립되면서 제주로 파송되어서 계속해서 선교사로 사역하여 한국 교회 선교 역사(歷史)에 큰 족적(足跡)을 남기게 된 것이다.

1912년 9월 1일에 설립된 제1회 총회에서 전도국위원이 제주교회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된다.²⁶⁹⁾ 이 보고를 살펴보면 그 당시 제주 선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 보고는 <표13>와 같다.

265)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스회회록』 (1910), 16.

266)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오회회록』 (1911), 9.

267) 위의 책, 15-16.

268) 위의 책, 27.

26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14-18.



<표13> 1912년 9월 현재 제주 교회 상황보고²⁷⁰⁾

교인 수	금년 세례인	17인(人)	직분(職分)	조스	1인
	세례인 도합	58인		령수	1인
				집스	2인
	금년 ㄴ회세례	2인	레비쳐소 (禮拜堂)	레비당	3
	ㄴ회세례 도합	5인		기도회 처소	5
	금년 학습인	35인	학교(學校)	학교	1
	학습 도합	57인		남학도	8
	금년 새로 단니는 사람	200여 인		여학도	4
	교인 도합	410인		교사	1
연보(捐補)	조스 연보	120원	성경공부 (聖經工夫)	사경회	1츠
	쥬일 연보	45원 94전(錢)		미일 스스roi 성경 보논이	20인 가량
	학교 연보	59원 37전 7리		쥬일 아침 성경공부 하논이	120인
	연보 도합	225원 31전 7리			
기도형편 (祈禱形便)	사기도 ㅎ논집	8	특별스건 (特別事件)	교인 중에 권능을 밧아 병 곳치는 자 만코	
	부흥회 기도	1츠		전도인이 전도함에 문이 크게 열녇스오며	
	특별회집 기도	2츠			
회집형편 (會集形便)	미 쥬일 모히논 남인	100여 인	교회형편 (教會形便)	직분들 화합함	
	미 쥬일 모히논 녀인	200여 인		교인들 신령하고 열심잇슴	
	미 삼일레비에 모히논이	150여 인			

1912년 9월 1일에 개최된 제1회 총회에서 보고된 제주 교회의 상황보고는
지난 5년간 제주 선교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제1회 독노회가 설립되면서

270) 위의 책, 14-18.



제주로 이기풍과 전도인 한 두 사람을 파송한지 5년의 결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양적으로 성장했다. 전체 교인은 410명이 되고, 이중에서 1912년 총회 전 한 해에 새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200여 명이나 되었다. 세례교인은 58명이요, 학습 교인이 57명이고 유아세례도 5명이 되었다. 이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베푸는 신앙의 가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 된다. 이처럼 제주 교회는 양적으로 놀랍게 성장하고 있었다. 둘째로 제주 교회는 5년 사이에 예배당은 3개가 되었고, 기도처는 5개였다. 교회에서 이제는 조사, 영수, 집사와 같은 직분도 주어서 교회의 일군이 생겨났다. 셋째로 제주 교회는 질적으로도 성숙해가고 있었다. 예배출석률을 살펴보면 매주일 출석하는 교인이 남자 100여 명, 여자 200여 명 도합 300여 명이 되었다. 전체교인 410명의 73%에 해당한다. 이 때 예배 참석하는 여자 교인이 남자 교인들의 꼭 배(倍)가 되었다. 매(每) 수요일예배에 출석하는 교인은 150여 명이 되었다.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생활이라면 사적(私的)으로 기도하는 집이 생겨나고 부흥회와 특별회집 기도회를 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성경공부는 매일 스스로 성경을 보는 이들이 20인 가량이고, 주일 아침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120명이 되었다. 그 다음 헌금 생활을 하는 교인들로 성장했다. 넷째로 제주 선교의 결과로 학교가 하나 세워졌다. 교회당만 짓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학교도 세워 교육선교를 같이 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로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해가고 있었다. 직분들은 화합하고 교인들은 신령하고 열심이 있었다. 일곱째로 교회가 은혜와 성령의 역사(役事)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교인 중에 권능을 받아서 병 고치는 자가 많았고, 전도의 문이 크게 열렸다는 보고에서 교회와 교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13년 9월 7일에 회집된 제2회 총회에서 총회전도국은 총회 앞에서 전도국 보고를 하면서 그 첫 번째로 감사할 일은 “제주에 전도하는 형편은 날마다 진취하여 가오며”²⁷¹⁾라고 보고하였다. 이어서 전도형편을 보고하면서 제주전도 형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보고한다.

27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57.



一 제주에 리기풍목사를 일년 쯤 전도케 하였소오며 二 강병담씨도 전도인으로
 一년 더 하게 하였으며 三 리지순씨를 미서로 一년동안 세워논디 월급은 성서공회
 와 전도국에서 합하여 담당하오며 四 평양녀전도회에서 월급을 담당하여 리씨선광
 으로 一년동안 전도하였소오며 五 전주 녀전도회와 고라복목사가 월급을 담당하여
 제주 즈미중 한사람을 택하여 一년동안 전도케 하였소오며 六 경성 전신녀학교에서
 녀전도인 一인을 보니기로 작정하였소오며²⁷²⁾

이런 총회 전도국의 보고를 살펴보면 제주에서 선교하는 이기풍목사 뿐만
 아니라 전도인들이 모두 다 열심히 잘 해서 계속해서 선교하도록 하였으며, 전국의
 여전도회나 기관들이 제주 선교에 끊임없이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총회 전도국은 제주의 전도구역과 교회형편을 총회 앞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보고하게 된다.

1. 제주 교회 형편은 가속기도와 특별기도중에 신령하오며 2. 성경공부는 미주일
 오전에 월보공부로 회당마다 사경도 하고 삼읍도 사경도 하였습닌디 一百十여명이
 회집하였소오며 3. 전도는 기인전도와 미주일 오후에 二人씩 짝지어 전도하오며 남
 녀학도는 아동에게 전도하여 주일학교가 왕성하오며 4. 레비당은 四間을 징축하였
 소오며 5. 학교형편은 남학도 八인이오 녀학도 四인인디 지정군졸훈중 근근 유지하
 오며 6. 리기풍목사는 신학교 기학할 때부터 총회 때까지 쉬게 하였소오며 7. 리기
 풍씨는 쉬일 때에 여러 교회를 순행하는중에 황주읍교회에서 五十원과 중화읍교회
 에서 二十여원과 평양 도제직사경시에 四十원 八十전 五리 연보가 되었느니라 8.
 장리소건은 신학도를 비양할것과 조소 월급을 전담할 일과 레비당이 협착하여 금년
 니로 건축할 일²⁷³⁾

이상과 같은 총회 전도국의 보고를 살펴보면 교인들이 가족을 위한 기도와
 특별한 기도 등으로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며 성경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전도에 열심이어서 어른들은 짝을 지어 전도하고, 남녀 학생
 들은 아동에게 전도해서 주일학교가 왕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의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근근히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
 였다. 리기풍 목사는 쉬는 중에도 교회를 순행하며 사경회를 인도하고 그때에 헌금
 은 총회 전도국에 보내 선교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총회 전도
 국은 장래사건으로 신학생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조사(助事)가 안정적으로

272) 위의 책, 58.

273) 위의 책, 59-60.



사역할 수 있도록 월급을 전담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는 목회자를 길러서 교회를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예배당이 협착하여 금년 내로 건축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 선교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 보고가 아닐 수 없다.

제2회 총회 전도국은 1913년 9월까지의 제주 교회 총계를 총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표14> 1913년 9월까지의 제주 교회의 총계²⁷⁴⁾

금년 세례인	세례인 도합	아히 세례	금년 학습	학습 도합
21	82	5	23	84
피턱 장로	쥬스	령수	집스	레비당
1	1	3	2	3 곳 ²⁷⁵⁾
기도회 처소	미주일출석수논 도합	학교 비용	레비당 잡비와 징축비	
6	400여 명	42원 50전	570원 95전	

1913년 9월 제2회 총회에 보고한 전도국의 제주 총계인 <표14>와 1912년 9월 제1회 총회에 보고된 전도국의 제주 총계인 <표13>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15>와 같다.

<표15> 1912년도와 1913년도 제주 교회에 대한 총회의 총계 비교

항목	1912년도	1913년도
금년 세례인	17	21
세례인 도합	58	82
(금년) 아히 세례	2	5
금년 학습	35	23

274) 위의 책, 60-61.

275) “레비당 삼쳐인디 제주성안 대정읍 조천관”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61] 이라고 보고한다. 제주에 세워진 교회가 성안교회, 대정읍교회, 조천관교회 세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습 도합	57	84
피택 장로	없음	1
조수	1	1
령수	1	3
집사	2	2
레비당	3	3
기도회 처소	5	6
미주일 출석수능 도합	300여 명 (남인100, 녀인200)	400여 명
학교 비용	보고 없음	42원 50전
레비당 잡비와 징축비	보고 없음	570원 95전

위의 <표15>를 살펴보면 제주 교회가 1912년에서 1913년까지 1년 사이에 세례교인이 24명이 증가하였고, 학습교인은 27명이 증가하였다. 매주일 출석하는 교인은 100여명이 성장하였다. 교회의 직원²⁷⁶⁾으로 1913년에 드디어 장로를 한 사람 피택(被擇)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로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이제 제주의 교회가 조직교회²⁷⁷⁾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영수도 한 명 더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또 예배당은 세 곳으로 그대로였지만 기도처가 한 곳 늘었다. 이곳이 후(後)에는 예배당이 될 것이다. 또한 이제 예배당이 협착해서 금년 내

276) ‘교회의 직원’이란 교회내의 직분자를 말한다. 1907년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을 정했다. 당시 규칙 제3조는 “직원이 두 가지니 장로와 집사라”로 되어 있다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32]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제1항 “교회의 직원은 향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22조 향존직 “향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생략)”, 제23조 임시직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생략)”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179] .

277) ‘조직교회’란 당회가 있는 교회를 말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 교회 제9조 지교회 제2항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176] . 또 당회는 목사와 장로가 있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의 조직 제1항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192] .



로 예배당을 증축할 계획을 세우고 그 비용을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제주 교회는 교인수가 성장하였고, 교회의 일꾼들인 직원을 세워가고 학습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질적으로도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도처와 예배당을 짓고, 또 교인이 늘어 예배당이 협소(狹小)해서 다시 증축(增築)할 계획을 세우고 그 건축비를 마련해 둘 정도로 성장하여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07년 9월 17일 제1회 독노회를 조직하면서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한 한국 교회는 지난 5년간 제주 선교를 전국 교회들이 헌금하고 또 교회의 여전도회와 중학교 학도들까지 선교비를 헌금하는 열정으로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제1회 총회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외국전도의 뜻을 품고 중국 산둥(山東)으로 해외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큰 힘이 되었다.



IV. 산동 선교

한국 교회는 1912년²⁷⁸⁾ 9월 1일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한다. 왜 한국 교회는 총회를 설립하면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것인가? 총회 설립의 이유는 무엇이며, 총회 설립과 중국 산동 선교와는 그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A. 제1회 총회 설립의 이유

중국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게 되는 참으로 역사적(歴史的)인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총회는 1912년 9월 1일 오전10시30분에 평안남도 평양 경창문(景昌門) 안 여성경학원(女聖經學院)에서 전회장²⁷⁹⁾ 리눌서(李訥瑞)가 히브리 12장에 장자회(長子會)라는 문제(文題)로 강도(講道)함으로 개회하였다.²⁸⁰⁾ 1907년 9월 17일 오전 9시에 평양 장대재예배당에서 제1회 독노회가 개회된²⁸¹⁾ 지 약 5년이 지난날이다. 그런 이 때에 한국 교회가 왜 제1회 총회를 설립하게 된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下卷)은 총회의 설립

278) 한국 교회가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결의한 1912년의 앞뒤 시기인 1911년부터 1919년까지는 중국교회의 내지전도 황금시기이다. 이때 요나단 고포드(Johnathan Goforth), 셰루우드 에디(Sherwood Eddy), 존 모토(John R. Mott) 선교사들이 큰 활약을 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전국전도운동위원회(1914년), 중국내전도회(1918년), 중국교회선교부 등이 조직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중국 교회 자립운동이 일어나는 시기로 중국 남부의 민남장로회의 자립자양운동, 중부의 중국예수교장로회운동, 북부의 중화기독교회 자립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은 중국교회의 성장에 추진력이 된 것이다 [김요한, “초기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중국연구』, 1993. 2. 24] .

279) 전회장은 제1회 총회가 열리기 전 주후1911년 9월 17일 오전9시에 경상북도 대구 남문안예배당에서 회장 게일(James S. Gale)이 길선주의 요한16장6절에 ‘성신의 하실 일’이란 강도(講道)와 윤식명의 기도로 개회한, 제5회 독노회의 회장을 말한다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오회회록』, 1] . 이눌서는 제5회 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선출되고, 부회장은 양전백, 서기는 한석진, 부서기는 김필수, 회계는 사락수, 부회계는 김석창이 선출이 되었다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오회회록』, 4; 김인수, 『레널즈(W. D. Reynolds)가 한국장로교 선교 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끼친 영향 연구』, 81].

28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1.

281)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4.



에 관(關)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記錄)하고 있다.

一九一二年(壬子) 九月 一日에 朝鮮 예수教 長老總會가 成立하다. 先是에 朝鮮 예수教 長老會가 獨立老會를 組織하여 進行한지 不過 五, 六年間에 敎會가 進展하고 事務가 浩大한지라. 所以 往年 老會席에 總會組成的 提議가 登案하매 齊聲爲可하므로 此에 準備委員을 選定하였더니 今에 至하여 其 準備가 完成되었기 是日에 平壤府 女聖經學院에 會集하여 前老會長 李訥瑞의 司會下 第一回 總會가 嚴然 成立되다. 太早之計이라고 懷疑하는 者도 或 有하였으나 然而 朝鮮敎會는 設立以後로 傳道也와 捐金也와 查經也 無一不獨立 自進하였으니 其在 實際에 其爲總會가 亦不爲 怪라, 及其 開會之日에 英國, 오스트리아와 가나다 各 總會와 美國 北長老, 南長老, 兩 總會와 中國 山東老會와 日本 基督教會에서 各其 祝謝로 致賀하였고 本總會는 各國 長老會總會와 萬國聯合總會에 本會의 成立을 通告하였다. 萬國長老會의 通例로 言及할진대 老會의 上과 總會의 下에 大會가 當有할 것이나 當時 先覺者輩의 洞察로는 地理를 按하여 形便을 依하여 大會를 置할 必要가 없기로 直히 總會를 立하니라.²⁸²⁾

위 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어 어투(語套)로 풀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12년(임자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성립하다. 먼저 이에 조선예수교장로회가 독립노회를 조직하여 진행한지 불과 5, 6년간에 교회가 진전하고 사무가 넓고 커졌다. 이런 까닭으로 지난 해 노회석상에서 총회 조성의 제의가 안건으로 올라오자 모두가 한 목소리도 가하다고 함으로 이에 준비위원을 선정하였더니 오늘에 이르러 그 준비가 완성되었기에 오늘 평양부 여성경학원에 회집하여 전노회장 이눌서의 사회 하에 제1회 총회가 엄연하게 성립되다. 시기상조의 계획이라고 회의하는 사람도 혹 있었으나 그러나 조선교회는 설립이후로 전도와 헌금과 성경공부에 있어서 하나도 독립하지 않음이 없이 스스로 발전하였으니 그 실제에 있어서 총회를 이룸에 또한 총회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 할 것이다. 급기야 개회하는 날에 영국, 오스트리아와 가나다 각 총회와 미국 북장로회, 남장로회, 양 총회와 중국 산둥노회와 일본 기독교회에서 각기 축하하는 말로 치하하였고 본 총회는 각국 장로회 총회와 만국 연합 총회에 본 총회의 성립을 통고하였다. 만국 장로회의 통례로 언급할진대 노회의 위와 총회의 아래에 대회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나 당시 선각자 무리의 통찰로는 지리에 의하고 형편에 의하여 대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로 곧바로 총회를 설립하였다.²⁸³⁾

28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13.

283) 필자의 풀이.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는 총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로 독노회가 조직된 지 불과 5, 6년 사이에 교회가 발전하고 사무가 넓고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둘째는 조선교회는 설립이후로 전도와 헌금과 성경공부가 모두 다 독립적으로 스스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립하였다는 것이다. 총회 설립이 아직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조선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하나도 독립하지 않음이 없이 스스로 자립하였으니 이제 총회를 세운다고 해도 그 역시 이상(異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급기(及其)야 총회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부터 제1회 총회를 설립하는 때까지 한국 교회는 어느 정도 진전(進展)이 있었던 것인가?

제1회 노회 회의록에는 1905년과 1906년 연말 통계를 포함한 1907년 6월 30일까지 장로공의회 통계보고표를 부록(附錄)에 첨부(添附)하고 있다. 이는 당시 한국 교회의 상황(狀況)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16> 장로공의회 통계보고표 1907년 6월 30일까지²⁸⁴⁾

장로공의회 통계보고표 1907년 6월 30일 까지								
십삼도	평안남 북 황해	경기 강원 충청남 북	전라북 남	경상남 북	함경남 북	도합 금년	도합 1906년	도합 1905년
목사	14	10	10	9	6	49	46	46
조사 ²⁸⁵⁾	72	16	19	19	14	160	105	80
매서인	11	16	6	14	11	58	51	44
여전도인	9	6	4	9	10	38	38	39
전도직분 도합	108	39	44	50	42	283	226	192
장로	31	5	3	6	2	47	33	18

284)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부록.



지교회	348	123	109	145	60	785	584	417
회당	333	66	121	125	42	687	546	394
성찬 참례할인	12,383	1,612	1,961	1,311	814	18,061	14,353	11,061
원입교인	11,643	1,444	2,098	3,801	803	19,791	12,161	8,431
속한이의 도합	43,190	7,435	9,376	9,337	3,830	72,968	56,943	37,407
소학교	256	38	44	60	17	405	238	139
학도	6,271	739	497	803	305	8,615	5,124	2,730
연보전 신화	65,367	9,794	8,699	6,016	5,147	94,022	62,634	31,576

위의 <표16>에서 ‘십삼도’로 나누어진 것은 공의회에 속한 지방회를 두고 하는 말로 공의회 밑에는 여러 도의 지방회(church session)들이 있었다. 공의회는 평양과 서울에 각각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위해 두 개의 ‘공의회 지부’(Committee of Council)들을 두었고, 1901년에는 남쪽의 전라도와 경상도에 두 개를 더 설치했고, 1905년에는 가장 북쪽에 있는 함경도에 다섯 번째로 설치했다. 나중에 ‘공의회 지부’는 ‘소회’(Presbyterian Committee, So-hoi)라고 불렸다. 안수 받은 선교사들과 한국인 장로들 및 조사들이 이 소회의 회원이 되었다.²⁸⁵⁾ 위 <표16>를 보면 그러한 공의회에 속한 지방회가 1907년 6월 30일까지 13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표16>에서 목사는 모두 외국목사들로서 아직

285) 조사(조스)란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목사를 도와서 사역하는 자를 말한다. 그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규칙 제3조 6항에 “강도인은 로회의게 강도하는 인허를 받고 로회의 인도함을 좇아 일하며 로회가 작명헌 목사 압헤서 혹 조스가 되느니라”로 되어 있으며, 세칙 2항 강도인과 조스를 인허함에는 “신학 공부를 졸업하기 전에라도 로회가 시췌하야 가합하면 강도인이나 조스를 인허할수 잇느니 이리헌 사름은 혹 로회의 인도대로 힝홀거시라 이리헌 조스와 강도인이 교회를 주장하논 권리는 업스나 로회의 허락을 받으면 당회업는 지회에서 원입교인을 시췌하야 세울수가 잇느니라”고 하여 조스가 어떤 이인지를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당시 조사는 현재의 전도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33, 39].

286) Harry A. Rhodes Ed.,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370.



한국인 목사는 장립을 받지 못한 시기였다. ‘성찬 참례할 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례교인을 두고 하는 말로 <표16>의 통계로 보면 1907년 6월 30일까지 18,061명으로 1905년 11,061명보다 7,000명이 늘었다. 그런데 그 숫자는 계산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위의 <표16>에서 숫자의 도합(都合, 합계)이 약간씩 틀린 것을 먼저 정정(訂正)하면 <표17>와 같다.

<표17> 1907년 6월 30일까지의 장로공의회 통계보고표 정정(訂正)

	조사	성찬참례 인	원입교인	속한이의 도합	소학교	연보전 신화
원본(原本)	160	18,061	19,791	72,968	405	94,022
정정(訂正)	140	18,081	19,789	73,168	415	95,023

그러면 1907년 6월 30일까지 장로공의회 통계보고표<표16>의 계산의 착오를 정정(訂正)한 <표17>를 참고하여 1905년, 1906년, 1907년 6월까지 3년간의 한국 교회의 진전을 몇 가지만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전도직분자 도합이요, 둘째는 장로의 수(數), 셋째는 지교회의 수(數), 넷째는 성찬 참례할 사람(세례교인)의 수(數), 다섯째는 원입교인²⁸⁷⁾의 수(數), 이 다섯 가지만 비교해서 살펴보면 <표18>과 같다.

<표18> 1905년에서 1907년 6월까지 한국 교회의 진전(進展)

	전도직분 도합	장로	지교회	성찬참례할 인(세례교인)	원입교인
1905년 도합	192	18	417	11,061	8,431
1906년 도합	226	33	584	14,353	12,161
1907년 도합	283	47	785	18,081	19,789

287)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3장 교인 제14조 교인의 구분 1항에서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라고 명시(明示)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190].



위의 <표18>을 살펴보면 전도직분은 1905년도 192에 비해서 1907년에는 91이 증가(增加)한 283이며, 장로는 1905년에 비해서 1907년에는 29명이 늘어난 47명이며, 지교회의 숫자는 1905년도에 417개였는데 1907년에는 무려 368개이나 늘어난 785개였다. 성찬 참례할 사람, 곧 세례교인은 1905년도에는 11,061명이었는데 1907년도에는 무려 7,050명이나 늘어난 18,081명이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원입교인의 숫자는 그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1905년도에는 8,431명이었는데, 1907년 6월에는 무려 11,358명이나 증가(增加)한 19,789명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1905년에서 1907년 6월까지만 살펴보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1907년 제1회 독노회 회록의 부록에는 1907년 6월까지의 장로공의회 통계 보고인 <표16>이 수록되어 있지만 사실 제1회 노회 중에도 총계위원인 송인서가 한국 교회의 통계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보고하였는데 목사 47, 장로 53, 조사 131, 예배처소 984, 세례인 17,890, 원입인 21,482, 속한인 68,098, 학교 402, 학도 8,611, 연보는 신화(新貨)로 94,227원이었다.²⁸⁸⁾ 제1회 노회 중에 총계위원인 송인서의 보고에 의하면 원입교인이 1907년 6월보다 1,693이 더 늘어난 21,482명이다. 그러니까 원입교인만을 살펴보면 1905년에서 겨우 2년이 지난 1907년 9월까지 무려 13,051명이 증가하였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날로 늘었다. 원두우(元杜尤)는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고 한다.²⁸⁹⁾ 그러면 제1회 독노회가 설립된 1907년 6월 이후 5년 후(後)인 1912년 9월에 제1회 총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한국 교회에 그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를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1회 총회 회의록에는 1912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총계가 부록(附錄)으로 첨부(添附)되어 있다. 그 총계표에서 사용한 표현을 현대어로 바꾸어 작성한 것이 <표19>이다.

<표19>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총계²⁹⁰⁾

288)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21.

289) H. G. Underwood, "Korea's Crisis Hour," 130; 이만열, 옥성득 편, 『언더우드 자료집』, III, 253.

29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부록.



주후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총계								
	경기 충청	남평안	북평안	황해	전라	경상	함경	도합
목사	12	28	26	10	20	18	14	128
장로	21	96	15	34	25	18	16	225
강도사	0	3	3	0	0	0	0	6
조사	32	43	35	36	29	40	15	230
남전도인	6	7	3	6	11	5	8	46
여전도인	18	18	1	6	6	16	5	70
매서인	16	14	2	9	18	22	47	128
금년 세례인	766	1439	2149	919	1533	1650	80	8836
세례인 도합	3961	12601	11072	5718	9514	7817	2325	53008
아 이 세 례 ²⁹¹⁾	580	1389	1336	1113	242	695	76	5431
금년 학습인	676	1348	2444	744	727	2045	2065	10049
학습인 도합	1819	3600	7514	1651	1548	7736	2532	26400
교인 도합	10075	30000	26948	11439	15439	23985	9342	127228
장립집사	2	9	0	0	5	0	0	16
신학도	15	54	40	21	21	13	16	180
대학교	1	1	0	0	0	0	0	2
중학교	남/녀 2	2	2/4	0	6/5	1/1	2	25
소학교	남/녀 713	3765	2529/ 547	762/ /300	821/84	1572/4 04	1160/2 86	12943
대학도	8	54	18	1	0	2	0	83
중학도	남/녀 165	480	296/ 36	12/ 6	286/ 228	132/ 13	121/ 3	1778
소학도	남/녀 713	3765	2529/ 547	762/ 300	821/84	1576/ 404	1160/2 86	12943
예배처소	182	232	469	171	388	457	155	2054
예배당집	126	227	189	115	211	440	130	1438
전도용비	6,399, 77	159498 5	1,444, 52	70307	581495	1368,2 12	2,018, 78	15,110원 83전 3리



학교용비	5,665, 16	771269 5	10,481 ,08	3802,6 0	1,959, 248	9950,1 95	6,132, 45	45700원 82전8리
각 잡용비	12392, 31	26837, 466	25,515 ,17	10,935 ,97	1,328, 556	5315,5 24	1543,5 6	83818원 55전6리
용비도합	24,457 24	36144, 546	37,454 ,89	16,439 ,64	10,674 ,045	23376, 979	10,217 ,42	158764원 76전

1912년 제1회 총회의 총계표인 <표19>의 통계 중에서 숫자의 계산이 틀린 곳은 두 곳이 있다. 그것을 정정(訂正)하면 <표20>와 같다.

<표20>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총계 정정(訂正)

	금년 세례인	소학도
원본(原本)	8,836	12,943
정정(訂正)	8,536	12,947

제1회 총회 총계표인 <표19>는 1907년 6월까지의 제1회 독노회의 통계표 <표16>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는 유아세례 교인의 숫자가 통계에 나오고 있다. 제1회 독노회 회록의 통계에는 유아세례(아히세례)가 없지만, 제2회 독노회(1908년) 회록에는 이미 도합 2천명이 넘게 세례를 주었고,²⁹²⁾ 제3회 독노회(1909년) 회록에는 도합 3,252명이다.²⁹³⁾ 제4회 독노회(1910년) 회록에는 무려 4,567명이었다.²⁹⁴⁾ 제5회 독노회(1911) 회록에는 1910년보다 더 늘어난 4,567명이었다.²⁹⁵⁾ 그리고 제1회 총회의 회록에는 도합 5,431명이었으니 해마다 한국 교회 내에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훗날 한국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두 번째는 강도사(講道師)가 세워졌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제1회 총회 총계표에 ‘금년세례인’ 항목이 있는 것을 보아서 해마다 세례를 받은 교인을 통계로

291) 원문은 ‘아히세례’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을 ‘아이세례’로 바꾸었고, 유아세례를 말하는 것이다(필자의 주).

292)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이회회록』 (1908), 부록.

293)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삼회회록』 (1909), 부록.

294)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스회회록』 (1910), 부록.

295)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오회회록』 (1911), 부록.



잡았다는 뜻이다. 사실 제2회 독노회 회록에서부터 이미 ‘금년세례받은이’ 항목이 나오고, ‘세례인도합’이라는 항목이 나오고 있다.²⁹⁶⁾ 따라서 제1회 독노회 설립 이후(以後)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학습교인의 숫자를 통계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습(學習)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습교인에 대한 언급은 제5회 독노회(1911년) 회록에서부터 나오는 데, 제5회 독노회 회록에 나타난 1911년 학습인 도합은 35,508명이었다. 제1회 총회 회록에는 ‘금년학습인’이 도합 10,049명이고, 학습인 도합이 26,400명이었다. 그러니 1912년 한해에 학습을 받은 사람만도 일만 명이 넘고, 학습을 받고 후에 세례를 받을 학습인만도 26,400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⁹⁷⁾ 그런데 학습교인의 숫자를 통계로 잡은 자료는 몇 군데가 더 나온다.²⁹⁸⁾ 특별히 민경배는 1905년도와 1907년도의 한국 교회의 교세 증가표를 소개하면서 한국 교회의 교세는 1905년에 비해서 1907년에 무려 140%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²⁹⁹⁾ 민경배는 학습교인이 1905년도 30,136명에서 1907년에 99,300명으로 155%가 증가하였다고 말한다.³⁰⁰⁾ 다섯 번째는 장립집사(將立執事)의 숫자를 통계로 잡고 있다. 장립집사는 안수집사(按手執事)를 말하니 제1회 노회가 설립된 이후에 교회의 직분(職分)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립집사 항목이 생기고 그 숫자를 통계로 잡은 것은 제5회 독노회(1911년) 때부터인데 그때 장립집사의 합계는 18명이었다.³⁰¹⁾ 여섯 번째로 1907년에는 소학교(小學校)만 통계로 잡고 있는 데, 1912년에는 중학교, 대학교, 신학도(神學徒)까지 통계로 잡고 있으니 그동안 중학교, 대학교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곱 번째로 재정지출에서 전도용비, 학교용비, 각 잡용비등을 구체적으로 몇 원(圓), 몇 전(錢), 몇 리(厘)까지 기록하고 있다.

296)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이회회록』 (1908), 부록.

29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리 회록』 (1912), 부록.

298) 이상근, 『대구 제일교회 90년사』 (대구: 대구중외출판사, 1983), 88-89에서 제시하는 통계에서는 학습교인을 통계로 잡은 것은 1897년부터로 나타난다. 김광수, 『한국 민족기독교백년사』 (서울:기독교교문사, 1978), 18; 김양선, 『韓國基督教史研究』 (서울: 기독교교문사, 1980), 37; 민경배, 『韓國基督教會史』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2), 55-55를 재인용.

299)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306.

300) 민경배는 1907년의 통계를 원두우(元杜尤)의 자료를 참고 하였고, 현금 (1,352,867원)은 달러(US\$ 18,528.67\$)를 환산(換算)하여 인용하였다 [Horace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148].

301)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이회회록』 (1911), 부록.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여덟 번째로 제1회 총회가 설립될 때에 일곱 개의 대리회(代理會)가 경기충청, 남평안, 북평안, 황해, 전라, 경상, 함경노회 등으로 일곱 개의 노회로 조직되었다³⁰²⁾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뽑아서 1907년 9월 제1회 독노회가 설립될 때로부터 5년이 지난 1912년 9월 제1회 총회가 설립될 때까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진전이 되었는가를 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1907년 통계표 <표10>에서 1905년, 1906년도 비교해 놓고 있기에 같이 다루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회 노회의 회의록에 첨부된 자료인 1907년 6월까지의 장로공의회 통계보고표인 <표16>에서 사용하는 용어(用語)와 제1회 총회의 회의록에 첨부된 자료인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통계표인 <표19>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差異)를 <표21>와 같이 정리하고 <표16>과 <표19>에서 한국 교회의 진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21> 제1회 독노회의 통계와 제1회 총회의 통계의 용어 차이

	세례교인	교인	교회	예배당
1907년	성찬참례 인	속훈이의 도합	지교회	회당
1912년	세례인 도합	교인 도합	예배처소	예배당집

위의 <표2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같은 개념(概念)을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니 그 둘을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서 비교하되, <표22>과 같이 7가지만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22> 제1회 독노회의 통계와 제1회 총회의 통계와의 비교

	목사	장로	조사	세례교인	교인	교회	예배당
1905년	46	18	80	11,061	37,407	417	394
1906년	46	33	105	14,353	56,943	584	546

30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43.



1907년	49	47	140	18,081	72,968	785	687
1912년	128	225	230	53,008	127,228	2,054	1,438

위의 <표22>만을 살펴보아도 1907년으로부터 5년이 지난 1912년 사이에 한국 교회는 여러모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1907년까지의 목사의 숫자는 모두 한국에 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다. 그런데 1907년 제1회 독노회에서 한국인 목사 일곱 명을 장립하고 난 다음에 1912년에는 목사가 128명이 되었다. 제1회 총회를 개최할 때에 총회에 참석한 외국목사의 숫자는 44명이었다.³⁰³⁾ 그러니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외국목사가 몇 명 있다고 해도 128명 중에 나머지는 모두 한국인 목사로서 5년 사이에 한국인 목사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장로의 숫자가 1907년 47명에서 1912년에는 225명으로 늘었다. 세 번째로 교사가 1907년에는 140명이었는데 1912년에는 230명이 되었고, 네 번째로 세례교인의 숫자는 1907년에는 18,081명이었으나 1912년에는 무려 34,927명이 증가한 53,008명이 되었다. 세례교인의 숫자는 지금도 총회가 각 교회로부터 보고를 받는 교단의 교세를 가늠하는 척도이니 그 당시에 5년 사이에 세례교인 숫자가 약 3만5천명이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다섯 번째로 교인의 숫자를 살펴보면 1907년에는 72,968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1912년에는 무려 54,260명이 증가한 127,228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산술적(算術的)으로 해마다 평균적으로 1만 명씩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1회 노회가 조직되고 5년이 지나는 동안에 교인의 숫자가 한 해에 1만 명이 상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한국 교회는 소위 「105인 사건」으로 증가 일로를 걸던 교세가 1912년에 가서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교인은 약 2만여 명이 감소되었고, 학교는 약 100개가 감소되었으나 단 세례교인만은 증가되었으니 이는 고난 중에서도 교회의 질적 향상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⁰⁴⁾ 이것을 제2회 총회록에 첨부된 총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3> 1911년과 1912년의 교인 증감 비교표³⁰⁵⁾

303) 위의 책, 4.

304) 蔡弼近, 『韓國基督教開拓者 韓錫晉과 그 時代』, 190-91.

30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부록.



	교인 도합	세례인 도합
1911년	144,261명	46,934명
1912년	127,228명	53,008명
전년도 대비 증감(增減)	17,033명 감소	6,074명 증가

1914년 제3회 총회 회의록의 부록에 첨부된 총계표에 의하면 세례교인 도합이 60,047명으로 이 숫자는 1913년의 세례교인의 도합으로서 전년도인 1912년보다 7,039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교인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교회가 증가하였다. 예배드리는 처소가 1907년 785개에서 1912년에는 무려 1,269개가 증가한 2,054개였다. 일곱 번째로 예배당이 1907년에 687개였는데 1912년에는 1,438개로 751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한 해에 예배당이 건축된 것이 150개라는 뜻이니 한 달에 12개가 지어진 것이다. 그 당시 이곳저곳에서 예배당 짓는 역사(役事)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니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재령에 있던 미 장로회 한국 선교부에서 1913년 5월 18일에 미국 외지선교부로 보낸 한위렴(韓衛廉, William B. Hunt) 부부(夫婦)와 샤프(C. E. Sharp)³⁰⁶⁾ 부부와 공위량(孔衛良, William C. Kerr) 부부, 윗팅(H. C. Whiting)³⁰⁷⁾ 부부 등의 이름으로 된 선교편지에서 한국 교회는 세 가지 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데 그 첫째는 교인 수에 있어서(in numbers) 성장하고 있고, 둘째는 교회의 능률면에서(in efficiency) 성장하고 있으며, 셋째로 은혜롭게(in grace)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각각의 교회들이 실제적이고 굳건하고 근본적으로 연합을 향하여 진전하고 있다고 하였다.³⁰⁸⁾ 소안론(蘇安論)이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로 보낸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소망을 밝히기도 하였다.

306) 샤프(C. E. Sharp)는 재령선교부 내에서 해주(Hai Ju)와 강영(Kang Yung)에 서의 사역을 맡고 있었다 [*Minutes and Reports of The Twenty-Third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1907), 64*].

307) 윗팅(H. C. Whiting)은 재령선교부 내에 모든 의료사역을 맡았다 [위의 책,].

308) Wm. B. Hunt,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Chairyung Station, 1913.5.18.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은 이 사람들의 기독교화(the Christianization)이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들이 성숙하게 발전되어가는 것을 보는 기쁨을 감사할 수 있다. 교회가 성숙해 지면 그들이 자신들의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안팎의(ad intra and ad extra)’ 여러 종류의 사역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³⁰⁹⁾

소안론의 글 속에서 성숙한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위렴은 KMF에 기고한 글에서 자전(自傳), 자급(自給)과 자치(自治)의 관계와 전도와의 연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처음으로 황해도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나는 내 시간의 거의 모두를 이미 믿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만 사용하였던 같다. 그런데 그때에는 다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은 곧 좀 가치 있는 지도자(a Leader)나 조사(Helper)나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다. 교회는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전도는 죽었다.³¹⁰⁾

한위렴은 그러면서 자급(自給)양(嬢)(Miss Self-support)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교만하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나쁜 길로만 가지 않으면 자전(自傳)군(君)(Mr. Self-government)이 이에 상응하여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³¹¹⁾

한국 교회는 이렇게 자립하는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는 조선교회는 설립 이후로 전도와 헌금과 성경공부가 모두다 자립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³¹²⁾ 헌금, 곧 교회의 재정을 살펴볼 때에도 1907년 제1회 노회 설립 이후 제1회 총회를 설립할 때까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도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7년 6월까지 장로공의회 통계보고표인 <표16>에 ‘연보전신화’라는 것이

309) W. L. Swallen, "Personal Report 1912-1913," 2 in *Record of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U.S.A.*

310) Wm. B. Hunt, "The Relation of Self-Propagation, Self-Support, and Self-Government to One another and to Evangelism," KMF 11 (August, 1916), 213.

311) 위의 책, 213.

312) “朝鮮教會는 設立以後로 傳道也와 捐金也와 查經也 無一不獨立 自進하였으니 其在 實際에 其爲總會가 亦不爲 怪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13].



나온다. ‘연보전(捐補錢)’이란 ‘연보(捐補) 돈’이란 말로 헌금(獻金)을 말한다. 제1회 노회 보고 중에 재정위원 이길함이 보고하기를 “금년 각 총당의 로비는 각 디리위원의게 담임하게 하고 명년 총당의 로비와 로회 각양 부비는 전국 장로회 세례인의게 미명 신화 이전오리식 슈랍하여 지용하기로 보고함매”³¹³⁾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새로운 화폐(貨幣)로 노회의 각양 부비(浮費, 비용)을 위해서 전국 장로회 세례교인 한 명당 이(二)전(錢) 오(五)리(厘)씩 각출(釀出)해서 내는 연보였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의 상회비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도 지교회들이 노회에 상회비를 낼 때에 세례교인수를 계산해서 상회비를 책정하고 납부하고 있다.³¹⁴⁾ 따라서 1907년 6월까지의 장로회공의회 통계보고표인 <표16>에 나타나는 ‘연보전신화(捐補錢 新貨)’는 한국 교회 전체 지교회에서 매(每) 세례교인 한 명당 새로운 화폐[新貨]로 2전5리씩을 계산해서 노회에 내는 일종의 상회비와 같은 헌금의 총액을 말한다고 본다. 그 금액이 1905년에는 도합 31,576원이고, 1906년에는 도합 62,634원이고, 노회가 열리기 직전(直前)인 1907년 6월까지의 95,023원이었다. 그리고 1907년 9월 노회 중에 재정위원 이길함의 보고에 의하면 ‘연보 신화’가 94,227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¹⁵⁾ 그러면 이 금액이 당시(當時)에 어느 정도의 화폐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1908년 9월 6일에 개최한 제2회 노회 중에 전도국위원 김찬성이 보고하는 중에 제주로 파송한 선교사 이기풍의 월급이 매월 20원이고 전도인의 월급은 매월 15원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전도국 재정예산이 선교사의 연급(年給)이 270원이라고 보고하였다.³¹⁶⁾ 그러니까 제1회 노회 중에 ‘연보 신화’라고 보고한 94,227원은 이기풍 선교사 월급으로 계산하면 4,711개월 월급이니 392년치가 된다. 달리 말하면 392명의 일 년 월급의 합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1회 총회는 그 규모가 노회와는 다르니 제1회 총회 전에 개최된 제5회 독노회 때의 재

313)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21.

314) 노회는 상회비에 관한 노회의 규칙을 정해서 지교회로부터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동노회 노회 규칙 제9장 재정 제36조 (상회비) “지 교회 상회비는 수입결산액의 1억원 이상은 2%, 6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1%,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은 30만원, 3천만원 미만은 10만원으로 하며, 미납교회는 청원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1회 서울동노회 회의안』 (2014년 10월 21일), 254-55].

315)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22.

316)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이회회록』 (1908), 6.



정지출과 1907년을 비교하면 한국 교회가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한 후에 재정 규모에 있어서도 얼마나 진전을 이루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1911년 9월 17일에 개최한 제5회 독노회 회의록에는 전도용비 합계가 19,524원 17전 2리였다. 학교용비는 64,149원 77전이고, 각 잡용비가 52,291원 2전 5리이며, 용비(用費) 도합이 136,535원 71전 2리였다.³¹⁷⁾ 그러니 제1회 노회를 설립한 이후 4년이 지난 제5회 노회의 씬씀이는 엄청나게 커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교인 수(數)에 있어서나 그 재정 규모에 있어서 괄목(刮目)할만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외국 목사인 선교사들이나 한국 목사들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들불(wildfire)’³¹⁸⁾처럼 일어나는 한국 교회의 발전(發展)을 목격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1907년 9월에 제1회 노회를 설립한 이후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처럼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는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下卷)의 언급³¹⁹⁾이 결코 과장(誇張)이 아니라, 능(能)히 총회를 설립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나간 노회 곧 제5회 노회에서 제1회 총회를 설립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에 ‘齊聲爲可(제성위가)’하였다³²⁰⁾고 하였다. 제성위가(齊聲爲可)의 뜻이 ‘다 같은 목소리로 가(可)하다’는 뜻이니 만장일치(滿場一致)였다는 뜻이 아닌가? 그러니 모두가 총회 설립에 동의(同義)하여 이에 준비위원을 선정하고 지금(只今)에 이르러서 그 준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³²¹⁾ 이날에 평양부 여성경학원에서 회집하여 전노회장 이눌서(李訥瑞)의 사회로 제1회 총회가 엄연(嚴然)하게 성립이 되었다고 천명(闡明)한 것이다.³²²⁾ 이렇게 제1회 총회 설립의 천

317) 위의 책, 부록.

318) Roy E.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17.

319) “朝鮮예수교長老會가 獨立老會를 組織하여 進行한지 不過 五, 六年間에 敎會가 進展하고 事務가 浩大한지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13].

320) “所以 往年 老會席에 總會組成的 提議가 登案하매 齊聲爲可하므로.” [위의 책,].

321) 제1회 총회가 개최되기 1년 전인 1911년 9월 17일에 개최된 제5회 노회에서 정치위원이 보고하는 중에 “리년총회 모힐일즈는 九월 첫쥬일로 덩하고 지금 로회장과 서기가 총회 조직할 회장과 서기가 될 것이오 또 각 로회가 조직된 후에 만일 스고가 잇슬 것 갓흐면 이 작명훈날 전이라도 회장이 합당헌 광고를 훈 후에 모히게 흘 수 잇습시오”라고 하여 제1회 총회가 개최되기 일 년 전에 이미 제1회 총회의 일자와 회의를 이끌 사회자, 서기를 정해놓았다. 또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어 정한 날자에 회집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회장이 합당하게 광고하고 모이도록 하는 경우까지 결정해 놓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44].



명은 곧 한국 교회의 자립의 선언이었다.

제1회 총회를 설립하는 때에 영국, 오스트리아와 가나다 각 총회와 미국 남북장로회 총회와 심지어는 중국 산둥노회(山東老會)와 일본 기독교회에서도 축하(祝謝)를 보내 치하(致賀)하였다. 이제 총회는 각국 장로회총회와 만국연합총회에 한국 교회의 총회 설립을 통고(通告)하였고 노회와 총회 사이에 대회(大會)가 있어야 하나 당시 선배들의 통찰로는 지리적(地理的)인 상황을 살펴볼 때에 필요 없다고 여겨져서 곧바로 총회를 설립하게 되었다.³²³⁾ 백정성은 총회 창립은 한국 교회가 진정한 자립과 자전, 자치를 실현했다는 것을 세계 교회 앞에 공표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³²⁴⁾

한국 교회는 1907년 9월에 제1회 노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 5년 만에 제1회 총회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³²⁵⁾ 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크기와 한국 교회의 놀라운 발전을 생각하고는 노회와 총회 사이에 대회(大會)를 세우는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총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제는 총회를 설립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자신감(自信感)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긍지(矜持)를 갖고, 드디어 1912년 9월 1일에 당당(堂堂)하게 총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B. 파송

322) “所以 往年 老會席에 總會組成的 提議가 登案하매 齊聲爲可하므로 此에 準備委員을 選定하였더니 今에 至하여 其 準備가 完成되었기 是日에 平壤府 女聖經學院에 會集하여 前老會長 李訥瑞의 司會下 第一回 總會가 嚴然 成立되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13] .

323) 위의 책,

324) 백정성, 『한국 교회의 초기 산동성 선교』 (서울: 동서선교연구개발원, 2012), 84-85.

325) Harry A. Rhodes는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이 왜 이렇게 괄목할 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많은 대답들이 주어졌다. 그 가장 주요한 이유는 한국 교회는 항상 강력하게 전도지향적(evangelistic)이었다는 것이다. 교회 직원(church officers)들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a witnessing church)였다고 한다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ume 1 1884-1934*, 390] .



1. 파송 동기

한국 교회는 1912년 9월 1일에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왜 중국에 선교를 하게 된 것인가?

한국 교회가 중국 산둥(山東)으로 선교사를 파송(派送)한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아시아의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짧은 개신교 역사(歷史)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된 일에 대하여 변창욱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국의 개신교는 1884년 미국 복장로교가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Allen)을 한국에 파송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처럼 한국은 129년의 개신교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는 인도(1706), 중국(1807), 일본(1859) 등 아시아 다른 나라의 개신교 역사와 비교할 때 짧은 역사이다. 동북아 주요 3국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선교사 파송 역사를 비교해보면, 한국교회는 1884년 개신교가 들어온 이후 29년만인 1913년 중국 산둥에 첫 선교사를 파송했다. 중국교회는 1807년 개신교가 들어온 이후 123년만인 1929년에 동남아 화교들에게 첫 해외선교사를 파송했고, 일본은 1859년 개신교가 들어온 지 37년만인 1896년에 한국에 첫 선교사를 파송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놀라운 교회성장을 이룩한 한국교회는 이들 나라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선교사 파송을 시작하였다.³²⁶⁾

한국이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일은 『中華基督教會年鑑』³²⁷⁾에도 기재되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於一九一二年高麗長老總會通過布道於中國之議案遂組織中國布道部因開辦伊始需款浩鉅不能不謀求持久之方而全國長老會信徒均願將每年感恩節所奉獻之捐金作為中國布道之經費以感恩之款辦感恩之事可謂名副其實況中國之大人民之衆雖教會偏³²⁸⁾設熱心宣道者亦在在有人但稼多工少每興浩歎茲應馬其頓之呼求以盡其福音之助力爰商諸中國長老會華北大會則以魯省與朝鮮接近許以萊陽附近各鄉(約六十里)為布道區域

326) 변창욱, “한국교회와 선교역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4), 16-17.

327) 『中華基督教會年鑑』 전14권은 中國 上海에서 처음 출판되었다가 中華民國 臺灣에서 영인본을 만들었다.

328) 원문에는 ‘雖教會偏設’ 부분의 ‘偏’자(字)가 너무 흐려 알아볼 수 없지만 글자의 모양을 살피고, 글의 문맥을 보아 ‘偏(두루미칠 편)’자(字)일 것으로 여겨 그렇게 해석하였음(필자의 주).



韓國教會卽派遣金英勳朴泰魯史秉淳三牧師住該地布道時在一九一三年也³²⁹⁾

위 원문(原文)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翻譯)하면 다음과 같다.

1912년에 고려 장로회 총회가 중국에서 전도하는 안건을 통과하고 드디어 중국 전도부를 조직하여 그렇게 해서 열고 힘쓴 것이 그 시작이라. 정성을 모으는 일이 크고 커서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데 능히 도모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전국의 장로회 신도들이 다 같이 장차 매년 감사절의 헌금을 중국 전도의 경비를 위하여 쓰기를 원했다. 감사절의 정성으로 감사의 일을 힘쓰게 되었으니 가히 그 이름에 걸 맞는 결실이라 할 것이다. 하물며 중국은 나라가 크고, 백성도 많다. 비록 교회는 두루 설립되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한 곳곳마다 있었다. 단지 농사는 많고 공업은 적어서 매년 커다란 탄식이 일어나니 이에 마게도냐의 호소하여 구함이라 복음으로 힘을 써 돕기를 다하려고 하니 이에 중국 장로회 화북대회와 협의한즉 로성(魯省)³³⁰⁾으로 조선 접근지역을 주고 래양(萊陽) 부근 각 지역(약 60리)을 전도구역으로 허락하였다. 한국교회가 곧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세 목사를 파견하여서 그 지역에서 거주하며 전도한 때가 1913년이라.³³¹⁾

『中華基督教會年鑑』은 한국 교회가 중국 산둥 지역에 선교한 일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는 데, 그 첫째는 한국 교회가 1912년에 전도부를 조직하여 중국 선교를 시작했다는 사실, 둘째는 그 선교 경비를 전국 교회의 매년 감사절 헌금으로 충당했다고 하는 사실, 셋째는 선교하는 일을 중국 화북대회(華北大會)와 협의(協議)해서 래양(萊陽) 지역을 허락받고 선교를 시작한 사실, 넷째는 그렇게 해서 1913년에 김영훈(金英勳)³³²⁾, 박태로, 사병순을 파견(派遣)하여 전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감탄하며 소상하게 적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中華基督教會年鑑』

329) 中華續行委辦會 編, 『中華基督教會年鑑』, 第5期 (上海: 上海廣學書局, 1918), 82; 방지일, 사단법인 방지일목사기념사업회 엮음, 『중국 선교를 회고하며-방지일 목사 산둥 선교 사진집』, 147.

330) 로성(魯省)이란 ‘노(魯)나라의 성(省)’이란 뜻으로 산둥(山東)지역은 과거(過去) 중국의 노(魯)나라의 땅이었다. 그래서 과거 노(魯)나라의 성(省)이었던 곳이라 해서 산둥(山東)을 ‘로성(魯省)’이라고 부른 것이다(필자의 주).

331) 필자의 번역(翻譯).

332) 김영훈(金永勳)의 한자(漢字) 이름을 김영훈(金英勳)이라고 쓰고 있다(필자의 주). 김영훈은 총회장이 되는 제16회 총회의 총대 명단에도 金永勳(김영훈)으로 나온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十六회 회록』 (1927), 3; 또 김영훈이 『基督申報』에 기고한 글에 그 이름이 김영훈(金永勳)이다 [金永勳, “山東宣敎異議에 對하야,” 『基督申報』, 1927.7.27.].



은 한국의 선교사 세 사람의 이름을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다. 보통 한국의 자료는 거의 모두가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의 순서로 적고 있다. 이런 순서는 이들이 목사로 임직한 순서이다. 박태로는 1912년 6월 28일에 개최된 제2회 황해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다.³³³⁾ 사병순은 1913년 6월 12일에 회집된 제4회 평남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다.³³⁴⁾ 김영훈은 1913년 8월 26일에 소집된 제4회 평북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다.³³⁵⁾ 목사의 임직은 곧 이들이 평양 장로회신학교 졸업의 순서이기도 하다. 박태로는 장로회신학교의 제5회(1912) 졸업생이었다.³³⁶⁾ 사병순은 장로회신학교를 제6회(1913)로 졸업했고, 김영훈도 제6회로 졸업했다.³³⁷⁾ 그런데 중국 사람들에게는 세 사람이 언제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지, 학교는 언제 졸업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을 테고, 그들에게는 한문(漢文)에 능통(能通)했던 김영훈이 두드러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중국에 선교한 일은 중국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우선 이렇게 세 사람을 중국으로 파송한 한국 교회 제1회 총회가 개최될 때의 모습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912년 9월 1일 오전10시30분에 평안남도 평양 경창문 안 여성경학원(女聖經學院)에서 개최된³³⁸⁾ 이후 마포삼열(馬布三悅)이 떡을 가지고 원두우(元杜尤)는 포도즙을 가지고 축사(祝辭)함으로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정회(停會)하였다가 오후2시30분에 속회(續會)하여 김석창(金錫昌)의 로마8장에 ‘나는 괴롭다’는 문제(文題)로 강도한 후에 김종섭(金鍾燮)의 기도로 폐회(閉會)하였다.³³⁹⁾ 이렇게 역사적인 제1회 총회의 첫날 회무가 마치게 되었다. 제1회 총회는 개회 후 둘째 날인 1912년 9월 2일 오전9시에 평양 서문(西門)밖 신학교(神學校)에서 회장 리눌서의 사회로 박례현(朴禮鉉)³⁴⁰⁾의 미가6장 8절의 강론(講

33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143-44.

334) 위의 책, 116.

335) 위의 책, 84.

336) 최재건, “한국장로교회의 산동선교와 최초 해외선교의 상황과 의의,”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산동선교 100주년의 교훈과 제언』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2), 93.

337) 위의 책, 94.

33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1.

339) 위의 책,

340) 제1회 총회 회의록의 한글 이름은 박례현이고 그 옆에 한자 이름은 朴禮鉉(박례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박례현을 박례현으로 잘못 기재한 듯하다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 데일회 회록』 (1912),] .



論)과 기도로 개회하였다.³⁴¹⁾ 회장이 총회 취지를 설명한 후에 서기가 회원의 천서(薦書)를 검사(檢査)하고 조명(照名)하니 목사 합(合)(외국 목사 44인, 조선목사 52인)³⁴²⁾이 96인과 장로 합이 125인이니 도합 221인이었다.³⁴³⁾ 민경배(閔庚培)는 장로교 총회의 창설(創設)은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서 파송된 총대목사, 장로, 선교사들을 합쳐서 221명이나 모였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몇 가지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그 첫째는 제1회 총회에는 아직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현저(顯著)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 창립총회에서 언더우드 총회장에 그리고 블레어(W. N. Blair)는 회계에 각각 선출된 점, 둘째로 이 총회는 최초의 안건으로서 독노회의 창립이 선교교회를 지향했던 것처럼, 선교교회의 면모를 다시 다짐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산둥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한 점, 셋째로 세계 교회와의 연대의식의 강화라고 말한다. 총회의 조직에 세계 교회와 중국 산둥성의 노회와 일본의 교회가 각각 축사를 보내왔고, 총회는 총회대로 각국 장로회 총회와 장로교 만국 연합총회에 한국 총회의 결성을 통고하였던 것이다. 넷째로 이 총회나 노회의 조직은 각 교파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기는 했지만, 한국민의 정치

341) 위의 책.

342) 제1회 총회가 개회될 때에 목사의 숫자를 살펴보면 외국목사보다 한국목사가 8명이 더 많았다. 숫자상으로는 한국목사가 과반(過半)을 넘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1907년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할 때도 한국회원은 과반을 넘었다. 서국회원은 38인, 한국회원은 40인이었다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대일회회록』 (1907), 5] .

343) 제1회 총회에 참석한 221인은 각 노회별로 살펴보면 경기충청노회(京畿忠淸老會)의 목사 11인과 장로 11인, 전라노회(全羅老會)의 목사 10인과 장로 12인, 경상노회(慶尙老會)의 목사 12인과 장로 12인, 함경노회(咸鏡老會)의 목사 9인과 장로 6인, 남평안노회(老會)의 목사 29인과 장로 54인, 북평안노회(北平安老會) 목사 17인과 장로 12인, 황해노회(黃海老會)의 목사 8인과 장로 18인으로 도합(都合) 221인이었다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 제1회 회록』 (1912), 1-4] . 제1회 총회에 참석한 노회는 총 7개 노회로 경기충청노회, 전라노회, 경상노회, 함경노회, 남평안노회, 북평안노회, 황해노회이며 평안도는 남평안노회와 북평안노회로 나눌 정도였고, 목사와 장로의 숫자가 가장 많은 노회는 남평안노회의 목사 29인과 장로가 무려 54인이었다. 민경배는 제1회 총회 때에 221명이 모였다는 사실을 중대하게 보았다. “이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서 파송된 대표자들이었다. 당시의 도로 사정이나 교통의 어려움 그리고 숙박시설의 미비 같은 것을 생각하면 이 총회 집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신작로가 뚫리고 기차 길이 여기저기 부설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전국적인 규모로는 발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전국적 회합이 이 기독교회의 총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대시한다. 교회는 움직이는 기구요 포괄적인 조직일 때 참 교회인 것이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346] .



훈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³⁴⁴⁾ 그러면 도합 221명이 모여서 창립된 제1회 총회는 왜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인가?

제1회 총회 둘째 날인 1912년 9월 2일 오전9시에 평양 서문(西門)밖 신학교(神學校)에서 속회된³⁴⁵⁾ 총회는 총회 역사상 최초로 총회장과 임원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된다.³⁴⁶⁾ 회중(會中)이 새 임원을 선거할 때에 투표하여 회장(會長)은 원두우(元杜尤, Horace G. Underwood), 부회장은 길선주(吉善宙), 서기는 한석진(韓錫晉), 부서기는 김필수(金弼秀)가 피선(被選)되었다.³⁴⁷⁾ 이 때 제1회 총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원두우(元杜尤)는 취임 설교에서 “구주의 존재를 우리 신자들이 그 행위로 이 악한 세상에서 나타내야 할지니, 이 복음을 우리의 행위로 이 세상에 나타내면, 이것이 복음의 권세 있는 것을 나타냄”³⁴⁸⁾이라 하여, 적극적인 그리스도 현존과 그 선교가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하였다.³⁴⁹⁾ 제1회 총회장에 취임한 원두우(元杜尤)는 한국 교회의 총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특별히 원두우(元杜尤)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 교회에게 고난을 강조하고 있다. 원두우(元杜尤)의 설교(說敎)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

베드로전서 四장21-3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풀무에 연단하는 것 같이 시험을 당한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이상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하였다. 우리가 묵묵히 자신에게 물어보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고생을 받았느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핍박을 받았느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우리 머리에도 피가 흘렀느냐? 예수께서 받기 어려운 잔을 받으신 것세마네 동산과 같은 곳을 당할 때에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야할지니 단 마음으로 예수와 같이 받기 어려운 쓴잔을 받아야 친절하고 단맛이 있는 사랑스러운 잔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원대로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일이라도 행함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할지니 그 십자가의 뜻을 너무 경하게 해석하여 자그마한 어려운 일을 당한 후에도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이가 종종 있다 그것은 잘못이다 십자가의 뜻은 죽는 것을(순교) 가르

344) 위의 책, 346-47.

34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1.

346) 위의 책, 6.

347) 위의 책,

348) 大韓예수교長老會總會 宗教教育部, 『宣敎七十週年記念 說敎集 역대총회장설교』 (1955), 中卷, 19; 閔庚培, 『韓國基督教會史』, 319에서 재인용.

349) 위의 책, 319.



침이요 사소한 고난을 가르침이 아니다.³⁵⁰⁾

원두우는 한국 교회가 1910년 한일 합방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막 지나고 난 다음에 제1회 총회를 설립하는 때에 민족의 고통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자고 도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교회도 주님의 뒤를 따라 생명 구원하는 일에 나서자고 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선교다. 한국 교회는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한 이후에 현저(顯著)하게 성장하였다. 그 결과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해외선교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러면 왜 1912년에 설립된 제1회 총회는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인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그 동기는 무엇인가?

a. 중국으로부터의 요청으로

에너벨 메이저 니스벳(Mrs. Anabel Major Nisbet)은 “최초의 서양선교사가 조선땅에 착륙한지 25년이 지난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중국 산둥성에 있는 중국장로교회의 형제들로부터 온 마케도니아인의 부름에 응하여 래양지역에서 선교사역을 개시하기로 결의했다.”³⁵¹⁾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아마도 니스벳이 한국 교회의 초기 세 명의 선교사들을 바울이 마케도니아인의 부름에 응하여 빌립보로 건너가는 사건에 견주어 하는 말로 보여 진다.

b. 민족의 장래를 위해 세계무대에 진출하는 방법의 하나로

길선주는 일본이 조선에 통감부를 서울에 설치하고 국토와 국권을 박탈하고 자유를 빼앗는 시기에 윤산온(尹山溫) 선교사를 방문하여 국가 현실에 대처할, 교회 운영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게 된다. 이때 길선주는 민간인으로서 세계무대에 진출하는 것은 민족 장래를 위해서 가장 의의 있는 일로 여겨서 중국에 선교사를 파

350) 大韓예수교長老會總會 宗教教育部, 『宣敎七十週年記念 說敎集 역대총회장설교』, 19-20.

351) Anabel Major Nisbet, 『호남 선교 초기 역사(1892-1919)』, 144.



송하는 일을 생각하였다고 한다.³⁵²⁾ 길선주는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 기독교의 존재와 그 활동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³⁵³⁾ 이 때 길선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한국 교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힘에 겨운 일이다. 그러나 나라를 잃었을망정 국외에 선교하는 교회로서 세계 선교국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가장 의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복음 운동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의무인 동시에,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말씀에 순응하는 믿음의 실천이다. 우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의 힘을 다할 뿐이다.³⁵⁴⁾

c. 중국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허순길은 중국 산둥성에 세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대국(大國)인 중국의 그늘 아래서 그 문화적 영향을 받아 온 소국(小國) 한국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큰 덩이에 들어가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누룩이 되기를 원한 것이라고 보았다.³⁵⁵⁾

d. 총회 창립일을 기념하는 기쁨의 감사의 헌물로

1907년 독노회를 창립할 때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처럼 제1회 총회에서도 총회 창립일을 기념하여 외국 전도를 시작하였다.³⁵⁶⁾ 1912년 9월 1일에 개최된 총회에서 총회전도국은 총회 앞에 청원하기를

로회를 시작(始作)할 때에 제주에 선교사(宣教師)를 보냄으로 신령(神靈)은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榮光)을 돌림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充滿)한 바이온즉 지금(至今) 총회(總會)를 시작(始作)할 때에도 외국전도(外國傳道)를 시작하디 지라 등디(支那等地)에 선교사(宣教師)를 파송(派送)하기를 청원함오며³⁵⁷⁾

352) 길진경, 『靈溪 吉善宙』 (서울: 종로서적, 1980), 243.

353) 길진경, 『길선주』, 181-82.

354) 길진경, 『靈溪 吉善宙』, 243, 길진경, 『길선주』, 183.

355)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150.

356) 황재범 외 6인, 『초기 한국장로교회사』, 160.

35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1.



그러니까 총회전도국은 총회를 시작하는 이 때를 기념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청원하고 있다. 객안련은 제1회 총회가 열린 1912년사를 기록하면서

1907年년에 老會로회를 創立창립할 時때에 宣敎師선교사를 濟州제주에 派送파송하여 敎會교회를 設立설립함으로 主님主의 榮光영광을 돌림과같이 今日이제 總會創立日총회창립일에는 外國傳道외국전도를 始作시작하되 支那山東省萊陽縣지나 산둥성래양현에 宣敎師선교사를 派送파송하기로 決定결정하였나니라³⁵⁸⁾

제1회 총회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은 제1회 독노회가 창립될 때에 제주에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처럼 이제 제1회 총회가 창립되는 때에 총회 창립일을 기념하여 외국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는 전도국의 보고와 청원에 의하여 총회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중화민국 래양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외국전도를 시작하고 매년 감사일은 외국전도를 위하여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강도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연보하여 선교비에 충용기로 하였다고 말한다.³⁵⁹⁾

객안련은 한국 전체에 하나뿐인 노회가 1912년에 7개의 노회를 가진 총회로 나아가게 된 것은 완전한 자치적인 교회의 조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한 번 더 한국 교회가 기쁨의 표시의 커다란 행사로서 감사의 헌물을 거두고, 세 명의 목사와 그 가족들이 중국 산둥에서 중국 사람을 위해서 중국말로 사역하는 진정한 해외 선교사역(a real Foreign Mission work)을 열기 위해서 파송되었다고 하였다.³⁶⁰⁾

채필근(蔡弼近)은 그의 책, 『韓國基督教開拓者 韓錫晉과 그 時代』에서 “장로회노회가 그 창립기념사업으로 濟州道 및 日本의 전도사업을 개시하였던 것처럼 총회는 그 첫 사업으로 中國 산둥(山東) 선교사업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韓國 敎會가 피선교국(被宣敎國)에서 선교국으로 위치를 바꾸는 중대한 계기(契機)가 되는데서 매우 의의가 크다.”³⁶¹⁾고 하였다. 이상근도 『대구제일교회90년사』에서 독노회가 조직되자 제주도를 위시하여 세계 각지에 선교사가 파송되었던 것처럼 총회가 설

358) 郭安連 編, 『長老敎會史典彙集』, 58-59.

35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14.

360) C. A. Clark, “The Missionary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69.

361) 蔡弼近, 『韓國基督教開拓者 韓錫晉과 그 時代』, 194.



립된 자리에서 그 기념으로 산동선교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총회가 창설되자마다 한국교회는 피선교국에서 선교국으로 그 체제를 바꾸는 순간이었다고 말한다.³⁶²⁾

서로득(M. L. Swinehart)의 부인(Lois Hawks Swinehart)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외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해외 선교하는” 교회로 이미 알려졌다. 1884년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한국 교회는 1912년에 하나의 총회와 7개의 노회를 가진 완전하게 조직된 장로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는 “바다를 건너” 중국에 해외선교를 실시하기 위해서 큰 감사의 헌물(thank-offering)을 모았다. 그리고 1913년에 세 명의 목사가 산동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다.³⁶³⁾

곽안전은 1907년에 제1회 독노회가 세워질 때에 감사의 헌물(thank-offering)로 제주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중국 산동에 또 다른 선교를 결정하게 되어 그곳에 선교 사역을 열기 위해서 세 명의 목사와 그 가족들을 보내기로 결정되었다고 하였다.³⁶⁴⁾

이렇게 한국 교회는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한국 교회가 총회를 설립할 수 있을 만큼 자립하였으니 이제는 총회 설립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자립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제1회 총회 전도국이 지나등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한국 교회의 기쁨이 되니 총회 앞에서 선교사 파송을 제의하게 된 것이다.

2. 파송 제의

제1회 총회에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제의(提議)는 그 누가 한 것인가? 누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제의했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

362) 이상근, 『대구 제일교회 90년사』, 44.

363) Lois Hawks Swinehart, "The Foreign Mission of a Foreign Mission," KMF 26 (April, 1930), 83.

364) 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177.



이 있다.

a. 길선주의 제의

방지일은 1912년 총회를 개최하면서 길선주 제1대 목사가 ‘우리가 중국에서 공맹(孔孟)의 윤리 도덕을 받은 바인데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갚자’는 제의로 선교사 파송제의를 하자 이에 다 동감하여 가결이 되었다고 했다.³⁶⁵⁾ 그러나 길선주가 총회에서 이런 제의를 했는지, 제1회 총회 회의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제1회 독노회가 조직되는 첫 노회에서 제주에 선교사 파송계획을 보고했던 길선주는 이미 1906년에 중국선교에 대한 그의 염원을 피력하기를 우리는 불원에 우리나라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흑암에 묻혀 있는 수억의 중국인들에게 미국 교인들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선교사를 보내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전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³⁶⁶⁾

길선주는 미션회(선교사회)에 미국 선교 본부와 중국 교회에 이 뜻(선교사 파송)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고 한편 동지들과 의견을 통일하고 총회에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³⁶⁷⁾ 또 길선주는 선교지를 중국 산둥성으로 정하고 그 계획을 총회에 제안했고³⁶⁸⁾ 이 계획이 무르익어, 1912년 총회가 조직되면서 길선주는 총회의 전도국장에게 취임하였고, 곧 총회에 제안해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여,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던 계획이 실현되었다고 한다.³⁶⁹⁾ 길선주는 나라가 기우러지자 전부터 국외로 망명한 애국지사들과 나라의 운명을 근심하던 구 정부 인사들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선교사 파송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도 파송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⁷⁰⁾ 이런 주장은 길선주가 산동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계획을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계

365) 방지일, “영으로 주신 복음, 영으로 같이 받는 역사(役事),”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산동선교 100주년의 교훈과 제언』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2), 32.

366) 金良善, 『韓國基督教史研究』 (서울: 기독교문사, 1971), 109. 각주12. S. A. Moffett 자료, 1906년.

367) 길진경, 『靈溪 吉善宙』, 243.

368) 길진경, 『길선주』, 182.

369) 길진경, 『靈溪 吉善宙』, 243-44.

370) 길진경, 『길선주』, 182.



획하고, 추진하였다는 말이 된다. 살펴보면 중국 산동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모두 길선주의 제안이라는 주장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길선주의 아들인 길진경이 너무 길선주를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길선주는 제1회 노회 내에서도 제1회 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여 진다. 길선주가 제1회 독노회록 서문을 작성하여 노회 시에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³⁷¹⁾ 장로교회 제1회 노회에서 마삼열이 노회장으로 피선되고 난 다음 노회 서기 선출을 할 때에 길선주가 한석진 송인서 김건두 삼인을 공천하였다.³⁷²⁾ 이 세 사람 중에 한석진이 서기로 송인서가 부서기로 선정된다.³⁷³⁾ 길선주는 노회 중에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

제1회 총회 내에서도 길선주의 영향력은 컸다. 제1회 총회 둘째 날인 1912년 9월 2일 오전9시에 속회된 총회는 회원을 점명(點名)한 다음에는 축사(祝謝)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축사의 순서가 이어질 때 만국(萬國)장로회 연합총회(聯合總會)와 미국 남장로회 총회에서 문안(問安)과 축사하는 편지를 낭독하니 길선주가 제안하기를 총회 서기로 이 두 공함(公函)에 대하여 우선 답장도 하고 미국 북장로회 총회와 영국 가나다와 오스트렐리아 장로회 총회에도 조선 총회 조직됨을 감사함으로 편지하기를 동의하여 가결하였다.³⁷⁴⁾ 이렇게 총회 벽두(劈頭)부터 길선주는 회의 진행 사안의 처리 과정에 관하여 자주 발언³⁷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선주는 총회에서 발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시작되어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저런 순서도 맡게 된다. 길선주가 만국장로회 연합총회와 미국 남장로회 총회에서 문안과 축사하는 편지에 대하여 우선 답장도 하고 미국 북장로회 총회와 영국 가나다와 오스트렐리아 장로회 총회에도 조선 총회 조직됨을 감사함으로 편지하기를 동의하여 가결된 다음에 회장 리눌서는 길선주로 하여금 만국장로회 연합총회와

371)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21.

372) 위의 책, 7.

373) 위의 책,

37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5-6.

375) 길선주는 제1회 총회 임원 선거(길선주는 부총회장으로 당선)가 끝나고 임원 교체식을 마친 다음에 또 발언을 하기를 “로회가 갈때에 고퇴도 가시니 총회를 디히야 고퇴를 제조히되 위원은 편하설시로 덕히기를 동의히야 가결히다” 그러니까 총회의 고퇴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6]. 길선주는 총회 사흘째가 되는 9월 3일 회의 때, 동경전도위원회의 보고를 재론키로 동의하기도 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동경전도위원이 감리회와 의논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11].



영국 가나다와 오스트렐리아 장로회 총회와 미국 남북장로회 총회를 위하여 기도케 하였다.³⁷⁶⁾ 회장 리눌서는 많은 회원들 중에서 길선주를 지명하여 기도³⁷⁷⁾케 한 것이다. 이런 다음에 곧바로 총회 역사상 최초로 총회장과 임원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된다.³⁷⁸⁾ 그러니까 길선주가 기도한 것은 총회 임원선거 바로 직전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중이 새 임원을 선거할 때에 투표하여 회장은 원두우, 부회장은 길선주, 서기는 한석진, 부서기는 길필수가 피선(被選)되었다.³⁷⁹⁾ 제1회 총회장으로 원두우(元杜尤, Horace G. Underwood)가 피선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며 그만큼 원두우가 총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며 길선주가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것도 총회에서의 길선주의 영향력을 가늠케 한다. 길선주가 임원 선거 전에 기도하였다고 부총회장으로 피선 되었다기보다는 이미 그만큼 길선주는 총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지금도 노회나 총회가 열리게 될 때, 특별히 임원 선거를 앞두고는 전노회장이나, 증경 총회장들 같이 비중이 있는 이들로 기도케 하는 것을 보면 길선주의 영향력을 가늠하게 된다. 길선주는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다음에 조합교회 목사 고교(高橋)씨를 소개하여 인사와 문안을 시키는³⁸⁰⁾ 역할을 맡는 것은 부총회장으로 역할과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길선주가 제1회 총회 내에서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제의를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b. 한국 사람들의 제안

김성환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제주도에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영향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가장 강력한 뒷받침이 바로 제주도를 외국의 영역으로 보았다는 점으로 조선인들에게는 불가능한 발상이었다고 하였다.³⁸¹⁾ 그러나 산동성 선교는 전적으로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

37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6.

377) 길선주는 제1회 총회 오후 회의를 마치고 폐회(정회)를 하게 될 때에도 기도를 한다. 총회는 길선주의 기도로 정회하였다가 동7시30분에 장대현예배당에서 이기풍의 제주 전도형편과 은혜에 감사함을 설명하고 김필수의 계속 설명이 있는 후에 회장의 기도로 첫날 모든 회의를 폐회하였다 [위의 책, 8-9].

378) 위의 책, 6.

379) 위의 책,

380) 위의 책, 31.



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선교회가 이 일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방효원의 글을 언급하였다.³⁸²⁾

朝鮮서 宣敎를 받은지 二十五年만에 總會가 創立되었으니 이 聖靈의 役事인이 創立總會로서 決議案의 最重最貴한 것이 이山東宣敎始作이다 當時에 敎會의 最大使命이 무엇임을 議論時에 一般會員은 同心合力 祈禱하여 聖靈의指示를 기다림이 맞치 예루살렘 馬可의다락방에 百二十名이 苦待함같이하며 디디여 福音使命이 總會의使節인것을 一致可決하여 山東宣敎事業을 出發케되었다 이일은 全總會로서 大대의 歡喜와滿足으로 使徒時 初代敎會의 氣分이 그대로 充滿하여 始作하였다³⁸³⁾

조동진은 중국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은 한국 교회는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사들을 중국 산둥 반도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이 선택되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의한 대담한 주도권(the bold initiatives)은 서양 선교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보였지만 겁이 없는 시도였다. 중국 교회도 역시 그런 제안을 주제넘을 정도로 대담하다고 생각했다. 비록 서양선교사들이나 중국 교회가 한국인들의 선교열정을 높이 사는 듯했으나 현실적으로 그들은 기꺼이 협조하지 않았다.³⁸⁴⁾ 조동진은 오직 한국 사람들만이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하나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한국 교회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3. 파송 청원

381) 김성환, “주 조선 미국장로교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사역에 끼친 영향”, 79.

382) 위의 책, 85. 그러나 김창영은 그의 박사학위논문 초록에서 1890년에서 1939년까지의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선교운동의 기원과 그 발달은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운동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Chang Young Kim, "The Contributions of the North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s to the Missionary Movement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890-1939: A Historical Study", iv.].

383) 방효원, “山東宣敎에 對하여,” 『계자씨』 제65호(1937.1), 14-15.

384) David J. Cho, "The Growth of Korean Missions and Its Contributions to World Evangelization," in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Centennial of the Protestant Church(1884-1984)*, edited by Ro Bong-Rin and Marlin L. Nelson (Taichung, Taiwan: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1983), 110.



제1회 총회는 1912년 9월 1일 개회한 다음, 넷째 날인 1912년 9월 4일 오전9시에 속회된 회의에서 전도국위원의 보고와 청원이 있게 된다.³⁸⁵⁾ 이때 전도국 위원은 첫 번째로 제주교회 보고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23가지의 보고를 하게 된다.³⁸⁶⁾ 그 23가지의 전도국 보고 중에서 23째 보고는 “황해도로회 헌의는 총회에서 허락하면 그 일은 전도국에서 주장하나 부비는 본로회에서 전도국에 가는 연보와 감사일 연보로 담당하겠다 함에 대하여 감사히 받음”³⁸⁷⁾이었다. 제1회 총회에서 총회전도국의 이 보고 중에서 전도국위원이 언급한 황해도노회의 헌의(獻議)는 무엇인가?

황해도노회는 제1회 장로회 총회에 보고하기를 황해도노회가 1911년 12월 8일 하오6시 30분에 상회³⁸⁸⁾의 명령을 받들어 봉산 모동 예배당에서 조직이 되었

38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14.

386) 전도국위원이 보고한 23가지는 1.제주교회의 교인수, 2.직분(職分), 3.예배처소, 4.학교, 5.연보(捐補), 6.성경공부, 7.기도형편, 8.특별사건, 9.회집형편, 10.교회형편, 11.평양 여전도국에서 모든 비용을 전담하여 이선광을 제주 전도인으로 보내는 일, 12.제주 형제 중 한 사람을 택하여 제주성 교회와 각 교회의 조사로 세우는 일, 13.해삼위(海蔘威) 전도 정지(停止)와 최관홀의 사무 그만둔 일, 14.해삼위 매서(賣書) 이재순, 신윤희 두 사람이 전도하다가 아라사(러시아) 관리에 핍박당하여 수금(囚禁)되기를 한달, 이수(移囚)되기를 세 번씩이나 한 일, 15.최관홀 목사의 사무를 그만 둘 때에 특별히 300원을 준 일, 16.해삼향교회에서 지금은 전과 같이 예배본다는 소식, 17.청국(淸國)영토(領土) 북만주(滿洲) 등지 각 교회와 아라사(俄羅斯)영토(領土)의 촌(村) 각 교회는 다 전모양이라하며, 18.해삼위 전도를 정지(停止)하고 그 예산으로 제주에 일 년간 전도하기 위해서 이재순, 강병담 양씨(兩氏)를 전도인으로 파송하였으며 전주 여전도국에서 매월 3원씩 연보하고 또 고라복 목사가 매월 3원씩 연보하여 제주 형제 자매중 한 사람씩 택하여 전도인으로 세우기를 경영(經營)이오며, 20.광주(光州)사경(査經)시에 제주 위하여 75원 연보하여 제주 형제와 누이님 두 사람을 택하여 육개월씩 전도케 한 일도 있사오며, 21.작년(昨年)연보(捐補)들어온 것을 논하면 재작년(再昨年)보다는 대단히 퇴보(退步)하여 전국 2천여개 교회중에서 백여개 교회에서만 들어온 돈이 7백여원인고로 전도를 더 확장(擴張)치 못하였으며, 22.재정보고와 금년 예산은 회계가 분명히 보고할 것이며, 23. 황해도노회 헌의(獻議)는 총회에서 허락하면 그 일은 전도국에서 주장(主張)하나 부비(浮費)는 본노회에서 전도국에 가는 연보와 감사일(感謝日) 연보로 담당(擔當)하겠다 함에 대하여 감사히 받음 등이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14-20].

387) 위의 책, 20.

388) 제1회 황해도노회가 조직(1911년 12월 8일)되면서 상회의 명령이라고 할 때의 그 상회는 독노회를 말하는 것이다. 아직 노회의 상회인 제1회 총회는 창립(1912년 9월 1일 창립)이 되지 않았고, 황해도노회가 조직되기 이전에는 황해도노회는 제5회 독노회에 속한 노회의 전신인 황해도대리회였다.



다는 서두(序頭)와 함께 크게 다섯 가지의 보고를 한다.³⁸⁹⁾ 그 첫째 보고는 감사할 것³⁹⁰⁾이며 둘째는 교회형편 보고³⁹¹⁾이었다. 이어서 세 번째는 학교형편 보고로서 그 내용은, 좀 섭섭한 것이 각처 소학교도 줄어지고 또 중학교는 폐지가 됨이고, 네 번째 보고는 특별한 사건은 없사옵고, 그 다섯 번째 보고로 “장니스건將來事件은 남녀교우가 외국전도활동을 경영함”³⁹²⁾이라는 보고를 하고 있다. 황해도노회가 총회에 올린, 이 다섯 번째의 보고가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의 아주 중요한 단초(端初)가 된다. 그것은 제1회 총회가 창립되기 9개월 전인 1911년 12월 8일에 조직된 황해도노회³⁹³⁾가 장래 사건으로 외국전도할 일을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남녀 교우가 해외선교를 계획하였다는 것이다. 이 일은 교인들이 계획하였다기보다는 남녀 교우들까지 외국 전도에 대한 뜻을 품고 있었다는 말로 이해된다. 그러면 이런 내용의 황해도노회의 보고는 그 누가 준비한 것인가?

1911년 12월 8일 오후6시30분에 봉산군 영천면 모동예배당에서 모여 조직된 황해도노회는 1912년 6월 28일 오후8시30분에 재령읍 남산현 예배당에 모여 회장 군례빈(君芮彬)이 193장 찬송을 인도함으로 회중이 합창하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로 강도하며 기도함으로서 황해도노회 제2회 노회가 개최되었다.³⁹⁴⁾ 제2회 황

38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44-46.

390) 황해도노회의 보고서의 첫 번째 보고인 감사할 것은 3가지인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의 은혜로 작금 두 해에 수재로 여러 교회가 곤란을 당하였으나 믿는 마음들이 조금도 이즈러짐이 없고 전도할 마음은 더 많아져서 전도인을 많이 세웠으며, 둘째는 4~5개의 교회에서 수천여원씩 들여 예배당을 건축함이고, 세 번째는 재령읍교회에서는 박태로씨를 위임목사로 세우고 봉산 모동교회에서는 최병은씨를 위임목사로 세움이었다 [위의 책, 44-45] .

391) 황해도노회 보고서의 두 번째 보고인 교회형편 보고는 5가지인데, 그 첫째는 각 교회에서 몇 날씩 작정하고 특별기도함과 교인과 직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이 전보다 열심이 더욱 많음이고, 둘째는 성경공부하는 것은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일 년에 한 달씩 특별공부를 하고 도사경과 직분사경도 하며 각 지교회에서 일 년에 두 차례씩 사경하는 것도 있으며, 세 번째로 본 노회 지경 내에 장로 아홉 사람과 조사 네 사람을 더 세우며 위임목사 두 사람을 장립하였사오며, 네 번째로 다스리는 형편은 혹 실수함이 있으나 잘되어 가 옹고 책별한 사람 중에 주일 범한 일로 된 것이 많사오며 등이다 [위의 책, 45-46] .

392) 위의 책, 46.

393) 황해도노회는 1911년 12월 8일 하오6시 30분에 상회의 명령을 받들어 황해도 각 당회 총대위원들이 봉산군 영천면 모동 예배당에 모여 노회 조직회장 이원민이 성경 디모데전서 3장을 보고 하나님의 집에서 할 일이라는 문제(文題)로 강도한 후에 한위림의 기도로 조직회를 개최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황히로회데일회회록』 (1911), 2] .

394) 『조선예수교장로회황히로회데일회회록』 (1912), 1.



해도노회는 1912년 6월 29일 오전9시 30분에 재령읍 남산현예배당에 모여 한위럼의 기도로 회장이 개회하여 속회되었다.³⁹⁵⁾ 이때 시찰위원들이 보고를 하되 봉산 재령시찰 윤문옥이 모동교회에서 최병은씨를 위임목사로 청원함과 재령읍교회에서 박태로씨를 위임목사로 청원하니 다른 청원들과 함께 회중이 일일이 채용하기를 동의하여 가(可)로 결정하게 된다.³⁹⁶⁾

노회는 같은 날 오후3시 같은 장소에서 다시 모여 회장이 기도함으로 속회되었다. 이 때 회장이 회록 낭독하는 일은 조금 후에 하고 목사 될 사람에게 문답하는 일부터 먼저 하자는 제안을 내고 회중들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신학사 박태로와 신학사 최병은을 문답하고, 그 문답을 채용하기를 회중이 동의하여 가결하였다.³⁹⁷⁾

그런 다음에 정사위원 한위럼이 보고하기를 “지령읍교회에서 박태로씨를 위임목사로 청원함과 모동교회에서 최병은씨를 위임목사로 청원한 청원서를 피청한 양씨의게 드리기를 청원하미 회중이 채용하기를 동의하야 가로 결정하다”³⁹⁸⁾ 또 “박태로씨와 한위럼씨와 동소하기를 회중이 동의하야 가로 결정하다”³⁹⁹⁾ 이렇게 해서 박태로는 한위럼과 재령읍교회에서 위임목사로 동사(同事)하게 된다. 박태로가 동사하게 된 재령읍교회는 한위럼(韓衛廉, William B. Hunt, 1869~1953)이 목회하고 있었다. 이것은 1911년 12월 8일 하오6시30분에 열린 제1회 황해도노회에 참석한 회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⁰⁰⁾ 또 1912년 9월 1일에 설립된 제1회 총

395) 위의 책, 3.

396) 위의 책, 4.

397) 위의 책, 5.

398) 위의 책, 6.

399) 위의 책,

400) 1911년 12월 8일 하오6시 30분에 상회의 명령을 받들어 황해도 각 당회 총대위원들이 봉산군 영천면 모동 예배당에 모여 노회를 조직하였다. 회장 이원민이 성경 디모데전서 3장을 보고 하나님의 집에서 할 일이라는 문제(文題)로 강도한 후에 한위럼의 기도로 조직회를 개회하였다. 이때 참석원의 명단은 서흥 읍교회 김한복 장로, 홍수원교회 김규립 장로, 봉산 사리원교회 이원민 목사, 이재선 장로, 모동교회 최병은 장로, 단산교회 윤문옥 장로, 자곡교회 김병옥 장로, 재령읍교회 한위럼 목사, 군례빈 목사, 김성률 장로, 거슬포교회 최기현장로, 신안포교회 최종신 장로, 구암교회 김동규장로, 안악 교동교회 조병직 장로, 삼상교회 강유선 장로, 구문화 사평교회 량성측 장로, 종산교회 우종서 목사, 우응제 장로, 신천읍교회 김익두 목사, 장연 서의동교회 리기언 장로, 송천 홍종옥 장로 등 모두 21명으로 목사 5명, 장로 16명이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황해도회례일회회록』(1911), 2].



회의 총대로 참석한 황해도노회 총대 명단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에 한위렴이 있고, 몇 번 뒤의 순서로 박태로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⁴⁰¹⁾ 이렇게 재령읍교회에서 한위렴과 동사하게 된 박태로는 1912년 6월 30일(주일)에 목사로 장립된다.⁴⁰²⁾

박태로가 위임목사로 장립을 받은 제2회 황해도노회는 1912년 7월 1일 오전9시30분에 재령읍 남산현 예배당에 모여 속회된다. 이 때 전날 목사로 장립된 최병은목사, 박태로목사와 김성률장로 세 사람이 노회에 참여하게 된다.⁴⁰³⁾ 이날 오전10시30분에 잠간 휴식하고 기도한 후에 전도위원 김익두가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보고를 하게 된다.

전도위원 김익두가 보고하기를 우리 로회의 은혜받은 것과 이 세상 어두운 것과 예수께서 마즈막 명령하신 거슬 심각하니 외국전도 아니할수 업슨즉 총회에 헌의하야 청국중에 맞들 디경을 벗어나고 복음전파하기를 청원하되 전도하느디 쓸 자본은 임의 총회전도국으로 보니든 연보와 이후 본 로회 디경니에 감사연보로 하야 그 전도하느 일은 총회전도국에서 주장하와 주시기를 청원하자고 하미 회중이 치용하기로 동의하야 가로 결정하고⁴⁰⁴⁾

황해도노회의 전도위원 김익두는 황해도노회가 총회에 외국전도를 하되 청국 중에 맡을 지경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청원하고 있다. 김익두가 외국전도를 하자고 보고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황해도노회가 받은 은혜 때문이고, 두

401) 제1회 총회에 참석한 황해도노회의 회원은 모두 26인이니 목사 회원은 그 첫 번째가 한위렴(韓衛廉)이요, 그 다음은 사우업(史于業), 우종서(禹鐘瑞), 김익두(金益斗), 최병은(崔秉恩), 박태로(朴泰魯), 이원민(李元敏), 공위량(孔衛良) 이상 8인이며, 장로 회원은 김창일, 최종인, 이재선, 최상식, 장덕상, 김성률, 김상현, 조동원, 김종삼, 최정엽, 김규엽, 김병익, 우응제, 이승철, 최종신, 윤문옥, 박기순, 신종각 이상 18인이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4] .

402) 황해도노회회록에는 이 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구주강심 일천구백十二年六월三十일은 곳 주일인디 상오 十시에 본로회가 모혔든곳에 다시 모혀 회장이 주장하고 레비하느디 한위렴씨가 일백三十七장 찬송을 인도함으로 회중이 합창하고 사우업씨가 기도하고 김익두씨가 누가복음 十장二十五절노三十七절을 보고 강도하고 박태로, 최병은, 량씨를 규모디로 목수로 장립후후에 교수례를 행하고 한위렴씨는 지령읍교회에 위임되는 박태로목소의게 마태복음 二十二장 三十七절노 四十절을 가지고 몇가지로 권면하고 최병은 목소의 축복기도로 레비를 필하엿다” [『조선예수교장로회황해도회데이회회록』 (1912), 6] .

403) 위의 책, 7.

404) 위의 책, 8.



번째는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이요, 세 번째로 예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것을 생각 하니 외국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총회에 외국전도 하기를 청원하자고 하며 그 외국으로 청국(淸國)을 제시하고 있다. 그곳은 중국이다. 중국 중에서 우리가 말을 지경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총회에 청원하자고 한다. 또한 외국전도에 쓸 자본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황해도노회가 총회전도국으로 보내던 헌금과 이후 황해도노회 지경 내에 있는 교회들의 감사헌금으로 하면 되겠다는 계획을 내 놓고 있다. 또한 외국전도를 하는 방법도 언급하고 있다. 곧 전도하는 일은 총회전도국에서 주장하도록 청원하고 있다. 이렇게 김익두는 외국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2회 황해도노회에서 보고하였다. 김익두의 이런 보고는 온 회중이 채용하기로 동의하여서 가(可)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황해도노회는 1912년 9월 1일에 설립된 제1회 총회에 헌의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전도국위원인 김익두는 어떻게 제2회 황해도노회에서 외국전도를 총회에 청원하자는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일까? 김익두 혼자서 생각이었겠는가? 아니면 다른 그 누구의 제안이나 의견이 있었겠는가? 어떻게 황해도노회는 외국전도를 총회에 청원하자고 할 때에 온 회중이 동의(同義)하여 가(可)로 결정하였는가? 먼저 제2회 황해도노회에서 전도국위원인 김익두가 외국전도를 보고하기 이전에 제1회 황해도노회와 황해도노회의 전신인 황해도대리회에서는 외국전도에 대한 그 어떤 보고나 계획은 없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11년 12월 8일 오후6시반에 개최된 제1회 황해도노회에서 전도회위원의 네 가지의 간단한 보고⁴⁰⁵⁾ 속에서는 외국전도에 대한 보고는 없다. 이때까지도 황해도노회에서 외국전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면 황해도노회의 전신인 황해도대리회 일 때는 그 어떤 조짐을 찾을 수 있겠는가? 1911년 9월 7일 오전9시에 경상북도 대구 남문안예배당에서 개최된 제5회 독노회에 보고된 황해도대리회 보고에서도 외국전도에 대한 보고를 찾을 수 없다.⁴⁰⁶⁾ 그러면 황해도노회가 조직되기 직전에 열린 제5회 독노회에서는 외국전도에 대한 그 어떤 언급은 없었는지 살펴

405) 전도회위원의 보고는 1.지나간 여름에 재령남편에 전도 조사 보낸 후에는 다른 전도인은 보내지 아니하고, 2.10월 28일에 최정환씨는 평산남편에 전도인으로 보내고 류(류?)만섭씨는 신천남편에 전도 조사로 세우고, 3.남평산과 남재령과 남신천 일은 할수있는대로 이전과 같이 하게 하고, 4.예수 믿는 사람 이사시키는 청원 [『조선예수교장로회황해도회례일회회록』 (1911), 12] .

406)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례일회회록』 (1911), 51-53.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5회 독노회 때에 길선주가 전도국장이었기 때문이다.⁴⁰⁷⁾ 길선주는 제1회 독노회가 조직될 때에, 1907년 9월 19일 오전8시45분에 평양 장대재예배당에서 회장 마삼열(馬三悅)의 사회로 속회된⁴⁰⁸⁾ 노회의 셋째 날에 전도국위원으로 제주 선교에 관한 7가지⁴⁰⁹⁾를 보고한다. 그 첫 번째가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할 일이었다.⁴¹⁰⁾ 이렇게 제1회 독노회 때에 제주로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보고하였던 길선주는 제5회 독노회에서는 전도국장이었는데, 길선주가 전도국장으로 있던 제5회 독노회 전도국위원의 보고에서는 외국전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5회 노회의 회장 리눌서(李訥瑞)⁴¹¹⁾가 1911년 9월 19일 오전9시에 속회된⁴¹²⁾ 노회에서 각 위원들의 보고를 청하자 전도국위원이 보고하기를⁴¹³⁾ 시작하여 그 첫 번째로 제주 전도형편을 보고하였다.⁴¹⁴⁾ 노회장이 제주 전도형편에 관한 전

407) 위의 책, 15, 33.

408)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6.

409) “一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할 일, 二 선교사의 월은과 전도 용비는 각 교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하게 부탁할 일, 三 연보할 때는 각 교회에서 연보할 편지 보는 주일에 광고하고 그 다음 주일에 연보할 일, 四 제주 선교사는 리기풍씨로 전도인 한두 사람과 동반하여 파송할 일, 五 원회에는 박치록씨로 탁당하며 부회에는 방위량씨로 탁당하기를 청원할 일, 六 전도국 위원 아홉 사람 받게 경상도 심취명 전라도 하요한 함경도 구례선 삼씨를 더 선당하기를 청원할 일, 七 제주 선교사와 전도인 월급 받쳐 리왕비와 가사비와 전도회인허 특별비를 본 전도국에서 지출할 일.”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6-17].

410)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6.

411)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오회회록』 (1911), 4, 65.

412) 위의 책, 8.

413) 위의 책, 9.

414) 1.제주전도형편 (1)선교사 리기풍씨는 열심 전도이오며 (2)전도인 김창문시를 록기월간 보내어 전도하였소오며 (3)목포 계신 미국 마부인의 연보로 녀전도인 두 사람을 보내어 전도하는 중이며 (4)평양대중학교 학도의 연보로 대학도 강병담시를 보내어 전도하는 중이오며 (5)평양 녀전도회에서 리선광 부인을 또 보내어 전도케 하오며 (6)레비당은 세 곳이오 또 레비 처소가 두 곳이며 교인은 一百六十여인이오 연보낸 돈은 八十一원 五十七전六리이오 2.로국령디와 청국등디 전도형편 (1)선교사는 최관흠시로 일년동안 전도케 하였소오며 (2)조스는 한병직시로 일년동안 보내었소오며 (3)미셔는 리지순시로 일년동안 보내었소오며 (4)로국령디에 레비당은 두 곳이오 레비처소는 십삼곳이오 청국등디에 레비당이 한곳이오 레비처소 네 곳이오며 (5)교인 七百六十四인이오 연보낸 돈이 九百二원 二十九전이오며 (6)히삼위 레비당이 화지를 당함과 레비당 옮겨 지음으로 본 전도국에서 五十원 연조할뿐 아니라 히삼 교우들이 수고 만히하였소오며 (7)미셔인의 책 판값시 八十八원 九十전이오며 3.일본동경전도형편 (1)전도인은 박영일시를 작년에 스기월 금년에 삼기월



도국 보고를 하나씩 하나씩 축조(逐條)하여 물으니 회중이 임시보고로 받았다.⁴¹⁵⁾ 그런데 이상(以上)의 전도국의 보고 중에서 그 어디에도 중국의 지나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외국전도에 대한 보고는 없다. 물론 러시아와 청국 등지의 전도형편의 보고가 있으나 그 보고 속에서도 지나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내용보다는 그 곳에 있는 예배당 숫자에 대한 보고였다. 임시보고로 받았던 전도국위원의 보고는 1911년 9월 21일 오전9시에 속회된⁴¹⁶⁾ 노회에서 계속하여 크게 7가지를 보고하였다.⁴¹⁷⁾ 이 보고에서도 중국의 지나등지에 외국전도를 실시하자는 보고는 없다. 그 무엇보다도 해삼위 최관홀 목사에게 대한 염려와 그 처리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보고였다. 이런 전도국위원의 보고는 채용하고 회중이 그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서 10분 이내에 설명하기로 가결하였다.⁴¹⁸⁾ 아마도 러시아 최관홀목사에 대한 설명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제5회 독노회 중에 전도국 보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11년 9월 21일 오후2시에 속회된⁴¹⁹⁾ 노회에서 전도국위원이 계속해서 보고를 한다.⁴²⁰⁾ 전도국위원이 계속해서 보고하는 그

보내었스오며 (2)레비쳐소는 조선청년회관을 빌려 쓰오며 교인 一百五十八인이오며 연보논미 주일에 평균 一원이오며 (3)감리회 교인과 장로회 교인이 난호와 레비보논일이 싱김으로 대구 부히리 목사의 인도로 아직 장로회 규모를 폐하고 합하여 레비보게 혼일이 잇스오며 (4)동경교회에 감리교인과 장로교인의 공익을 위하여 길선두 원두우 부히리 삼시를 전권위원으로 명하여 감리교회와 교섭케 할일 4.지정예산 (1)제주위하여 四百五十원이오며 (2)히삼 위하여 八百九十원이오며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오회회록』 (1911), 9-12].

415) 위의 책, 12.

416) 위의 책, 25.

417) 1.아령등디 히삼교회에서는 문안하는 편지가 왔스오며 동령교회와 소왕령교회에서는 목사를 보니여 달는 편지가 왔스오며 2.최관홀목사 편지중 히삼디경을 감리교에 밋겨 일하기를 청구하는 일에 디하여는 본 전도국에서 부하다고 작명하였스오며 3.지나간 봄에 최관홀목사의 편지를 보온즉 지정 곤란과 전도문이 열니지 못하여 전도하기 극는하다 호매 본전도국에서 성진으로 나오라 하였스오며 더니 최목사의 답이 근간 히삼 형편이 변하였다고 나오지 아니혼일과 전도국에서 지휘업시 아라스 피득보에 갖다가 온 일과 히삼디경을 감리교회에 붙쳐달른 이 세가지 일의 디하여 본전도국에서 의심하는 려녀가 업지 못호고로 시찰위원 부두일 량면빅 방위랑 삼시를 턱하여 보니기로 작명하였스오며 4.성서 공회에서 허락혼디로 미셔 두 사를 턱하여 보니기로 작명하였스오며 5.함경북다리회에서 시찰위원을 턱하여 히마다 히삼각교회에二三초식 시찰하기를 로회에서 명하여 주시기를 청원호오며 6.리기풍목사를 다시 제주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청원호오며 7.특별히 히삼등디 위하여 연보가 드리오면 목사 한 사를 더 보니옴기를 경영호옵는다 [위의 책, 26-27].

418) 위의 책, 28.

419) 위의 책, 31.

420) 위의 책, 32.



내용은 해삼위 최관흠목사의 선교에 관한 보고였다.⁴²¹⁾ 이때 전도국장인 길선주는 평양 교우들이 다른 곳으로 선교하자고 헌금한 돈 삼백여원을 해삼위를 위하여 쓰기를 청구하겠다고 하자 회중이 감사함으로 환영하였다⁴²²⁾고 하였으니 그 당시 해삼위 선교가 전도국에서는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요 큰 문제였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해서 제5회 독노회 중에 길선주가 전도국장으로 있었던 전도국위원의 보고는 끝나는데, 그 어디에도 중국의 지나등지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여 외국전도를 실시하자는 그런 보고나 계획이나 청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제5회 독노회의 개회 후 약 9개월 후가 되는 1912년 6월 28일에 개회된 제2회 황해도노회에서 전도위원 김익두가 총회에 청국에 외국전도하자는 헌의를 청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2회 황해도노회에서 전도위원 김익두가 보고를 하면서 “외국전도 아니할수 업슨즉 총회에 헌의하야 청국중에 맞틀 디경을 얻어가지고 복음전파하기를 청원”⁴²³⁾한 것과 같은 내용의 보고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11년 9월 7일 오전9시에 경상북도 대구 남문안예배당에서 개최된 제5회 독노회에 보고된 황해도 대리회 보고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⁴²⁴⁾ 또한 제5회 독노회에서 길선주가 전도국장이었던 전도국위원의 보고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1911년 12월 8일 오후6시 반에 개최된 제1회 황해도노회의 전도회위원의 네 가지의 간단한 보고⁴²⁵⁾ 속에서도 외국전도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 따라서 1912년 7월 1일 오전9시30분에 재령읍 남산현 예배당에 모여 속회⁴²⁶⁾되고, 오전10시30분에 잠간 휴식하고 기도한 후에 있었던 전도위원 김익두의 보고⁴²⁷⁾는 황해도노회 전도위원 김익두의 보고가 처

421) 전도국위원이 계속하야 부두일 량년빅 량시를 히삼에 시찰노 보내되 일이 귀순지안는 경우에는 량년빅시를 녀달동안 류하게 하옵고 또 다른 목사를 히삼에 보내기로 톡헌권을 본 스무국에 맞기리를 보고하매 회중이 치용하기를 동의하야 가결하다. 전도국장 길선두시가 평양 교우 十三인이 령원덕천에 선교스 보니기 위하야 三百여원 연보가 되엇다고 공포하며 혹 히삼을 위하야 쓰기를 청구하겠다 하매 회중이 감사환영하다 [위의 책, 32-33] .

422) 위의 책, 33.

423) 『조선예수교장로회황히로회데이회회록』 (1912), 8.

424)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이회회록』 (1911), 51-53.

425) 전도회위원의 보고는 1.지나간 여름에 재령남편에 전도 조사 보낸 후에는 다른 전도인은 보내지 아니하고, 2.10월 28일에 최정환씨는 평산남편에 전도인으로 보내고 루(류?)만섭씨는 신천남편에 전도 조사로 세우고, 3.남평산과 남재령과 남신천 일은 할수있는대로 이전과 같이 하게 하고, 4.예수 믿는 사람 이사시키는 청원 [『조선예수교장로회황히로회데이회회록』 (1911), 12] .

426) 『조선예수교장로회황히로회데이회회록』 (1912), 7.



음이다. 그런데 이런 보고가 전적으로 김익두의 개인 의견이었겠는가? 김익두가 보고한 외국전도에 대한 청원을 총회에 현의하자는 보고는 적어도 김익두가 전도위원으로 있었던 제2회 황해도노회 내의 전도위원에서 모아진 의견일 것이다.

현재에도 노회나 총회에서는 그 노회나 총회에 속한 한 부서가 본회에 그 부서의 보고를 하기 전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 부서 내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난 다음에 보고하게 된다. 이때 보고자는 그 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고, 부서의장이 그 부서의 조직을 보고한 난 다음에 그 부서의 보고 사항은 해당 부서의 서기가 하게 된다. 현재 노회나 총회의 회의 진행 관례는 한국 교회의 제1회 노회나 제1회 총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2회 황해도노회에서 전도위원 김익두의 보고는 김익두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제2회 황해도노회에 속한 전도위원들이 함께 공감하는 의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황해도노회의 전도위원들이 누구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1년 12월 8일 오후6시 30분에 상회의 명령을 받들어 황해도 각 당회 총대위원들이 봉산군 영천면 모동 예배당에 모여 노회 조직회장 이원민이 성경 디모데전서 3장을 보고 하나님의 집에서 할 일이라는 문제(文題)로 강도한 후에 한위럼의 기도로 조직회를 개최하였다.⁴²⁸⁾ 그런 다음 각 위원들을 선거할 때에 전도위원은 공천위원께 맡겨 택하기로 결정했다.⁴²⁹⁾ 이후에 공천위원이 보고하기를 “전도위원은 한위럼, 김익두, 김한복, 량성측” 네 사람으로 택하기를 청원하니 회중이 채용하게 된다.⁴³⁰⁾ 이 네 사람이 제1회 황해도노회 전도위원들이다. 그런데 1912년 6월 28일 오후8시30분에 재령읍 남산현 예배당에 모여 회장 군례빈이 193장 찬송을 인도함으로 회중이 합창하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로 강도하며 기도함으로서 개최된⁴³¹⁾ 제2회 황해도노회에서 전도위원 김한복 대신 장덕상으로 교체하게 된다.⁴³²⁾ 그렇게 해서 제2회 황해도노회의 전도위원은 1년조가 한위럼, 량성측이고 2년조가 김익두, 장덕상이었다.⁴³³⁾ 이상 네 명의 전도위원 중에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한위럼(韓衛廉, William B. Hunt)⁴³⁴⁾이요, 김익두다.

427) 위의 책, 8.

428) 『조선예수교장로회황히로회데일회회록』 (1911), 2.

429) 위의 책, 4.

430) 위의 책, 6.

431) 『조선예수교장로회황히로회데일회회록』 (1912), 1.

432) 위의 책, 2.

433) 위의 책, 13.



김익두는 제2회 황해도노회에서 전도위원으로 중국에 외국전도를 하자고 총회에 헌의 청원을 보고한 인물이고, 한위렴은 제1회 총회에서 중국 산동에 선교사 파송을 결의한 후에 최초로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세 명 중에 한 사람인 박태로가 위임목사로 동사(同事)한 재령읍교회의 목사였다. 그러니 한위렴이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일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한위렴은 박태로와 함께 재령읍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였다. 그러면 이들이 목회하는 황해도노회 내에서 외국전도를 하자는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전도에 대한 열망을 갖게 만든 그 어떤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황해도노회의 전신인 황해도대리회의 보고에서나 제1회 황해도노회의 전도 보고에서도 외국전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황해도노회가 제2회 노회를 개최하면서 노회의 전도위원인 김익두가 총회에 외국전도 헌의를 청원하는 그 사이에 황해도노회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이것은 황해도대리회가 제5회 독노회에 보고한 보고서⁴³⁵⁾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황해도대리회가 노회

434) 한위렴(韓衛廉)은 제2회 황해도노회(1912.6.28)의 부회장이었다. 노회의 임원은 회장 군례빈, 부회장 한위렴, 서기 이원민, 부서기 윤문옥, 회계 김성률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황해도회데이회회록』 (1912), 12]; 제2회 임원은 제1회의 임원이 그대로였다 [박성겸, 『황해도노회100회사 (1911.12.8.-1971.4.16)』 (서울: 은성문화사, 1971), 188]; 한위렴은 1897년 10월 14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평양선교부에서 어학공부, 1898년 황해도 재령으로 파송, 당시 천주교인의 박해가 난폭하여 강온 양면의 방법으로 사태 수습, 꾸준한 선교사업. 평양여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송정신의 귀향으로 많은 도움. 황해도 일원에 복음전도-재령 선교의 아버지로 불려짐. 1939년 10월 정년 은퇴후 귀국 1953년 12월 20일 뉴저지주에서 별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승태·박혜진 역음,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316].

435) 황해도대리회는 제5회 독노회에 크게 다섯 가지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감사할 것은 교회가 별로 왕성하지는 못하나 진보가 되어 인도하는 자가 은혜를 많이 받아 열심이 많다는 보고요, 둘째는 교회 형편의 보고로 개인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보고, 성경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집은 아침이나 저녁에나 매일 작성하고 예배 보는 시간을 작성하고, 성경 한 장이나 몇 절이나 집안끼리 성경을 공부한다는 보고, 주일에는 아침 열시쯤 형제자매들이 7-8명이나 혹은 10여 명씩 각각 반을 나누어 각 반장들이 토요일 저녁에나 혹은 주일 아침에나 혹은 저녁에 예비공부를 하여 가지고 각 반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전보다 반장들도 늘고 성경공부의 재미가 많다는 보고, 또 사경회는 지교회에서 일 년에 2-3차례씩 재미있게 하는 데 매우 좋다는 보고, 전도인 세우는 것과 전도 형편은 전년과 비슷하고, 봉산사리원교회 이원민 목사를 위임시키고, 장로 6명을 장립하고, 조사 두 사람을 세우고, 예배당 5곳에 건축하였다는 보고, 당회들이 별일 없이 유



에 황해도대리회 내의 지교회의 상황을 보고할 때에 강조하는 것으로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린다는 점이고, 둘째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열심이었고, 성경공부를 하는 재미가 많아 성경공부를 더 부지런히 하기를 원하고 있고, 사경회를 통해서도 성경을 공부하는 재미가 매우 좋다고 하였다. 이렇게 황해도노회의 교회의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 열심이라는 것이다.

제2회 황해도노회 전도위원 김익두가 보고하기를 “우리 로회의 은혜받은 것과 이 세상 어두운 것과 예수께서 마즈막 명령하신 거슬 심각하니 외국전도 아니 할수 업슨즉”⁴³⁶⁾ 이라고 하였다. 김익두가 우리 노회의 은혜 받은 것과 예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것을 생각하니 외국전도 아니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얻었겠는가? 더군다나 황해도노회가 제1회 총회에 보고를 하면서 다섯 번째 보고로 “장니스건將來事件은 남녀교우가 외국전도홀일을 경영함”⁴³⁷⁾ 이라고 하였다. 남녀교우가 외국전도할 일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남녀교우들이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할 뜻을 깨달은 것이다. 황해도노회 지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다가 성경공부의 재미를 느꼈다, 그래서 이들은 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했고, 그것은 사경회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사경회를 통해서도 성경을 공부하는 재미가 매우 좋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들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가⁴³⁸⁾ 은혜

익하도록 잘 다스리는데 책별한 자 180인이요 출교한자 30인이요 해별한 자 308인이라는 보고였다. 세 번째로 학교 형편은 연약하여 좀 줄었다는 보고요, 네 번째로 교회의 특별한 사건은 부흥회 일밖에 별로 없다는 보고, 다섯 번째로 장래의 사건은 조사와 전도인 더 세우기와 예배당 건축하기와 사경공부를 더 부지런히 하기를 원한다는 보고였다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오회회록』, 51-53] .

436) 『조선예수교장로회황히로회데이회회록』 (1912), 8.

43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46.

438) 원두우(元杜尤, H. G. Underwood)는 당시 한국 교회의 네 가지의 특성(marks)을 ‘놀라운 역동성의 본토인 교회’라는 소제목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로 한국의 신자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열정적이며, 둘째는 성경공부에 열정적일뿐만 아니라, 그런 열정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믿는 신자(a prayer-believing people)가 되도록 해서 기도예 열심이였으며, 셋째는 한국 사람들은 아량이 넓은 사람들이며, 넷째로 독특하게도 이 땅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일꾼이 되려고 애쓴다 [H. G. Underwood, "Korea's Crisis Hour," 131-32; 이만열, 옥성득 편, 『언더우드 자료집』, III, 254-55; 서정민 편역,



를 받고는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외국전도를 경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황해도노회가 총회에 외국전도를 헌의한 이런 보고는 총회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황해도노회가 총회에 올린 헌의는 총회의 헌의위원에서 총회 전도국으로 보내졌다.⁴³⁹⁾ 총회가 열리게 되면 총회 헌의위원회는 각 노회가 총회로 올린 헌의들을 받아서 그 헌의의 내용을 살핀 다음에 총회의 각 부서로 보내게 된다. 총회 때에 각 부서의 보고 시간에 헌의위원은 각 노회로부터 접수받은 헌의를 검토 후 헌의들을 각각 총회의 어느 부서로 보냈는지를 보고하게 된다. 그렇게 제1회 총회의 헌의위원은 황해도노회에서 헌의한 외국전도에 관한 헌의를 총회 전도국으로 보냈다고 보고⁴⁴⁰⁾한 것이다. 그러면 제1회 총회 헌의위원에서 총회 전도국으로 보내진 황해도노회의 외국전도에 관한 헌의는 전도국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총회에 보고가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12년 9월 1일에 개최한 제1회 총회는 총회 넷째 날인 1912년 9월 4일 오전9시에 속회되고 이때 전도국위원은 총회 앞에서 전도국의 보고와 청원을 하게 된다.⁴⁴¹⁾ 이때 전도국위원의 23가지의 보고⁴⁴²⁾ 중에서 23째 보고가 바로 황해도노

『한국(韓國)과 언더우드』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28, 47-48] .

43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8.

440) “황해도노회에서 헌의獻議한거슨 전도傳道국으로 보낸 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8] .

441) 위의 책, 14.

442) 총회 전도국위원의 보고는 1.제주교회 교인수, 2.직분, 3.예배처소, 4.학교, 5.연보, 6.성경공부, 7.기도형편, 8.특별사건으로 교인중에 권능을 받아 병 고치는 자가 많고, 전도인이 전도함에 문이 크게 열렸으며, 9.회집형편, 10.교회형편으로 직분들 화합하고 교인들 신령하고 열심 있으며, 11. 평양 여전도국에서 평양 이선광을 일 년 동안 제주 전도인으로 보내 모든 부비를 다 담당하여 전도도 하고, 12.전도국에서 60원을 보조하고 제주 성 교회 형제자매들이 60원을 담당하여 합120원을 제주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제주 성 교회와 각 교회에 조사(助事)로 세웠고, 13.해삼위(海蔘威) 전도는 사세부득이 하여 정지(停止)이옵고 최관홀 목사의 사무도 그만 두었으며, 14.해삼위 매서(賣書)로 보낸 리재순, 신윤협 량씨(兩氏)는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아라사(러시아) 관리에 핍박당하여 수금(囚禁)되기를 한 달이나 하고, 이수(移囚)되기를 세 번씩이나 하였는데 그 고상(苦狀)을 다 말할 수 없고, 15.최관홀 목사의 사무를 그만 둘 때에 특별히 300원을 주었으며, 16.해삼항교회에서는 지금은 전과 같이 예배본다는 소식이 있고, 17.청국(淸國)영토(領土) 북만주(滿洲) 등지 각 교회와 아라사(俄羅斯)영토(領土)의 촌(村) 각 교회는 다 전모양이라하며, 18.해삼위 전도를 정지(停止)하고 그 예산하였던 금액(金額)을 가지고 제주에 일 년간 전도하기 위해서 이재순, 강병담 량씨(兩氏)를 전도인으로 파송하였으며 전주 여전도국에서 매월 3원씩



회가 총회에 헌의한 외국전도에 관한 보고였다. 그것은 “황해도로회 헌의獻議는 총회에서 허락許諾하면 그 일은 전도국에서 주장主張하나 부비浮費는 본로회에서 전도국에 가는 연보와 감사일感謝日 연보로 담당(擔當)하겠다함에 디히야 감사히 받음⁴⁴³⁾”이었다.

총회 전도국은 황해도노회의 외국전도에 관한 헌의를 총회에서 허락하면 황해도노회의 헌의대로 외국전도하는 일은 총회전도국이 주장하겠다고 하며, 외국전도에 들게 되는 부비는 총회에 헌의를 한 황해도노회에서 총회전도국으로 가는 헌금과 감사일 연보로 담당하겠다고 하니 그런 의견을 감사히 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외국전도에 대한 계획을 청원하고 있다. 제1회 총회는 1912년 9월 4일 오전9시에 회장 원두우가 김필수(金弼秀)의 목1장 9절⁴⁴⁴⁾의 강론(講論)과 기도로 넷째 날 회의가 개최되었다. 속회하여서 전도국위원의 보고와 청원을 들을 때에 청원서⁴⁴⁵⁾ 첫 번째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主日마다 구원지도⁴⁴⁶⁾를 전파傳播할 뜻으로 그르치는 거시로

연보하고 또 고라복 목사가 매월 3원씩 연보하여 제주 형제 자매중 한 사람씩 택하여 전도인으로 세우기를 경영(經營)이오며, 20.광주(光州)사경(査經)시에 제주 위하여 75원 연보하여 제주 형제와 누이님 두 사람을 택하여 6개월씩 전도케 한 일도 있사오며, 21.작년(昨年) 연보(捐補) 들어온 것을 논하면 재작년(再昨年)보다는 대단히 퇴보(退步)하여 전국 2천여개 교회 중에서 백여개 교회에서만 들어온 돈이 7백여원인고로 전도를 더 확장(擴張)치 못하였으며, 22.재정보고와 금년 예산은 회계가 분명히 보고할 것이며, 23. 황해도노회 헌의(獻議)는 총회에서 허락하면 그 일은 전도국에서 주장(主張)하나 부비(浮費)는 본노회에서 전도국에 가는 연보와 감사일(感謝日) 연보로 담당(擔當)하겠다 함에 대하여 감사히 받음 등이었다 [위의 책, 14-20].

443) 위의 책, 20.

444) 길진경 편 『靈溪吉善宙牧師著作集』은 제1회 총회록을 현재 사용하는 말로 바꾸어 실어 놓았는데 여기에서는 목1장 9절을 롬1장 9절로 바꾸어 놓았다[길진경 편, 『靈溪吉善宙牧師著作集』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224].

445)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 제1회 회록』 (1912), 21-22. 전도국은 4개의 청원을 하는 데 그 첫째가 전도할 뜻으로 설교하고, 두 번째는 외국전도를 시작하되 지나등지로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청원이며 셋째는 예산 청원이며 네 번째는 전도위원 6인을 더 택정하여달라는 청원이었다.

446) 구원지도는 한자(漢字)로는 구원지도(救援之道)로서 구원(救援)의 도(道)를 뜻한다(필자의 주). 길진경 편 『靈溪吉善宙牧師著作集』은 제1회 총회록을 현재 사용하는 말로 바꾸어 실어 놓았는데 여기에서도 구원의 도라고 바꾸어 놓았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구원의 도를 전파할 뜻으로”[길진경 편, 『靈溪吉善宙牧師著作集』, 229].



다 총회에서 一年중年中의 한 주일을 특별히 택명하여 각 교회에 명령하시와 전도국을 위하여 레비禮拜보게 하시되 그 주일의는 전도傳道 뜻으로 강도하고 외국전도外國傳道를 뜻으로 기도도하고 그 주일主日에 특별特別히 힘써 연보捐補도 하되 그 날은 감사日로 攄定하시고 각 교회의 인도하는 이들이 그 전주일의 예비預備로 힘있게 광고廣告를 일으킴고⁴⁴⁷⁾

이 청원서의 내용은 황해도노회의 전도위원 김익두가 해(該) 노회에 보고한 내용⁴⁴⁸⁾보다도 훨씬 구체적으로 세워진 계획을 청원하고 있다. 즉 총회에서 일 년 중에 한 주일을 특별히 정하고, 각 교회에 명령을 하여서 전도국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되 전도에 대하여 설교하고, 외국전도할 뜻으로 기도하도록 하였다. 또 그 주일에는 특별히 힘써서 헌금을 하되 그 날은 감사일로 정하여 헌금하도록 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각 교회를 인도하는 이들은 그 전 주일에는 예비(豫備)로 이를 위하여 힘 있게 광고를 하도록 청원하고 있다. 이 청원서를 살펴보면 전도국에서 외국전도에 대한 계획과 그 실천 의지가 확고한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전도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진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전도국의 의지와 계획은 전도국의 두 번째 청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 두 번째 청원은 다음과 같다.

로회를 시작(始作)할 때에 제주에 선교사(宣教師)를 보냄으로 신령(神靈)은 교회를 세워 하느님의 영광(榮光)을 돌림으로 우리에게 깃뚝이 충만(充滿)한바이온즉 지금(至今) 총회(總會)를 시작(始作)할 때에도 외국전도(外國傳道)를 시작하디 지라 등디(支那等地)에 선교사(宣教師)를 파송(派送)하기를 청원하오며⁴⁴⁹⁾

이 두 번째 청원서에서는 황해도노회의 외국전도 요청을 이제는 총회 차원에서 그 어떤 준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계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청원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제1회 노회를 시작할 때에 제주에 선교사를 보낸 것처럼 제1회 총회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를 보내자고 하는 청원이다. 이것은 이제 외국전도를

44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1.

448) 우리 로회의 은혜받은 것과 이 세상 어두운 것과 예수께서 마즈막 명령하신 거슬 생각하디 외국전도 아니할수 업스즉 총회에 헌의하여 청국중에 맞들 디경을 엮어가지고 복음전파하기를 청원하되 전도하디 쓸 조본은 임의 총회전도국으로 보나든 연보와 이후 본 로회 디경니에 감사연보로 하야 그 전도하는 일은 총회전도국에서 주장하와 주시기를 청원 [『조선예수교장로회황해도노회데이회회록』 (1912), 8].

44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1.



시작하게 되는 일을 황해도노회가 현의하였지만 이 일은 총회 전체의 일이라는 천명이다. 또 황해도노회 전도위원 김익두도 해(該) 노회에 외국전도 계획을 보고할 때부터 외국전도 하는 일은 총회 차원에서 주장하여야 할 일이라고 하였다.⁴⁵⁰⁾

총회전도국은 1907년에 제1회 노회를 시작할 때에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 신령한 교회를 세운 것처럼 총회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를 보내서 똑같이 신령한 교회를 세우자고 청원하고 있다. 총회전도국은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 신령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총회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를 보내서 그와 같은 영광과 기쁨을 얻자고 하는 뜻을 밝혔다. 그렇게 총회를 시작하면서는 외국전도를 시작하는데 그 선교지는 지나등지로 파송하기를 청원하고 있다.

총회전도국은 총회를 시작하는 때에 외국전도를 시작하는데 그 장소를 지나등지로 언급하고 있다. 황해도노회 전도위원 김익두가 해 노회에 외국전도 계획을 보고할 때는 “외국전도 아니홀수 업슨즉 총회에 현의하야 청국중에 맞틀 디경을 엇어가지고 복음전파하기를 청원하되”⁴⁵¹⁾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총회전도국에서는 “외국전도外國傳道를 시작하디 지라등디支那等地에 선교스宣教師를 파송派送하기를 청원”⁴⁵²⁾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외국전도할 장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총회전도국이 이런 계획을 청원할 때에는 적어도 총회전도국 내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상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제1회 총회 전도국이 황해도노회가 현의한 청원을 받아서 총회에 중국 지나등지로 선교사 파송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C. 선정

1. 파송지 선정

한국 교회는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 파송지(派送地)로 산둥⁴⁵³⁾의

450) “전도하는 일은 총회전도국에서 주장하고 주시기를 청원” [『조선예수교장로회 황히로회데이회회록』 (1912), 8].

451) 위의 책, 8.

45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1.



래양현(萊陽縣) 지역을 선정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중국 산둥⁴⁵⁴)으로 파송지를 선정하게 된 것인가?

a. 선정 이유

453) 산둥(山東, 산둥, Shantung)은 황해(黃海)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마주보고 있다. 이 성은 산둥 반도와 내륙지역의 두 부분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북쪽과 서쪽은 허베이 성[河北省], 남서쪽은 허난 성[河南省], 남쪽은 안후이 성[安徽省] 및 장쑤 성[江蘇省]과 맞닿아 있다. 내륙지역은 산둥 성 전체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며 유명한 타이산[泰山] 산계에 집중해 있는 중부 구릉지대도 포함된다. 산둥의 기후는 추운 겨울과, 덥고 건조한 여름이 특징인 대륙성 기후이다. 그러나 반도와 내륙지역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내지는 혹독한 겨울 추위와 봄날 모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여름에는 때로 가뭄과 잦은 홍수가 뒤따른다. 겨울에 상당 기간 강이 얼어붙는 일도 있다. 반도 지역은 안개가 자주 끼며 습기 찬 날이 많지만 내륙보다 온화하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1s1167a>]. 또 산둥은 원래 공자의 출생지로 외래 종교에 대한 배경이 강한 지방으로 미국 장로교선교회는 수십 년의 선교에도 별 소득을 얻지 못한 곳이다 [蔡弼近, 『韓國基督教開拓者 韓錫晉과 그 時代』, 194].

454) 한국 교회가 중국으로 세 명의 선교사 파송을 결의한 1912년 당시 중국 산둥의 인구는 적어도 3,5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이은자는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과 박사 후 연수과정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고 출판한 책, 『의화단운동 전후의 산둥』에서 동치년간(1862~1874) 산둥의 인구는 대략 3,400만 명 선이고, 광서년간(1875~1908)에 들어서면서 3,500만 명을 넘었다(梁方仲 編著,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264쪽; 姜濤, 『中國近代人口史』,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93, 417-26)고 했다. 그러니 1912년쯤에는 적어도 산둥 인구가 3,500만명은 더 되었을 것이다 [이은자, 『의화단운동 전후의 산둥』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42-43. 각주41에서 재인용]. 이은자는 그녀의 책에서 산둥지역 개신교 선교역사에 대해서 언급했다.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가 중국에 들어온 시기는 매우 늦어, 1807년 영국 런던회 소속 선교사 모리슨(R. Morrison)이 마카오에 도착한 뒤 광둥의 내지로 들어가 활동하였다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楊森富 編著, 『中國基督教史』 (臺灣: 商務印書館, 1968), 205). 산둥에서 선구적 선교 활동을 한 사람으로는 런던 선교회 소속 독일인 구트즈라프(Karl Friederich Aughust Gutzlaff), 역시 같은 소속 영국인 메드허스트(Walter Hernry Medhurst)와 미국 선우회(美國船友會: America Seaman's Friend Society) 소속 미국인 스티븐스(Edwin Stevens), 미국 남침신회(美國南浸信會) 해외선교단 소속 미국인 홀메스(Rev. James Landrum Holmes) 부부 등이 알려져 있었다. 교단의 본격적 선교 사업은 1860년 북경조약 체결로 내지(內地) 선교가 합법화된 이후에야 개시되었다. 산둥 서부의 경우 주로 서북부 은현, 덕주, 임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미국 공리회의 활동이 대표적이었다. 그 외 미국 장로회도 1892년 제녕에 교구를 마련하고 병원, 약국, 및 여자신학교, 초등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미국 장로회는 등주와 연대에 우선 선교 거점을 마련한 뒤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녕까지 진출한 것으로 산둥지역의 개신교 선교는 학교, 병원 등 문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었다 [이은자, 『의화단운동 전후의 산둥』, 123-24].



박기호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째, 산둥은 공자와 맹자의 출생지요 중국 문명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뿐 아니라 당시 중국의 유교문화권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한국교회는 그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둘째, 산둥은 미국 선교부가 유일하게 선교에 대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곳인데, 한국장로교 총회는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이곳에 들어가서 선교하기로 택한 것이다. 셋째,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여준 서양 선교사들에게 뿐 아니라 특별 은총인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기 훨씬 전에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윤리의 표준이 된 일반 은총으로 여겨지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해준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바울이 자신을 빛진 자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을 빛진 자들로 알았다. 한국 장로교회와 교인들은 주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양 선교사들과 그들에게 문화의 중요한 요소를 전해준 중국인들의 은혜를 갚기 원하였던 것이다.⁴⁵⁵⁾

방지일(方之日)은 한국 교회 제1회 총회가 파송지를 산둥으로 택하게 된 이유는 공맹의 윤리 도덕을 받았으니 생명의 말씀으로 갚으려는 의도였다고 말한다.

중국총회와 같이 선교에 관하여 의논하자는 의견을 보내니 (중략) 중국총회 대표가 초청에 응하여 한국에 미 장로교 총회대표, 우리대표, 중국대표 3총회 대표가 서로 대하면서 중국총회 대표가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한 것이냐고 묻자, 우리의 결의대로 공맹의 윤리도덕을 받은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갚으려 한다는 의도를 말하니 저들의 대답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을 것도 없이 공맹의 근거지인 중국문화의 발상지인 산둥을 벌써 정한 것이군요. 거기에 하여 보시지요.’하는 제의에 다 합의하여 산둥으로 선교지를 택하였다 한다.⁴⁵⁶⁾

이상근도 제1회 총회가 설립되면서 산둥성을 한국장로교회의 선교지로 택하게 된 것은 그곳이 공자(孔子)의 탄생지로 한국의 유교의 혜택을 받은 데에 대한 답례로 그리스도교를 전하려는 데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하였다.⁴⁵⁷⁾ 또 방지일은 중국 산둥을 선교지로 택한 이유를 산둥이 중국문화의 발상지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⁴⁵⁸⁾

455)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63.

456) 방지일, “영으로 주신 복음, 영으로 같이 받는 역사(役事),” 32-33.

457) 이상근, 『대구 제일교회 90년사』, 44.

458) 방지일, 『복음역사반백년』 (광주: 반도문화사, 1986), 22.



변창욱은 한국 교회가 산동을 첫 해외선교 구역으로 택한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이곳이 지리적으로 한국에서 가깝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한국 장로교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1862년부터 50여년간 선교하고 있던 지역⁴⁵⁹⁾이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1900년에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義和團 事件)⁴⁶⁰⁾이 일어났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한 곳이기 때문이고, 네 번째로 미국 북장로교뿐 아니라 미국 남침례교, 독일 루터교 등 여러 교파 선교사들이 오래전부터 사역했지만 선교의 열매가 미진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⁶¹⁾

김재오는 중국 가운데에서도 산동을 택하게 된 이유를 첫째로, 산동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수로로 근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둘째로 다수 산동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대중들은 산동 즉 중국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사회적 이유 외에 역사적 이유로 산동은 우리나라 신교 도입과정에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⁴⁶²⁾

459) 중국 산동지역에서 사역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중에 우리 한국 산동선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은 John L. Nevius와 Hunter Corbett(곽현덕, 郭顯惠)이며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사역한 선교사로는 Calvin Mateer가 있다. Mr. Mateer는 Hunter Corbett과 신학교 시절에 친구였으며 그들은 부인들과 함께 뉴욕에서 배를 타고 6개월에 걸쳐서 중국에 도착하게 된다 [James R. E. Craighead, *Hunter Corbett : Fifty-six years Missionary in China* (New York: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21), 188]; Hunter Corbett이 1864년에 처음으로 중국 산동 지역에 들어올 때에는 크게 잡아서 2천9백만 명 혹은 3천만 명이나 되는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현지 기독교인은 20명보다 많지 않았고 중국 전역에도 단지 약 2천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산동 안서만도 세례 교인과 세례 대기자까지 모두 합쳐서 32,478명의 이름이 나타나며 전국적으로는 400,000만 명보다 적지 않은 숫자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위의 책, 155].

460) 의화단운동 전후의 산동을 살펴보고 하면 이은자가 그녀의 박사학위논문과 박사 후 연수과정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고 출판한 책, 이은자, 『의화단운동 전후의 산동』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461) 변창욱, “한국교회 선교역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4), 18-19.

462) 김재오(金在五)는 산동과 우리나라 신교 도입과정과의 깊은 관련을 1)평양에서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목사가 산동성 지푸(煙臺)에서 출발하여 1865년 한국으로 2차례 방한하였고, 2)토마스(R. J. Thomas)를 한국으로 보낼 때 사명감을 심어 주었던 윌리엄슨(A. Williamson)도 지푸에 본향(?)을 가지고 있으며 1867년에도 만주를 내왕하며 조선인 사이에 전도를 하였고, 3)서면호 사건 후 실정을 탐사하기 위해 미국 군함이 내한할 때 통역을 담당했던 추고문(秋考文, Calvin Matteer)와 곽현덕(郭顯惠, Hunter Corbett)은 미국 북장로교 외지선교사 산동 주재 선교단 소속이었다. 4)재한 장로교회에서 널리 사용한 네



백정성은 한국 교회가 중국 산동을 선교지로 택한 이유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로, 중국은 한국과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나라였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위치해 있었다. 둘째, 당시 많은 산동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 한국에 와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산동을 중국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다. 셋째, 국제 관계상 교섭이 가장 무난한 나라였다. 당시 한중 관계는 거의 국제법을 초월하여 양국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었다. 넷째, 한국 교회의 복음 전래 역사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⁴⁶³⁾ 다섯 번째로 산동은 당시 한국 선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미 북장로교 선교부가 가장 크게 활동하고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산동성을 최초의 해외선교지로 택한 것은 정치, 지리,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⁶⁴⁾ 김재오와 백정성이 제시하는 한국 교회가 중국 산동을 선교지로 택한 이유는 비슷하다.

한국 교회가 산동을 선교지로 선정한 이유로 이상의 여러 가지 주장들 중에 딱 잘라서 한두 가지로 말할 수는 없다. 이 모든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산동이 파송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면 한국 교회 총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국 산동을 선교사 파송지로 결정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b. 파송지 결정

조동진은 한국교회의 첫 중국 산동 선교사 파송은 실패했다고 보았다.

비우스 방식의 주창자인 네비우스(J. L. Nevius)와의 관련 등을 말한다 [김재오, “宣教師方孝元家の 中國 山東省 宣敎에 關한 研究-副題: 方孝元, 洪承漢, 方之日 宣教師의 生涯와 神學思想을 中心으로-”(미간행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6), 18-19] .

463) 백정성은 중국 산동이 한국 교회의 복음 전래 역사와의 깊은 관련으로 1)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 구출라프는 산동성 위현에서 출발하였고, 2)런던선교회 소속 토마스(R. Thomas)목사는 산동성 연태에서 출발하여 대동강에서 첫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3)존 로스와 존 매킨타이어 선교사 역시 산동을 경유해 만주에서 한국 선교를 시도했던 사람이며, 서면호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평양을 방문했던 미 북장로교 소속 헌터 콜벳(Hunter Corbett)도 산동성 연태 주재 선교사였고, 4)네비우스 선교이론을 창안했던 존 네비우스와의 관련 등을 말하고 있다 [백정성, 『한국 교회의 초기 산동성 선교』, 130] .

464) 위의 책, 130-31.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이 세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산동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들은 크게 당황하였다. 중국 교회나 그 곳에서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들이 그들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선교사들은 먼 곳으로 보내졌고 결국 그들은 배고프고 잘 통하지 않고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 이 일로 선교사들은 사역을 중단하게 되어, 결국 한국 교회의 타오르는 선교 열정은 그 첫 번째 선교 사역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좌절하지 않았고, 총회가 그곳 사정을 살펴보도록 전도국(the Department of Missions)을 보내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때 전도국 서기 방효원이 가서 그 상황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는데 그 보고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전도국이 충분한 사전 조사가 없이 익숙치 않은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실수였다는 점과, 둘째로 전도국이 중국 교회와 이미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사전 동의 없이 선교사를 보낸 것이 두 번째 실수이며, 세 번째로 선교사역과 선교지에 익숙하도록 훈련 되지 않는 사람들을 파송한 것이 또 다른 실수였다.⁴⁶⁵⁾

박기호는 조동진의 주장에 대해서 처음 두 가지 이유는 맞는 것 같지 않고 하면서 방지일의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⁴⁶⁶⁾ 방지일은 중국을 택하면서 이미 거기 선교하고 있는 미국 북장로교와 중국장로교회, 우리총회 3자의 합의로 중국문화의 발상지인 산동으로 합의가 되었다. 산동성이 합(合) 108현인데 그중 산동반도 중앙지대인 래양현을 미 장로교에서 주선하였다고 하였다.⁴⁶⁷⁾

중국을 택하면서 이미 거기 선교하고 있는 미국 북장로교와 중국 장로교회, 우리총회 3자의 합의로 중국문화의 발상지인 산동으로 합의가 되었다. 산동도 큰 지역인데 어디다 할 것인가? 산동성이 합108현인데 그중 산동반도 중앙지대인 래양현을 미장로교에서 주선하였다. 미국 침례교에서 이미 선교를 개시한 곳이나 장로교는 없었다. 항구 연태가 동으로 270리, 항구 청도가 남으로 280리, 교통으로 말하면 극히 불편한 곳이다. 그때로 보면 2, 3일 걸려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교통편의는 거의 없는 곳이었다.⁴⁶⁸⁾

방지일의 언급에서 한국 교회의 산동 선교는 그 파송에서 에큐메니칼 연합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일방적으로 선교지를 정해서 선교사를 중국 산동으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중국장로교회와 그리고

465) David J. Cho, "The Growth of Korean Missions and Its Contributions to World Evangelization," 111.

466)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64.

467) 방지일, 『복음역사반백년』 (광주: 반도문화사, 1986), 22.

468) 위의 책,



중국 산둥에서 이미 선교하고 있는 미국 북장로교회와 3자가 합의해서 선교지가 결정된 것이다. 이미 한국 교회는 첫 해외 선교로부터 에큐메니칼 협력선교를 추구하고 실천하였다.

노해리(魯解理, Harry Andrew Rhodes, 1875-1965)는 그가 편집한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에서 중국 산둥에 있는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사역은 1912년 총회의 조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되었다. 중국에 있는 해외선교사들과 중국 노회의 조정(arrangement)에 의해서 래양(Lai Yang)이 그 중심인 120개의 마을이 있는 평방20마일의 관할지역이 이제 앞으로 중국 노회의 일원이 될 한국 선교사들에게 할당되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사역지는 매우 확장되었다.⁴⁶⁹⁾ 재중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곽안전은 중국 산둥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그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회(the Missions)와 연락(correspondence)이 이루어져서 결코 그 어떤 복음 사역이 행해지지 않은 평방 10마일의 지역이 한국 교회의 선교사역의 장으로 넘겨졌다고 하였다.⁴⁷⁰⁾

박용규는 한국 교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틀을 다져갈 때, “마침 산둥의 북장로교 선교회가 청도(靑島)로부터 100마일 가량 떨어진 산둥성 내양현(山東省 萊陽縣) 주변의 교회와 일부 지역을 한국선교사들에게 넘겨주기로 동의하여”⁴⁷¹⁾ 세 명의 선교사를 산둥성에 파송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469)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ume1 1884-1934*, 394; 최재건의 번역은 “재중 해외 선교사들의 조정으로 중국노회-20마일 평방의 관할구역에 120개 마을들이 있으며, 내양이 그 중심지이다-가 한국인 선교사들을 중국 노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였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문은 중국에 있는 해외선교사들과 중국노회의 조정으로 선교지가 한국 선교사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이고, 또 중국노회가 당장 한국 선교사들을 중국 노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서 원문을 다시 번역하였다 [Harry A.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380]; 참고로 중국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의 중국 노회 이명은 1916년에 열린 제5회 총회에서 중화 산동독회로부터 이명하라는 공함을 받고, 같은 총회에서 이명 허락을 결의하게 된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21, 45].

470) 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177.

471)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105.



공위량(孔衛良, William C. Kerr)은 한국 장로교회의 세 명의 선교사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중국 산동에 있는 그들의 사역지로 지정된 곳으로 떠나기 일 년 전에 그 지역의 노회는 한국의 선교사들에게 래양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방 10 마일의 지역을 책임지도록 할당했다고 하였다.⁴⁷²⁾ 또 공위량은 1915년 9월 전주에서 회집된 제4회 총회에서 한국 교회가 1912년에 중국 산동으로 파송하기로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김영훈목사가 보고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그 때에는 재령의 박태로목사가 홀로 그 길을 열기 위해 갔고⁴⁷³⁾ 그 다음 해에 그 자신의 가족과 평양의 사병순목사, 선천의 김영훈목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로 구성된 선교사 일행을 인솔하여 래양에 갔다. 이전에 다른 개인 사역자들이 중국에 파송되었지만 그들은 대개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 간 것이다. 설사 그들이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갔을지라도 그것은 조직된 선교가 아니었다. 이제 동양인들에 의한 동양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⁴⁷⁴⁾

방위량(邦偉良, William N. Blair)⁴⁷⁵⁾은 한국 교회가 제주에 선교사를 파송

472) W. C. Kerr, "Abstract of the Address of the Korean Missionary to Shantung," KMF 12 (March, 1916), 71.

473) 박태로가 중국 산동에서 전도지경을 살피러 떠난 것은 1912년이 아니고 1913년 5월 5일이었으며, 박태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김찬성과 같이 갔다가 김찬성은 먼저 돌아오고 박태로는 나중에 돌아온다. 원래 총회에서 김찬성은 한 달 예정이었고, 박태로는 4개월 반의 일정으로 지출 예산까지 책정하였던 것이다 [“사설,” 『예수교회보』, 1913. 7. 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23.

474) W. C. Kerr, "Abstract of the Address of the Korean Missionary to Shantung," 70-71.

475) 방위량(邦偉良, William N. Blair)과 배위량(裴偉良, William M. Baird)은 여러 글에서 그 이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박기호는 그의 글에서 “배위량 선교사 (William N. Blair)”라고 하였는데, 배위량이 아니라 방위량이다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 운동사』, 65]. 참고로 제1회 독노회 회의록에 실린 참석자 명단 기록은 “참석원 목수는 마삼열 리길함 비위량 방위량 편하설”이라고 되어 있다. 이 명단 속에서 배위량과 방위량은 나란히 참석자로 그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 그 둘은 다른 이다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4]. 또 제1회 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남평안노회의 총대 명단에 배위량(裴緯良)과 방위량(邦偉良)이 다같이 올라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3]. 제2회 총회 총대 명단에도 남평안노회 목사 총대 명단도 방위량(邦偉良)과 배위량(裴偉良)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3), 3]. 한 가지 배위량의 한자 이름은 배위량(裴偉良)과 배위량(裴緯良)이 기록에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배위량(裴緯良) 선교사 곧 베어드 박사의 한국식 이름의 뜻 풀이에



하고 난 다음에 총회전도국의 관심은 중국에서 선교를 실시하려는 시도에 쏠리게 되었다고 하였다.⁴⁷⁶⁾ 그는 한국 교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중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려는 생각(idea)은 여러 해 동안 한국 교회에 간청되었다. 3년 전에 총회는 총회전도국(Mission Board of the General Assembly)에 중국에 적합한 사역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그래서 총회전도국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인 힌트 목사(W. B. Hunt, 韓衡廉)가 다양하고 선교사역 가능한 지역을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선두적인 중국 기독교 지도자들과 미국 선교사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여행(an extended trip)을 나서게 되었다. 그는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 측에서 중국에 선교를 실시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는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다.⁴⁷⁷⁾

방위량은 위의 글에서 ‘여러 해 동안’ 한국 교회 내에서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자는 간청(appeal)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누가, 어느 곳에서 중국 선교에 대한 어떤 간청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한국 교회 내에서 중국에 선교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김규식(J. K. S. Kim)은 이때에 총회에서는 중국과 사이암(Siam) 곧 태국(Thailand)의 북부 지역 중에서 해외 선교 사역을 시작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였다.⁴⁷⁸⁾ 그러나 방위량은 1912년 총회는 총회전도국에 중국에 적합한 사역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

대한 이런 글이 있다. 배위량이란 이름의 “성(姓)인 배(裴)와 이름인 위량(偉良)은 윌리엄 베어드에게 아주 적절하게 선택된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의 성(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흔한 이름인 김(金), 이(李), 박(朴)은 금, 자두나무(=오얏나무), 그리고 흰색을 의미한다. 배씨 성은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 글자는 세 부수로 이루어져 있다. 윗부분은(점과 획) 모자를 의미하는 부수이다. 중간은 부정적인 뜻을 의미하고, 밑 부분은 옷을 의미한다. 아마도 만일 어떤 사람이 모자는 쓰고,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그는 옷을 안 입은(bared, Baird)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배’를 부수로 풀이한 뜻(옷을 입지 않았다는 뜻인데)을 영어로 읽으면 bared인데, 마침 이것과 Baird가 발음이 같다는 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역자 주) 그러나 이 뜻풀이와 베어드 박사가 이 이름을 선택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Richard H. Baird, *William M. Baird of Korea : A Profile by Richard H. Baird*, 김인수 역, 『배위량 박사의 한국선교』 (서울: 쿤란출판사, 2004), 66-69].

476) William N. Blair, “Mission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90.

477) 위의 책,

478) Kiu Sik Kim, “The Erection of the First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KMF 8 (November, 1912), 324.



성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총회가 공식적으로 중국 선교를 위한 준비를 착수했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총회가 중국 선교에 대하여 공식적인 지시를 내린 계기는 틀림없이 제2회 황해노회에서 청국에서 전도지경을 찾아서 외국전도를 실시하자는 내용으로 제1회 총회에 헌의⁴⁷⁹⁾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노회에서 총회에 헌의를 하게 되면 그 헌의는 헌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헌의의 내용을 담당할 부서로 보내지게 된다. 따라서 제1회 총회의 헌의위원회는 황해노회에서 헌의한 것을 전도국으로 보냈다고 총회에 보고한 것이다.⁴⁸⁰⁾ 이 때의 한위렴은 모두 8명인 제1회 총회 헌의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⁴⁸¹⁾ 이렇게 해서 중국에 외국전도를 실시하자는 황해노회의 헌의는 총회전도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총회전도국은 헌의위원으로부터 황해노회의 헌의를 받아서 중국의 선교 계획을 진행시키게 된 것이다. 이때 제1회 총회의 전도국위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위렴이다. 또 한위렴은 최초로 총회에 중국에 외국전도하자고 헌의한 황해노회의 소속이다. 한위렴은 제1회 황해노회(1911년)의 전도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⁴⁸²⁾ 또 한위렴은 제2회 황해노회(1912년)의 전도위원이기도 하였다.⁴⁸³⁾ 또한 한위렴은 한국 교회의 최초의 해외선교사 박태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위임목사로 동사(同事)하게 된 재령읍교회의 목사였다. 방위량이 위의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총회전도국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위렴은 중국에서 선교사역 가능한 지역을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선두적인 중국 기독교 지도자들과 미국 선교사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 측에서 중국에 선교를 실시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는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 때 한위렴은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다.

내가 추정하기에 이런 제안(중국에 선교하자는 제안)은 그 때 지역 교회의 목사였던 박태로의 주장이었을 것이다. 여하튼 중국에 전도하자는 제안은 전도국(the

47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8; 『조선예수교장로회황해도회데이회회록』 (1912), 8.

48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7-28.

481) 헌의위원은 마포삼열, 리눌서, 한위렴, 곽안년, 김찬성, 리여한, 홍승한, 김선두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10].

482) 제1회 황해노회의 전도위원은 한위렴, 김익두, 김한복, 량성측 이상 네 명이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황해도회데이회회록』 (1911), 6].

483) 제2회 황해노회의 전도위원은 1년조 한위렴, 량성측, 2년조 김익두, 장덕상 이상 네 명이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황해도회데이회회록』 (1912), 32].



Board of Missions)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박태로와 내가 선교 사역지를 찾아 추천하는 위원으로 지명이 되었다. 박태로는 경찰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가지를 못하고 나 혼자 갔다.⁴⁸⁴⁾

한위림의 주장으로는 처음에는 박태로와 함께 중국에 가려고 했지만 같이 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 중국에 선교하자는 황해노회의 청원에 박태로가 관계되어있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한위림은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의 결정과 관계된 부서와 그 자리에 항상 있었다. 그러기에 한위림이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에 사 파송에 그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c. 협의 과정

1913년 제2회 총회에서 전도국은 크게 네 가지를 보고한다.⁴⁸⁵⁾ 총회 전도국의 네 가지의 보고 중에서 그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은 1.제주에 전도하는 형편은 날마다 진취하여 가며, 2.전국 교회가 연보함으로 중화민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작정하였다는 것이다.⁴⁸⁶⁾ 두 번째로 전도형편 보고 중에 중화민국전도를 보고하면서

一. 산동성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씨를 선교사로 파송케 하였는데 박태로씨 거 五월분에 임의 파송시찰하였소오며 二. 전도할 구역은 산동성 횡양현과 리양현 등지로 정하였소오며 三. 김찬성목사로 산동성 방면을 일약 동안 임의시찰하였느니라⁴⁸⁷⁾

제2회 총회 전도국은 전도국 보고에서 산동성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에서 박태로로 하여금 지난 5월경에 임의(任意) 파송 시찰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파송지 곧 선교사 세 사

484) Bruce F. Hunt, "A 'Second Generationer' Interviews His Dad," KMF 26 (August, 1930), 169.

485) 一.감사할 것, 二.전도형편, 三.전도구역 교회형편, 四.총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1913), 57-60].

486) 위의 책, 58.

487) 위의 책, 58-59.



람이 전도할 구역으로 산동성 행양현과 래양현 등지로 정하였다고 보고한다. 그런 다음에 김찬성 목사로 산동성 방면을 한 달 동안 임의 시찰하도록 하였다⁴⁸⁸⁾는 보고를 하였다. 그러면 우선 박태로가 1913년 5월경에 파송 시찰을 할 때에 김찬성이 같이 동행한 것인지, 아니면 김찬성은 따로 나중에 혼자 간 것인지, 아니면 박태로와 김찬성이 5월경에 같이 갔다가 온 후에 김찬성은 따로 한 번 더 한달 가량 시찰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박태로가 전도지경을 정하려고 산동 지역 시찰을 위하여 중국에 가서 한국으로 보낸 편지⁴⁸⁹⁾에서 박태로는 김찬성과 함께 갔다가⁴⁹⁰⁾ 김찬성은 먼저 돌아가고⁴⁹¹⁾ 박태로는 좀 더 살펴보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태로는 중국 산동지경에 선교지경을 정하려고 시찰⁴⁹²⁾하면서 그 소회(所懷)를 편지에 써서 보내고, 그 편지에서 중국 전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부탁을 하였다.

488) 제2회 총회의 재정위원의 보고에서 총회 전도국 회계 장부를 검사하였는데 그 회계 장부의 내용에서 1912년 지출예산액 3,264원의 내력 중에 김찬성목사 중화 한달 시찰비와 박태로 목사 4개월 반 월급으로 400원을 지출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18, 21, 23].

489) 1913년 5월 5일 출발하였다[“사설,” 『예수교회보』, 1913. 7. 1]. 『예수교회보』는 첫 면 사설 난에 ‘중화민국 산동성으로 전도가신 박태로목사의 편지가 본사로 왔기에 등본함’이라는 제목을 달고 박태로의 편지를 실었다. 이 편지에서 “박태로는 특별히 은혜를 입스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국의 덕을 받습고 중화민국 산동지경에 전도초로 본년 5월5일에 고향을 떠났서”라고 하였다[『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59].

490) “평남 안주교회 김찬성목사와 흠뻑왔든고로 곳치 전도지경을 명하려고 산동 몇 고을노 순회할제” [“사설,” 『예수교회보』, 1913. 7. 1].

491) 위의 신문, “김목사는 환향(還鄉)하니 원앙새와 방불하고”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59].

492) 김교철은 “박태로 목사는 1913년 5월에 중국 산동성(山東省)에 가서 중국어(中國語)를 배우고 있었다.”고 하였다 [김교철, 『한국선교100년과 김영훈』 (서울: 도서출판 치유시대, 2013), 24]; [김교철, “한국교회 해외선교행전 15,” 『인천기독교신문』 제187호 (2008.12.7.), 29]. 그 이후 박태로는 1913년 9월 9일 오전9시에 경성 승동예배당에서 속회된 제2회 총회에서 전도국장의 보고와 전도국 회계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중화민국 선교사로 택한 사병순, 김영훈과 함께 세 사람이 총회 앞에서 일어서서 지면례를 거행하고 운식명의 기도로 동 3인을 하나님과 그 말씀에게 부탁하게 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7-8]. 그리고 “一九一三年 十一月에 被擇된 宣教師 朴泰魯, 金永勳, 史秉淳 三牧師와 그의 家族들이 中國 山東省 萊陽縣에 到着하여 西門內 中國人 家屋에 賃得하여 居住하며 中國語를 學習하다.” [朴尙純, “山東宣敎의 過去와 現在,” 『神學指南』 第十七卷 第六號(1935. 11), 27].



전도디경을 명하려고 산동 몇 고을노 순행홀제 조선인은 하나도 업스니 과시 천 리타향에 무고인(千里他鄉無故人)이오 (중략) 이리 더리 싱각하니 죄 업시 텅비운 모양이나 이것 더것 덤허놋코 신령계로 싱각흔즉 감사하고 깃븐 몫 태평양도 부족이라 (중략) 우리 부형 주미님네들 본방에 역스흔 형님들이여 일일 시시 곤고 홀새 이형편을 싱각하고 우리 조선 밝은복은 특별흔줄 깃히알고 특별하신 성력으로 이곳 위하 기도하며 진심감사 드립시다. 두로 형편 싱각흔즉 전도문은 열녇스니 우리들이 힘만쓰면 주의뜻을 일울줄 아오니 교례위하 구출거슨 오순절에 주신성신 만세토록 방언주고 호로 회기 三千인도 만국 중에 될거신즉 이를위하 빌어 주옵쇼셔 데살로니가 후서 三장 一 - 三절을 상고하야 보시고 이통신 보실새에 즉시 기도하야줍쇼셔⁴⁹³⁾

중국 산동에서 한국으로 보낸 박태로의 편지를 소개한 신문 『예수교회보』의 첫 면 ‘기도모범’란에 박태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⁴⁹⁴⁾ 박태로는 이렇게 1913년 5월경에 출발하여 중국 산동 지방을 다녀온 다음에 1913년 9월 7일에 회집된 제2회 총회의 둘째 날인 1913년 9월 8일 오후2시에 속회된 총회에서 사병순, 김영훈과 함께 언권회원으로 참석하기를 허락받고⁴⁹⁵⁾ 동일(同日) 오후8시에 경성 신문내 예배당에서 회장 원두우의 찬미와 이기풍의 기도로 개회하고 양전백이 행1장 3절에서 14절을 낭독한 후 롬11장 33절에서 36절을 보고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문제(文題)로 산동성 방면 시찰한 정형을 강설하였다.⁴⁹⁶⁾ 박태로가 강설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⁴⁹⁷⁾ 이때 박태로는 분명 중국 산동에 다녀온 결과를 보고하였을 것이다.

박태로는 제2회 총회 석상에서 중국 산동성 방면을 시찰한 정형을 강설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을 중국 산동으로 보낸 총회전도국에 시찰 결과를 보고 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총회전도국은 적어도 박태로의 중국 산동성 시찰 결과를 참고하여 중국 산동성 행양현과 래양현 등지로 선교지를 정하고 제2회 총회에서 전도국보고를 하면서 “전도할 구역은 산동성 행양현과 래양현 등지로 정하였소

493) “사설,” 『예수교회보』, 1913. 7. 1.

494) 위의 신문, ‘기도모범’의 기도(祈禱)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지금 중화민국으로 보내신 선교사 박태로 목사를 보호하시고 넷날 바울의 압해 열님곳치 복음 전할 문을 열니 열어줍쇼셔 아멘”[『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59].

49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5.

496) 위의 책, 6.

497) 위의 책,



며”⁴⁹⁸⁾라고 보고하였던 것이다.

방효원은 『게자씨』에 기고(寄稿)한 글, “山東宣敎에 對하여”에서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被宣敎地 山東地方問題에 있어 中華예수敎長老會 華北大會에 交渉하여 宣敎地 許可를 얻을 것이므로 牧師 二人을 總會로서 華北大會에 交渉하였다. 時는 光緒 三十三年만에 一次式 會集하는 華北大會가 會集하는 時期라 朝鮮總會의 派遣 받은 二人 牧師는 朝鮮敎會의 山東宣敎를 華北大會에 提出하였다. 然而 華北大會員中有 名 又 有力한 一會員이 說明하기를 中華는 古代의 文明國이요 歷史가 深長한 大國이며 世界 四分之一의 人口를 가진 國家라 驕慢과 自尊心이 많아 自稱 大國이라하여 小國을 蔑視하는 古來 習行이 있으니 中華와 朝鮮은 自古로 關係가 되어 大小와 早晚의 差別을 두난 關係로 朝鮮敎會가 中華에 宣敎는 多方으로 苦難이라 力說하며 又是 被宣敎地의 時日노 말하여도 中華는 五百年이 되고 朝鮮은 二十五年이 되었다 (交渉當時) 多方으로 不可能하다는 說明이 있었다. 이 說明을 들은 華北大會員一同은 此 問題가 重大하니만치 祈禱하여 聖神의 指示를 받자하여 祈禱하는 中에 華北大會는 一致可決로 朝鮮敎會가 山東에 宣敎하는 것을 許諾하여 山東半島中心地인 五縣을 割地하여 朝鮮宣敎區域으로 定하게 되었다.⁴⁹⁹⁾

위의 방효원의 글을 현대어 어투(語套)로 풀어서 다시 적으면 다음과 같다.

피선교지 산둥지방 문제에 있어서 중화예수교장로회 화북대회에 교섭하여 선교지 허가를 얻을 것이므로 목사 두 사람으로⁵⁰⁰⁾ 총회를 대표하여 화북대회에 교섭하였다. 때는 마침 삼년 만에 한 차례씩 회집하는 화북대회가 회집하는 시기라 조선총회의 파견 받은 목사 두 사람은 조선교회의 산둥선교를 화북대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화북대회 회원 중에 유명하기도 하고 또 유력한 한 회원이 설명하기를 중화는 고대의 문명국이요 역사가 깊고 오래 된 대국이며 세계 사분의 일의 인구를 가진 국가라. 교만과 자존심이 많아 자칭 대국이라 하여 소국을 멸시하는 예로부터의 내려오는 관습이 있고 중화와 조선은 예로부터 관계가 되어, 크고 작음과 이름과 늦음의 차별을 두는 관계로 조선교회가 중화에 선교하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힘 들은 일이라 역설하며 또 피선교지의 시일로 말하여도 중화는 오백년이 되고 조선은 이 십오년이 되었다(교섭 당시). 여러 방면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 설명을 들은 화북대회 회원 일동은 이 문제가 중대하니만치 기도하여 성령의 지시를 받자하여 기도하는 중에 화북대회는 일치 가결하여 조선교회가 산둥에 선교하는 것을 허락하여 산둥반도 중심지역인 다섯 현의 땅을 나누어서 조선의 선교구역으로 정하

498) 위의 책, 59.

499) 방효원, “山東宣敎에 對하여,” 제66호, 30.

500) 박태로와 김찬성 목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필자의 주).



게 되었다.⁵⁰¹⁾

방효원의 글을 살펴보면 박태로와 김찬성이 선교지 결정을 위해서 중국 산둥으로 가서 마침 회집한 화북대회에 산동선교의 선교지 허락을 요청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허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교지의 허락을 받은 박태로가 돌아와서 총회 전도국에 보고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총회 전도국은 중국 산둥을 선교지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

사실 총회는 중국 산둥 지방 주재 중국 선교부와 협의하여 한국선교사들이 맡을 선교지를 결정⁵⁰²⁾하는 한편, 이들이 가서 선교할 때에 새로 교회를 설립하기 보다 중국 교회와 협력하여 선교사업을 추진한다는 선교방향을 잡았다.⁵⁰³⁾ 총회는 “支那(지나)에 派送(파송)하는 宣教師(선교사)는 自由教會(자유교회)를 設立(설립)하지 말고 該地(그곳)長老會(장로회)와 聯合(연합)할 것”⁵⁰⁴⁾을 결정했다.⁵⁰⁵⁾ 이를 위해서 총회는 다각도로 그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윤경로는 총회는 선교현지에 있는 중화예수교장로회 화북대회(華北大會)와 협의를 통해 ‘선교지 허가’를 얻기 위해서 재령의 박태로 목사와 안주의 김찬성 목사를 산둥에 파송하여 선교후보지를 답사하게 했고, 1913년 총회는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등 3인을 정식선교사로 파송했다고 하였다.⁵⁰⁶⁾

김양선은 1913년 총회는 김영훈(金永勳), 사병순(史秉淳), 박태로(朴泰魯) 등 세 목사를 산동선교사로 선정하는 한편 산동 장로교독회(長老教督會)에 선교사업지의 선정과 그 협조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어 선교사업에 관한 협정을 끝내었다고 하였다.⁵⁰⁷⁾

501) 필자의 풀이.

502) 제1회 총회가 취한 첫 번째 행동(action)은 해외선교부(a Board of Foreign Missions, 외지전도국)의 조직이었고, 총회는 중국 산둥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런 선교지가 미국 장로교의 중국선교부에 의해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할당되었다 [George T. Brown, *Mission to Korea*, 95] .

503)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107.

50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3), 25, 58-59; 郭安連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61; 방효원, “山東宣敎에 對하여,” 『계자씨』 제68호(1937. 4), 15-17.

505) 윤경로, “1910년대 한국 및 교회의 상황과 산동선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산동선교 100주년의 교훈과 제언』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2), 65.

506) 위의 책, 64-65.



방위량(邦偉良)은 1912년 총회가 중국으로 파송하는 한국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로 재령의 박태로를 지명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태로와 안주교회의 목사 김찬성을 중국 산둥 노회와 협의하는 위원으로 보내면서 사역지를 확실하게 결정하려고 했다. 이들은 지푸(Chefoo)와 방문하는 곳에서 대부분 진심으로 영접을 받았고, 그들은 지푸의 남서부에 있는 커다란 도시 래양(Lai Yang)에 자리를 잡도록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래양과 다른 도시들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래양이 좋겠다는 보고를 하였다. 래양에서는 이미 북장로교선교회(The Northern Presbyterian Mission)가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너그럽게 그곳에서 철수를 제안했고 한국 선교사들이 그들 선교회가 사역하던 유리한 소유지를 차지하도록 허락했다.⁵⁰⁸⁾ 이런 사실은 혹킨(Henry T. Hodgkin)이 편집한 *China Mission Year Book 1925*에서도 산둥에 있는 미국 선교부가 래양의 그들의 선교지 평방 60리를 한국의 선교사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였다.⁵⁰⁹⁾

한국 교회 전체는 박태로와 김찬성이 돌아와서 전한 보고를 듣고 크게 기뻐하고 고무(鼓舞)가 되어 1913년 가을 총회에서 또 다른 두 사람인 사병순과 김영훈을 박태로와 함께 중국에 선교 사역을 실시하는 그 어려운 임무를 맡도록 지명하였다.⁵¹⁰⁾ 이런 방위량의 글을 살펴보면 제1회 총회가 박태로와 김찬성을 선교지 결정을 위해서 중국 산둥노회와 협의하도록 중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13년 7월 15일자 『예수교회보』는 ‘작별후문’이란 제목으로 박태로가 한 위령과 동사(同事)하고 있던 재령교회를 사임하고⁵¹¹⁾ 총회 파송 중국 선교사로 결정되고 그 해에 중국 산둥으로 시찰을 떠날 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一千九百十二年도 졸업하신 황히도 지녕읍교회 담임되었던 목사 박태로씨는 청국디경으로 전도심을 지고가려 할새에 본교우 남녀로쇼가 너무 섭섭하야 밤낮 눈물

507) 金良善, 『韓國基督教史研究』, 109.

508) William N. Blair, "Mission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90.

509) Henry T. Hodgkin ed., *China Mission Year Book 1925* (Shanghai: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25), 224.

510) William N. Blair, "Mission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90.

511) 박태로는 1913년 6월 27일에 개최된 제4회 황해노회에서 재령교회 위임목사의 직이 사임 처리 되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145].



로 세월을 지니는 정상을 보고 참아 속히 써날일이 박절하야 하로잇흘 그렁저렁 몇칠을 지나니 싱각스록 극치없는고로 三월二十八일 주일오후 二시에 스도헝전 二十七장으로 강도문데로 슈로에 비튼고 헝선이라고 강설을 三시동안하야도 졸지도안코 모든교우들이 도로혀 눈물로 화답하고 박목수도 울면서 목이메여 강상을 쌍쌍구르면서 우지들마시오 니가청국가셔도 이자리에 흥상잇셔요 눈물은 고만두고 기도나 하옵세다하고 기도할때에 눈물로 레비를 맞쳤소이다 (중략) 슬픈거시 어디잇스며 즐거운 거시 어디잇노뇨하면 작별하논디 잇고 다시 만나논디 잇는거시라 이때를 당하야는 누가복음 十五장을 싱각을 아니할슈 업쇼이다 맞치 부모가 조식 리별할때 슬퍼하엿다가 수십년후 다시 만날때는 즐거워할때는 소잡고 잔치로써 즐거워하논것 극치 박목수가 우리를 스랑하논 정으로 리별할때는 잠시 슬퍼하지마는 이후만날때는 즐거워할 소망으로 한세월을 지넵세다 박목수 써날때에 부탁합데다 흥상 기도하여 달나고 하옵데다 여러교우는 양모하시는데 일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브르노이다⁵¹²⁾

『예수교회보』는 1913년 5월 5일에 박태로가 중국 산둥으로 떠나기 전인 그해 3월 28일 주일에 교인들과 작별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무척이나 감동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박태로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인들도 박태로 목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박태로는 이별의 슬픔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며 선교사로 떠나는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였던 것이다.

제2회 총회는 1913년 9월 9일 오전9시에 경성 승동예배당에서 속회하였다.⁵¹³⁾ 이날 전도국장의 보고와 전도국 회계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중화민국 선교사로 택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3인을 총회 앞에서 일어서서 지면례를 거행하고 윤식명의 기도로 동(同) 3인을 하나님과 그 말씀에게 부탁하였다.⁵¹⁴⁾ 이렇게 해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은 총회 앞에서 정식으로 중국 선교사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다.

1913년 9월 9일 오후8시에는 총회가 경성 연동 예배당에서 계속 회집하여 회장의 부탁으로 부해리(富解理)가 임시회장으로 회장석에 승석(昇席)하여 이원민의 145장 찬미와 기도, 이기풍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2절을 낭독케 한 후에 양전백의 기도로 임시회장이 개회하고 감사한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에 중화민국 선교사로 택한 김영훈(金永勳)이 묵3장 1절에서 6절을 보고 열심 있는 체 하지 말 것이라는 문제(文題)로 강도하니 회중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512) “작별후문,” 『예수교회보』 제4권 제28호, 1913. 7. 15.

51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6.

514) 위의 책, 7-8.



고 김필수의 기도로 감사하고 찬송 3장을 부른 후에 로세영(盧世永)의 축복기도로 이날 회의를 폐회하였다.⁵¹⁵⁾ 총회 선교사로 파송 받게 된 김영훈은 1913년 9월 9일 회의를 폐하기전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한 것이다.

1913년 9월 10일 오후8시에 승동 예배당에서 계속 회집하여 임시회장 곽안련이 찬송과 기도로 개회하고 고사영(高士英)이 요13장 1절에서 11절을 낭독하고 중화민국 선교사로 택정한 사병순이 강도한 후에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219장을 찬송하고 윤식명의 기도로 이날 회의를 폐하였다.⁵¹⁶⁾ 이렇게 제2회 총회는 중국 선교사로 택정된 선교사들 중에 박태로는 중국 산둥 시찰 보고를 하고, 김영훈과 사병순은 총회 기간 중 하루 회무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설교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총회는 중국으로 떠날 선교사들에게 시찰 보고나 설교를 맡겨서 그들의 각오와 다짐, 결단, 바람 등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선교에 마음을 모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중국으로 파송 받게 되는 선교사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설교를 시키는 것은 이들이 이제 총회가 끝나면 중국으로 출발한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렇게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은 제2회 총회를 마치자마자 그해 9월 하순경에 곧바로 중국 산둥으로 그 가족들과 함께 출발하였다.

1939년(소화14년) 10월 30일 경기도 경찰부에서 이초생(李初生)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당시47세였던 이상규(李尙奎)라는 사람이 신문(訊問)을 받는다. 당시(當時) 증인을 신문하는 경찰과 증인과의 문답(問答) 내용이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때 증인은 자신의 경력을 진술하는 중에 어떻게 중국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게 된다.

나는 京城에 와서 車道心으로부터 중국어를 배우고 있으면서도 면학열에 불타고 있었으므로, 車道心으로부터 山東省으로 가면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중국 山東芝罘(烟台)에 있는 기독교계 信導學校의 주임 柳孝(현재는 그 성명을 기억하지 못함) 앞으로 車道心이 나를 소개하여 주어서, 당시 二一세의 九월 하순경 나는 당시 조선기독교 장로회로부터 山東省으로 파견하는 선교사 朴泰魯, 史秉淳, 金永勳 등三人 및 그 가족 등과 함께 기차로 安東縣까지 가서 一일 체재한 후 제 一四 共同丸을 타고 大連을 경유하여 芝罘에 동년 一〇월 상순경 도착하고, 나는 그곳의 信導學校에 남고, 위 三人의 선교사 등은 山東省來陽城이라는 곳으로 갔

515) 위의 책, 13-14.

516) 위의 책, 28.



다.⁵¹⁷⁾

이상규가 경찰에 진술한 위의 글을 통해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이 1913년 9월 하순경에 그 가족들과 함께 중국 산둥으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⁵¹⁸⁾ 그러니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은 1913년 9월 9일 제2회 총회에서 지면례로 인사를 하고난 다음에 곧바로 그 달 하순경에 중국 산둥으로 출발하였다. 공위량(孔衛良, William C. Kerr)은 한국 장로교회의 세 명의 선교사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중국 산둥의 사역지로 떠났고, 박태로는 전에 그곳을 다녀갔다지만 일행 중 다른 사람들은 그곳이 처음이라고 했다.⁵¹⁹⁾ 이들은 그렇게 산둥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2. 선교사 선정

박태로는 1913년 5월경에 김찬성과 함께 파송지 시찰을 위해서 산둥으로 떠났다. 그러면 박태로는 적어도 1913년 5월 이전에 이미 총회전도국을 통해서 중국 산둥 선교사로 최종 결정이 된 것이다. 이것은 박태로가 속한 황해노회의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박태로가 중국 산둥 선교사로 결정된 시기를 알 수 있다.

a. 박태로의 선정

1913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 받은 박태로(朴泰魯) 목사는 1912년 6월 28일에 재령읍(載寧邑) 남산예배당(南山禮拜堂)에서 회집(會集)된 제2회 황해노회⁵²⁰⁾

517) 國史編纂委員會,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6 (中國地域獨立運動 裁判記錄 IV), 113.

518) 이상규는 경찰에게 자신의 경력을 진술하는 중에 동년(1913년) 10월경 경성에서 중국으로 갔었다고 대답하기도 한다 [위의 책, 111]. 이것은 26년 전의 일을 진술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9월 하순경이나 10월경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519) W. C. Kerr, "Abstract of the Address of the Korean Missionary to Shantung," 71.

520) 황해노회(黃海老會)의 조직(組織)은 “一九一一年(壬子) 一二月 八日에 鳳山郡 영천面 모동禮拜堂에 總會命令에 依하여 召集長 李元敏의 引導로 組織會를 開催하고 第一會 黃海老會를 冊立하니 會員은 宣教師 三人, 牧師 三人, 長老 一六人이고, 職員 選定



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⁵²¹⁾ 황해노회는 신학준사(神學準士) 박태로와 최병은(崔秉恩)을 안수할 때에 각각 재령과 모동교회 위임목사로 임명하였다.⁵²²⁾ 1912년 12월 5일에 송천교회 예배당에서 회집하여 부회장 한위림의 인도로 개최한 제3회 황해노회에서 직원(임원)을 선택하니 회장에 사우업(史于業), 서기에 박태로, 회계에 정찬유가 피선되었다.⁵²³⁾ 박태로는 제3회 노회에서 서기로 선택이 될 정도로 노회 내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1912년 12월 5일까지는 박태로가 총회 파송 선교사로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에 박태로가 선교사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는 노회 서기를 맡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13년 6월 27일에 회장 사우업(史于業)의 인도로 개최한 제4회 황해노회에서 박태로를 대신하여 최병은이 서기로 피택(被擇)이 된다.⁵²⁴⁾ 그리고 박태로는 해(該) 노회에서 재령교회 위임목사의 직(職)이 사임 처리 되었다.⁵²⁵⁾ 그 이유를 노회는 “總會傳道局에서 朴泰魯 請聘하는 書信을 接受하고 載寧教會의 委任牧師의 職은 辭任되다.”⁵²⁶⁾고 하였다. 그러니까 1913년 6월 27일 이전에 이미 박태로는 중국 산동 선교사로 결정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재령교회 위임목사로 한위림과 동사하고 있었기에 노회를 앞두고 위임목사 사임서를 노회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박태로의 위임목사 사임서가 1913년 6월 27일에 회집된 제4회 황해노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목사의 시무사임서는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에 제출된 사임서가 노회에서 사임처리가 허락을 받을 때에 그 직이 사임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총회전도국에서 박태로를 중국 산동 선교사로 선정하고 황해노회에 선교사 청빙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노회는 총회의 청빙을 허락하고 재령교회의 위임목사의 직을 사임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박태로는 1912년 12월 5일에 회집된 제3회 황해노회 이후와 1913년 5월 이전 사이에 산동 선교사로 결정이 완전 마무리가 된 것이다. 박태로가 다른 두 명의 선교사로 파송 받게 되는 사병순, 김영훈보다도 일찍 빠른 시간 내에 선교사로 결정되는 데에는 제3회 황해노회의 부회장이며, 제1

하니 會長 구레빈, 書記 李元敏, 會計 金경률이더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 하권, 143] .

521) 위의 책, 144.

522) 위의 책,

523) 위의 책,

524) 위의 책, 145.

525) 위의 책,

526) 위의 책,



회 총회의 현의위원이요, 제2회 총회의 전도위원이요, 박태로가 위임목사로 동사하는 재령읍교회의 목사요, 박태로와 같은 노회원이요, 또 방위량의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1회 총회가 총회전도국으로 중국 선교 업무를 지시하고, 개인적으로 중국 산동에 선교지 협의를 위해서 다녀왔던 한위럼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한위럼이 박태로의 중국 산동 선교사 선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은 자명(自明)하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한위럼의 역할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황해노회의 현의로부터 총회 전도국의 논의와 한국 교회의 총회의 결정에 협력하는 수준이었지 한위럼이 중국 산동 선교를 계획하고 추진하며 진행시킨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중국 산동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은 한국 교회의 스스로의 결정이다.

제1회 총회전도국은 박태로를 선교사로 먼저 결정하고 그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또 다른 두 명의 선교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총회전도국은 자체적으로 사병순, 김영훈을 선교사로 선정하고 이들이 속한 노회가 각각 열리기 전에 그들이 속한 노회에 이 두 사람을 총회 파송 선교사로 보내기로 하였으니 허락해달라는 청원을 하게 된다. 그렇게 제1회 총회의 전도국은 사병순이 속한 평남노회(남평안노회)에 사병순의 총회 파송 선교사 허락 청원을 하게 된다.

b. 사병순의 선정

남평안노회는 제2회 총회에 노회의 상황을 보고하는 데 크게 다섯 가지를 보고한다.⁵²⁷⁾ 그 중에서 남평안노회 보고 큰 두 번째 교회형편 보고 중에 “사병순 씨는 증산반석방에다리교회에 소안론목수와 동수목수로 세워썻가 총회전도국의 청원을 의지하야 중화민국 선교사로 가기를 허락하였썻오며”⁵²⁸⁾라고 한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므로 남평안노회는 사병순목사를 소안론(蘇安論)목사와 동사(同事)목사로 세웠다. 그런데 총회전도국에서 사병순목사를 중화민국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청원하였기에 노회에서 허락하였다는 보고다. 그러니까 남평안노회에다가 사병순을 총회 파송 선교사로 청원한 곳은 총회전도국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527) 1.감사할 것, 2.교회형편, 3.학교형편, 4.특별한 사건, 5.장래사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43-48].

52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45.



총회전도국이 선교사 파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에 이것은 당연한 업무였다. 또 목사는 노회에 그 소속이 있으므로 총회전도국도 사병순이 속해 있는 남평안노회에 사병순을 총회파송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니 이를 허락해 달라고 청원한 것은 마땅한 절차인 것이다. 평남노회는 사병순에 관한 총회전도국의 청원을 받은 것은 노회 바로 직전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회에서 사병순을 목사로 장립하면서 그 임지를 소안론과 동사무사로 결정하여 안수식을 거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평안노회는 사병순의 신상에 관한 총회전도국의 청원을 받고, 총회의 청원을 존중하여 사병순을 총회 선교사로 보내기를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병순이 총회파송 선교사로 최종 결정된 것은 제4회 남평안(평남)노회가 열린 1913년 6월 12일에 가까운 날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아직 목사로 장립되지 못하고, 아직 노회의 최종 허락을 받지 못한 사병순을 1913년 5월경에 박태로와 함께 중국 산둥으로 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사병순은 이렇게 1913년 6월 12일에 목사로 장립되고,⁵²⁹⁾ 남평안노회의 총회 파송 선교사로 보내기로 허락이 떨어진 다음 곧 바로 1913년 9월 7일에 회집된 제2회 총회에 언권회원으로 참여해서 총회 앞에서 인사를 드린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가족을 데리고 중국 산둥으로 떠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선교사 한 사람을 타국으로 파송하는 일을 결정하기까지 참으로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회 총회전도국도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 허락을 받은 1912년 9월 1일 이후에 선교사 파송 업무를 진행하였을 것이고, 총회전도국은 1년 기간에 준비한 것이니 충분히 준비할 만한 시간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그 당시 갑자기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고국을 떠나게 되는 선교사 본인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을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선뜻 총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른 것이다. 또 노회도 한 사람의 임지를 결정하고 안수하려고 하다가도 총회가 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니 허락해 달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청원을 흔쾌히 허락했다. 노회도 총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랐다. 그러면 총회전도국은 어떻게 사병순을 선교사로 선택해서 남평안노회에 선교사 파송을 청원하게 되었는가? 총회전도국 안에서 누가 사병순을 선교사로 추천하거나 선택하게 된 것인가? 사병순이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되는데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인가? 사병순이 지원

52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116.



한 것인가?

사병순은 제1회 평남노회(平南老會)의 서기(書記)였다.⁵³⁰⁾ 평남노회는 1912년 1월 18일에 설립되었고 그 지경은 평남 전도(全道)와 황해도 황주(黃州), 수안(遂安), 곡산(谷山) 삼군(三郡)을 획정(劃定)하였다.⁵³¹⁾ 이렇게 설립된 제1회 평남노회의 회장은 주공삼(朱孔三), 서기는 사병순, 회계는 박치록이었다.⁵³²⁾ 사병순은 1913년 6월 12일에 평양신학교에서 회집된 제4회 평남노회에서 목사로 장립되었다.⁵³³⁾ 그런 다음 사병순은 1913년 9월 제2회 총회에서 중국 산둥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것이다. 이미 제2회 총회에 올린 남평안노회(平南安老會)의 노회 보고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남노회는 사병순을 소안론(蘇安論)목사와 동사무사로 세웠다가 총회전도국의 청원으로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허락한 것이다.⁵³⁴⁾ 그러면 이제 막 목사로 장립하고 소안론목사와 동사무사로 세운 사병순을 총회전도국은 어떻게 총회 선교사로 선정한 것인가?

우선 제2회 총회에 총대로 참여한 남평안노회(平南安老會)의 목사 총대는 “계택선, 정명리, 송인서, 이치수, 길선주, 이일영, 채정민, 최선탁, 필립보, 심익순, 편하설, 방위량, 소안륜⁵³⁵⁾, 허대전, 배위량, 한승곤, 김선두, 김이제, 김찬성, 고사영, 마삼열 등 모두 21명에 장로 총대는 13명이었다.⁵³⁶⁾ 이들 명단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은 길선주(吉善宙), 김찬성(金燦星)이며, 선교사로는 방위량(邦偉良), 소안륜(蘇安倫), 마삼열(馬三悅)이다. 이들 중에서 길선주, 방위량, 마삼열, 김찬성은 제2회 총회의 전도국위원이었다.⁵³⁷⁾ 제2회 총회의 21명⁵³⁸⁾의 전도국위원 중에서 4명이 남평안노회 소속이었다. 이중에서 마삼열은 제2회 총회의 헌의위원 7명중 그 첫 번째 순서의 인물이기도 하였다.⁵³⁹⁾ 또 소안론은 사병순이 동사무사로 사역하게 된

530) 위의 책, 115.

531) 위의 책,

532) 위의 책,

533) 위의 책, 116.

53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45.

535) 소안론(W. L. Swallen)은 보통 소안론(蘇安論)이라고 불린다. 제1회 총회 회의록 총대 명단에도 소안론(蘇安論)이라고 되어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2), 3]. 그런데 제2회 총회 회의록 총대 명단에는 소안륜(蘇安倫)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3].

53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3-4.

537) 위의 책, 63.

538) 위의 책, 25, 45.

539) 위의 책, 64.



증산반석방에다리교회의 목사였고⁵⁴⁰⁾, 제2회 총회의 본디방전도위원이었다.⁵⁴¹⁾ 우리들은 이들이 사병순이 중국 산동 선교사로 선정되는 데에 영향을 끼친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하튼 사병순은 목사로 장립되자 곧바로 중국 산동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다.

c. 김영훈의 선정

김영훈(金永勳) 목사는 1878년 5월 3일 평북 의주군 월화면(月華面) 호암동(虎岩洞)에서 김유현(金有鉉)의 장남으로 태어났다.⁵⁴²⁾ 김영훈은 자신이 1886년부터 1904년까지 한문(漢文), 작서(作書)를 배웠다고 하면서 자신의 최고 장기는 한문(漢文), 시문(時文), 사자(寫字)라고 하였다.⁵⁴³⁾ 김영훈은 부친의 개종과 함께 기독교 가정에서 청년기를 보내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서 당시 평양의 대한예수교 장로회신학교 입학하여 5년간의 신학수업을 받게 된다.⁵⁴⁴⁾

김영훈은 평북노회(平北老會)⁵⁴⁵⁾ 소속이다. 평북노회(북평안노회)는 1912년 2월 15일에 창립(淸立)되었다.⁵⁴⁶⁾ 김영훈은 1913년 2월 19일에 회집(會集)된 제3회 평북노회에서 방효원 등과 함께 신학생 취교자(就校者) 명단 속에 있다.⁵⁴⁷⁾ 요즈음으로 말하면 신학수업계속허락을 받은 것이다. 김영훈은 그렇게 평양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해(該) 노회에서 호암교회(虎岩教會) 장로안수자로 허락을 받는

540) 위의 책, 45.

541) 위의 책, 65.

542) 김교철, 『한국선교100년과 김영훈』, 19.

543) 위의 책, 20-21.

544) “당시 학생들은 각기 자기들의 교회 일을 보면서 1년에 3개월씩만 학교에 출석하여 전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제도에 따라 5년 동안에 신학교의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했다.” [김교철, 『한국선교100년과 김영훈』, 21] .

545) 평북노회를 제1회와 제2회 총회의 회의록은 ‘북평안노회’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리 회록』 (1912), 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리 회록』 (1913), 2] .

546) “一九一二年(壬子) 二月十五日에 平北老會가 宣川邑 南禮拜堂에 淸立하다. 先年 獨老會時에 朝鮮耶穌敎長老老會 總會準備次로 各代理會가 七老會로 成立하기를 宣告하더니 至是하여 前代理會長 盧世永이 會中에 趣旨를 說明하고 平北老會를 淸立함에 職員을 選定하니 會長 魏大模, 書記 鄭基定, 會計 金錫昌이었다. 當時 會員은 宣敎師 五人, 牧師 十三人, 長老 十一人이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82] .

547) 위의 책, 83-84.



다.⁵⁴⁸⁾ 같은 해인 1913년 8월 26일에 회집된 제4회 평북노회에서 김영훈은 총회 명령에 의하여 중화민국 선교사로 임명된다.⁵⁴⁹⁾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평북노회는 김영훈을 ‘총회명령(總會命令)에 의(依)하여’ 중화민국 선교사로 임명한다는 표현이다. 총회는 총회전도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총회전도국의 명령은 곧 총회의 명령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총회의 각 부서가 하는 일은 곧 총회가 하는 일로 여겨진다.

총회전도국은 제1회 총회가 끝나고 중국 산둥으로 파송할 선교사를 물색하는 중에 평북노회 김영훈을 선교사로 선정하고 평북노회에 명령하여 노회가 김영훈을 선교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총회전도국이 김영훈을 중국 선교사로 선정하기 이전에 김영훈이 선교사로 지원했는지 혹은 그 누가 김영훈을 선교사로 추천하였는지, 아니면 이미 김영훈을 잘 알고 있는 그 누가 지목하고 추천하거나, 요청하거나, 지시하든지 해서 김영훈이 총회전도국에서 중국 선교사로 선정이 되어서 제2회 총회에서 파송 받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그 누가 김영훈이 총회 선교사로 중국으로 가는 데 영향을 끼쳤겠는가?

당시 북평안노회(평북노회)에서 제1회 총회 총대로 참석한 목사는 방혜법, 노해리, 안승원, 이기형, 송문정, 김관근, 장윤식, 김병룡, 김건두, 문진원, 김국두, 백정진, 정기정, 김석창, 노서영, 위대모, 윤산온 이상 17명이었다.⁵⁵⁰⁾ 이 중에서 선교사는 방혜법(邦慧法), 노해리(盧解理), 노세영(盧世永)⁵⁵¹⁾, 위대모(魏大模), 윤산온(尹山溫) 이상 5명이었다. 이들 선교사들 중에서 위대모(魏大模)는 1912년 2월 15일에 제1회 평북노회의 창립될 때에 초대 노회장이 되었다.⁵⁵²⁾ 또 김영훈이 평북노회에서 총회명령으로 중화민국 선교사로 임명된 1913년 8월 26일에 평북노회 제4회 노회가 회집될 때에도 노회장이 위대모(魏大模)였다.⁵⁵³⁾

북평안노회에서(평북노회)에서 제2회 총회 총대로 참석한 목사는 김창건, 김

548) 위의 책, 84.

549) 위의 책,

55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4.

551) 제1회 총회회의록의 북평안노회의 목사 총대 명단에는 노세영의 한자 이름을 노서영(盧西永)이라고 적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4], 제2회 총회회의록의 북평안노회의 목사 총대 명단에서는 노세영(盧世永)이라고 기록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3), 2].

55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82.

553) 위의 책, 84.



석창, 백정진, 김건주, 양전백, 최성주, 안승원, 로해리, 라부열, 로세영, 위대모 이상 11명이었다.⁵⁵⁴⁾ 이 중에서 선교사는 로해리(盧解理), 라부열(羅富悅), 로세영(盧世永), 위대모(魏大模) 이상 4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제2회 총회의 전도국위원은 라부열, 김창건, 안승원 이상 3명이었다. 김영훈과 같은 노회 소속의 총회 전도국 위원들이 김영훈이 중국 산둥 선교사로 선정되는 데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 김영훈이 선교사로 선정되는 데에 누가 영향을 미쳤는 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김영훈은 1913년 8월 26일에 회집된 제4회 평북노회에서 네 사람과 같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에 중화민국 선교사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다.⁵⁵⁵⁾ 그러니까 김영훈은 1913년 8월 26일에 중국 산둥에 선교사로 파송 받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다. 1913년 9월 7일에 제2회 총회가 열리기 보름도 안 남은 날이었다. 그러니 총회전도국이 김영훈을 박태로와 함께 1913년 5월경에 중국 산둥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김영훈은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한 열흘이 지나 열린 제2회 총회에 나가서 중국으로 파송될 선교사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들과 함께 떠나면 중국 산둥으로 떠난 것이다. 그러니 김영훈은 사병순보다도 더 짧은 기간 내에 총회 파송 선교사로 결정되어서 중국으로 떠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영훈도 총회의 요청을 선뜻 받아들였다. 또 평북노회도 사병순의 선교사 파송을 허락한 평남노회와 마찬가지로 노회 소속 목사이지만 총회가 청원한 일이기에 흔쾌히 총회의 결정과 총회전도국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평북노회는 총회의 명령에 의하여 김영훈을 중화민국 선교사로 임명했다.

당시 노회는 총회전도국의 청원을 총회의 명령으로 알고, 총회의 명령이라면 노회의 계획을 접고, 총회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선교사로 파송이 결정되고, 선교지로 파송이 되어 떠난 이들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겪을 고생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사실 이들은 전혀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선교사 훈련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나마 박태로는 선교지로 떠나기 몇 달 전에 선교지를 살피고 돌아온 것이 다행이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다른 두 명은 파송을 받아 떠나게 된 선교지에 대한 정보나 그곳 상황이나 문화, 생활 습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다. 또 당시 총회전도국이 그럴 준비를 갖추어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조동진이 말한 한국 사람들에게 의한 대담한 주도

55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2.

55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84.



권(the bold initiatives)은 서양 선교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보였지만 겁이 없는 시도였다는 말도 일리(一理)가 있다.⁵⁵⁶⁾

한국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해외선교사로 중국 산둥으로 파송 받은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에 대해서 서로득(M. L. Swinehart)의 부인(Lois Hawks Swinehart)은 이들의 자질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모두 한자(the Chinese written language)에 있어서는 좋은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은 사역지에 도착한 다음 2년 안에 중국말로 설교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매우 빠르게 말(the spoken language)을 익혔다고 하였다.⁵⁵⁷⁾ 부명광(George Thompson Brown)⁵⁵⁸⁾도 1913년에 중국으로 파송을 받은 세 명은 이미 한자(漢字)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말을 매우 쉽게 배울 수 있었으며 이들은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양선교사들보다는 훨씬 빨리 중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고 다른 선교사들과 중국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⁵⁵⁹⁾

한국 교회는 이렇게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중국 산둥 선교사로 선정하여 파송하였다. 이들은 총회의 뜻에 순종하였고, 노회도 총회의 결정에 순종하여서 한국 교회의 산둥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D. 결과

1. 파송 원칙

박용규는 1907년 제1회 독노회가 설립되면서 제주로 파송된 이기풍이나 산둥으로 파송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그 이후 모든 선교사들의 출신학교인 평양

556) David J. Cho, "The Growth of Korean Missions and Its Contributions to World Evangelization," 110.

557) Lois Hawks Swinehart, "The Foreign Mission of a Foreign Mission," 83.

558) George T. Brown(부명광, 1921~2014)은 1921년 중국에서 선교사(프랭크 브라운) 자녀로 태어나 중국과 평양, 미국에서 공부했으며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돼 호남신학교 설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1961년 호남성경학원과 광주 야간신학교, 순천 매산신학교 등 3개교가 '호남신학원'으로 통합되면서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http://www.c3tv.com/newsmission/news_view.asp?seq=56592] .

559) George Thompson Brown, *Mission to Korea*, 95.



신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첫째는 네비우스 선교정책과의 관련성⁵⁶⁰⁾이고, 둘째는 초기 교수들의 출신 학교 성향이다. 평양신학교는 네비우스 선교정책과 관련하여 설립되고 육성되었다. 교회학교와 성경학교, 신학교조차도 모든 신학교육은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일환인 사경회와 깊은 관련 속에서 진행되었다. 평양신학교는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일환이었던 사경회 제도의 연장이었다.⁵⁶¹⁾ 이런 분위기에서 공부한 초기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파송 받아서 사역하게 되는 선교 전략이나 정책, 그 방법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게 되었을 것이다.

공위량(孔衛良, William C. Kerr)은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이런 원칙으로 사역을 하였다고 말한다.

그들은 측량할 수 없는 고생을 참아야만 했다. 그들은 선교사로 간 그 곳 사람들 처럼 살아야 했다. 그들은 그 땅에 파송된 해외선교사들이 누리는 이점은 가지지도 못했다. 그 땅에 사는 그곳 사람들의 집은 적어도 떨어지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속에 새겨진 원칙을 지켜나가며 그들이 세운 교회들도 처음부터 바른 방침(the right Orientation)을 갖도록 약속했다.⁵⁶²⁾

한국 선교사들은 중국 산둥에서 그들의 사역의 원칙인 네비우스의 원칙대로 사역하려고 했을 것이다. 산둥으로 파송 받은 김영훈이 목사로 안수 받은 북평안노회(평북노회)의 위대모(魏大模, Norman C. Whittemore)도 네비우스 원칙의 하나인 자전(self-propagation)이 적절하게 조직이 되고 건강한 교회의 근본적이 특성들 중에 하나라고 하였다.⁵⁶³⁾ 그러니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이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560) 배안호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책으로 펴낸 『한국교회와 자립선교』에서 “로스의 선교방법도 그 자체는 삼자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삼자 원리의 모든 요소들은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도착하여 네비우스가 자신의 선교방법을 가르치기 수년 전에 이미 한국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안호, 『한국교회와 자립선교』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34-35].

561)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41-42.

562) William, C. Kerr,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KMF 11 (November, 1915), 311.

563) Norman C. Whittemore, "The Missionary Work of North Pyeng An Presbytery," KMF 11 (July, 1915), 191.



박용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평양신학교 개교 후 로버트(라부열, S. L. Roberts)가 마포삼열에 이어 평양신학교 교장직을 맡기 전 25년 동안 신학교를 주도한 선교사들 대부분이 프린스턴신학교 출신이 아니라 맥코믹신학교 출신이었다는 사실이다. 평양신학교가 한국 교회를 주도하는 신학교로 발전하기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선교사들은 마포삼열, 이눌서, 곽안련 세 사람이었는데, 이중 마포삼열과 곽안련 두 사람이 맥코믹신학교 출신이었다. 한국 교회의 초석을 놓은 초기 선교사들이 맥코믹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한국장로교회를 주도한 선교사들이 구학파 전통에서 보수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이들이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이 학교가 여타 구학파 전통에 선 신학교와는 달리 부흥운동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했다.⁵⁶⁴⁾ 이런 학교에서 배운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제주나 산동으로, 파송된 그곳에 가서 부흥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역했을 것이란 점은 짐작하기도 남는다.⁵⁶⁵⁾

한국 교회의 총회가 산동독회의 이명을 요청하는 공함(公函)을 받고 “청원 허옵는 것은 중화민국 선교스는 이명허오나 그 로회에서 다스리는 경우와 위치 변경 허는서에는 조선총회 상관업시는 아니홀줄노 밋스옵는이다”⁵⁶⁶⁾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곽안련(郭安連)은

이러한 의심이 일어나게 된 부분적인 이유는 한국 선교사들이 그들의 사역을 시행할 때에 한국의 네비우스 방법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with instructions), 파송이 되었으며,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렇게 행하였다. 반면에 선교지의 다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옛 방식(the Old way)”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⁶⁷⁾

1913년에 중국 산동으로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파송을 받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한국의 네비우스 방법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이들은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산동으로 파송을 받

564)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44-45.

565) 위의 책, 44-45.

56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30-31.

567) Charles Al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177-78; 곽안련 저, 박용규, 김춘섭 옮김,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213.



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산동 선교에 그렇게 깊이 관계를 하고, 일일이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지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장로회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고,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에 한국에서 보고 배운 대로 선교하라고 하는 권면이었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그들을 중국 산동으로 파송하는 한국 교회의 지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교사 이명

1912년 제1회 총회는 “支那지나에 派送파송하는 宣教師선교사는 自由教會자유교회를 設立설립하지 말고 該地그 處 長老會장로회와 聯合연합할 것”⁵⁶⁸⁾을 결정했다.⁵⁶⁹⁾ 따라서 중국 산동으로 파송된 세 명의 선교사인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은 분리된 교회(a separate Church)를 세우지 말고, 중국 교회와 함께 사역하도록 지시를 받았다.⁵⁷⁰⁾ 그들이 지시를 받았다고 할 때에 그들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곽안전(郭安全)은 여기에서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누구를 지칭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런 표현에서는 그들이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할 때의 원칙을 결정한 한국 교회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원칙은 한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세우게 되는 교회가 중국의 교회에 속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중국에서 사역할 때에 곧 중국의 교회에 속해서 사역을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은 곧 선교사 이명과 관계되는 원칙을 말한다. 1913년 9월 7일에 회집된 제2회 총회에서 선교사 이명(移名)에 관한 전도국위원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다.

중화민국에 선교사를보내여 교회 세우는 주의를 그곳 로회에서도 알아야 죠할것시오 우리 총회전도국에서도 알아야 죠할것신고로 총회에 보고하야 총회에서 중화민국에 선교사를 보내여 교회 세우는 주의가 그 나라 로회에 속하게 하고 따로 교

56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1; 『조선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3), 25, 58-59; 郭安連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61; 방효원, “山東宣敎에 對하야,” 제68호, 15-17.

569) 윤경로, “1910년대 한국 및 교회의 상황과 산동선교,” 65.

570) 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177.



회를 세우지 아니하겠다는 주의가 합하여 혁락히시면 스무국에 맞게 중화민국 로회의게 이디로 편지히기로 하였스오며⁵⁷¹⁾

총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한국 선교사가 중국 노회에 속하도록 결의하였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곧바로 중국 노회에 이명한 것은 아니다. 1915년 9월 4일에 회집된 제4회 총회의 전도국위원의 보고 중에 중국으로 파송한 한국 선교사의 청원이 들어 있다. 그것은 “중화민국 선교사의 청원한 일은 임의 총회에서 중화민국 산동대회에 편지하디로 중화민국 장로회 로회하에서 일을 보라면 이명증서가 잇서야 그곳 로회에도 참여하고 일을 보기에 편리하깃다 하였스오니 총회에서 결의 처분하심을 청원하오며”⁵⁷²⁾인데 이 청원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노회에 이명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이제는 중국 노회에 이명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총회에서 산동대회(山東大會)⁵⁷³⁾에 편지 한 대로 한국 선교사들의 이명을 중국으로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의 전도국은 선교사들의 청원을 총회에 보고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청원은 제4회 총회에서 결정하지 못했다. 총회 중에 전도국위원이 “중한민국⁵⁷⁴⁾에 파송한 선교사의 이명에 관한 요건 류안(留案)히기로”⁵⁷⁵⁾ 보고하였다. 결국 한국 선교사들의 중국 노회 이명 건은 제5회 총회로 넘어가게 된다.

1916년 9월 2일에 회집된 제5회 총회에서 서기의 미결안(未決案)에 대한 보고서(報告書) 중에 금회(今回)에서 결정할 전회(前回)의 미결 사건, 그 첫 번째가 ‘중화민국 선교사 이명에 관한 스건(제4회 회록 卅五頁)’이다.⁵⁷⁶⁾ 그런데 계속되는 제5회 총회 보고 중에 헌의위원이 열두 가지를 보고하는 중에 그 열한 번째로 ‘중화 산동독회에서 선교사 제시를 이명하라는 공함은 전도국위원에게 보낼 일’⁵⁷⁷⁾

57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25.

57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35.

573) 대회(大會)는 총회(總會) 아래에 있고, 노회(老會) 위에 있는 조직(組織)이다(필자의 주). 중화기독교 총회(總會)(4년에 1차 모임)는 산하(傘下) 17대회(大會)(2년 1차 모임)와 121노회(老會)(1년에 1차 모임)로 구성되어 있다 [방지일, “영으로 주신 복음, 영으로 같이 받는 역사(役事),” 35].

574) 제4회 총회록에 기록된 ‘중한민국’은 ‘중화민국’의 오기(誤記)이다(필자의 주).

57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9.

57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10.

577) 위의 책, 21.



을 보고하게 된다. 헌의위원의 보고는 중국 산동독회(山東督會)⁵⁷⁸⁾가 한국 총회에 다가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이명시키라는 공함을 보낸 것이다. 중국 산동노회로부터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이명증서를 요청하는 공문(公文)을 받은 총회 헌의위원(獻議委員)이 그 공문을 해당부서인 전도국으로 보내겠다는 보고다.

해(該) 총회에서 한국 선교사 이명에 관한 중국 산동노회의 공함을 헌의위원회로부터 건네받은 총회 전도국이 이 사안(事案)에 대하여 “청원하옵는 것은 중화민국 선교사는 이명하오나 그 노회에서 다스리는 경우와 위치 변경하옵는서에는 조선총회 상관업시는 아니홀줄노 및스옵는이다”⁵⁷⁹⁾라고 보고한다. 이런 보고를 살펴보면 총회 전도국은 한국 선교사가 중국 노회로 이명이 되면 중국 노회가 한국 선교사들을 다스리는 일과 사역의 위치를 변경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객안련은 한국 교회의 총회가 부분적으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한국 선교사들이 그들의 사역을 시행할 때에 한국의 네비우스 방법⁵⁸⁰⁾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파송이 되었으며,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렇게 행하였다. 반면에 선교지의 다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옛 방식(the Old way)’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⁸¹⁾이라고 했다. 그러나 총회 전도국은 중국 노회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전도국이 총회에 보고를 하는 중에 산동에 시찰을 갔던 이일영(李一永)의 보고 듣기로 결의한다.⁵⁸²⁾ 이일영의 보고는 “선교사의 이명은 불가불 하여야 할 형편이오 선교사 一인은 가파하느 거시 가 홀줄노 보고하다”⁵⁸³⁾였다. 이일영은 선교사의 이

578) 독회(督會)는 노회(老會)를 말한다(필자의 주).

57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1916), 30-31.

580) 원두우(元杜尤)는 한국 교회의 자급 원칙에 관한 글에서 “우리의 사역의 시작, 곧 우리들의 계획을 충분히 성숙시켜가기 전인 1890년 여름 네비우스 박사는 미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들을 방문하였다. ‘선교 사역의 방법(Methods of Mission Work)’이라는 그의 책은 이미 우리들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여러 가치 있는 힌트를 주었다. 그렇지만 그의 선교 방법의 체계에 대한 충분한 의미가 그의 도착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다. 주의 깊은 고려(考慮)후에 우리들의 선교는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마침내 매우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H. G. Underwood, "Principles of Self-Support in Korea," KMF 4 (June, 1908), 91]. 참고로 KMF 원문에는 원두우(元杜尤)의 영문이름을 H. D. Underwood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H. G. Underwood의 이름의 ‘G’를 ‘D’로 오기한 것이다(필자의 주).

581) Charles Al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177-78; 객안련 저, 박용규, 김춘섭 옮김,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213.

58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1916), 27-28.



명은 불가불(不可不) 하여야 할 형편이고 선교사 한 명을 가파(加派)하는 것이 가(可)한 줄로 보고했다. 왜 이일영은 선교사 한 명을 더 중국 산둥으로 파송하자고 제안한 것인가?

1916년 제5회 총회의 전도국 회계였던⁵⁸⁴⁾ 평양의 이일영목사는 심익현(沈益鉉)목사와 함께 1916년 3월 30일 오후3시 30분에 평양역에서 평의선(平義線) 열차를 타고 중국내 한국 선교사 지경인 산둥으로 시찰을 가는 먼 여정을 출발하게 된다.⁵⁸⁵⁾ 이일영은 『基督申報』에 기도한 ‘中國山東旅行記’의 마지막 부분에서 장래의 희망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將來의 希望을 論하면 우리 宣教師 三人이 中國語로 傳教하게되여왔스니 今秋부터는 區域內에서 宣敎를 經營이며 萊陽省敎會內에 眞實한 兄弟姊妹가 有하니 힘써 福音을 傳播하는 거시며 萊陽人心이 우리 宣教師에 對하여 信仰하는 形便이 現하였스며 中國敎會에 遺憾되는 事는 婦人側敎會인디 萊陽省敎會는 昨年受洗 三人中 婦人이라 故로 本人의 希望點은 將來萊陽敎會에서 婦人이 旺盛할줄 信호오며 萊陽城 浸信會가 有하야 前者에는 反目하는 形便이더니 到今하야서는 浸信會 米國宣教師 ㅅ지 우리 敎會에 對하야 和合할 ㅅ음으로 交際하는거슨 萊陽人心이 우리 敎會를 信仰하는 緣故이러라 또는 萊陽城뿐만아니라 將來經營디로되야 傳道局에서 宣教師 一人을 더 派遣할거시면 最初 經營하던 海陽地境ㅅ지우리 宣教師의 傳道區域이 될듯호오니 希望이 尤大호도다⁵⁸⁶⁾

이일영은 중국 산둥을 시찰한 다음에 산둥 선교의 상황 여건이 좋다고 보았다. 첫째로 한국에서 파송한 세 사람의 선교사들이 중국어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으며, 둘째로 래양성 교회내에 진실한 형제자매가 생겨나고 있으며, 셋째로 래양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선교사들에 대하여 신뢰하게 되었고, 넷째로 작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 명인 것이 유감이지만 이들이 모두 부인인데 앞으로 래양성 교회 내에 믿는 부인들이 왕성해 질 것이며, 다섯째로 래양에서 선교하는 미국 선교사들과도 화합하며 교제하게 되었으니 이는 앞으로 래양사람들의 마음이 한국 선교사들을 믿는 마음이 생긴 것이니 선교사 한 명을 더 파송해서 선교하게 되면 우

583) 위의 책, 28.

584) 위의 책, 30, 90.

585) 李一永, “中國山東旅行記,” 『基督申報』 제1권 제35호, 1916. 8. 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29.

586) 李一永, “中國山東旅行記,” 『基督申報』, 1916. 9. 13.



리 선교의 구역이 넓어지겠다는 희망이 더욱 크게 되었고 하였다. 따라서 선교사 한 명을 더 파송하자고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일영이 이런 생각으로 총회에서 선교사 한 명을 더 파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하자 총회는 전도국위원의 보고는 임시보고로 받고 선교사를 한 명 더 파송하자는 건은明年(明年) 총회 시(時)까지 유안(留案)하고, 선교사 이명에 관한 건은 정치위원⁵⁸⁷⁾에게 보내기로 정한다.

중국 산동에 파송된 선교사 이명 건(件)을 다루다가 이일영이 보고 중에 선교사 한 명을 더 파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그 의견은 내년 총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선교사 이명 건은 정치위원으로 넘긴 것이다. 이렇게 선교사 이명 건을 넘겨 받은 정치위원은 이 문제를 상의하였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정치위원은 “중화민국 선교스의 이명스건은 이명하는 거시 요흔줄노 아오며”⁵⁸⁸⁾라고 보고한다.

정치위원은 선교사의 이명은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한다. 그럴 때에 총회는 정치위원의 보고를 완전보고(完全報告)로 받아 채용하면서 “산동(山東) 선교스의 이명 스건에 관하야는 이명은 허락하되 조선에 도라오면 조선목사로 인정하느 요건을 붙치기로 결명하다”⁵⁸⁹⁾ 총회는 한국 선교사들의 이명을 허락하고, 그들이 훗날 중국 선교사역을 마치거나 하여 한국에 돌아올 때면 한국 목사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이명을 허락했다. 이는 총회가 한국 선교사의 신상(身上)에 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이명을 허락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중화민국 선교스 이명에 관하 스건은 지론하기로 동의 잇서 가결후 다시 의론할시 시간이 진흙으로 폐회하기를 결명하고 회장이 기도로 명회하다”⁵⁹⁰⁾라고 회록(會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를 중국 노회로 이명을 허락하되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한국 목사로 인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이명하기로 결정한 사

587) 정치위원은 현재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노회나 총회의 정치부를 말하는 것으로 노회의 정치부의 임무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동노회 노회 규칙 제5장 부, 위원, 파송이사 제20조 제7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다. “정치부는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관련하여 산하 치리회 및 기관에 지시할 사건에 대해 처리 방침을 정하여 노회에 제의하며, 노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90회 노회 회의안』(2014년 4월 22일), 252].

58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1916), 44.

589) 위의 책, 43.

590) 위의 책, 45.



안에 대하여 재론동의(再論動議)가 들어온 것이다. 그러자 총회는 선교사 이명 건을 다시 논의를 하는 중에 처음 허락을 받은 절차에 정한 시간이 다 되자 정회(停會)한 것이다.

총회는 속회(續會)하여 선교사 이명건에 대하여 다시 숙의(熟議)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최종 결정하기를 “중화민국 선교사 이명건에 대하여 다시 숙의한 결과 이명은 허락되 산둥(山東)에 있을 때에는 그 로회 회원이 되고 귀국할 때에는 구잠(久暫)을 불문하고 본 총회회원 된다는 요건을 부하기로 결정한다”⁵⁹¹⁾ 그러니까 재론(再論)하게 된 이유는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그곳에서 얼마나 사역을 했느냐하는 사역 기간(期間)에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한국 목사의 자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누군가 선교사의 사역 기간에 따라서 차이를 뒤야 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총회의 최종 결정은 선교사의 사역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잠시 잠깐 동안 사역해서 그 기간이 짧은 것은 따지지 말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한국 교회 총회회원이 된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은혜롭고 당연하고 좋은 결정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해서 1913년 제2회 총회가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세 사람을 중국 산둥으로 파송을 할 때에 “총회에서 중화민국에 선교사를 보니여 교회 세우는 주의가 그 나라 로회에 속하게 하고 따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것다는 주의가 합하여 허락하시면 스무국에 맞게 중화민국 로회의게 이디로 편지하기로 하였소오며”⁵⁹²⁾라고 결의하였던 그 결의대로 3년이 지난 1916년 9월 2일 평양 부서문외신학교(府西門外神學校)에서 회집 된 제5회 총회⁵⁹³⁾에서 선교사 이명에 관한 최종 결의로 이명문제는 매듭을 짓게 된다.

여기서 우리들은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다. 첫째는 중국 산둥으로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을 중국 노회에 속해서 사역시킨다고 하는 결정은 참으로 뜻 깊은 결정이었으나 선교사의 이명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선교사를 중국 노회로 받아들이겠다는 중국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한국 선교사를 중국 노회로 이명 시킨다는 한국 총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목사의 이명이란 노회에서 노회로 보내고 받는 절차다. 왜냐하면 목사의 직은

591) 위의 책, 45-46.

59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25.

59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1.



노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에 대한 중국 독회(督會)와 대회(大會)의 이명요청을 한국에서는 총회가 다루고 있다. 이것은 중국 산둥으로 파송한 세 명의 선교사에 관한 선교 업무는 전적으로 총회, 특별히 전도국이 주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로 총회는 한국 선교사들을 중국으로 보내면서 중국 노회에 속해서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분명하면서도 그렇게 파송한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의 신상(身上)에 대한 보완장치나 안전장치를 해두어서 나름으로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는 배려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제5회 총회는 선교사의 이명 건을 최종 결정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결정하는데 그것은 “산둥(山東)독회에서 온 공함은 총회 전도국에서 선교사의 이명허락에 더한 요건을 상세 설명하라 답복하려니와 그 공함은 긴중한 문조인즉 본 회록에 그 원문대로 등지기로 결정하다(그 공함은 별지 데二호에 등지함)”⁵⁹⁴이었다. 한국 교회의 총회가 본격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의 이명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은 중국의 산둥독회가 한국 교회 총회에 보낸 공함(公函)이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면 그 공문(公文)은 어떤 내용이었기에 한국 교회 총회가 심사숙고(深思熟考)하여 한번 결정한 것을 재론동의(再論動議)까지 하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된 것인가?

곽안련은 그가 편찬(編纂)한 『長老教會史典彙集』의 1916년사(史)에서 “지나산 동성에 파송한 선교사의 이명은 허락하되 권징에 관한 일은 협의 처리케 될 것으로 인정하다”⁵⁹⁵라고 하였다. 그러니 선교사의 이명 문제의 논의가 되었던 부분은 선교사의 권징(勸懲)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총회에서 선교사 이명을 다룰 때에 총회 전도국이 “청원하옵는 것은 중화민국 선교사는 이명하오나 그 노회에서 다스리는 경우와 위치변경하소서에는 조선총회 상관업시는 아니홀줄노 밋스옵는이다”⁵⁹⁶라고 할 때에 ‘노회에서 다스리는 경우’라는 이 문구(文句)가 바로 권징에 관한 언급(言及)이다. 그러니까 한국 목사가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을 받고, 중국 노회에 이명을 해서 그 노회의 소속이 된 다음에 만약에 권징 사항에 그 어떤 사유(事由)가 생긴다고 할 때에는 중국 노회가 한국 교회와 상의(相議)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다. 한국 교회의 총회는 이 문

594) 위의 책, 46.

595) 郭安連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66.

59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30-31.



제로 염려하고 신중(愼重)을 기하였다. 그러면 이제 중국 산동독회가 한국 교회 총회에 보낸 공함의 전문(全文)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⁵⁹⁷⁾

朝鮮長老會總會傳道事務局李君一永道安接來大札祇悉一切貴總會所派之三位教士來敝會境內布道且欲遷名于敝會會友無不竭力歡迎不料貴總會因而帳鬱一果系遷來則於貴總會無干二恐捐補退縮伏思美國諸教士來弊國布道該教士名目雖遷敝會冊內而內容仍屬美國布道會(或名差會)布道會屬於總會故美國教士名在弊國督會實系與美國差會及總會不絕關係故美國之捐款⁵⁹⁸⁾源源不絕貴總會遣人來弊局布道宗旨目的諒與美國相似三教士雖遷名于本督會實仍屬貴國總會斷不能因遷名即與貴總會斷絕關係既與貴總會仍舊有關而捐補即當仍舊再三思之三教士不遷名于本督會多有得難之處祈貴總會酌奪賜教是幸 山東督會正史 伊維廉 董文珍 鞠躬⁵⁹⁹⁾

이제는 산동독회(山東督會)가 한국 교회의 총회에 보낸 공함을 번역(翻譯)하여⁶⁰⁰⁾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장로회 총회 전도사무국 이일영씨에게 인사를 전하며 귀하의 편지를 받았고 모두 잘 알겠습니다. 귀 총회가 파송한 세 사람의 선교사가 본 노회 경내에 와서 도를 전하고 또 본 노회에 이명⁶⁰¹⁾을 원하니 우리 회원들이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이 환영하나 뜻밖에 귀 총회에서 회장이 올창하듯 그 무슨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귀 총회와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혹 연보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한다면 앞드려서 생각하기를 미국의 여러 선교사들이 본국에 와서 도를 전하고 그 선교사의 이름이 비록 본 노회의 책 안에는 옮겨졌으나 내용은 미국 선교회 (혹 이름 하기를 차회)에 속해 있고, 전도회는 그 총회에 속해 있는 까닭으로 미국 선교사의 이름은 본국 독회에 있으나 실재는 미국 선교회와 총회와 더불어 관계하고 있어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고로 미국의 연보와 그 정성이 깊고 깊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귀 총회가 사람을 파견해서 본국에 와서 도를 전하는 그 뜻과 목적이 좋은데 참으로 미국과 더불어 같으니 세 사람의 선교사가 비록 본 독회로 옮긴다고는 하나 실상은 귀 나라의 총회에 속해서 그 관계를 능히 끊을 수 없으니 이름을 옮긴즉 귀 총회와 그 관계를 단절되는 듯 하여도 귀 총회와 더불어 옛 관계에 속하니 연보도 마땅히 옛 관계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 번 거듭 생각하기를 세 사람의 선교사가 본 독회에 옮기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많을 듯 하니 바라기는 귀 총회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동독회정사 이유렴(伊維廉)과 동

597) 산동독회가 보낸 이 공함의 원본은 본 논문의 부록에 첨부하였음.

598) 원문(原文)에는 정성 관(款)자(字)의 속자(俗字)를 사용(使用)하고 있음.

59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회록』 (1916), 77.

600) 필자의 번역(翻譯).

601) 산동독회(山東督會)의 공함은 이명(移名)을 천명(遷名)이라고 말하고 있다(필자의 주).



문진(董文珍)⁶⁰²이 었드려 ㅁㅁㅁㅁ.

중국의 산동노회가 한국 교회의 총회에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산동노회가 상당히 세밀하고 신중하며 정중하게 공문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산동독회는 이런 공함을 보내면서 몇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중국노회에 이명(移名)을 원하였다고 한다. 둘째는 산동노회가 한국 선교사의 이명을 환영한다고 말한다. 셋째로 혹 한국 총회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이명을 하지 못한다면 상관없다고 하며, 그런데 넷째로 한국 선교사들이 이명을 하지 않으면 산동에서 선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다섯 번째로 이명을 해도 한국 총회와 완전히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한국 교회 총회가 산동독회가 보낸 공함을 가지고 그렇게 신중하게 다루고 재론동의(再論動議)까지 하면서 또 다시 숙의(熟議)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한국 선교사의 신상에 관한 문제였다. 한국 총회는 산동독회의 요구대로 한국 선교사들을 중국 노회에 이명시킨다고 할 때에 중국 노회가 한국 선교사들을 다스리는 일, 곧 권징(勸懲)을 할 일이 생기게 되면 중국 노회가 혹시 한국 총회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를 염려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산동노회의 공함을 헌의위원회의로부터 건네받은 총회 전도국이 이 사안)에 대하여 “청원 ㅎㅇ는 ㅎㅇ는 중화민국

602) 산동독회에서 한국 총회에 공함을 보낸 사람, 이유렴(伊維廉)목사와 동문진(董文珍)목사는 일찍이 이일영이 심익현과 함께 산동지역 한국 선교사 지경을 시찰하려 중국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다. 이일영은 중국산동을 다녀온 다음에 『基督申報』에 “中國山東旅行記”라는 제목으로 실은 연속 기고문 1916년 8월 23일자 글에서 이유렴과 동문진을 만난 일을 적고 있다. “翌日(1916년 4월 6일-필자의 주) 烟台 青年會 幹事 徐宗民氏 引導로 伊維廉牧師를 訪問 ㅎㅇ 玉皇頂禮拜堂內 客樓에서 五日間 留宿 ㅎㅇ는디 烟台教會內에 實益中學校 三學年生徒 黃海道 長淵人 吳興元氏가 本校長의 引導로 晝夜로 懇切 ㅎㅇ게 周旅 ㅎㅇ를 因 ㅎㅇ야 困難을 免 ㅎㅇ였스며 本教會 中國人 牧師 董文珍氏 引導로 教會를 視察 ㅎㅇ는디 敎人이 四百名이오 神學豫備生徒가 十九名이오 (중략) 米國宣敎師 郭顯德牧師를 訪見 ㅎㅇ니 朝鮮教會를 對 ㅎㅇ야 感謝 ㅎㅇ 情意를 表 ㅎㅇ는디 自己는 至今 八十二歲오 五十三年前에 烟台에 來 ㅎㅇ였스며 四十九年前에 平壤城에 來 ㅎㅇ야 宣敎師 殺害 ㅎㅇ 事件을 問查 ㅎㅇ야보왔는디 其時에는 朝鮮國에 信者 一人이 無 ㅎㅇ더니 至今은 教會가 旺盛 ㅎㅇ야 中國에 宣敎師 ㅎㅇ지 派遣을 ㅎㅇ여스니 實노 感謝 ㅎㅇ다고 ㅎㅇ더라” 이일영은 이 때 이제는 나이가 82세나 된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곽현덕(郭顯德, Hunter Corbett)을 방문해서 만났고, 곽현덕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중국에 선교사까지 파송한 것을 깊이 감사한다는 인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李一永, “中國山東旅行記,” 『基督申報』 제1권 제38호, 1916. 8. 23].



선교수는 이명호으나 그 로회에서 다스리는 경우와 위치 변경하는서에는 조선총회 상관업시는 아니할줄노 및스옵는다”⁶⁰³⁾라고 보고한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중국 산동독회로 이명은 시키되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한국 총회의 회원이 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이명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총회와 중국 산동독회 사이에 한국 선교사 이명 건을 두고 상당한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한국 교회의 총회는 선교사 이명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을 중국 산동노회와 협의하여 자국 선교사를 최대한 보호하고 처음 선교사 파송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 이명(移名)건(件)을 해결하였던 것이다.

3. 파송 헌금

1912년 9월 1일에 회집된 제1회 총회에서 전도국은 다음과 같이 해외선교사 파송을 청원하게 된다.

로회를 시작(始作)할 때에 제주에 선교수(宣敎師)를 보냄으로 신령(神靈)은 교회를 세워 하느님의 영광(榮光)을 돌림으로 우리에게 깃쁨이 충만(充滿)한바이온즉 지금(至今) 총회(總會)를 시작(始作)할 때에도 외국전도(外國傳道)를 시작하디 지라등디(支那等地)에 선교수(宣敎師)를 파송(派送)하기를 청원호오며⁶⁰⁴⁾

전도국은 이와 같이 총회에 선교사 파송을 청원하면서 선교사를 후원할 선교비(宣敎費) 마련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게 된다.

一年중(年中)의 한 주일을 특별히 택하여 각 교회에 명령하고 전도국을 위하여 레비(禮拜)보게 하되 그 주일의는 전도(傳道)뜻으로 강도도 하고 외국전도(外國傳道)를 뜻으로 기도도하고 그 주일(主日)에 특별(特別)이 힘써 연보(捐補)도 하되 그 날은 감사일로 정(定)하고 각 교회의 인도하는 이들이 그 전주일의 예비(豫備)로 힘있게 광고(廣告)할일이옵고⁶⁰⁵⁾

60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30-31.

60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1.

605) 위의 책, 21.



총회 전도국은 해외선교비는 각 교회가 일 년 중에 한 주일을 택해서 외국 전도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그 날은 감사일로 정해서 특별 선교헌금을 해서 전도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청원이다. 첨부하여 그 전 주일에는 힘 있게 광고까지 하게 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다. 그리고 전도국은 제주 예산까지 합해서 2,500원을 청구(請求)한다.⁶⁰⁶⁾ 제1회 총회 때에 보고된 1911년도 전도국 회계 보고인 <표24>을 보면 1911년도 선교비 지출 1,329원 2전 8리였다.

<표24> 1911년도 전도국 회계 보고

수입(收入)	지출(支出)	여재금(余在金) ⁶⁰⁷⁾
1,400원(圓) 15전 5리	1,329원 2전 8리	71원 42전 7리

1911년도 전도국의 선교비 지출의 총액인 1,329원 2전 8리에서 그 지출 내역인 <표25>을 보면 선교사역을 정지(停止)하게 된 해삼위 최관흠 선교사의 월급 600원, 전도비 100원, 그리고 잡용비 30원을 빼고 나면 제주 선교에 필요한 선교비는 약600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5> 1911년 전도국 회계 지출 내역(內譯)

리교풍시 월급	270원(圓)	잡용비	30원
전도비	20원	한병직시 월급	145원
사랑비	15원	잡용비	75원 36전 5리
특별비	3원 4전 8리	한병직시 리왕비 부족	12원 88전
최관흠시 월급	600원	김창문시 신학시 월급	30원
최관흠 전도비	100원	전도국 용비	27원 73전 5리

606) 위의 책,

607) 여재금(余在金)이란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으로 잔액(殘額)을 말한다. ‘여(余)’ 자(字)는 나머지 여(餘) 자(字)의 속자(俗字)로 쓰인다(필자의 주).



따라서 전도국은 제주와 지나등지의 선교비로 2,500원을 청원했으니 해외선교비로 1,900원을 계산한 것이 된다. 총회 전도국은 그 정도의 예산이면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913년 9월 7일에 회집된 제2회 총회에서 재정위원이 총회 전도국 장부를 감사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였다.⁶⁰⁸⁾ 이 때 총회에 보고된 전도국의 지출 예산의 항목에 “중화민국 전도예산 一千七百七十六원”⁶⁰⁹⁾ 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니까 총회 전도국은 중국 선교의 지출 예산으로 1,776원을 책정(策定)한 것을 알 수 있다. 총회 전도국이 중국 선교 예산으로 1,900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계산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제2회 총회에서 전도국 보고를 할 때에 “함경로회 헌의에 감사일 연보로 히삼위 일을 하겠단하느 디 하여서는 감사일 연보는 총회전도국으로 보니여 중화민국 일을 하게하고 특별히 다란 날을 택하여 연보하여서 히삼위 일을 하게 하되 할수 잇는디로 총회전도국의 셔 도와주기로 하였으며”⁶¹⁰⁾라고 하였다. 이제 제2회 총회전도국에서는 예산이 생기면 중국 산동 선교비를 마련하려는 생각을 보여준다. 또 전도국은 “제주 일을 도라보는 것은 전라도 로회의게 맡겨서 전도국 일년회에 경영과 예산을 하여 주는디로 하게 하였습니다”⁶¹¹⁾라고 보고한다. 이제 제주 교회와 제주 선교를 돌아보는 일은 전라도노회에게 맡기고, 총회 전도국은 중국의 해외선교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한국 교회의 총회가 중국 산동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자 그 영향은 곧 각 노회와 교회에게로 파급되어 나갔다.

남평안노회는 제2회 총회에 크게 다섯 가지의 남평안노회의 보고를 하면서, 그 첫째로 감사할 것, 두 번째는 교회형편, 세 번째는 학교형편, 네 번째로 특별한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장래사건을 보고하였다.⁶¹²⁾ 이런 남평안노회의 보고 중에서 그 네 번째 특별한 사건으로 “평양 셔면 전도국에서 열심히 힘써 총회전도국에서 파송한 중화민국 선교스 一인의 월급을 담당하오며”⁶¹³⁾라고 보고하고 있다.

남평안노회는 총회전도국의 청원으로 남평안노회 소속 사병순을 선교사로

60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18, 21.

609) 위의 책, 23.

610) 위의 책, 25.

611) 위의 책,

612) 위의 책, 43-48.

613) 위의 책, 46.



가기를 허락하였다.⁶¹⁴⁾ 따라서 남평안노회가 중화민국 선교사 한 명의 월급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그 선교사는 사병순 선교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해(該) 노회의 소속이었던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 받아 중국으로 떠날 때에 그 선교사의 월급을 노회가 담당하겠다고 한 것이다.

제2회 총회에서 총회 전도국이 감사할 것을 보고하면서 “전국 교회가 연보함으로 중화민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작정하였소오며”⁶¹⁵⁾ 라고 하였다. 이것은 제1회 총회 때에 외국전도를 청원하면서 “一年중의 한 주일을 특별히 택하여 각 교회에 명령하시와 전도국을 위하여 레비보게 하시되 그 주일의는 전도 뜻으로 강도도 없고 외국전도할 뜻으로 기도도 없고 그 주일에 특별히 힘써 연보도 되”⁶¹⁶⁾라고 청원한 대로 전국의 교회들이 헌금해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합심해서 헌금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방지일은 “당시의 선교비는 전국 교회가 감사헌금은 전부 선교비로 보내기로 가결되어 내가 선교사로 갈 때도 장대현교회에서 몇 전까지라도 감사헌금은 선교비로 보내게 되어 있었다.”⁶¹⁷⁾고 한다. 1916년 6월 21일자 『基督申報』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총회전도국위원회 통상회를 룡월룩일 하오 네시에 평양서문외신학교에 회집하여 스무를 처리한중에 회계의 보고를 거한즉 작년도 수입금은 四千一百三十八원 六十九錢 七리요 지출금익은 二千三百九十一원 九十五錢 五리인디 또한 산동성 선교스편에서 쓰고 남은 돈 三百九十七원 九十四錢 五리와 병합하니 실지금익이 二千一百四十四원 六十八錢 七리라하니 이곳치 경제곤난중에서도 전도국연조금의 수입증가됨을 보면 하느님씩 감사할수밖기 업는디 드른즉 산동성에 잇는 선교스들의 주턱이 협착하여 심활의곤박은 말노다하기가 오히려 흡수업는 경우도잇다하니 우리가 힘쓰니만치만 더쓸거시면 모든거시 더욱 진취될줄밋고 브라느이라⁶¹⁸⁾

이런 기사는 전국 교회와 성도들이 산동선교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헌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해리(盧解理, Harry A. Rhodes)는 그가 편찬한 책,

614) 위의 책, 45.

615) 위의 책, 58.

61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1.

617) 방지일, “영으로 주신 복음, 영으로 같이 받는 역사(役事),” 34.

618) “총회전도국,” 『基督申報』, 1916. 6. 21.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총회 기간에 선교사역을 위해 감사헌금을 바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1919년의 모임에서 3천 달러가 시베리아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금되었다. 그 전 해에는 900달러 상당의 시계, 반지, 안경, 헌금 등이 상해와 블라디보스톡 사역을 위해 바쳐졌다. 1923년에 해외선교부가 1천 달러 이상의 특별 헌금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한 기독교인(경상도의 정응수)이 낸 500달러와 평북노회 ‘여전도회’가 낸 130달러와 우리 선교회 회원들이 낸 250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헌금들은 모두 중국 동부 산동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위한 것이었다.⁶¹⁹⁾

이처럼 산동선교의 선교비를 위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헌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오늘의 한국 교회가 산동선교에 관하여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산동 선교를 위해서 일년 중 한 날을 감사일로 정해서 선교비를 마련한 일이다. 제1회 총회에서 전도국이 외국전도를 청원하면서 그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청원한 일이었다.

총회에서 일년중의 한 주일을 특별히 택명하여 각 교회에 명령하시와 전도국을 위하여 레비보게 하시되 그 주일의는 전도 뜻으로 강도하고 외국전도를 뜻으로 기도도하고 그 주일에 특별히 힘써 연보도 하되 그 날은 감사일로 명定하시고 각 교회의 인도하는 이들이 그 전주일의 예비로 힘있게 광고할 일이옵고⁶²⁰⁾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일 년에 한 주일을 감사일로 정하고 이날 산동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서 전도국으로 보내 선교비로 사용케 하였다. 한국 교회의 감사일은 1904년부터 시작된다. 박안련은 그의 책, 『長老教會史典彙集』에서 한국 교회의 최초의 감사일 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다.

公議會(공의회)에 討論(토론)한 結果(결과) 朝鮮教會(조선교회) 感謝日(감사일)을 定(명)하자고 하였는디 委員(위원)을 擇(택)하여 他敎派(타교파)와 交涉(교섭)하여 同一(동일)한 日(날)로 定(명)하기로 決議(결의)하고 其年(그해)에는 十一月(십일월) 十日(십일)로 感謝日(감사일)을 爲(위) 先定(선명)하였는니라⁶²¹⁾

619) Harry A.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380.

62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1.



곽안련에 의하면 1904년 장로회 공의회에서 한국 교회의 최초의 감사일을 타교파와 협의해서 같은 날로 정하기로 하고 우선 그 해에는 11월 10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곽안련은 1905년도 조선어를 사용하는 공의회에서 결의한 사건을 소개하기를 “公議會(공의회)가 他敎派(타교파)와 合同(합동)하야 感謝日(감사일)을 記念(기념)하기로 作定(작정)하얏스나 他派(타파)와 協議(협의)치 못한 故(고)로 今年(금년)만 陰(음력) 十一月(월) 第(데)一(일)主日(주일)後(후) 木曜日(목요일)로 定(정)하야 직히기로 作定(작정)하얏스니라”⁶²²⁾고 하였다. 한국 교회는 1906년도에는 양력 11월 19일을 감사일로 지킨다.⁶²³⁾ 그러다가 1908년도에는 감사일을 양력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하고⁶²⁴⁾ 제1회 총회가 설립된 1912년에 감사일은 외국전도를 위하여 연보하는 날로 정한 것이다.⁶²⁵⁾ 그러다가 1914년 9월 6일에 회집된 제3회 총회에서 규칙위원회는 “감사일은 선교사 최초 도선일(양력 십일월 데 삼회 주일후 삼일)로 명함”⁶²⁶⁾이라고 보고한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제3회 총회에서 총회 규칙으로 감사일을 선교사 최초 도선일인 양력 11월 세 번째 주일 후 수요일로 정했다. 이것은 1917년 제6회 총회 부록(符錄)에 첨부(添附)된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규칙(朝鮮耶穌敎長老會總會規則) 제2조 1항 5호 전도국위원에 대한 규칙의 다섯 번째 목록으로 “感謝日是 宣教師 最初 渡鮮日(陽十一月 第三回 主日後 三日)로 定함”⁶²⁷⁾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도선일은 한자(漢子)로는 渡鮮日이다. 한자의 정확한 뜻풀이로는 ‘조선을 건넌 날’이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 최초 도선일을 감사일로 정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일이 지금의 추수감사일인데 한국 교회는 그 날을 선교사 최초 도선일로 정한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첫발을 디디고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을 기억하고 11월 셋째주일로 지킨다. 물론 교회마다 추석에 맞추어 10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 한국 교회는 적어도 1914년부터 추수감사일을 선교와 연관시켜서 그 날을 정했다. 그 날은 선교사 최초 도선일이다.

621) 郭安連 編, 『長老敎會史典彙集』, 32.

622) 위의 책, 39.

623) 위의 책, 43.

624) 위의 책, 51.

625) 위의 책, 59.

62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삼회 회록』 (1914), 29.

62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77.



곽안련은 그의 책, 『長老教會史典彙集』에서 “感謝日(감사일)은 陽曆(양력) 十一月(월) 第三主日後(셋째 주일후) 三日(水曜日)도 定(定)했는디 此(이)는 宣教師(선교사)가 朝鮮(조선)에 始渡(처음리도)하던 日(날)을 擬用(의용)하기로 한 것이니라”⁶²⁸⁾ 곽안련은 도선일(渡鮮日)은 선교사가 조선에 처음으로 도착하던 날을 의용(擬用)해서, 곧 선교사가 처음으로 도착한 날을 헤아리고 비교해서 사용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선교사가 최초로 한국에 도착한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념하여 감사일로 지키고, 그 의미를 살려서 중국 산둥에 선교하는 헌금을 전국 교회가 드리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되살려야 할 정신이다. 한국 교회가 그 오래 전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에 도착한 날을 기억하고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로 지킬 것이 아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면 한국 기후와 절기에 맞게 추수를 마치는 계절에 지킬 것이다. 한국의 추석(秋夕)에 맞추어서 지키든지 할 일이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는 1914년 제3회 총회 때부터 선교사 최초 도선일(渡鮮日)을 감사일로 지키고 선교하는 데에 집중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도선일에 대하여 생각할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곽안련은 도선일(渡鮮日)의 도(渡)자(字)를 도착할 도(到)의 의미로 사용해서 도선일을 선교사가 조선에 ‘시도(始渡)’라고 하며 처음 도착(來到)이라는 의미로 ‘처음 리도’라고 토(吐)를 달았다. 그런데 도선일의 도(渡)자(字)는 도착한다는 도(到)자(字)와는 다르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는 도선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感謝日是 陽曆 十一月 第三週日後 水曜日로 決定할 事. (此는 宣教師가 朝鮮에 始到하던 日을 採用한 것이라.)”⁶²⁹⁾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는 주일(主日)을 주일(週日)이라고 잘못 기록하였다. 그런데 곽안련의 글과 비교해서 다른 또 한 가지는 감사일은 양력으로 십일월 제 셋째 주일 후 수요일로 결정하는 데 이(此)는 선교사가 조선에 처음 도착하던 날을 채용했다고 할 때에 처음 도착을 시도(始到)라고 바로 사용하였다. 곽안련이 처음 도착을 시도(始渡)라고 한 것을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건널 도(渡)를 바다를 건너 조선에 들어온 날로 해석하면 문제는 사라진다. 그런데 선교사 최초 도선일이라고 할 때에 조선에 도착한 최초 선교사는 누구를 말하고, 조선에 도

628) 郭安連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63. 곽안련은 그의 책에서 양력(陽曆) 11월을 음력(陰曆) 11월이라고 기록했다. 이것은 잘못이라 음력을 양력으로 바꾸어서 인용했음.

62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17.



착한 최초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날이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선교사 최초 도선일이 양력으로 11월 세 번째 주일 후(後) 수요일이었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1913년 11월 19일이다.⁶³⁰⁾ 그러면 이 때 한국에 도착한 최초 선교사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로회 공의회는 1905년도에 한국 교회의 감사일을 정하려고 할 때 타교파와 합동하여 감사일을 정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장로회만 그 해에는 음력으로 11월 첫째 주일 후(後) 목요일로 정한다.⁶³¹⁾ 그렇게 한국 교회가 감사일을 같이 정해서 지키려고 했던 타교파는 감리교다. 1915년 제4회 총회에서 “감사일에 디히야 감리회에서 갓치하기를 원한다 히오니 회장에게 맞겨 히회 감독과 교섭후 리년 총회에 보고케 히기로 결정히다”⁶³²⁾ 감리회에서 감사일을 같이 하기를 원해서 회장에게 맡겨서 그 회(會)인 감리교회의 감독과 교섭한 후에 내년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1916년 제5회 총회에서 감사일 교섭위원이 보고하기를 “감사일을 감리교회와 갓치 히기를 감리교회에 교섭히야보온 즉 아직 완형한 일즈가 업다히기로 그디로 보고히옵나이다”⁶³³⁾ 감리회에서 아직 완전히 정한 날자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1919년 제8회 총회에서 “감사일을 혼날노 명홀일은 장감량교회에서 임의 명홀일즈를 변경히기 어려 온스세로 아직 명지히엿스오며”⁶³⁴⁾라고 하다가 1921년 제10회 총회에 가서 장감 연합협의부(長監聯合協議部)가 “감사일은 양十一月 데 二츠쥬일후 슈요일노 명히고 량교파가 동일히 직히게히엿스오며”⁶³⁵⁾라고 보고 한다. 그렇게 결정된 감사일이 양력으로 11월 두 번째 주일 후 수요일이라면 대략 11월에 장로회나 감리교 선교사 중에 한국에 처음으로 도착한 선교사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는 제1회 독노회를 조직하면서 회록 서문에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630) 삼성 갤럭시 노트2 S플래너 만년 달력으로 확인(필자의 주).

631) “公議會(공의회)가 他敎派(타교파)와 合同(합동)히야 感謝日(감사일)을 記念(기념)히기로 作定(작정)히얏스나 他派(타파)와 協議(협의)치 못히는 故(고)로 今年(금년)만 陰(음력)十一月(월) 第(데)一(일)主日(주일)後(후) 木曜日(목요일)노 定(정)히야 직히기로 作定(작정)히얏느니라” [郭安連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39].

63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41.

63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47.

63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八회 회록』 (1919), 51.

63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十회 회록』 (1921), 85.



조비헌신 하느님께서 우리 나라 인민을 도라보샤 미국 남 장로교회와 북 장로교회와 영국 오스트렐냐 장로교회와 가나다 장로교회의 주를 밋는 모든 형데 주미들의 마음을 감동시혀 이 네곳 교회 총회로 선교스를 턱명하야 이 곳에 보내시매 하느님의 명령을 밋은 선교스들이 갑신년에 이 곳으로 나와 도를 전한지 이십삼년 동안에 회기하고 주씨로 도라온자가 근지 십여만명이라⁶³⁶⁾

위 서문에서 선교사들이 갑신년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지 23년이 되었다고 한다. 1907년에서 23년 전이면 그 해는 1884년이요, 그 해가 갑신(甲申)년이다. 그러면 그때에 한국에 도착한 최초의 선교사는 알렌이다. 그런데 알렌은 1884년 9월 20일에 제물포에 상륙했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선교사의 직함을 가지고 제물포에 상륙한 사람은 장로교의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젤러 부부였다. 그런데 이들이 인천 제물포에 상륙한 날은 1885년 4월 5일이다.⁶³⁷⁾ 그러면 1914년 제3회 총회에서 선교사 최초 도선일(渡鮮日)을 감사일로 정한 양력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은 그 누가 한국에 도착한 날을 채용해서 정했는지 확실하지가 않다. 앞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과제로 남겨 둔다.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객안련과 같은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한 날을 감사일로 지키자고 주장하였지만 혹시 한국 목사들은 한국 교회가 산동으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파송한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한국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들은 제2회 총회 중인 1913년 9월 9일 총회 앞에서 인사를 하고, 9월 하순 경에 산동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11월에 산동에 도착한다. 한국 교회가 감사일을 11월에 지키면서 산동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로 사용할 때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선교사를 생각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다른 그 어느 자료에도 도선일(渡鮮日)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지를 못하였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는 일 년중 한 주일을 감사일로 정해서 지킬 때에 그 날은 선교 주일이었다는 사실이다.

초기 한국 교회는 감사일을 선교사 최초 도선일로 잡고, 전국의 교회가 감사일 헌금을 모두 모아서 총회 전도국으로 보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다. 이것은 산동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선교비는 한국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겠다는

636)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2.

63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55.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다. 따라서 제1회 총회가 설립되면서 한국 교회 총회가 중국 산둥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어렵지만 그 선교비를 한국 교회의 온 성도들이 감사헌금으로 마련해서 후원한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은 한국 교회의 자립 선언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4. 파송 결과

홍승한(洪承漢)은 1920년 7월 14일자 『基督申報』에 ‘中國山東省萊陽宣教消息’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寄稿)하면서

天父의 我國 三千里江山에 二千萬生靈을 矜恤히 녀키샤 三十餘年前에 救主의 恩光을 照히시와 數十萬信徒를 召히시고 數千處教會를 成히여 天父의 榮光을 天上天下에 顯出히시고 一千九百十三年에 至히여는 中國四億萬生靈을 救援히시라고 宣教師를 派送히여 宣敎事業을 始作히엿도다 敎弟는 天父의 特召와 本國教會의 代表로 到此히여 宣敎數年에 耳聞한 過去形便과 目格한 現在形便과 心思한 將來形便 三條를 略記히여 本國僉位⁶³⁸⁾前에 紹介코저히노라⁶³⁹⁾

홍승한은 하나님께서 30여년전에 이 땅에 수십만 신도를 부르시고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는 1913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4억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사역을 시작하였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에 와서 귀로 들은 과거형편과 목격한 현재형편과 마음으로 생각한 장래형편,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기술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홍승한이 기술한 과거 형편은 산둥지역이 그 얼마나 선교가 어려운 지역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홍승한은 중국 산둥 래양에 전도가 시작되던 형편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主後一千八百六十二年에 美國耶穌敎北長老會傳道局에서 派送한 郭顯德⁶⁴⁰⁾牧師

638) 僉位(첨위)의 ‘僉’字는 ‘모두, 다’ 첨 자(字)로 ‘첨위(僉位)’란 그 뜻이 ‘여러분’이다 [民衆書館, 『漢韓大字典』 (1979), 111]. 따라서 ‘本國僉位前’이란 ‘본국의 여러분 앞에서’라고 번역하면 된다(필자의 주).

639) 洪承漢. “中國山東省萊陽宣敎消息,” 『基督申報』, 제5권 제28호, 1920. 7. 14.



가 山東省에 初到하여 山東省各處에 巡行宣敎을 其時부터 萊陽에 傳道가 始作되었는디 其中異常한 것은 郭牧師가 中國에 來到하여 傳道하여 初得한 敎人이 萊陽城內王某이오 其後四五十年間은 外村等地에는 敎人이 生起되 城內에는 一個敎人도 生起지 아니하다가 一千九百一二年에 至하여 福音堂傳道室을 設立하고 中國傳道人和 美國宣敎師가 住居하면서 傳道되 敎人이 生起지 아니하더니 一千九百十三年에 至하여 朝鮮牧師가 到此宣敎하여 幾個敎人을 新得하고 附近各村에 本來있던 五六名敎人을 合하여 城內에 敎會를 始成하다 其間에 他敎派 中 天主教와 浸信會와 路得會⁶⁴¹⁾等이 亦是宣敎하였시되 于今것 殘弱하여 敎會랄것이 無함⁶⁴²⁾

홍승환은 산동의 과거 형편을 언급하기를 첫째는 산동 지역의 선교는 미북 장로회전도국 소속 곽현덕(郭顯德)이 1862년에 처음으로 산동에 도착해서 선교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하며, 둘째로 곽현덕이 최초로 얻은 교인은 래양성내의 왕모 씨라고 하는 사실, 셋째로 그중에 이상한 것은 그렇게 첫 교인을 얻은 이후로 무려 사오십년간에 구역 내에서는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았다고 하며, 넷째로 1912년에 이르러 복음당 전도실을 설립하고 중국 전도인과 미국 선교사가 거주하면서 전도해도 교인이 생기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그런데 다섯째로 1913년에 이르러 한국 목사가 산동에 도착하여 선교하기 시작하면서 몇 명의 교인을 얻고, 부근 각 촌에 있던 5,6명의 교인을 합쳐서 교회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여섯째로 그 사이에 천주교, 침례교, 루터교 등이 역시 선교했지만 지금까지 너무 약해서 교회라고 할 것도 없다고 하였다. 홍승환은 산동 지역이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면서 1913년에 산동지역으로 파송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선교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몇 명의 교인을 얻고, 지역에 믿던 교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미국 선교사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선교가 잘 되지 않던 곳에서 한국 목사들이 전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한국 목사들은 몇 사람이라도 생기면 교회

640) 郭顯德(곽현덕)은 Hunter Corbett을 말한다(필자의 주).

641) 로득회(路得會)란 루터교를 말한다(필자의 주). 김영훈이 1915년 제4회 총회 앞에서 산동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 “전도하는문이 점점 열리게 되던 일과 청도대회에 왕참한 것과 연태로회에 왕참하여 전도구역 四방三十리를 밟던 일과 침례교와 루터교의 식기를 밟는 일”을 언급한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회록』 (1915), 10]. 이때 김영훈은 이미 산동에서 선교하던 침례교와 루터교의 시기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 두 종교가 홍승환이 언급한 침신회(浸信會)와 로득회(路得會)를 말한다(필자의 주).

642) 洪承漢, “中國山東省萊陽宣敎消息,” 『基督申報』, 1920. 7. 14.



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과 다른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승한은 『基督申報』에 기고한 글에서 산동에서의 서양 선교사들의 전도(傳道)하는 대요(大要)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宣教師가 親히 巡行하면서 傳道하기도 하며 何處에는 福音堂을 設立하고 傳道人을 雇聘하여 傳道하기도하며 或何處에는 學校를 設立하고 學問을 教授하는 貌樣으로 傳道하기도하여 敎人을 多得하여 敎會를 組織한 後에는 傳道人和 先生의 月給을 敎會의 實力을 隨하여 負擔시키고 或中國牧師도 請聘케 함⁶⁴³⁾

이런 서양 선교사들과 달리 한국 선교사들은 전도하고 교인이 생기면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인은 헌금하고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였다. 특별히 한국 목사들이 미국 선교사들과 다르게 선교의 결실을 맺게 되는 데에는 그래도 중국 사람들과 같은 아시아 사람이요, 중국말은 몰라도 한자(漢字)를 안다는 점이 다를 수 있다. 홍승한은 계속해서 중국 산동이 전도하기 심(甚)히 어려운 형편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상적(思想的) 관계(關係)라고 말한다.

自古로 中國에 有名한 聖賢君子와 英雄烈士가 十에 八九는 山東省에서 出生하고 道德과 文化의 發達도 山東省에서 始作한 것이 多數임으로 山東省人의 思想은 自然히 自尊自大하여 自己의 地方과 自己의 聖人和 自己의 道德과 自己의 文化外에는 更好한 것이 再無한 줄노 自信하고 言必稱 堯舜孔孟하고 耶穌敎에 對하여는 楊墨⁶⁴⁴⁾의 敎보다도 더 怪常한 夷狄의敎로 抑測하고 聽而不聞하며 視而不見뿐더러 反對와 逼迫이 極甚하며 庚子年義和團變亂의發起人也 大部分은 山東省人이라 庚子以後로는 敎會를 對하여 敢히 表面的 逼迫은 別無되 隱然的 反對는 一般이라⁶⁴⁵⁾

홍승한은 중국 산동에서의 선교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로 산동성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상이 최고인줄로만 알고 잘 듣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또 산동의 선교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로 문자적(文字的) 관계(關係)라고 말한다.

643) 위의 신문, ; 洪承漢, “中國山東省萊陽宣敎消息,” 『神學指南』 第三卷 第二號(1920. 7), 243-44.

644) 楊墨(양묵)은 춘추시대의 사상가인 양주(楊朱)를 지칭하는 것으로 楊朱는 극단적인 이기주의(利己主義)와 개인주의(個人主義)를 주창함 [한글 F9 한자 찾기 사전].

645) 洪承漢, “中國山東省萊陽宣敎消息,” 『基督申報』, 1920. 7. 14.



世上에 學기 容易한 文字는 別無하되 中國 漢文字란 것은 字數의 繁多와 字義의 變動과 聲音의 分別이 千態萬狀이라 學기 甚難하여 十年以上을 學習하여야 書冊을 看透하며 章句를 製作하느故로 富家子弟는 能히 入學하고 貧家子弟는 能히 學지 못함으로 有識한 人은 千名에 二三人의 不過하고 兼有識한 人은 自知自驕하여 入敎하느 者가 不多하고 無識한 人은 自屈自暴하여 入信하느 者가 亦少함⁶⁴⁶⁾

홍승한은 중국에서의 선교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한문(漢文)이라는 문자(文字)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문이 워낙 그 글자 수가 많고 그 뜻의 변화가 다양하고 성조(聲調)의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배우기가 어려워 유식한 사람이 적고 무식한 사람이 많다. 유식한 사람은 교만해서 믿는 사람이 적고, 무식한 사람은 자포자기(自暴自棄) 하고는 잘 믿지를 않는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중국 산둥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습속적(習俗的) 관계(關係) 때문이라고 말한다.

山東省人은 本是 本國人이라도 他省人이면 一層下待하느 習俗이 有한 中에 貌樣과 言語와 衣服이 不同한 外國人은 不信可想이라 故로 五十餘年前에 美國牧師 郭顯德氏가 初來傳道時에 無限한 藐視⁶⁴⁷⁾와 凌辱과 逼迫을 當하엿도다 或塞地⁶⁴⁸⁾에서 屢次⁶⁴⁹⁾ 經夜도하고 客店에서 應接지 아니함으로⁶⁵⁰⁾ 或現今銅錢二錢⁶⁵¹⁾하느 所

646) 위의 신문,

647) ‘藐視’에서 ‘藐’자(字)는 ‘작을 묘, 업신여길 묘, 멀 막’자(字)인데 ‘藐視(묘시)’란 ‘넘봄, 깔봄’이란 뜻이다 [民衆書館, 『漢韓大字典』 (1979), 1081]. 참고로 『神學指南』에 실린 홍승한의 동일한 글에서는 한자(漢字)에다가 한글 토(吐)를 달았는데 ‘藐視’에다가 ‘경홀히 여김’이라고 했다 [洪承漢, “中國山東省萊陽宣敎消息,” 243].

648) 『神學指南』에 기재한 글에서는 ‘혹새지(或塞地)’를 ‘혹한지(或寒地)’로 바꾸었다. ‘혹새지(或塞地)’란 ‘혹 변두리 땅’이란 뜻이고, ‘혹한지(或寒地)’란 ‘혹 한데, 추운 곳’이란 뜻이니 별반 바꾸어 사용해도 그 뜻은 변함이 없으니 홍승한이 단어를 바꾸어서 글을 올렸다(필자의 주) [위의 책,].

649) 『神學指南』에 기재한 글에서는 홍승한은 ‘누차(屢次)’라는 단어를 뺐다. ‘누차(屢次)’란 ‘여러 차례’란 말이니 곽현덕(郭顯德)이 들에서 경야(經夜), 곧 밤을 지냈다는 말만 하고, 몇 번이나 경야(經夜)하였는지 확인한 것이 아니니 ‘누차(屢次)’라는 표현은 삭제한 것으로 본다(필자의 주) [위의 책,].

650) 『神學指南』에 기재한 글에서는 홍승한은 ‘客店에서 應接지 아니함으로’라는 이 구절을 괄호(括弧)로 묶었다. 아마도 확실치 않을 수도 있다고 여겼던 것 같다(필자의 주) [위의 책,].

651) 『神學指南』에 기재한 글에서는 홍승한은 ‘或現今銅錢二錢(혹 오늘 날 동전 이 전)’이라는 이 구절 다음에 괄호로 묶어서 (五十餘年前에는 葉錢二分함)이라고 주(註)를 달았다. 곧 ‘오십여년 전에는 엽전 두 푼’이었다고 하였다 [위의 책,].



謂火燒라호는 麥餅一塊에 銀錢一元⁶⁵²⁾式 주고 買食호엿도다 外國人이라고 飲食을 賣치아니함⁶⁵³⁾ 以上三條外에도 傳道에 防碍되고 甚難호던 形便이 許多함⁶⁵⁴⁾

홍승한은 중국 산둥에서 선교가 어려운 것이 산둥은 같은 중국 사람이라고 해도 타지(他地) 사람이면 무시하는 습속(習俗)이 있는데 하물며 외국 사람은 그 정도가 심했다. 그래서 미국의 곽현덕(郭顯德)목사가 처음 산둥에 와서 갖은 멸시와 능욕을 당하고 길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음식 값을 비싸게 받기도 하니 선교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이외에도 선교에 장애(障礙)가 되는 것이 허다(許多)하게 많은데 이런 산둥지역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해서 작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홍승한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我朝鮮牧師는 容貌와 文字와 禮儀와 風俗이 中國과 彷彿”⁶⁵⁵⁾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朝鮮教會가 中國에 所聞나기를 神靈호고 熱心잇고 恩惠를 受多호 教會라”⁶⁵⁶⁾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1913년에 산둥으로 떠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세 명의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후, 이들은 산둥에 있는 미국 장로교 선교회로부터 평방 150마일의 지역을 가진 래양의 선교지를 넘겨받았다. 이들의 선교 사역의 시작은 매우 작은 크기였지만 그들은 굳건한 기초를 놓았으며 1915년에 그들의 전체 회집 인원은 40명이 되고, 평균 출석인원은 30명이 되고 새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도 3명이 되었다.⁶⁵⁷⁾ 그러면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세명의 선교사가 중국 산둥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한국 교회 총회에 보낸 서신이나 보고를 살펴보면 산둥선교의 진행과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이들의 보고를 가장

652) 『神學指南』에 기재한 글에서는 홍승한은 ‘銀錢一元’의 뒤에다가 괄호로 묶어서(朝鮮錢으로 二元 八十錢 價值 됨)이라고 주를 달아서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곧 중국 돈으로 은전 일원은 조선 돈으로는 2원 80전의 가치가 된다고 설명한 것이다(필자의 주) [위의 책,].

653) 『神學指南』에 기재한 글에서는 (外國人이라고 不賣함으로)로 바꾸어 괄호(括弧)로 묶었다. 개인의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괄호로 묶은 듯하다(필자의 주) [위의 책,].

654) 洪承漢, “中國山東省萊陽宣教消息,” 『基督申報』, 1920. 7. 14.

655) 洪承漢, “中國山東省萊陽宣教消息,” 『基督申報』 제5권 제29호, 1920. 7. 21.

656) 위의 신문,

657) Lois Hawks Swinehart, "The Foreign Mission of a Foreign Mission," 83.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곳은 총회 전도국이다. 그러면 이들이 산동으로 파송되고 난 다음에 총회 때마다 이들의 선교 사역에 대한 총회 회의록의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총회 전도국의 회계보고를 살펴보면 세 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1914년 9월 6일 회집된 제3회 총회에서 헌의위원장 왕길지가 헌의보고 중에 “중화민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보낸 편지는 전도국으로 보낼 것”⁶⁵⁸⁾이라는 보고를 한다. 이것은 산동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총회로 보낸 편지를 총회 헌의위원이 받아서 해당부서인 전도국으로 보냈다는 보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 편지를 건네 받은 총회 전도국은 따로 전도국 보고를 하지 않았다. 아마도 특별한 보고 사항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도국 회계보고 중에서 중화민국 선교사 삼인에 대한 회계 보고를 살펴보면 세 명의 선교사가 지금 중국 산동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표26> 1914년 제3회 총회 회계보고 (1913년 포함)⁶⁵⁹⁾

지출액	2,886원 6전 1리	중화민국 선교사 삼인의 디훈 경비	2,218원 90전 3리
		제주선교의 디훈 경비	667원 15전 8리

65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삼회 회록』 (1914), 19.

659) 위의 책, 13-17.



중화민국선교스 삼인의회 다한 회계	선교스삼인의팔삭월급	690원
	팔삭즈녀금	143원
	어학선생 팔삭 월급	117원
	김영훈스병순량시를 도아준것	50원
	선교스려힘비와이사비	134원 12전 1리
	응접실용비	19원 52전 1리
	가옥 세금	200원
	특별비	78원 86전 8리
	슈리비	198원 34전 9리
	전도비	12원 82전 4리
	김찬성씨시찰려힘비	62원 1전
	박태로씨시찰려힘비와 월급	291원 79전
	스무국용비	98원 92전
	전도국용비	22원 50전
잔익		560원 65전 9리

위의 <표26>을 살펴보면 선교사들이 중국 산둥으로 이사하는 경비 134원 12전 1리를 지불했고, 1913년 5월에 김찬성과 박태로가 산둥을 시찰한 경비 353원 80전을 지출했다.⁶⁶⁰⁾ 또 어학선생 8개월치 월급 117원을 지급한 것을 보면 지금 중국 산둥에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선교사가 어학을 학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총회 전도국 회계 박치록은 좀 더 구체적으로 1914년도 예산에서 중국 선교사들에게 지출된 내역을 보고하고 있다.

<표27> 1914년 제3회 총회 회계보고 (1914년 예산에 관한 회계보고)⁶⁶¹⁾

슈입익	3,929원 68전 9리
-----	---------------

660) 제2회 총회 전도국에서는 김찬성목사 중화 한달 시찰비와 박태로 목사 4개월 반 월급으로 400원을 지출예산을 책정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18, 21, 23] .

66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삼회 회록』 (1914), 16-17.



내역	작년 예산중 잔익	560원 65전 9리
	금년 연보 수입과 변리 수입	3,369원 3전
	선교스 삼인의 월급	1,260원
	선교스의 자녀금	288원
	어학선생 이인의 디헌 일년 월급	240원
	가옥비	200원
	전도비	150원
	슈리비	20원
	응접실비	30원
	스무국용비	50원
	전도국용비	50원
	청도(靑島)대회 선교스 려항비	50원
	출판비	60원
	스환비	84원
	특별비	200원
	선교스의 가옥살 예비금	1,000원
	특별비	247원 68전 9리

위의 <표26>과 <표27>을 살펴보면 총회 전도국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출한 것을 알 수 있고, <표27>을 살펴보면 어학선생을 두 명을 두고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표26>과 <표27>을 살펴보면 선교사들이 중국 산둥에서 집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그 집세 200원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27>에서 선교사의 가옥을 살 예비금 1,000원을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총회 전도국에서는 선교사들의 집을 임대하지 말고,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1,000원은 선교사 세 사람의 월급 1,260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이렇게 총회 전도국에서는 나름대로 산동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선교사들은 청도(靑島)에서 모인 청도대회(大會)⁶⁶²⁾에도 참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제3회 총회 중에 규칙위원의 보고 중에 “중화민국 전도 정황을 광고지 모양으로 출판하되 히삼위와 서북간도와 동경의 전도정황을 부록하고 이 출판하는 일은 전도국에서 부탁하여 출판하여서 각 교회에 공포케 할일”⁶⁶³⁾을 청원하였다. 총회는 전국 교회에 산동 선교의 소식을 알리도록 한 것이다.

1915년 9월 4일에 회집된 제4회 총회에서 전도국은 “전도국 회계 박치록시의 범용돈 二千五百원에 더하여 백여 두락되는 답토로 디봉하였다는 일은 밧으되 특별위원을 택하여 조사케 하기로”⁶⁶⁴⁾ 보고하였다. 총회 전도국의 회계를 맡은 박치록장로가 전도국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다. 선교사들이 살 집 마련비 예산 1,000원의 두 배가 되는 큰돈인데 이 돈을 유용한 것이다. 박치록은 여러 해 계속해서 전도국의 회계를 맡았다.⁶⁶⁵⁾ 박치록은 범용(犯用)한 돈 2,000원에 대하여 백여 두락 되는 땅을 대봉(代捧)하였다고 하는데 총회는 그것은 받고 “특별위원은 한석진, 리원필, 장례학, 박상순, 조병직, 김형걸, 계시항 제시로 회장이 조벽 선명”⁶⁶⁶⁾하였다. 그리고 “전도국 회계 택하는 일은 특별위원의 보고 받기까지 기다리기로 결정”⁶⁶⁷⁾하였다. 이후에 총회 전도국 회계는 이일영(李一永)이 된 것을 알 수 있다.⁶⁶⁸⁾ 총회는 박치록 사건을 일단 이렇게 처리하고 난 다음⁶⁶⁹⁾ 그 날 저녁에

662) 대회(大會)는 중국 독회(督會) 곧 노회(老會)와 총회(總會) 사이에 있는 기구였다(필자의 주).

66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삼회 회록』 (1914), 29.

66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9.

665) 박치록은 제1회 독노회 때에 회계로 택정되었다. “원회계는 박치록씨로 택명하며”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7]. 그리고 다음 노회에서도 계속해서 회계가 된다. “박치록장로를 전도국 회계로 또 택하기를 청원이오며”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삼회회록』 (1909), 14]. 박치록은 총회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국 회계를 맡게 된다. 그만큼 그는 일을 잘했을 것이다. 그런데 재정사고를 내고는 제4회 총회에서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필자의 주).

66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10.

667) 위의 책.

668) 총회 전도국은 총회 앞에서 보고하는 중에 “五, 심히 섭섭한 것은 회계 박치록시는 전도국 허락업시 금화 二千五百원 쓰고 내지못하느니 직전으로는 밧을 형편이 만무



총회에 참석한 중화민국 선교사 김영훈의 강연회를 갖고 산동성 전도형편을 보고를 받게 된다.⁶⁷⁰⁾ 이 때에 김영훈은 사도행전 14장 27절, 15장 4을 낭독한 후에 산동성에서의 전도형편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산동성에서 전도하던 형편을 보고하오니 선교사 삼인이 발흥함으로부터 길에서 곤난을 당하던 형편과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위로받던 일과 연태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거류하는 서양 선교사 리목사를 방문하미 산동성 로회에 왕참하자하나 스세 불편하여 가지 못하고 리양현으로 직행하오니 무한 고생을 당하고 그곳에 도착한후에도 그 지방 사람의 림모를 받던 일과 그곳 현지사(縣知事)를 방문하고 현지사의 우대를 받음으로 그곳 사람들의 경복을 초초 받고 전도하는문이 점점 열리게 되던 일과 청도대회에 왕참한것과 연태로회에 왕참하여 전도구역 四방三十리를 받던 일과 침례교와 루터교의 식기를 받던 일과 전도하는 방법과 교회를 처리하는 거슬 기량하여 다진 터디로 행하고 주일 강론회와 수요일 기도회를 설립한 일과 전도 시작후 신도가 三十여인이 된 중 세례 받은 자가 삼인이 되는 것과 중화민국 풍속이 고담을 도화함으로 전도하는 말을 잘듣고 글썃잇는 도회를 공경하여 앗기는 고로 전도지를 받으면 위하여 두니 필경 보고 맛을 터인즉 장리의 희망이 도흔 형편을 —히 보고하고 선교사들의 원하는 거슨 레비쳐쇼와 선교사의 거주가옥과 자녀들의 교육방침이 발던되여야 할터인디 초소는 총회처분에 잇다하미 온 회중이 깃브게 두고 하느님의 감사를 돌니다.⁶⁷¹⁾

김영훈의 보고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선교사 세 사람이 같이 중국 산동으로 떠난 것, 둘째는 연태(烟台)에 도착해서 서양 선교사 리목사를 만난 일, 셋째는 산동 래양현까지 가는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그곳

하여 부득이 동논 百여두락토지로 밧앗소으며 六, 박치로시 회계 스면헌디에 림시로 원회 계는 리일영 부회계는 리춘섭 랑시를 선명하엿사오니 총회에서 턱하여 주심을 청원이오며”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35]. 그렇게해서 이일영이 회계가 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12].

669) 전도국 회계 박치록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다. “본 위원들이 전도국과 동소무국과 동회계의 문부를 훑쳐보온즉 一, 회계 박치록시가 동국 금二千五百원을 범용하고 조기의 소유 토지를 동소무국에 양도하엿습고 二, 전도국위원들은 그 토지가 기시 가격에 상당하기로 밧아 방위양시의 명의로 이던증명을 니엿삽기조에 보고하오며 본 위원들의 원하옵는바는 一, 지정보관방법은 은형에 런디 저금하되 회계 二人과 국장의 명의로 하오며 二, 저금은 슈익익이 五十원 미만이면 회계의게 임치하고 五十원되면 즉시 할일 1. 조기 쫓디로 덩기업시 조유검사케 할일 2. 검사한 후의 덤이 잇는시 즉시 총회 장에게 보고할 일외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15-16].

67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10.

671) 위의 책,



에서도 처음에는 무시를 당한 일, 넷째는 래양현 지사(知事)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일, 다섯째로 전도구역으로 사방 30리를 받은 일, 여섯째로 전도를 시작하고 신도가 30여명이 되고 세례 받은 사람도 세 명이 생긴 일을 보고 하고는 중국 사람들이 고담을 좋아하고 글자가 있는 그림을 귀하게 생각하고 전도지를 잘 버리지 않으니 필경 장래의 선교의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전도형편을 일일이 보고하고는 선교사들의 희망사항을 피력했는데 그것은 예배처소와 선교사의 거주가옥과 자녀들의 교육방침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이 모든 일은 총회의 처분대로 따르겠다고 하니 회중이 기쁘게 듣고는 선교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이렇게 산동 선교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전되어 나가고 있었으며, 또 한 편 선교사들의 생활과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가 이미 내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15년 제4회 총회의 전도국의 회계보고를 살펴보면 한해의 중국 산동 선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제4회 총회 전도국 회계보고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28> 제4회 총회 전도국 회계 보고 (수입)⁶⁷²⁾

작년 회계 여지금	3,930원 98전 9리
수병순목수 송전비 여지금	1원 4전
1914년 5월 1일부터 1915년 4월말일 까지 연보금	2,279원 65전 8리
경성 경신학교 특별연보금	127원 80전
六삭 은형 리즈	54원
은형비중환슈금	10전
슈입금 합계	6,393전 7리 ⁶⁷³⁾

이상의 제4회 총회 전도국의 회계 보고인 <표28>을 살펴보면 1914년 5월

67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29.

673) 제4회 총회 전도국이 수입합계를 '6,393전 7리'라고 한 것은 계산 잘못이다. 모든 수입금을 합산(合算)하면 '6,393원 59전 4리'이다(필자의 주).



1일부터 1915년 4월말까지 일년간 선교 헌금이 2,279원 65전 8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꾸준히 전국 교회는 선교헌금을 드리고 있었다. 또 경신학교에서 선교를 위해서 특별헌금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전도국 재정을 은행에 예금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1915년 총회 전도국의 지출은 어디에 사용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29> 제4회 총회 전도국 회계 보고 (지출)⁶⁷⁴⁾

중화민국 선교스 금년 예산중 지불금	2,372원 5리
선교스에게 리년도 예도금	300원
김홍년용도상칙에서이리금	35원 81전 7리
환전비	18원 75전
우표비금	13원 32전
강병담로비금	30원
전도국비금	59원 2전
전도국스기출판비금 ⁶⁷⁵⁾	6원 45전
의주를원동교회에서오전훈연보환송도	7원 10전
은행부비	50전
세금(박치로전장)	7원 8전
스무국용비	2원
경신학교연보금전라로회로던송도	30원
지출합계금 3,033원 24전 2리	여지금익으로 860원 4전 5리 던장으로 2,500원
지출과 여지금 합계	6,393원 28전 7리

위의 <표29>를 살펴보면 중국 선교사에게 금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항목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

67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29-30.

675) 총회 전도국에서 전도국 사기(史記)를 출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4회 총회에서 전도국은 보고하기를 “十一, 전총회에서 작정한 전도국 스기는 출판하야 각 교회에 보니엿소오며”라고 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36].



히지 않았지만 총회는 산동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전도국 회계보고가 은행 비용 50전까지 세밀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회 총회 중에 전도국이 계속 보고 하는 중에 최종보고를 하고 완전보고(完全報告)로 받은 16가지의 보고 내용 중에 산동선교에 대한 보고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 중화민국 산동성에 전도하는 일은 여전히 잘되어 가옵는디 교인의 총수는 四十여명인디 평균으로 모히는 수는 三十여명이오 금년에 처음으로 三人의게 세례 주었스오며 二, 중화민국 선교사의 어학형편은 점점 진보호오며 三, 중화민국 선교사 三人중 김영훈시를 금년 총회시에 리참호게 호였스오며 四, 중화민국 선교사의 청원호 일은 임의 총회에서 중화민국 산동대회에 편지호 디로 중화민국 장로회 로 회하에서 일을 보라면 이명증서가 잇서야 그 곳 로회에도 참여호고 일보기에 편리호 깃다호였스오니 총회에서 결의처분호심을 청원호오며 五, 중화민국에 전도할 명년 예산은 여좌히 호여스오며 一, 금一千二百六十원 선교사 三人의 봉급 一, 금三百二十四원 조녀금 一, 금二百四十원 어학교수 월급 一, 금二百원 전도비 一, 금二十원 사랑비 一, 금十원 슈리비 一, 금八十四원 스환비 一, 금二百원 가옥비 一, 금二百원 특별비 一, 금五十원 스무국비 一, 금五十원 전도국비 이상 합계금 二千五百十八원이오며 八, 청원호옵는거슨 금년도 감사일(十一月 二十四일)에 각교회가 총회 전도국을 위호야 열심히 연보호야 보니게 호여주심을 청원이오며 九, 중화민국 전도형편의 자세한 스실은 선교사 김영훈시가 계속보고 호깃스오며 十, 전도국지정보고는 회계리일영시가 계속보고 호깃스오며 十二, 중화민국 선교사의 가옥청구호는 일은 스무국에 위임호야 형편을 보아서 호기로 호였스오며 의스청구호는 일은 아직 류안호기로 호였스오며 十四, 선교사 김영훈시의 금번 二샛동안 각처로 다닐거슨 스무국에 위임호야 호기로 호였스오며⁶⁷⁶⁾

총회 전도국은 1913년 11월에 산동 래양에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한 지 2년이 못된 1915년 9월 제4회 총회에서 산동의 래양교회의 교인이 재적 40여명에 주일 평균 출석인원은 30여명이오 1915년에 처음으로 3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보고하였다. 선교사들의 어학실력은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감사일에 각 교회가 열심히 헌금하여 총회 전도국으로 보내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다. 특별히 중국 산동 선교에 대한 1916년 예산을 세워서 보고하였다. 이를 표로 만들어 1915년 예산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67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34-37.



<표30> 산동 선교에 대한 총회 전도국 예산 비교⁶⁷⁷⁾

	1916년 예산	1915년 예산
선교사 삼인의 봉급	1,260원	1,260원
주녀금	324원	288원
어학교스 월금	240원	240원
전도비	200원	150원
샤랑비	20원	
슈리비	10원	20원
스환비	84원	84원
가옥비	200원	200원
특별비	200원	200원
스무국비	50원	50원
전도국비	50원	50원
선교스의 가옥살 예비금		1,000원
청도(靑島)대회 선교스려힘비		50원
출판비		60원
특별비		247원 67전 9리
합계	2,518원 ⁶⁷⁸⁾	3,929원 68전 9리

위의 <표30>을 살펴보면 1916년도의 산동 선교 예산은 1915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가지 ‘자녀금’ 36원을 인상했다.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 그런데

67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35-3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삼회 회록』 (1914), 16-17.

678) 제4회 총회 회의록에는 합계 2,518원으로 되어 있지만 계산의 착오이다. 합계는 2,638원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36] .



1915년도에 세웠던 선교사의 가옥살 예비금 1,000원을 1916년에는 잡지 않고 있다. 1915년도 예산 합계가 많은 것은 특별비 247원 정도와 선교사 가옥 살 예비금 1,000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를 빼고 나면 1915년과 1916년의 산동 선교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1916년도에 산동 선교의 결과는 어떠하였겠는가? 1916년 9월 2일에 회집된 제5회 총회에서 총회 전도국은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한다.

一, 감사할일 중화민국에 가신 선교스가 다 한어를 비와 강도와 전도하는데 잘 하오며 二, 교회형편 1.교인의 모히는 수효는 40여명인디 세례인 十二명이고 원입인이 三十명이고 2.주일금은 미주일예 八九十전식 나오며 3.지금 주일금 도합이 한五十원이고 三, 전도형편 전도에 즈미잇는거슨 중화민국 사름들이 조선선교스들의 전도하는 말을 잘 듣고 또 친밀하게 디접하니 장리에 희망이 크게 잇스오니 감사하오며 四, 특별스건 1.병든 사름이 맛기로 작명하야 강수당에 밤마다 시간마다 와서 레비하며 성경공부를 부즈런히 하오며 2.리일영, 심익현 랑목스가 중국 선교스 디경에 시찰로 가서 정형을 알아보고 도라온일이 있으며 3.선교스로 가섯던 박태로목스는 지금 신병으로 인하야 환국하엿소오며 4.이왕선교스 트인이 있던 집은 두 집에서 산림하게하고 한집을 더 마련하야주게 하얏소오며⁶⁷⁹⁾

제5회 총회 전도국의 보고를 이전 제4회 총회 전도국의 보고와 비교해보면 몇 가지 산동 선교의 결과에 진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선교사들의 언어의 진보가 있다. 이제는 선교사들이 다 중국어를 배워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잘한다는 것이다. 중국 산동으로 파송된 지 약 3년 만에 산동 선교사 세 사람은 모두 중국말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기간이 3년이였다. 이것은 후에 총회 전도국에서 차기(次期)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언어 학습의 기간을 계산하는 데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박상순(朴尙純)은 『神學指南』 1935년 11월호에 “山東宣敎의 過去와 現在”라는 제목의 기고문(寄稿文)에서 “一九一七年 十月에 回國 하였던 方孝元氏와 새로 被擇된 洪承漢 兩宣敎師와 家族들이 中國 山東 萊陽縣에 倒着하고 三年間 語學을 學習하다.⁶⁸⁰⁾고 하였다. 이것은 초기 산동 선교사인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이 3년만에 중국말로 설교도 하고, 전도를 할 정도가 되었던 한어(漢語)의 학습 기간을 참고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도 외국으로 선교사를

67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28-29.

680) 朴尙純, “山東宣敎의 過去와 現在,” 27.



파송할 때에 언어학습의 기간으로 최소한 3년은 투자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교인의 수가 성장하였다. 총회 전도국은 1915년에는 “교인의 총수는 四十여명인디 평균으로 모히는 수는 三十여명이오 금년에 처음으로 三人의게 세례 주었스오며”⁶⁸¹⁾라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1916년에는 교인의 모이는 수효는 작년에 비해 열 명이 늘은 40여명이오, 세례교인은 12명이라고 하니 그 사이에 세례교인이 9명이 늘었다.⁶⁸²⁾ 또 원입교인이 30명이라고 하니 원입교인이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로 새신자들이니 교인의 수가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헌금 생활에 진전이 있다. 이제는 교인들이 주일날에 헌금을 해서 매주일에 8,90전씩 나와서 지금 주일헌금 합계 한 50원이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네 번째로 전도형편에 진전이 있다.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의 전도에 좋은 반응을 보이며 호감을 갖고 대하니 앞으로 전도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중국 병정 한 사람이 믿기로 한 다음에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성경공부도 부지런히 하는 일이 생겼다. 여섯 번째로 이일영과 심익현이 중국 산동에 시찰을 다녀온 보고와 일곱 번째로 박태로가 신병으로 환국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끝으로 여덟 번째로 선교사들의 중국 가옥이 처음에는 한 집에서 선교사 세 가정이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⁶⁸³⁾ 이제 박태로가 환국했으니 두 가정을 한 집에 살게 하고 집 하나를 더 마련해서 주겠다고 하는 보고다. 이 보고를 보면 처음 선교사 세 가정이 한 집에서 살았을 때에 그 불편함과 고단한 생활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박태로의 신병과 또 사병순, 김영훈이 중도에 선교사 사역을 접게 되는 원인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영훈은 후(後)에 『基督申報』에 기고한 글, “山東宣敎異議에 對하야”란 글에서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술회(述懷)하기도 하였다.

나는 一九一三年 秋에 第一回 山東宣敎師로 派送을 받고 四年間을 宣敎하다가 中途撤歸한 사람이다 抑鬱을 呼訴하랴면 나보다 加多할者 無하다 그러나 隱忍含默 할뿐 아니라 反히 喜하고 樂함은 當初 我의 撤歸한 本意는 宣敎를 不可能이라 함도 아니요 不可타 함도 아니라 但 傳道局으로 하여금 宣敎事業에 對하야 施設을

68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1915), 34.

682) Harry A.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380.

683)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등 세 선교사는 1913년 가을에 내양에 도착하여 서문안 중국인 가옥 한 채를 세내고 중국어를 배우는 것으로 선교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윤경로, “1910년대 한국 및 교회의 상황과 산동선교,” 64].



相當케 하기 위함일다 到今호야는 宣教師의게 向호여 施設과 凡節이 西洋富國과 같이 裕足다할수는 無하나 貧弱호 우리로는 誠과 力을 盡호엿다호여도 過言이 아닌듯호다 그러면 我는 撤歸홈으로 目的을 達호고 宣敎의 門路를 開拓호줄 자신호고 榮光과 讚頌을 神으게 歸호다⁶⁸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들 모두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한 것으로 보인다. 이일영이 1916년 3월 30일 출발해서 중국 산둥내 한국 선교사들의 지경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基督申報』 1916년 9월 6일자 기고한 글, “中國山東旅行記”에서 그 당시 래양교회의 현재 형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萊陽教會現在形便은 每主日 三四十名 會集호고 其中 洗禮人이 十餘名이나 謹守主日호는 敎人은 七八人에 不過호디 男子로 言호면 窪子村에 居호는 李和과 李鳳호는 兄弟요 王哥庄에 居호는 李龍江史通江兄弟며 婦人은 王哥庄에 居호는 褚堅信과 城內居호는 李飛龍이며 新入人中에도 眞實호 兄弟가 幾人 有호디 教會는 至今 眞實호게 始作되호는 形便이더라⁶⁸⁵⁾

이일영은 1916년 현재 래양교회는 매주일 3,40명이 회집하고 있고 그중에 세례교인이 10여명이 되기는 하지만 성수 주일하는 교인은 한 18명 정도였다. 전체 교인의 한 절반정도만이 주일을 잘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남자 교인으로는 와자촌(窪子村)에 사는 이화(李和)와 이봉(李鳳) 같은 형제이며 왕가장(王哥庄)에 사는 이용강사통강(李龍江史通江) 형제와 같은 사람이고, 부인은 왕가장에 사는 저견신(褚堅信)과 역내(域內)에 사는 이비룡(李飛龍)이었다. 그런데 신입 교인 중에도 진실한 형제가 몇 사람이 있었으니 교회는 지금 진실하게 시작되는 형편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5회 총회 전도국은 계속되는 전도국 보고에서 몇 가지를 청원하게 된다. 그 하나는 감사일 헌금에 관한 것으로 “청원호옵는 거슨 금년도 감사일(十一月 二十二日)에 각 교회가 총회전도국을 위호야 열심히 연보호야 보니게 호야 주심을 청원이오며”⁶⁸⁶⁾라고 청원하게 된다. 이것은 예년처럼 감사일 헌금을 산동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총회 전도국으로 보내달라고 총회에 헌금 모금에 대한 청원을

684) 金永勳, “山東宣敎異議에 對호야,” 『基督申報』, 1927. 7. 27.

685) 李一永, “中國山東旅行記,” 『基督申報』 제1권 제40호, 1916. 9. 6.

68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30.



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다. 이어서 총회 전도국은 “본전도국에서 회계보고증 각 로 회 디경연보수입 량년 비교표를 그디로 기록하야 총회 서귀에게 보느야 전도국 회 계 총계표에 텀부 기간하게 하기로 가결하였기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복망⁶⁸⁷⁾(비교표는 별지 데오호에 그지함)”⁶⁸⁸⁾이라고 청원한다. 이것은 각 노회 지경 내에 있는 전국 교회에 산동 선교헌금을 위한 감사일 헌금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라고 여겨진다. 총회 전도국은 이 비교표에서 1916년 5월에서 1917년 4월까지의 예산을 적었다. 이제 위의 <표30> 산동 선교에 대한 총회 전도국 예산 비교에다가 1917년 4월까지의 예산을 추가하여 <표31>을 만들어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러면 3년 동안의 산동선교 예산의 변동 추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표31> 1915년~1917년 산동 선교에 대한 총회 전도국 예산 비교⁶⁸⁹⁾

항목	1917년 예산	1916년 예산	1915년 예산
선교사 삼인의 봉급 宣教師月給	1,685.00	1,260원	1,260원
주녀금 子女金	324.00	324원	288원
어학교스 월금 語學先生月給	300.00	240원	240원
전도비 傳道費金	200.00	200원	150원
사랑비 舍廊費金	30.00	20원	
슈리비 修理費金	100.00	10원	20원
스환비 使喚月給	84.00	84원	84원
가옥비 家屋賃金	350.00	200원	200원
특별비 特別費金	300.00	200원	200원
사무국비 事務局費	50.00	50원	50원

687) 복망(伏望)이란 엿드려서 바라나이라는 뜻(필자의 주).

68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31. 이 비교표를 원문 그대로 본 논문의 부록에 기재하였음(필자의 주).

68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35-3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삼회 회록』 (1914), 16-1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92.



전도국비 傳道局費	50.00	50원	50원
선교사의 가옥살 예비금			1,000원
청도(靑島)대회 선교스러힘비			50원
출판비			60원
특별비			247원 67전 9리
합계 合計	3,473.00	2,538원 ⁶⁹⁰⁾	3,929원 68전 9리

위의 <표31>을 살펴보면 총회 전도국이 세운 1917년 산동 선교 예산이 1915년과 1916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은 첫째로 선교사 3인의 월급이다. 3년간⁶⁹¹⁾ 1,260원이었는데 1917년 예산은 1,685원으로 450원이 인상되었다. 만약에 세 사람의 월급이 같았다고 하면 1,260원인 경우에는 한 사람당 420원씩인데, 450원을 인상했다면 한 사람의 월급 정도를 인상해서 세 사람에게 나눠 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자녀금은 동결이다. 작년(1916년)에 인상했으니까 1917년에는 그대로 예산을 책정했다. 셋째로 어학선생의 월급은 인상했다. 어학교사가 두 사람이었으니 한 사람에게 150원씩 지불한 것이다. 1914년 제3회 총회 예산에 “어학선생 2인의 디훈 일년 월급 240원”⁶⁹²⁾ 이었다. 넷째로 수리비(受理費)가 대폭 인상되었다. 10원, 20원하던 수리비를 1917년에는 100원으로 인상했다. 박태로가 환국하고, 새로 집 하나를 얻어서 사용하려고 할 때에 수리비가 들 것을 예상하고 인상해서 책정한 것이다. 다섯째로 아직 선교사를 위한 사택(私宅)을 구입하지 못하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17년의 항목에 가옥대금(家屋賃金)이라고 한자(漢字)로⁶⁹³⁾ 되어있는 것을 보면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해서 그

690) 제5회 총회 회의록 별지 제6호에는 작년예산으로 2,53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산 착오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92]. 1916년 4월까지의 예산은 그 합계가 2,638원이다. 또 제4회 총회 회의록에는 합계 2,518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계산의 착오이다. 합계는 2,638원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36].

691) 1914년도 예산에도 선교사 월급은 1,260원이었다. 본 논문 174쪽의 <표27> 참조하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삼회 회록』 (1914), 16-17].

692) 위의 책, ; 본 논문 174쪽의 <표27>참조하라.

693) <표31>의 항목에 한자(漢字)로 되어 있는 ‘家屋賃金’ 항목은 1917년 예산표



세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15년 예산에 ‘선교사의 가옥 살 예비금’으로 잡았던 1,000원이 1916년, 1917년에는 빠졌다. 선교사의 주택을 살만한 형편이 못 되었을 것이다. 또 전도국 회계였던 박치록의 재정사고로 예비금을 삭제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째로 전도비 예산은 1916년 200원을 그대로 책정했다. 1914년과 1915년에 150원이었던 것을⁶⁹⁴⁾ 1916년에 200원으로 인상하고는 1917년에는 그대로 200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1917년은 1913년에 파송 받은 선교사들이 이제는 사역의 4년차가 되는 해인데 전도비 예산으로 200원만을 책정한 것이다. 그것은 2년 전에 인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곱째로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예산을 책정했다. 사환월급이 동결이고, 특별비 인상, 그리고 나머지는 10월, 20월 정도 인상하는 변동에 불과했다. 이상의 1917년 예산 책정안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동결하되 몇 해 동안 동결했던 예산은 조금씩 인상했다.

1917년 9월 1일(토) 오후8시에 경성부 인사동 승동예배당에서 회집된⁶⁹⁵⁾ 제6회 총회는 “선교수 四十二인 조선목수 七十六인 장로 七十六인 합 一百九十四인”⁶⁹⁶⁾이 출석했다. 1912년 9월 1일 오전10시30분에 평안남도 평양 경창문 안 여성경학원에서 “목수 합(외국목수 四十四인, 조선목수 五十二인) 九十六인과 장로 합이 一百二十五인이니 도합 二百二十一인”⁶⁹⁷⁾이 모여 회집된 제1회 총회와 비교하면 한국 목사들이 제1회 총회 총대로 출석한 인원보다 24명이 늘었고, 장로 총대는 목사의 숫자와 같게 76명으로 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총회 총대수를 목사와 장로의 숫자를 같게 한 것이다. 이렇게 회집된 1917년 제6회 총회는 산동 선교의 한 획을 긋는 결정을 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총회가 된다. 박태로는 신병(身病)으로 환국(還國)했고, 사병순과 김영훈은 1917년 4월에 선교지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을 처리하게 되는 총회가 바로 제6회 총회가 되기 때문이다. 박상순(朴尙純)은 『神學指南』 1935년 11월호에 “山東宣敎의 過去와 現在”라는 제목의 기고문(寄稿文)에서

에 실린 그대로 한자(漢字)로 기록한 것이다(필자의 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92].

69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삼회 회록』 (1914), 16-17; 1914년도 예산은 <표 27>을 참조할 것(필자의 주).

69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룩회 회록』 (1917), 1.

696) 위의 책.

69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1, 4.



4. 一九一六年 五月에 朴泰魯牧師 身病을 因하여 家族을 帶同하고 回國하다. 5. 一九一七年 四月에 宣教師 金永勳⁶⁹⁸⁾, 史秉淳 兩氏 其職을 辭하고 家族을 帶同하고 回國하다. 6. 一九一七年 五月에 傳道局의 臨時派送 받은 方孝元氏와 宣教師 朴泰魯氏가 同伴하여 萊陽에 倒着하다. 7. 一九一七年 六月에 宣教師 朴泰魯氏가 病重하여 萊陽서 떠나 回國하다.⁶⁹⁹⁾

1917년 9월 1일에 회집된 제6회 총회는 1913년에 산동으로 세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큰 숙제를 안고 개회가 되었다. 당시 제6회 총회는 전국 교회에도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1917년 7월 18일자 『基督申報』에 “장로회 총회”라는 제목으로 기사(記事)가 올라오기를

금년에 장로회 제六회 총회를 경성송동회당안에서 구월첫주일에 기회할터인데 경성교회에서 절충준비에 디흐야 각방면으로 로력흐는모양이고 각로회측에서는 금년 총회에는 중디흔 문데가 몇가지 잇는거슨 첫지는 중국에 전도스업이니 이거시 데일되는 스건인데 지혜롭게 히결치 아니면 아니될일이고 (중략) 지금부터는 총디되는 이들 상당하게 시세와 형편에 디흐야 리히홀만한 상식이엇서야 조선교회를 퇴보시키 디경에 옮겨놓치 아니흐겟다는 이런 여론이 잇는 모양인데 금년부터는 모든 거슬 쇄新히지 아닐거시면 진보의 희망을 니르킬 능력이 부족히리라고 운운이 되더라”⁷⁰⁰⁾

그 당시 산동 선교사들의 회국(回國) 사건은 조선 교회를 퇴보시키는 지경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총회가 바로 1917년에 회집된 제6회 총회였다. 그러면 제6회 총회에서 보고되는 총회 전도국의 보고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제6회 총회는 산동 선교에 대한 어떤 결의를 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6회 총회는 개회하면서 임원을 투표하여 선정하니 회장에 한석진 부회장 홍승한 서기 장덕로 부서기 김성택 회계 곽안련 부회계 김석창이었다.⁷⁰¹⁾ 총회는

698) 박상순은 김영훈(金永勳)의 한자(漢字) 이름을 金永勳(김영훈)이라고 적고 있다(필자의 주).

699) 朴尙純, “山東宣敎의 過去와 現在,” 27-30.

700) “장로회총회,” 『基督申報』, 1917. 7. 18.

70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대륙회 회록』 (1917), 5.



계속되고 전서기가 전회의 미결 사항을 보고할 때에 첫 번째 사항이 “산동선교스 가파(加派)스건(데오회 회록 二十九페이지)”⁷⁰²⁾이었다. 1916년 제5회 총회 시에 전도국이 보고 중에 장래사건으로 “예산증으로 각회계의게서 한 오백원 더 드려오면 선교스 한 분 더 파송하기로 경영하야 총회에 청원이오며”⁷⁰³⁾라고 선교사 한 명을 더 파송하자는 청원을 한 것이다. 이 청원이 제5회 총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제6회 총회로 넘어온 것에 대한 전서기의 유안(留案)보고였다.

계속되는 제6회 총회에서 “회장이 찬송가 九十八장과 회원중 一인의 기도로 강설회를 기하고 방효원시가 성경 (로마 十一장 二十五-三十六)까지 랑독하고 전도형편을 보고하미 디락 기지힘이 여자하다”⁷⁰⁴⁾ 다음은 “중국산동성 선교스 방효원시 보고”⁷⁰⁵⁾

교데가 五月 七일에 박티로목스와 동반하야 十일만에 리양성에 도착하였는디 교인들이 선교스 온다는 기별을 듣고 고디하다가 十리 바게 나와 영접하고 잇흔날 온 외촌에 잇는 교우 四十三인이 모혀 환영하는 디접을 받고 그 후 주일에 집스 二人을 선거하고 박티로시는 신병이 중하여 연터로 나올 때에 교우 三十여인이 새벽 모혀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전별하였스며 일기가 점점 심히 더워 육신곤고중 동모를 일코 방언도 아지못함으로 답답한것슨 말 다 흡수업스나 十五일간 외촌 밋는자를 심방하면서 레비도 하고 권면도 하야 밋기로 작명하자 二十五인중 九인은 주일 잘 직히고 가는곳마다 친절흔 사랑을 만히 밋앗스오며 글쓴 죠회를 중이 녀키는 풍속이 잇슴으로 전도지를 잘 밋아 간슈하오며 성년에 로마, 누터, 침례, 장로 四교파가 잇는디 그 중 우리 장로회가 관민간 환영을 받고 교회학교는 셋이 잇는디 하느님씩 영광을 돌리오며 각 관립학교에 가면 전도 듯기를 허락하고 잘 듯스오며 죠선인을 친동족갓치 친절하게 영접하며 교우들은 주일을 잘 직히고 즈밋이게 레비하며 연보금은 一百十원이 저축되었는디 금츄에는 레비당 건축비로 연보하기를 작명하였는디 다⁷⁰⁶⁾

총회 전도국에서 임시로 파송을 받아서 박태로와 함께 1917년 5월 7일에 중국 산동에 갔던 방효원의 보고를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첫째는 박태로가 중국 산동에서 얼마나 지극정성과 사랑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는지를 알 수

702) 위의 책, 8.

70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29.

70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11.

705) 방효원을 이미 중국 산동성 선교사라고 호칭하고 있다(필자의 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11].

70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11-12.



있다. 박태로가 중국 산동의 래양교회 교인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방효원은 박태로가 신병으로 연태로 떠난 다음, 홀로 남아서 말도 통하지 않는 형편에서 보름간 교인들을 심방하고 권면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사실이다. 성실한 목회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셋째로 방효원은 산동에 가서 당시의 풍속과 전도 상황과 반응, 그 지역의 감정 등을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로 방효원은 이미 중국 산동 선교사로 마음을 작정한 듯 금년 가을에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헌금을 작성하는 계획까지 추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방효원은 중국 산동 선교사로 마음을 작정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섯째로 방효원의 보고를 보면서 똑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해도 누가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블레어(H. E. Blair)는 “장로회 총회”라는 글에서 1917년 9월 1일 토요일 저녁에 승동교회당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총회의 임원으로 조선 사람인 마산의 한석진이 총회장이 되고, 대구의 홍승한이 부총회장이 되고, 의주의 장덕로가 서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총회는 150명의 목사, 620명의 장로, 340개의 조직 교회와 1,659개의 미조직 교회, 61,618명의 세례교인과 전체 149,640명의 교인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한국의 장로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다.⁷⁰⁷⁾ 이어서 블레어는 제6회 총회에서 한국 교회가 산동 선교의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중국 산동 선교에 대한 논의가 총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전(全) 총회가 총회 전도국의 보고와 특별히 중국에서 돌아와 산동선교 사역의 필요성을 총회에 제기하는 방효원의 보고로 위로를 받았다. 초기 선교사 중에 두 명이 그들의 재정적인 요구가 주어지지 않자 산동 사역을 그만 둠으로 이것이 산동에서의 모든 사역의 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많았다. 그렇지만 전도국과 방효원의 보고는 래양(Naiyang)의 많은 교인들이 그들이 떠난 일로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산동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 신병(身病)으로 사역을 그만 두기는 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산동 선교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결심한 박태로가 무리해서 산동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초대 교회의 사도(使徒) 같은 영접을 받았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두 명의 한국 사람인 박태로와 방효원에게 주어진 놀라운 정도의 최고의 예우로 보였고 그들은 이들을 그들의 선생이요 사도로 높였다. 대구의

707) H. E. Blair,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KMF 13 (November, 1917), 286-87.



홍승한을 지명하여 그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도록 허락해 달라는 총회 전도국의 청원은 산동 선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다. 그 청원은 받아들여졌고 당시 한국 교회의 두드러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홍승한은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지역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은 그들이 한국 내에서 사랑으로 성장하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높은 이상을 가지고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였다. 모든 교회는 산동 선교가 성공적이고 복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도와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⁷⁰⁸⁾

블레어의 소개를 살펴보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첫째는 중국 산동에서 박태로가 얼마나 사랑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다. 박태로는 중국 산동 래양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초대 교회의 사도와 같이, 그들의 선생과 같이 사랑을 받았다. 둘째로 래양의 교인들은 사병순과 김영훈이 떠난 것에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래양교회의 교인들도 사병순과 김영훈이 떠난 것을 이해했다는 말이 된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자기들을 버렸다는 생각이나 선교사가 그럴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이 산동을 떠난 것을 충분히 이해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블레어는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에 놀라고 있는 듯하다. 더군다나 한국 내에서도 유력한 지도자인 홍승한을 중국 선교사로 지명하고, 또 당시 제6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선정된 그는 총회 전도국의 요청을 수락하고, 총회는 이를 허락하는 모습에 놀란 듯하다. 네 번째로 블레어는 위기를 맞은 산동 선교가 오히려 선교에 대한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전체 교회에 더 많은 기도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모습에 놀란 듯하다. 블레어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소개한 제6회 총회에서 전도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한 것인가?

제6회 총회에서 전도국장 김건두가 중국 산동 선교의 현재 선교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一, 감사할 거슨 1. 중국 산동 리양 선교스들이 가서 선교한 결과로 지금 만히 모히면 五六十명 적게 모히면 四五十명이오며 그 중 세레인이 二十八 학습 三十五인 집스 二人을 텍히야셔우고 금년 시로 밋기로 작명헌 사롬이 二十六인인디 완전헌 이가 九인이오며 2. 기도회 처소가 六처이오며 3. 학교가 三처 이오며(一처 학

708) 위의 책, 287.



도 十六인 교수 왕등화⁷⁰⁹⁾ 一처 학도 十인 왕진가 一처 학도 六인 서계산) 二, 교회형편 1.교인중 미일 강서당에 나와서 기도하며 성경공부하는 사람도 잇스오며 2. 연보금은 미주일 四五十전식 되오며 3. 지금 주일연보금 도합이 一百二十여원이오며 三, 교회구역 1.선교하는 구역은 동서가 六十리 남북이 六十리요 2. 촌은 一百二十여처인디 인구가 대단히 만스오며 3. 처처에 우리 선교스를 환영호오며 4. 리양성 안 四교파중(침례, 누터, 턴주, 장로)에 우리 장로교회를 신령한 교파로 인증호오며 四, 특별스건 1. 중국 선교스 사병순 김영훈 량시는 연도국 허락없이 한국호였스오며 2. 신병으로 인하여 한국호였던 박티로시와 방효원시를 금번 총회까지 임시로 파송호였더니 박티로시는 병으로 인하여 도라오고 방효원시를 도아주기 위하여 김병구⁷¹⁰⁾시를 보니엿스오며 五, 장리스건 1. 전도훈문이 열녔스오니 선교스 三인을 시로 파송홀일 2. 선교스 三인 잇슬집 건축하여 줄 일 3. 금년도 감사일에 각 교회가 총회전도국을 위하여 열심연보하여 속히 다보니게 홀일 4. 방효원, 홍승한 량시를 선교스로 파송호되 전도국에 전임하여 그 본로회와 교섭하여 진흥케 하고 만일 못가면 다른 슴을 파송케 홀일 5. 김병규시는 리二月까지 임시전도인으로 파송홀일 6. 선교스 三인을 파송하면 예산은 여좌흙(一九一七,五,一一一九一八,三十일)⁷¹¹⁾

제6회 총회의 전도국장 김건두의 산동 선교의 결과 보고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교인수와 헌금 수입 등이 진일보(進一步) 성장하였다는 사실이다. 지난 몇 년간 총회 보고에 근거해서 산동 래양교회의 이런 몇 가지 성장을 표를 만들면 다음 <표32>와 같다.

<표32> 산동 래양교회의 성장

항목	1917년 제6회 총회 ⁷¹²⁾	1916년 제5회 총회 ⁷¹³⁾	1915년 제4회 총회 ⁷¹⁴⁾
교인의 총수			40여명
회집 인원	많으면 5,60명 적으면 4,50명	40여명	평균으로 30여명
세례인	28명	12명	3명

709) 당시 한 줄로 밑줄 친 것은 인명(人名)이며, 두 줄로 밑줄 친 곳은 지명(地名)이다(필자의 주).

710) 김병구는 김병규의 오기(誤記)임(필자의 주).

71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19-21.

712) 위의 책, 19-20.

71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28.



학습인	35명		
집수	2명		
원입교인		30명	30명
금년 새로 믿기로 작성한 자	26명		
새로 믿기로 작성한 자 중 완전한 자	9명		
주일금(연보금)	4,50전씩	8,90전씩	
주일금(연보) 도합	120원	50원	
기도회 처소	6처(處)		
학교	3처		
선교 구역	동서 60리 남북 60리		
촌(村)	120여 처(處)		

둘째로 교인들이 질적으로도 성장해서 기도하고, 성경공부하는 교인이 있다. 기도처도 세워지고, 학교가 3곳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학교를 선교사가 세웠다는 보고는 없다. 아마도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학생들과 교사들 중에 믿는 사람이 생긴 것으로 본다. 셋째로 박태로는 신병으로 귀국(歸國)했고, 사병순과 김영훈은 총회 전도국의 허락도 없이 환국(還國)했으니 이제 다른 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는 청원이며 아울러 전도국은 새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주택을 건축하여 주기를 청원한다. 그제야 선교사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지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새로 파송되는 선교사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임시로 산동에 파송되었던 방효원과 제6회 총회의 부총회장으로 선임된 홍승한을 지목하고 노회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목사는 노회의 소속이니 노회의 허락과 동의를 받아야

71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34.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노회와의 교섭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파송하도록 전도국에 위임해 주기를 청원하였다. 이렇게 제6회 총회 전도국은 새로 선교사 세 사람을 중국 산둥으로 파송하기를 청원하면서 새로 파송되는 선교사 세 사람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총회 앞에 보고한다. 총회 전도국이 1917년 5월 1일부터 1918년 4월 40일까지 새로 파송할 선교사 3인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그 예산과 1917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표로 만들면 다음의 <표33>와 같다.

<표33> 1917년에 새로 파송할 선교사 3인에 대한 예산
(1917.5.1.-1918.4.30.)과 1917년 전도국 예산 비교⁷¹⁵⁾

항목	1918년 (‘17.5.1.-’18.4.30)	1917년
선교스 월봉	1,500원(圓)	1,685원
주녀금	300원	324원
어학선싱 월봉	300원	300원
스환비	100원	84원
전도비	100원	200원
가옥비	300원	350원
샤랑비	50원	30원
슈리비	100원	100원
전도국비	100원	50원
스무국비	50원	50원
특별비	100원	300원
로슈비	200원	

71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19-2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92. <표31>을 참조하라.



합계	3,200원	3,473원
----	--------	--------

제6회 총회 전도국이 새로 파송할 세 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표33>에서 특별히 1917년 4월까지의 예산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면 첫째로 선교사 3인의 월급이 이전 세 사람의 월급보다 185원이 감소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새로 파송된 선교사들이니까 이전의 3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들의 월급보다 조금 작게 책정하였을 것이다. 둘째로 자녀금도 조금 감액했다. 셋째로 몇 년 동안 동결되었던 사환월급은 조금 증액하였다. 넷째로 전도비를 이전 200원에서 절반으로 줄여서 100원으로 책정했다. 이것은 처음 가서는 전도보다도 어학을 학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것은 조금씩 증액되거나 감액하였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새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의 사택을 건축해서 살게 하자는 청원은 하였지만 그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아직 선교사들의 사택을 건축하자는 청원이 총회에서 허락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제6회 총회 전도국 회계로 다시 택정(擇定)된 이일영⁷¹⁶⁾이 1916년 5월 1일부터 1917년 4월말까지의 전도국의 회계보고와⁷¹⁷⁾ 제5회 총회 때에 보고된 전도국의 회계보고⁷¹⁸⁾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4> 1916년 제5회 총회와 1917년 제6회 총회 전도국 수입⁷¹⁹⁾

항목	제6회 1916.5.1.~1917.4.말까지	제5회 1915.5.1.~1916.4.말까지
작년 회계에 넘어온 금	1,746	860.045
연보입금	2,734.915	4,592.217 ⁷²⁰⁾ (2,954.217)
은행리주	51.05	32.900 (은행변리)
별연보	102.18	

71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23, 70.

717) 위의 책, 23, 90.

71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93.

719) 위의 책, 9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23, 90.



논 소출	74.12	199.775 (논에서논 작년 쇼출 갑)
평양성 각교회에서 선교사 사택연보		65.890
빅만명전도회에서 온돈		25.870
합계	4,709.007	4,138.697

위의 <표34>를 살펴보면 몇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각 노회의 교회로부터 수입된 연보는 219.302원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논 소출(제6회 총회 용어) 혹은 논에서 난 작년 소출값(제5회 총회 용어)이란 총회 전도국의 재정을 범용(犯用)한 박치록의 땅을 총회 전도국이 현금을 대신하여 받은 전답(田畓)에서⁷²¹⁾ 소출된 수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 전도국은 박치록의 땅을 현금 대신 받아서 처분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 수입을 얻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로 제5회 총회 때에는 평양성 각 교회에서 선교사 사택연보로 65.890원을 하였지만 제6회 총회 때에는 그런 수입이 없다. 이것은 산동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회국(回國)하는 일이 발생하니 선교사 사택 현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넷째로 제6회 총회 때에는 별연보라는 항목의 수입이 102.18원이 있는 데, 별연보란 특별연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데 그 내용은 언급이 없다. 여하튼 다섯 번째로 제6회 총회 전도국의 수입 합계는 제5회 총회 때보다 570.31원이 많은 4,709.007원이었다. 이제 제5회와 제6회의 전도국 지출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35>와 같다.

<표35> 1916년 제5회 총회와 1917년 제6회 총회 전도국 지출⁷²²⁾

720) 1917년 제6회 총회 보고중에 “전서기가 전회록 별지 데七호 전도국 회계보고 데三항 「四五九二」는 「二九五四」의 오식이기정호함을 보고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9].

721) 1915년 9월 4일에 회집된 제4회 총회에서 전도국은 “전도국 회계 박치록시의 범용돈 二千五百원에 디하야 백여 두락되는 답토로 디봉하였다는 일은 밧으되 특별위원을 텍하야 도사케 하기로” 보고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9].

72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9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항목	1916.5.1.~1917.4.말까지	1915.5.1.~1916.4.말까지
선교사 봉급과 비용금	1,924.30	1,850.000 (금년예산증) 350.000 (시히예산증)
함경로회 전도회 보조금	50.00	
전도국 용비금	14.67	30.520 (전도국부비)
우편비용금	9.07	13.680 (우표비)
스무국비금	49.38	11.265(스무국부비)
잡비금	16.00	8.700
돈차준 부비		1.000
각회계 문부 산값		9.090
출판비		5.100
서촌동논에	종조갑(36.200) 동수리 (23.500) 결전(7.900)	67.60
중국교회 시찰 두 사림로비		45.000
합계	2,063.42	2,391.955

위의 <표35>를 살펴보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제5회 총회 때에는 선교사 봉급과 비용을 새해 예산에서 미리 갖다가 지출하였다. 둘째는 돈을 찾을 때에 든 비용 1원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박치록의 재정 사고 이후로 이 일영이 총회의 전도국 회계를 맡고 좀 더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고, 총회에서 도 전도국 회계보고 중에 합산이 틀린 것을 총회에서 보고하고 수정한 것⁷²³⁾을 보

데육회 회록』(1917), 23, 90.

723) 1917년 제6회 총회 보고 중에 “전서기가 전회록 별지 데七호 전도국 회계보



면 재정 관리와 계산에 더욱 정확성을 기울이려고 하였다. 셋째로 ‘서촌동논에’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박치록의 땅을 총회 전도국에서 받아 농사를 짓느라고 들어가는 돈 67.60원을 지출한 것을 말한다. 1916년 제5회 총회 전도국 회계 이일영은 “쓴 것 데하고 남아 잇는 것 1,746.742과 중국 선교소 회계에게 잇는 돈 397.945 합치 2,144.687”⁷²⁴⁾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1917년 제6회 총회 때에는 전도국 회계 이일영은 “회계 여지 임치로 은형예금 2,645.587”⁷²⁵⁾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제6회 총회는 총회 회무를 마치기 직전에 “산동선교소로 갔던 김영훈⁷²⁶⁾ 사병순 박티로 트시의게 위로하난 문안과 이후에도 주의일을 보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편지하되 회장과 서기의게 맞겨히기로 동의를결”⁷²⁷⁾하고 “회장이 주의 은총 중에서 데六회 총회가 평안히 스무를 다 맞초고 축도로 폐회하고 폐회됨을 회중에 공포하다” 이때는 주후1917년 9월 6일 오후11시 30분이였다. 이렇게 제6회 총회는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선교사에 대한 문제를 은혜롭게 처리하고 1913년 11월에 산동에 도착해서 1917년 4월까지 만3년 5개월 동안⁷²⁸⁾ 산동에서 말할 수 없는 형편 중에도 선교 사역에 힘쓴 이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선교사 선정을 진행하며 산동 선교 사역을 계속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고 데三형 「四五九二」는 「二九五四」의 오식이기정호흡을 보고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9].

72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93.

72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90.

726) 김영훈(金永勳)은 1927년 9월 9일에 회집된 제16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정된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十六회 회록』 (1927), 7].

72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40.

728) “4. 一九一六年 五月에 朴泰魯牧師 身病을 因하여 家族을 帶同하고 回國하다. 5. 一九一七年 四月에 宣教師 金永勳, 史秉淳 兩氏 其職을 辭하고 家族을 帶同하고 回國하다.” [朴尙純, “山東宣敎의 過去와 現在,” 27].



V. 초기 선교사 파송의 의의와 교훈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인 제주 이기풍 선교사 파송과 산동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선교사 파송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선교에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의 의의는 무엇이겠는가? 본 연구를 통해서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의 의의와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 선교적 교회의 출발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의 의의는 초기 한국 교회는 노회와 총회를 개최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점이다. 제1회 독노회의 가장 커다란 사건은 일곱 명의 한국 목사를 안수하였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제1회 독노회의 설립을 기념해서 그 일곱 명 중에 한 사람인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파송하였다는 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1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한국 교회는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결의하고, 제2회 총회 때에는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중국 산동으로 파송하였다. 이 일은 당시 노회와 총회의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요즈음 한국 교회의 노회와 총회는 어떠한가? 어느 노회나 총회가 개최될 때에 가장 커다란 이슈는 선거다. 봄 노회 때에 노회의 가장 커다란 관심거리는 총회 총대선거이다. 그리고 가을 노회 때에는 보통 차기 노회장으로 승계하게 되는 부노회장 선거다. 총회도 개최가 되면 가장 큰 관심거리는 차기 총회장이 되는 부총회장 선거다. 그래서 노회나 총회가 선거가 끝나면 너무나 많은 회원들이 썰물 때에 물이 빠지듯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노회나 총회가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정족수가 부족해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제1회 독노회 때에는 그러지 않았다. 1907년 9월 17일 오전9시에 78명이 모여 개최된 제1회 독노회는 오후2시에 속회되었을 때에 “참석원은 여전하니라”⁷²⁹⁾고 하였다. 첫날 노회장과 다른 임원들 선거가 싱겁게 끝나고 회의는 계속된다. 그날 저녁 7시에 속회된 회의도 “참석원은 여전하고”⁷³⁰⁾, 그 다음날인 9월 18일 오전8시 45분에 속회된 회의

729)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6.

730) 위의 책, 7.



때에도 “참석원은 여전 하시며”⁷³¹⁾라고 되어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노회나 총회에서 임원 선거를 위해서 너무 많은 출혈을 하고 있다. 그 후유증(後遺症)은 너무 크다. 한국 교회의 초기 노회와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가 가장 커다란 관심사가 아니었다. 1915년 제4회 총회 때에 김필수가 한국인 최초로 총회장이 된다. 제4회 총회 회록은 이 때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임원을 택하느니 회중이 투표하야 회장은 김필슈시로 택명되미 김필슈시가 고소함으로 회장이 회원중 二人으로 기도후 후 소면하지 아니함을 구하미 김필슈시가 회중에 순복하느 뜻으로 회장의 직임을 담당하기로 허락하고”⁷³²⁾ 회장에 당선이 되었다. 예의상 사양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 한국 교회의 노회와 총회에서는 결코 지금 같이 임원선거가 노회와 총회의 가장 커다란 사안이 아니었다.

100여년전 한국 교회는 제1회 독노회와 제1회 총회를 회집하면서 제주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파송을 결의하게 된다. 이 일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절대적으로 본받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정신이다. 이제는 한국 교회도 노회를 열고, 총회를 개최하면서 어디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자는 청원과 결의를 하는 그런 노회와 총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박안련은 1907년에 제1회 독노회가 설립된 일을 두고 “장로교회는 설립이 된 때부터 특별히 1907년도에 자치적이며 독립적인 교회로서 노회가 설립된 이후로 거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조직이었다.”⁷³³⁾고 하였다. 한국 교회의 노회와 총회는 선교적 교회로 출발하였다. 요즈음 이런 정신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런 도전과 각성과 좋은 전통을 이어갈 교훈을 주는 것이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의 첫 번째 의의가 될 것이다.

B. 한국 교회의 자립 선언

제주와 산동 선교는 한국 교회의 자립 선언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한국 교회는 초기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전국 교회의 감사헌금으로 선교비를 마련했

731) 위의 책, 9.

73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4-5.

733) C. A. Clark, “The Missionary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69.



다.

변창욱은 제주 선교의 의의를 여섯 가지⁷³⁴⁾로 정리하면서 그 세 번째로 다 음과 같이 말한다.

당시 한국교회는 선교를 한국 교회 전체에 주신 사명으로 이해했고, 제주 선교의 모든 비용을 외국 자금의 보조 없이 온전한 한국 교회의 헌금으로 감당했다. 제주 선교는 몇몇 교인이 아닌 한국 장로교 산하 모든 교회가 헌금을 드려 참여한 사업 이었다. 제주 선교는 향후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비 일체를 스스로 감당해 나가는 자립 선교의 원년이 되었다.⁷³⁵⁾

물론 제주 선교는 한국 교회가 모두 참여해서 이룩한 일이다. 제주 선교나 산동 선교 모두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단체가 주관한 선교가 아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동참하였다. 안교성도 제주 선교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억해야 할 한 가 지는 한국 교회의 선교는 교회가 중심이 된 사역이었다는 사실이라고 하였다.⁷³⁶⁾ 그렇게 한국 교회 온 성도들이 헌금하여서 선교비를 마련한 제주 선교는 분명 자 립 선교였다. 그런데 보통 자립이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정도 를 말한다. 어느 한 교회가 이제는 우리도 자립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교회나 그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그 교회 스스로의 재정으로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를 두고 말한다.⁷³⁷⁾ 그러나 진정한 자립은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라고 말해야 된다.

734) 첫째, 제주 선교는 1903-1907년 어간에 촉발된 대부흥 운동과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표출된 한국 교회의 선교 행전의 시발점이었다. 둘째, 제주 선교는 한국 교회가 선교적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셋째, 당시 한국교회는 선교를 한국 교회 전체 에 주신 사명으로 이해했고, 제주 선교의 모든 비용을 외국 자금의 보조 없이 온전한 한국 교회의 헌금으로 감당했다. 제주 선교는 몇몇 교인이 아닌 한국 장로교 산하 모든 교회가 헌금을 드려 참여한 사업이었다. 제주 선교는 향후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비 일체를 스스로 감당해 나가는 자립 선교의 원년이 되었다. 넷째, 제주 선교를 위한 선교비 후원 창구 가 독노회 전도국으로 일원화 되어 있었다. 다섯째, 안수 받은 목사 선교사뿐 아니라 남녀 전도사, 조사, 평신도 남녀 전도인, 매서인(賣書人), 학생들의 협력 사역과 팀 선교(team mission)가 이루어졌다. 여섯째, 여성 사역을 위해 독신 여선교사를 파송했다 [변창욱, “한 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 21-23] .

735) 변창욱,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 22.

736) 안교성, “한국교회 선교의 기원에 관한 소고: 제주 선교와 이기풍 선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91.

737) 변창욱이 ‘어떻게 자립하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연구 소논문인 [변창 욱, “한국 교회의 자립 선교 전통과 비자립적 선교 형태: 자립적 선교 패러다임으로 변화



이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각 교회들의 헌금으로 제주에 이기품을 파송하고, 계속해서 지원한 것은 한국 교회의 첫 번째 자립 선언이었다. 또 제1회 총회가 설립되면서 한국 교회 총회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그 선교비를 한국 교회의 온 성도들이 감사헌금으로 마련해서 후원한 일은 한국 교회의 두 번째 자립 선언이었다. 이것이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의 참으로 소중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제주와 산동 선교비를 어떻게 마련하여 선교하였는지에 대하여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제1회 독노회가 조직되면서 이기품을 제주 선교사로 파송을 청원할 때에 전도국 위원 길선주는 “선교사의 월급과 전도 용비는 각 교회에게 감사헌금으로 연보하게 부탁할일”⁷³⁸⁾을 청원하고 노회는 이 일을 결의한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전국의 교회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여 선교비를 후원하게 된다. 이것뿐이 아니라 독노회 전도국은 “제주 선교사와 전도인 월급 맞써 리왕비와 가사비와 전도회 인허 특별비를 본 전도국에서 지출할일”⁷³⁹⁾을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그런 다음에 한국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힘써서 헌금한다. <표4>⁷⁴⁰⁾를 보면 연보전(捐補錢)만 헌금 한 것이 아니라 은반지도 헌물하였다. 또 교회의 자매들이 헌금해서 이선광을 제주 여전도인으로 파송한다. 또 평양대중학교 학생들이 연보하여 대학생 김형재를 제주 전도인으로 파송한다. 이렇게 한국 교회 성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여 제주 선교를 후원하였다.

산동선교는 이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제1회 총회 전도국은 지나등지로 외국 전도를 청원하면서 “一年중(年中)의 한 주일을 특별히 택하여 각 교회에 명령하시와 전도국을 위하여 레비(禮拜)보게 하시되 (중략) 그 주일(主日)에 특별(特別)히 힘써 연보(捐補)도 하시되 그 날은 감사日로 定(定)하시교”⁷⁴¹⁾ 헌금하기를 청원하게 된

를 모색하며,” 『선교와 신학』 제27집(2007, 봄), 240-70]에서도 자립 교회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말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소논문의 III. 자립 교회 설립을 위한 교훈과 제언 네 번째 “건축비 지원을 받은 교회로 하여금 더 가난한 교회를 돕도록 하라.”에서 소개한 소래교회는 가난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교회와 예배 처소의 건축비까지도 도와주었다. 이런 교회가 진정으로 자립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필자의 주).

738)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16.

739) 위의 책, 17.

740) <표4>는 본 논문의 61쪽에 있음.

74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1.



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의 총회는 일 년 중 한 날을 감사일(感謝日)로 정하고 산동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설교하고, 힘써서 헌금하여서 총회 전도국으로 보내 선교비로 사용하게 했다. 1914년 9월 6일에 회집된 제3회 총회에서는 감사일을 어느 날로 할 것인가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3회 총회의 규칙위원은 “감사일은 선교수 최초 도선일(양력 십일월 데 삼회 주일후 삼일)로 명함”⁷⁴²⁾이라고 보고한다. 1917년 제6회 총회 부록(符籙)에 첨부(添附)된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규칙(朝鮮耶穌敎長老會總會規則) 제2조 1항 5호 전도국위원의 다섯 번째 목록은 “感謝日是 宣敎師 最初 渡鮮日(陽十一月 第三回 主日後 三日)로 定함”⁷⁴³⁾이었다. 도선일(渡鮮日)이란 ‘조선을 건넌 날’이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 최초 도선일을 감사일로 정해서 연보를 하고, 그 감사헌금을 선교비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초기 한국 교회는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선교사가 한국을 건넌 날을 감사일로 정하고, 이날 선교를 위해 힘써서 헌금하였다. 이렇게 산동 선교를 후원하는 선교비는 한국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겠다는 강력한 자립 의지의 선언이었다. 제주와 산동 선교를 통한 한국 교회의 자립 선언이 재정(財政)의 자립 선언만이 아니다. 두 번째 자립 선언은 사람의 자립이다. 한국 교회는 제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한국 목사인 이기풍을 파송했다.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한국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된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기풍을 제주로 파송한 것은 한국 교회의 선교는 한국 사람이 하겠다는 자립 선언이다. 또 한국 교회는 산동으로 한국 사람인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파송했다. 이것은 재정의 자립만이 자립 선언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선교는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감당하겠다는 선언이다.

김영동은 산동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선교신학적인 관점에서 무려 열다섯 가지의 선교신학적인 의의⁷⁴⁴⁾를 밝혔는데 그 중에 셋째로 “선교에 필요한 인적,

74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삼회 회록』 (1914), 29.

74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77.

744) 첫째로 산동선교는 한국 교회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으로 나가 선교한 최초의 독자적인 타문화권 선교로서 그 역사적, 선교신학적 의의가 있다. 둘째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인의 선교였다. 셋째로 선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한국 교회의 힘으로 지원했다. 넷째로 순수한 영적 동기에서 출발하였으며 다른 식민제국주의적 선교나 문화우월주의 선교가 아니었다. 다섯째로 약자의 선교와 성육신적 선교였다. 여섯째로 산동선교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미래 한국 교회의 선교적 특성을 형성하는 선구자적 선교였다. 일곱째로 한국선교사들은 외국선교사들이 한국선교현장에서 성공한 네비우스 선교정책인 자



물적 자원을 한국 교회의 힘으로 지원했다.”⁷⁴⁵⁾고 하였다. 인적 자원의 지원이란 제주에 한국 사람인 이기풍과 전도인들을 파송하여 선교한 것과 중국 산둥으로 한국 사람인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과 이들을 도왔던 협력자들을 파송하여 선교하였다는 점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제주와 산둥 선교를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한국 교회의 힘으로 지원한 것은 만방에 한국 교회의 진정한 자립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이미 제1회 독노회의 설립과 제1회 총회의 설립 자체가 한국 교회의 자립의 선언이었으며, 노회와 총회를 설립할 만큼 자립한 한국 교회가 제주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한국 교회의 자립의 천명(闡明)이었다. 이것이 제주와 산둥 선교사 파송의 커다란 의의일 것이다.

C. 성경공부의 산물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은 성경공부의 산물(產物)이다.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의 진정한 동기는 성경공부에서 출발하였다. 마포삼열(馬布三悅, Samuel Austin Moffett)이 1910년 영국 스코트랜드 에딘버러(Edinburgh)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에서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음화 사역에서 현지교회가 차지하는 위치”라는 글을 발표할 때에 다음과 같은

립, 자치, 자전의 방법을 중국인 사역에 적용하였다. 여덟째로 산둥선교는 선교사와 현지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남성과 여성 등 팀을 통한 협력사역이었다. 아홉째로 선교사 파송 전에 그리고 선교사역과정에 기존하는 현지 교회(교단)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선교외교’를 잘 하였다. 열째로 한국 교회의 선교는 총회(외지 전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열한째로 여성 선교사가 파송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일찍이 선교에 있어서는 남녀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열두째로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다. 열셋째로 본토인 목회자를 양성하고 현지인 전도인들을 적극적으로 선교사역에 동원하였다. 열넷째로 중국 교회에 한국적 신앙양식을 소개하며 에큐메니칼 상호 배움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한국 선교사들은 중국 교회를 감동시키는 선교 영향력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김영동, “한국교회 산둥선교의 의의: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산둥선교 100주년의 교훈과 제언』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2), 154-65], 특별히 안교성은 “한국교회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 산둥선교의 역사적 의의”라는 소논문에서 1)선교의 성격, 2)선교의 정책문제, 3)선교의 주체문제를 명확하게 잘 다루고 있다 [안교성, “한국교회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 산둥선교의 역사적 의의,” 『한국선교KMQ』 Vol.9 No. 2 통권32호 (2009, 겨울), 90-98] .

745) 위의 책, 155-56.



언급을 하였다.

우리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 같이 군사 대국이나 통상 대국이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의 기독교 국가, 하나의 영적 강대국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아마도 중국과 일본 심지어 러시아까지를 포함하는 열강 제국들에게 영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극동 지역의 영적 대국(a spiritual power)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위대한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이었던 앗시리아, 바벨론과 로마에 복속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가기까지 했던 작은 유대 나라를 들어 세계의 위대한 영적 대국으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⁷⁴⁶⁾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이전에 한국 선교 현장을 지켜보았던 마포삼열은 한국이 영적 대국이 될 것을 전망하였다. 마포삼열은 이렇게 영적 대국이 될 한국 교회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로 주저하지 않고, 그것도 길고 세밀하게 언급한 것이 바로 한국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교회라고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성경 사경반(查經班: Bible Training Classes)요 사경회(查經會)라고 소개한다.⁷⁴⁷⁾ 그러면서 마포삼열은 “이러한 성경 사경반과 양육반은 교육과 양육 그리고 그 교회 전체를 하나의 전도하는 공동체(an evangelizing body)로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게 하였다.”⁷⁴⁸⁾고 하였다.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산동 선교였다.

제1회 총회 전도국이 총회 앞에서 지나등지로 외국전도를 실시하자고 청원하게 되는 그 시작은 1912년 6월 28일에 회집된 제2회 황해노회였다. 제2회 황해노회 전도위원 김익두가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보고를 함으로 산동 선교는 시작이 된 것이다.

전도위원 김익두가 보고하기를 우리 로회의 은혜받은 것과 이 세상 어두운 것과 예수씨서 마즈막 명령하신 거슬 심각하니 외국전도 아니할수 업슨즉 총회에 헌의하야 청국중에 맛틀 디경을 엿어가지고 복음전파하기를 청원하되 전도하논디 쓸 조본

746) Samuel A. Moffett, "The Place of the Native Church in the Work of Evangelization," *Union Seminary Magazine*, Vol. XXII (October-November, 1910), No. 1. 226-35; 『선교와 신학』 제25집(2010. 봄), 308-309; 이용원 역, “복음화 사역에서 현지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 『선교와 신학』 제25집(2010. 봄), 324.

747) 위의 책, 311-12; 326-27.

748) 위의 책, 311-12; 327.



은 임의 총회전도국으로 보니든 연보와 이후 본 로회 디경니에 감사연보로 햏아 그 전도햏는 일은 총회전도국에서 주장햏와 주시기를 청원햏자고 햏미 회중이 치용햏기로 동의햏야 가로 결당햏고⁷⁴⁹⁾

황해노회의 전도위원 김익두가 황해노회가 총회에 외국전도를 하되 청국(淸國) 중에 맡을 지경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청원한 것이다. 김익두가 외국전도를 하자고 보고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황해노회가 받은 은혜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이요, 세 번째로 예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것을 생각 하니 외국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총회에 외국전도 하기를 청원하자고 하며 그 외국으로 청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이 바로 중국이다. 황해노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성경공부였다.

황해도대리회가 제5회 독노회에 보고한 보고서⁷⁵⁰⁾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황해도대리회가 노회에 황해도대리회 내의 지교회의 상황을 보고할 때에 강조하는 것으로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린다는 점이고, 둘째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열심이었고, 성경공부를 하는 재미가 많아 성경공부를 더 부지런히 하기를 원하고 있고, 사경회를 통해서도 성경을 공부하는 재미가 매우 좋다고 하였다. 이렇게 황해노회의 교회의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 열심이라는 것이다. 황해노회가 제1회 총회에 보고를 하면서 다섯 번째 보고로 “장니스건將來事件은 남녀교우가 외국전도홀일을 경영흠”⁷⁵¹⁾이라고 하였다. 남녀교우가 외국전도할 일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였겠는가? 그것은 남녀교우들이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할 뜻을 깨달은 것이다. 황해노회 지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다가 성경공부의 재미를 느꼈다. 그래서 이들은 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했고, 그것은 사경회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사경회를 통해서도 성경을 공부하는 재미가 매우 좋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원두우(元杜尤, H. G. Underwood)는 ‘놀라운 역동성의 본토인 교회’라는

749) 『조선예수교장로회황히로회데이회회록』 (1912), 8.

750)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이회회록』 (1911), 51-53.

75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46.



글에서 초기 한국 교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성(marks)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 첫째로 한국의 신자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열정적이며, 둘째는 성경공부에 열정적일뿐만 아니라, 그런 열정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믿는 신자(a prayer-believing people)가 되도록 해서 기도에도 열심이였으며, 셋째는 한국 사람들은 아량이 넓은 사람들이며, 넷째로 독특하게도 이 땅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일꾼이 되려고 애쓴다고 하였다.⁷⁵²⁾ 원두우도 한국 교회의 첫 번째 특성으로 성경공부의 열정을 꼽았다. 이런 성경공부가 한국 교회가 선교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제1회 총회는 성경공부를 하다가 외국전도할 사명을 깨달은 황해도노회의 현의를 받아서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동 선교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다시 한국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성경공부의 회복이다. 부흥회(復興會)도 재미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경회(查經會)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는 데에 열심을 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마포삼열이 1910년 영국 스코트랜드 에딘버러(Edinburgh)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에서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런 성경 사경반의 영향력을 누가 바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한국 교회는 위대한 영적 축복을 받았고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아는 능력도 얻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고 또 물질적인 축복보다 훨씬 뛰어난 기독교의 영적 축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⁷⁵³⁾

오늘날 한국 교회는 초기 한국 교회처럼 그 무엇에 열심이어야 하는가를 바로 알고, 그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를 바로 깨닫고, 이제 그 무엇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경공부를 통해 받은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감사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인 것이다.

D. 협력 선교의 모델

752) H. G. Underwood, "Korea's Crisis Hour," 131-32; 이만열, 옥성득 편, 『언더우드 자료집』, III, 254-55; 서정민 편역, 『한국(韓國)과 언더우드』, 28, 47-48.

753) Samuel A. Moffett, “복음화 사역에서 현지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 328.



초기 선교사 파송 중에 특별히 산동 선교는 협력 선교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한국 교회는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의 파송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력 선교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한국 교회 총회는 한국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지를 결정하면서 한국에서 사역하는 미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인 한위렴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중국 산동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미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들의 도움을 구하였다. 또한 선교지 산동 노회에 박태로, 김찬성을 보내서 선교지 협의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 총회는 중국 산동 래양현에 선교지를 허락 받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이 일은 한국 교회가 일방적으로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사를 무조건 파송한 것이 아니라 피선교지 국가의 노회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선교사들과의 협의로 통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협력 선교의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면서 선교지 노회로 이명을 해서, 피선교지 노회에 속해서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는 협력 선교의 정신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물론 선교사들이 파송 된 다음 곧바로 중국 노회로 이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 이명을 결의하기까지의 그 과정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중국 노회에 이명을 시키겠다는 선교 원칙을 지키고 자국 선교사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선교지 노회와 협의를 통해서 중요 사안을 처리하였다.

1912년 제1회 총회는 “支那지나에 派送파송호는 宣教師선교사는 自由教會 자유교회를 設立설립호지 말고 該地그 자 長老會長로회와 聯合연합할 것”⁷⁵⁴⁾을 결정했다. 그리고 1913년 9월 7일에 회집된 제2회 총회에서 전도국위원이 선교사 이명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게 된다.

중화민국에 선교스를보니여 교회 세우는 주의를 그곳 로회에서도 알아야 죠할것시오 우리 총회전도국에서도 알아야 죠할것신고로 총회에 보고호야 총회에서 중화민국에 선교스를 보니여 교회 세우는 주의가 그 나라 로회에 속호게 호고 따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호것다는 주의가 합호여 혁락호시면 스무국에 맞게 중화민국 로회

75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1; 『조선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3), 25, 58-59; 郭安連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61; 방효원, “山東宣敎에 對하여,” 제68호, 15-17.



의게 이디로 편지헝기로 헝엿소으며⁷⁵⁵⁾

총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중국 노회에 속하도록 하기로 결의하였으나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곧바로 중국 노회에 이명한 것은 아니었다. 1915년 9월 4일에 회집된 제4회 총회의 전도국위원의 보고 중에 중국으로 파송한 한국 선교사의 청원이 들어 있다. 그것은 “증화민국 선교스의 청원헌 일은 임의 총회에서 증화민국 산동대회에 편지헌디로 증화민국 장로회 로회하에서 일을 보라면 이명증서가 잇서야 그곳 로회에도 참여헝고 일을 보기에 편리헝깃다 헝엿소오니 총회에서 결의 처분헝심을 청원헝오며”⁷⁵⁶⁾ 그러니까 산동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중국 노회로 이명해 달라고 하는 청원을 총회에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청원은 제4회 총회에서 결정하지 못했다. 총회 중에 전도국위원이 “증화민국에 파송헌 선교스의 이명에 관헌 요건 류안(留案)헝기로”⁷⁵⁷⁾ 보고하였다. 결국 한국 선교사들의 중국 노회 이명 건은 제5회 총회로 넘어가게 된다. 1916년 9월 2일에 회집된 제5회 총회에서 서기의 미결안(未決案)에 대한 보고서 중에 금회(今回)에서 결정할 전회(前回)의 미결 사건, 그 첫 번째가 증화민국 선교사 이명에 관한 사건(제4회 회록 제35쪽)이다.⁷⁵⁸⁾ 그런데 계속되는 제5회 총회 보고 중에 헌의위원이 ‘증화 산동독회에 서 선교스 제시를 이명헝라는 공함은 전도국위원에게 보낼 일’⁷⁵⁹⁾을 보고하게 된다. 헌의위원의 보고는 중국 산동독회가 한국 총회에다가 보낸 공함을 전도국위원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해(該) 총회 전도국은 중국 산동노회가 보낸 공함을 검토한 후에 “청원헝옵는 것슨 증화민국 선교스는 이명헝오나 그 로회에서 다스리는 경우와 위치 변경헝는서에는 조선총회 상관업시는 아니홀줄노 밋스옵는이다”⁷⁶⁰⁾라고 보고한 후에 이 사안이 정치위원으로 넘어간다. 정치위원이 선교사 이명건을 논의한 후에 총회에 내 놓은 보고를 완전보고(完全報告)로 받아 채용하면서 “산동(山東) 선교스의 이명 스건에 관헝야는 이명은 허락헝되 조선에 도라오면 조선목스로 인정헝는 요건을 붓치기로 결뎡”⁷⁶¹⁾하였다. 총회는 한국 선교사들의 이명을 허락하

75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25.

75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35.

757) 위의 책, 9.

75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10.

759) 위의 책, 21.

760) 위의 책, 30-31.

761) 위의 책, 43.



고, 그들이 훗날 중국 선교사역을 마치거나 하여 한국에 돌아올 때면 한국 목사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이명을 허락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중화민국 선교사 이명에 관한 사건은 지론하기로 동의 잊서 가결후 다시 의론”⁷⁶²⁾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를 중국 노회로 이명을 허락하되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한국 목사로 인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이명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재론동의(再論動議)가 들어온 것이다. 그러자 총회는 선교사 이명 건(件)을 다시 숙의(熟議)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최종 결정하기를 “중화민국 선교사 이명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숙의한 결과 이명은 허락하되 산둥(山東)에 있을 때에는 그 노회 회원이 되고 귀국할 때에는 구잠(久暫)을 불문하고 본 총회회원 된다는 요건을 부하기로 결정한다.”⁷⁶³⁾ 선교사 이명 건에 대한 총회의 최종 결정은 선교사의 사역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잠시 잠깐 동안 사역해서 그 기간이 짧은 것은 따지지 말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한국 교회 총회회원이 된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13년 제2회 총회가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세 사람을 중국 산둥으로 파송을 할 때에 “총회에서 중화민국에 선교사를 보내며 교회 세우는 주의가 그 나라 노회에 속하게 하고 따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것다는 주의가 합하여 허락하시면 스무국에 맞게 중화민국 노회의게 이디로 편지하기로 하였으며”⁷⁶⁴⁾라고 결의하였던 그 결의대로 3년이 지난 1916년 9월 2일에 회집된 제5회 총회⁷⁶⁵⁾에서 선교사 이명에 관한 최종 결의로 이명문제는 매듭을 짓게 된다. 이런 일련의 결정 과정에 중요한 변수(變數)로 등장한 것이 산동독회가 보낸 공함이었다.

한국 교회는 중국 노회가 보낸 선교사 이명에 관한 공문으로 재론동의(再論動議)를 하면서까지 숙의를 거쳐서 총회가 선교사를 산둥으로 파송하면서 중국 노회로 이명시키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또 한국 선교사의 권징(勸懲) 문제에 대한 보안 장치를 강구하고, 또 이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신상(身上)에 대한 보호 조건을 결의해서 선교사를 지원하였던 것이다. 한국 총회는 이 일을 중국 노회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를 거쳐서 은혜롭고, 지혜롭게 처리하였다. 물론 선교사

762) 위의 책, 45.

763) 위의 책, 45-46.

76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25.

76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1.



가 파송된 다음 곧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정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요즈음의 한국 교회도 선교사의 소속 문제는 파송지 교회와 노회, 교단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혜롭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선교사가 어느 곳이든지 선교사로 파송된 곳에서 영구적으로 온정주의(溫情主義)적인 관계를 맺고 지내서는 안 될 일이다. 결국에는 한국 선교사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때가 될 때에 그곳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양육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한국 교회는 산동 선교비를 마련할 때에 전국의 각 교회가 모두 다 연합해서 감사일을 지키고, 감사일에 헌금한 것을 총회 전도국으로 보내서 산동선교비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고, 협력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선교를 오직 개 교회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혹은 지 교회들이 연합하고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좋은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은 오늘날의 협력 선교의 좋은 모델이 된다.



VI. 결론

박상순(朴尙純)은 『神學指南』 1935년 11월호에 “山東宣敎의 過去와 現在”라는 제목의 기고문(寄稿文)에서 1913년 9월 산동선교의 시작부터 1934년 9월까지의 산동선교의 연혁(沿革)을 소개하고 있다.⁷⁶⁶⁾ 그 중에서 일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一九一三年 九月에 朝鮮總會가 中國山東에 宣敎師派送하기로 決議하다 2. 一九一三年 十一月에 被擇된 宣敎師 朴泰魯, 金永勳, 史秉淳 三牧師와 그의 家族들이 中國 山東省 萊陽縣에 倒着하여 西門內 中國人 家屋에 賃得하여 居住하며 中國語를 學習하다. 3. 一九一六年 四月에 中國 男女 三人에게 洗禮를 施하다. 4. 一九一六年 五月에 朴泰魯牧師 身病을 因하여 家族을 帶同하고 回國하다. 5. 一九一七年 四月에 宣敎師 金永勳⁷⁶⁷⁾, 史秉淳 兩氏 其職을 辭하고 家族을 帶同하고 回國하다. 6. 一九一七年 五月에 傳道局의 臨時派送 받은 方孝元氏와 宣敎師 朴泰魯氏가 同伴하여 萊陽에 倒着하다. 7. 一九一七年 六月에 宣敎師 朴泰魯氏가 病重하여 萊陽서 떠나 回國하다. 8. 一九一七年 六月에 傳道局의 派送받은 助事 金炳奎氏가 萊陽에 倒着하여 宣敎事業을 協助하다. 9. 一九一七年 十月에⁷⁶⁸⁾ 宣敎師 朴泰魯氏가 黃海道 沙里院 自宅에서 別世하다. 10. 一九一七年 十月에 回國하였던 方孝元氏와 새로 被擇된 洪承漢 兩宣敎師와 家族들이 中國 山東 萊陽縣에 倒着하고 三年間 語學을 學習하다.⁷⁶⁹⁾

1912년 제1회 총회에서 외국전도의 뜻을 세우고 지나등지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드디어 1913년 제2회 총회에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세 사람을 중국 산동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시작된 산동선교는 박태로가 신병으로 돌아오

766) 朴尙純, “山東宣敎의 過去와 現在,” 27-30.

767) 박상순은 김영훈(金永勳)의 한자(漢字) 이름을 김영훈(金永勳)으로 쓰고 있다. 이때 훈(勳)은 훈(勳)의 고자(古字)로서 ‘공’이라는 같은 뜻의 한자(漢字)이다(필자의 주).

768) 박상순(朴尙純)은 박태로가 1917년 10월에 별세한 것으로 말했지만 잘못이다. 1918년 8월 31일에 회집된 제7회 총회 중에 “박태로목수가 병환이 위중함 중에 잇스즉 서기로 위문편지하기를 결정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七회 회록』 (1918), 31]. 박태로는 1918년 9월 6일에 별세한 것이 맞을 것이다. 1918년 9월 25일자 『基督申報』에는 “박태로씨 안면”이라는 기사에서 “조선총회를 대표하여 중국 산동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던 박태로 목수는 九月 六일에 황해도 봉산 사리원 본당에서 안면하셨더라”고 정확한 날자가 나왔다 [“박태로씨 안면,” 『基督申報』, 1918. 9. 25].

769) 朴尙純, “山東宣敎의 過去와 現在,” 27.



고,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가 회국(回國)함으로 산동선교는 일대 위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박태로 선교사의 별세로 산동선교는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들을 이어 방효원, 홍승한이 또 다시 중국 산동으로 떠나면서 선교의 역사(役事)는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계속된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에 관한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요약

1907년 9월 17일에 제1회 독노회가 설립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목사를 안수할 수 있는 치리회의 조직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노회가 있어야 한국 목사를 세울 수 있었고, 한국 목사가 있어야 명실상부하게 한국 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한국 교회는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할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한국 목사가 장립이 되었다고 한국 교회를 한국 목사들이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기풍이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제주로 파송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자력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사건이다. 이런 이기풍의 제주 선교사 파송은 노회를 설립하게 되는 기쁨의 표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물이었다. 이기풍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음의 빛진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과 같았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청원하게 된 것이다. 이기풍이 제주 선교사로 자원하였느냐, 아니면 지명되었느냐,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이기풍이 제주 선교사로 결정되었느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 그 모든 주장을 살펴보면 그 어느 하나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그 모든 주장들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총회 전도국의 그 누구의 추천이나,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지명하였는지 이기풍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그 결과 제1회 독노회는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때에 한국 교회는 온 교회가 합심하여 제주로 파송되는 이기풍 선교사와 이기풍과 함께 떠나는 전도인들 한 두 명의 후원을 한국 교회의 전체의 힘으로 감당하게 된다. 각 교회가 연보하여서 제주 선교를 후원하게 되는 이 일로 한국 교회는 하나가 되고, 이 일은 그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이 한국 교회 전체의 자립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



을 말해준다. 한국 교회는 제1회 독노회의 설립을 기념하고 제주 선교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립하는 교회가 된 것이다. 이 정신은 곧 5년 뒤에 제1회 총회가 설립되면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정신은 1913년에 중국 산둥으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파송할 때에도 똑 같이 적용이 되었다.

한국 교회의 산둥 선교는 1912년 제1회 총회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07년에 제1회 독노회가 조직되고 5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한국 교회가 제1회 총회를 설립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만큼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 5년 내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갔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도 은혜롭게 성장하고 성숙해져갔다. 그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해갔다. 이런 한국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로서의 선언이 바로 산둥 선교이다. 산둥 선교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제1회 독노회 시절보다도 더욱 자립할 수 있고, 자립하였고, 자립하여 나갈 수 있다는 한국 교회의 자립 선언이다.

한국 교회가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총회 창립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면서 중국 선교를 청원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한국 교회가 중국에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빛을 갚는 심정으로 세 사람의 가정을 중국 산둥으로 파송하게 된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 일을 한국에서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와 중국 노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역지를 선정하고 또 중국 산둥에 가서는 중국 노회로 이명하여 중국 교회에 속하여 선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특별히 이렇게 중국 산둥으로 파송하는 선교사 세 사람은 그 당시 한국 교회 내에서 유능한 인물들이었다. 이런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같았고, 또 이들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한국 교회를 중국 땅과 만방에 한국 교회의 역량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다. 한국 교회는 중국 산둥노회와의 이명에 관한 공함을 두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때에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노회에 속하도록 완전 이명 할 뿐 아니라,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 총회에 속하도록 하는 배려 속에서 지혜롭게 처리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으로도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자립정신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산둥 선



교비의 모금이다.

총회 전도국은 제1회 총회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비 모금 계획을 보고하고 전국 교회에 청원하게 되는 데 그것은 일 년에 하루를 감사일로 정하고 그 날에 맞추어 전국의 각 교회들이 헌금해서 총회 전도국으로 보내 산동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는 선교사 최초의 도선일(渡鮮日)을 감사일로 정하고 산동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도록 결의하게 된다. 또 한국 교회는 총회의 결의를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비 마련을 위한 헌금을 하였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헌금한다. 이 일은 선교가 곧 한국 교회의 자립의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진정한 교회의 자립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교회 스스로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진정한 교회의 자립은 교회가 선교를 실시할 때에 그제야 그 교회는 자립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 자립의 선언이다. 한국 교회가 산동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한국 교회 전체의 자립의 선언이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고 보는 중국 산동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은 세 가정이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이다. 그런 희생의 결과는 산동 선교 자체의 파송의 결과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선교의 초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B. 제언

한국 교회가 1907년 9월 17일에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1912년 9월 1일에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결의하고, 드디어 1913년 9월 7일에 회집된 제2회 총회에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산동 선교사로 파송한 일은 역사에 남을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일은 만 천하에 한국 교회의 자립을 선언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提言)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 교회의 선교신학이 담긴 이 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선교 전략과 선교 방법과 선교 원칙과 선교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선교 지침이 따로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에 아쉬움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가 선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선교 지침이 없었다는 점이다. 제1회 독노회가 제주로 파송한 이기풍 선교사와 전도인들은 일일이 가정을 찾아가거나 거리에나 집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방법으로 선교하였다. 산동 선교사로 파송 받은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의 총회 보고나 그들의 서신 속에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정해진 그 어떤 선교 방법을 찾기는 힘들다. 그래도 초기 선교사 세 명에 이어서 산동으로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이 산동에서 어떻게 전도하였는가는 그들의 보고나 서신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1922년에 중국 산동으로 파송된 이대영의 글에서 그가 어떻게 선교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1927년 7월에 『基督申報』가 이대영이 경북노회 시(時)에 보낸 서신을 편집하여 올린 “山東宣敎의 福音”이라는 글에서 그가 전도하는 방법과 음과 같이 소개한다.

전도하는 방법은 매일 새벽기도회를 흔히 오전十一시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十一시부터 나가서 전도하는데 먼저 그 동리동장을 교섭하여 장막칠장소를 덩하고 전도할새에 보호하여달라고 부탁한후 찬미와 기도로 개회하고 축음기나 혹은 찬미녀학성의 창가등으로 군중을 회집하여 전도강연을 하고 밤에는 환등을하면서 강연하였는디 이러케 하여 환영을 받은 곳도 있고 핍박을 당한 곳도 잇섯습니다⁷⁷⁰⁾

그 외에 좀 더 구체적인 선교 방법이나 선교전략 등에 관한 지침이 따로 없었다. 물론 그 당시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 이제는 한국 교회의 그 어떤 선교 전략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특별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교단의 선교신학에 근거한 선교전략적 지침의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제주와 산동 선교의 또 하나 아쉬움은 선교사 선정과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면서 그 어떤 선교훈련이나 교육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파송지에 대한 이해와 그 문화와 풍습에 대한 정

770) 이대영, “山東宣敎의 福音,” 『基督申報』, 1927. 7. 27.



보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현지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선교사로 파송 받아 해외로 나갈 것을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교사로 선정되어 산동으로 파송 받았던 사병순이나 김영훈과 같은 이들은 그 고통이 더 컸을 것이다. 그래도 이들은 총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선교사로 중국 산동에 가서 어려운 생활을 잘 견디어 내었다. 중국 산동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방지일은 한국 교회가 1913년에 선정한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세 목사를 중국 산동으로 파송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를

그 당시 생활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인접국이요 같은 황인종이라도 실생활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 지방은 쌀이란 것은 알지도 못한다. 쌀 생산은 전연 없는 곳이라 세 식구가 있는데 먹을 쌀은 없고 상식이 밀가루뿐이라 우리의 식성에는 맞지 않는 고로 이들은 소미(좁쌀)로 밥을 지어 먹고 살려니 그 생활의 고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온갖 불편을 겪으며 살다보니 몸도 약하여지고 박태로 목사는 병이 들었고 다른 이들도 더 견디지 못하게 됨으로 그 사정을 본 총회에 보고함 없이 선교지를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내가 산동에 갔을 때 그 분들이 공책 일기장에 써놓은 것을 보았다. 그 상황들을 도저히 못 견디고 부득이 떠나게 됨을 적어놓았는데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 (그 일기장을 보관하여 오다가 중국에서 회국할 때 나의 이삿짐 중 여러 상자가 분실되어 그 귀한 선교자료들을 다 잃어버렸다.)⁷⁷¹⁾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의 또 하나의 아쉬움은 한국 교회가 산동 선교를 지원할 때에 박치록의 재정 사고가 있었다. 박치록이 제1회 독노회 때부터 전도국의 회계를 맡았고, 제1회 총회가 설립될 때에도 총회 전도국의 회계를 맡다가 제4회 총회에서 사면되고 이일영으로 교체되기까지 계속해서 전도국 회계를 맡았다. 박치록이 범용(犯用)한 재정은 박치록의 전답으로 받고 박치록은 전도국 회계를 사임하는 선에서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선교비를 모금하고, 집행하고, 후원하는 일에 이런 위험은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다. 따라서 선교비 사용의 투명성과 그 관리의 정확성을 위해서 총회 차원, 후원하는 교회나 노회, 또 이 일을 집행하는 담당자나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나 그 모두가 정직하게 사용하고 그 사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할 때에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서 가급적

771) 방지일, “영으로 주신 복음, 영으로 같이 받는 역사(役事),” 33.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빨리 현지에 적응하여 선교할 수 있는 훈련, 교육 그리고 이들의 복지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초기 한국 교회 총회는 1918년 제7회 총회 때에 최종으로 총회 전도국 규칙과 세칙⁷⁷²⁾을 마련했다. 그러나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 가서 어떻게 선교하라고 하는 선교 지침은 아니었다. 이것은 선교사의 복무규정에 관한 내용들과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역 지침으로 새길 만한 것들이 있기는 하다. 그 일례로 “第十條 宣教師가 傳道次로 巡行할 때에는 食費는 半額車馬費는 實費로 支拂하고 行李品과 衣服을 自擔함이 可함”⁷⁷³⁾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한국 교회의 선교사는 이런 선교 신학을 가지고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선교 신학이 담긴 선교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초기 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이 마련한 ‘네비우스 선교전략’과 같은 한국 교회의 선교신학이 담긴 구체적인 선교 지침이 따로 있어야 하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세계선교부는 세계선교 운영규정⁷⁷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선교부 내규와 선교사 복무규정, 시행세칙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여 2013년 9월 12일 제98회 총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선교 운영규정은 모두 9장, 166조로 되어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 행정적인 사항들이다. 선교사의 인선과 교육, 훈련 등과 선교사의 복무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세계선교부는 통합측 선교신학이 담긴 다양한 선교방법과 선교지침과 선교원칙과 선교의 목적에 대한 하나의 지침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제정한 세계선교주일의 날자 변경의 검토를 제언한다.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매년 2월 셋째 주일을 세계선교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다. 2015년 올해는 지난 2월 15일(주일)을 세계선교주일로 지켰다.⁷⁷⁵⁾ 총회가 매년 2월 셋째 주일을 세계선교주일로 정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총회가 일 년 중 한 주일을 세계선교주일로 정할 때에 다른 많

77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七회 회록』 (1918), 68-77.

773) 위의 책, 76.

774)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세계선교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다
[http://www.pckwm.org/News/NoticeView.asp?TD_Board=1628&ArticleId=13&page=1] .

775)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세계선교부 홈페이지
[http://www.pckwm.org/News/NoticeView.asp?TD_Board=1747&ArticleId=13&page=1]



은 총회 제정 주일을 피하고 비어있는 이 날을 총회제정 세계선교주일로 정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이었던 제주 선교와 특별히 산동 선교의 그 시작을 살펴보면 세계선교주일을 그렇게 정하고 매년 2월 셋째 주일로 지킬 일이 아니다. 물론 일 년 중 한 날을 정해서 교회의 선교의식을 고취하고, 선교에 참여토록 세계선교주일을 지키면 그것으로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초기 선교사의 파송을 어떻게 추진하였는가를 알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제1회 총회는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청원하면서 그 선교비 마련에 대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총회에 청원하였다.

총회에서 一年중의 한 주일을 특별히 淸定하여 각 교회에 命令하고 전도국을 위하여 레비보게 하고 그 주일의는 전도 뜻으로 강도하고 외국전도를 뜻으로 기도하고 그 주일에 특별히 힘써 연보도 하고 그 날은 감사일로 淸定하고 각 교회의 인도하는 이들이 그 전주일의 예비로 힘있게 광고할 일임고⁷⁷⁶⁾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일 년에 한 날을 감사일로 정하고 이날 산동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서 전도국으로 보내 선교비로 사용케 하였다. 그렇게 감사일을 정했는데 그 날은 선교사 최초의 도선일(渡鮮日)이었다. 1914년 9월 6일에 회집된 제3회 총회에서 규칙위원회는 감사일은 선교사 최초 도선일(양력11월 제 세 번째 주일 후 수요일)로 정한다고 보고하였다.⁷⁷⁷⁾ 1917년 제6회 총회 부록에 첨부된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규칙(朝鮮耶穌教長老會總會規則) 제2조 1항 5호 전도국위원회에 대한 규칙 다섯 번째 목록은 감사일은 선교사 최초 도선일(양력11월 제3회 주일 후 삼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⁷⁷⁸⁾ 이렇게 초기 한국 교회는 일 년의 한 번 감사일을 선교주일로 지켰다. 선교사 최초 도선일로 정한 것이다. 이 날이 양력으로 11월 세 번째 주일 후(後) 수요일이었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1913년 11월 19일이다.⁷⁷⁹⁾ 그러다가 한국 교회는 1921년 제10회 총회에 가서 장감연합협의부(長監聯合協議部)가 감사일은 양력으로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로 정하고 양 교파가 동일하게 지키기로 하였다고 보고한다.⁷⁸⁰⁾

77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21.

77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삼회 회록』 (1914), 29.

77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77.

779) 삼성 갤럭시 노트2 S플래너 만년 달력으로 확인(필자의 주).

78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십회 회록』 (1921), 85.



초기 한국 교회가 정한 감사일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제정한 세계선교주일과 다르지 않다. 초기 한국 교회는 선교사의 최초의 도선일을 감사일로 정해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설교하고, 헌금해서 선교하는 일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제1회 총회가 일 년의 한 날을 감사일로 정해서 헌금해서 선교비를 마련한 것은 알지만 그 감사일이 선교사 최초 도선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한다. 또 초기 한국 교회 총회가 선교사의 도선일을 감사일로 제정한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하고, 되새기지도 않고 있다. 이는 바로 잡아야 할 사실이다.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이 한국 교회의 자립 선언이라는 점이다.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 헌금과 선교사는 한국 사람이 한국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다. 이제 우리는 그 정신과 뜻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제정한 세계선교주일은 매년 2월 셋째주일에서 최초의 산동 선교사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이 총회 앞에서 지면례로 인사하고 선교사 파송이 공식화 된 9월 9일로 지키거나, 혹은 이들이 한국을 떠난 9월 하순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이들이 중국 산동에 도착한 11월의 어느 한 주를 세계선교주일로 지킬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변경한 세계선교주일에 한국 교회는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의 자립 선교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는 그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모두 참여하여 선교비를 마련하고 후원한 자립 선교였다. 이것은 선교의 자립을 이룬 것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 파송은 한국 교회의 자립 선언이었다. 이런 자립정신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선교사 파송에 반드시 이어져야 할 유산이다. 선교가 교회의 자립 선언인 줄 알고 교회는 선교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선교사는 선교가 교회의 자립 선언인 것을 기억하고 선교 현지에서도 선교지 교회의 자립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선교지의 교회가 또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게 될 때에 선교지의 교회도 진정한 자립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에서 파송되는 수많은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교회들을 속히 자립을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동양서적

- 郭安連. 『長老教會史典彙集』. 京城: 朝鮮耶穌教書會, 1918.
- 國史編纂委員會.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6. 中國地域獨立運動 裁判記錄 IV.
- 金良善. 『韓國基督教史研究』. 서울: 기독교문사, 1971.
- 길진경. 『길선주』. 서울: 두란노서원, 2007.
- _____. 『靈溪 吉善宙』. 서울: 종로서적, 1980.
- _____. 『靈溪吉善宙牧師著作集』.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 김광수. 『한국민족기독교백년사』. 서울:기독교교문사, 1978.
- 김교철. 『한국선교100년과 김영훈』. 서울: 도서출판 치유시대, 2013.
- 김수진 외 3인. 『장로교 최초 목사 7인 리더십』. 서울: 쿰란출판사, 2010.
- 김승태, 박혜진. 『내한 선교사 총람(1884~1984)』.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 김양선. 『韓國基督教史研究』. 서울: 기독교교문사, 1980.
- 김인수. 『레널즈(W. D. Reynolds)가 한국장로교 선교 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끼친 영향 연구』. 서울: 전국신학대학협의회.한들출판사, 2012.
- 大韓 예수教長老會總會 宗教教育部. 『宣敎七十週年記念 說敎集 역대총회장 설교』. 1955.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역사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 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민경배. 『韓國基督教會史』.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2.
- _____.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1999.
- 박성겸. 『황해노회100회사 (1911.12.8-1971.4.16)』. 서울: 은성문화사, 1971.
- 박용규, 이은선. 『총회100년 한국장로교회 회고와 전망』.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4.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방지일, 사단법인 방지일목사기념사업회 엮음. 『중국 선교를 회고하며-방지일 목사 산동 선교 사진집』. 서울: 흥성사, 2011.
- _____. 『복음역사반백년』. 광주: 반도문화사, 1986.
- _____. 『야사(野史)도 정사(正史)로』. 서울: 선교문화사, 2001.
- 배안호. 『한국교회와 자립선교』.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 白樂濬. 『韓國改新敎史 1832-1910』.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93.
- 백정성. 『한국 교회의 초기 산동성 선교』. 서울: 동서선교연구개발원, 2012.
- 서정민. 『한국(韓國)과 언더우드』.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유홍렬. 『천주교회사』, 하권. 서울: 분도출판사, 1962.
- 이만열, 옥성득. 『언더우드 자료집』, III.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이사례. 『순교보』. 서울: 기독교문사, 1991.
- _____.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 서울: 기독교문사, 2003.
- 이상근. 『대구 제일교회 90년사』. 대구: 대구중외출판사, 1983.
- 이은자. 『의화단운동 전후의 산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 李贊英. 『韓國基督教會史總覽』. 서울: 圖書出版 所望社, 1994.
- 장로회신학대학. 『長老會神學大學七〇年史』. 서울: 성광인쇄사, 1971.
- 정석기. 『위대한 선교사열전』. 서울: 쿤란출판사, 2002.
- 中華續行委辦會 編. 『中華基督教會年鑑』, 第5期. 上海: 上海廣學書局, 1918.
-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 기독교 100년사 (1908~2008)』. 서울: 쿤란출판사, 2009.
-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경성: 조선기독교창문사, 1928.
- 蔡弼近. 『韓國基督教開拓者 韓錫晉과 그 時代』. 서울: 光明印刷公社, 1971.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 _____.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8.



황재범 외 6인. 『초기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2. 서양서적

Brown, George Thompson. *Mission to Korea*.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62.

Clark, Allen D.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1.

Clark, Charles Allen.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7.

Craighead, James R. E. *Hunter Corbett : Fifty-six years Missionary in China*. New York: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21.

Hodgkin, Henry T. *China Mission Year Book 1925*. Shanghai: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25.

Rhodes, Harry A.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ume1 1884-1934*.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84.

Ro, Bong Rin., and Marlin L. Nelson.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Centennial of the Protestant Church(1884-1984)*. Taichung, Taiwan: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1983.

Shearer, Roy E.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Underwood, Horace G.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3. 번역서적

Clark, Charles Allen.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 in Korea*. 박용규, 김춘섭 역.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Nisbet, Anabel Major. *Day In and Day Out in Korea*. 한인수 역. 『호남 선교 초기 역사(1892-1919)』. 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8.
- Brown, George Thompson. *Mission to Korea*. 천사무엘. 김근태. 오승재 역. 『한국 선교 이야기-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역사(1892~1962)』.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0.
- Rhodes, Harry A.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최재건 역.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 Underwood, H. G. *The Call of Korea*. 한동수 역. 『와서 우릴 도우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4. 논문(논문집, 잡지)

- 김교철. “한국장로교회의 초기3인의 선교사-박태로, 사병순, 김영훈목사.” 『한국선교KMQ』 Vol.9 No.2 통권32호 (2009 겨울).
- 김영동. “한국 교회의 선교: 선교 초기부터 6.25 이전까지.” 『선교와 신학』 제19집(2007, 봄).
- _____. “한국교회 산동선교의 의의: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산동선교 100주년의 교훈과 제언』.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2.
- 김요한. “초기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중국연구』 1993. 2. 24.
- 朴尙純. “山東宣敎의 過去와 現在.” 『神學指南』 第十七卷 第六號(1935. 11).
- 방지일. “영으로 주신 복음, 영으로 같이 받는 역사(役事).”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산동선교 100주년의 교훈과 제언』.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2.
- 방효원. “山東宣敎에 對하여.” 『계자씨』 제65호(1937.1).
- _____. “山東宣敎에 對하여.” 『계자씨』 제66호(1937.2).
- _____. “山東宣敎에 對하여.” 『계자씨』 제68호(1937.4).



- 변창욱.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 『선교와 신학』 제19집(2007, 봄).
- _____. “한국 교회의 자립 선교 전통과 비자립적 선교 형태: 자립적 선교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모색하며.” 『선교와 신학』 제27집(2011, 봄).
- _____. “한국교회 선교역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한국 교회와 세계선교』.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4.
- 안교성. “한국교회 선교의 기원에 관한 소고: 제주 선교와 이기풍 선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선교KMQ』 Vol.9 No.1 통권31호(2009, 가을).
- _____. “한국교회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 산동선교의 역사적 의의.” 『한국 선교KMQ』 Vol.9 No.2 통권32호(2009, 겨울).
- 윤경로. “1910년대 한국 및 교회의 상황과 산동선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산동선교 100주년의 교훈과 제언』.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2.
- 최재건. “한국장로교회의 산동선교와 최초 해외선교의 상황과 의의.”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산동선교 100주년의 교훈과 제언』.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2.
- 洪承漢. “中國山東省萊陽宣教消息.” 『神學指南』 第三卷 第二號(1920. 7).
- Blair, H. E.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 Korea Mission Field* 13. 1917. 11.
- Blair, W. N. "Mission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The Korea Mission Field* 11. 1915. 7.
- Clark, C. A. "The Missionary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The Korea Mission Field* 30. 1934. 8.
- Hunt, Bruce F. "A 'Second Generationer' Interviews His Dad." *The Korea Mission Field* 26. 1930. 8.
- Hunt, Wm. B. "The Relation of Self-Propagation, Self-Support, and Self-Government to One another and to Evangelism." *The Korea Mission Field* 11. 1916. 8.
- Kerr, W. C.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 Church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1. 1915. 11.
- _____. "Abstract of the Address of the Korean Missionary to Shantung." *The Korea Mission Field* 7. 1916. 3.
- Kim, Kiu Sik. "The Erection of the First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8. 1912. 11.
- Martin, Julia. "Three Pictures." *The Korea Mission Field* 7. 1911. 6.
- Moffett, Samuel A. "Early Days." *The Korea Mission Field* 32. 1936. 4.
- _____. "The Place of the Native Church in the Work of Evangelization." *Union Seminary Magazine*. Vol. XXII (October-November, 1910) No. 1; 『선교와 신학』 제25집(2010. 봄).
- Reynolds, W. D. "The Presbytery of Korea." *The Mission Field* 3. 1907. 11.
- Swinehart, Lois Hawks. "The Foreign Mission of a Foreign Mission." *The Korea Mission Field* 26. 1930. 4.
- Underwood, H. G. "Principles of Self-Support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4. 1908. 6.
- _____. "Korea's Crisis Hour." *The Korea Mission Field* 4. 1908. 9.
- Whittemore, Norman C. "The Missionary Work of North Pyeng An Presbytery." *The Korea Mission Field* 11. 1915. 7.

5. 학위논문

- Lee, Jong Hyeong. "Samuel Austin Moffett: His Life and Work in the Develop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890-1936."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1983.
- Kim, Hwal young. "Mission to 'SAMARIA': A History of Chin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1912-1959)." Unpublished Th.M. thesis,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Mississippi, 1993.

_____. "From Asia to Asia: A History of Cross-cultural Missionary Work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Hapdong), 1959-1992." Unpublished D.Miss. dissertatio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Mississippi, 1993.

Kim, Chang Young. "The Contributions of the North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s to the Missionary Movement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890-1939: A Historical Study." Unpublished D.Miss. dissertatio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Mississippi, 1997.

김성환. “주 조선 미국장로교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사역에 끼친 영향.”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2008.

문백란. “한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한국인식과 선교활동.”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김재오. “宣教師 方孝元家の 中國 山東省 宣教에 關한 研究-副題: 方孝元, 洪承漢, 方之日 宣教師의 生涯와 神學思想을 中心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6.

6. 신문

“기도모범.” 『예수교회보』, 1913. 7. 1.

“사설.” 『예수교회보』, 1913. 7. 1.

“작별후문.” 『예수교회보』, 1913. 7. 15.

“총회전도국.” 『基督申報』, 1916. 6. 21.

“장로회총회.” 『基督申報』, 1917. 7. 18.

“박태로씨 안면.” 『基督申報』, 1918. 9. 25.

金永勳. “山東宣教異議에 對하야.” 『基督申報』, 1927. 7. 27

김교철. “한국교회 해외선교행전 15.” 『인천기독교신문』, 2008. 12. 7.



- 李一永. “中國山東旅行記.” 『基督申報』, 1916. 8. 23.
 _____. “中國山東旅行記.” 『基督申報』, 1916. 9. 6.
 _____. “中國山東旅行記.” 『基督申報』, 1916. 9. 13.
 洪承漢. “中國山東省萊陽宣敎消息.” 『基督申報』, 1920. 7. 14.
 _____. “中國山東省萊陽宣敎消息.” 『基督申報』, 1920. 7. 21.

7. 회의록

-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일회회록』 (1907).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이회회록』 (1908).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삼회회록』 (1909).
 『예수교장로회조선로회데스회회록』 (1910).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데오회회록』 (1911).
 『조선예수교장로회황히로회데일회회록』 (1911).
 『조선예수교장로회황히로회데이회회록』 (191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일회 회록』 (191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이회 회록』 (191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삼회 회록』 (191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스회 회록』 (191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오회 회록』 (191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육회 회록』 (191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七회 회록』 (191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八회 회록』 (1919).
 『조선 예수교장로회 남부총회 회의록』 (1946).
 『朝鮮耶穌敎長老會總會 第三十一回 會議錄』 (194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三十三회 회의록』 (194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九회 회록』 (192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데十회 회록』 (192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三十六회 회의록』 (195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三十七회 회의록』 (1952).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8회 총회 회의록』 (1993).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총회 회의록』 (201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총회 찰요』 (2014).

『제91회 서울동노회 회의안』 (2014).

Minutes and Reports of The Twenty-Third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1907).

Minute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1907).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PCUSA, 1905.

8. 기타(서신, 보고, 사전, 인터넷)

Hunt, Wm. B.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Chairyung Station." 1913.5.18.

Swallen, W. L. "Personal Report 1912-1913." in *Record of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U.S.A.*

民衆書館, 『漢韓大字典』 (1979).

<http://ykdch.org/ytboard/view.php?id=photo&no=229>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9j256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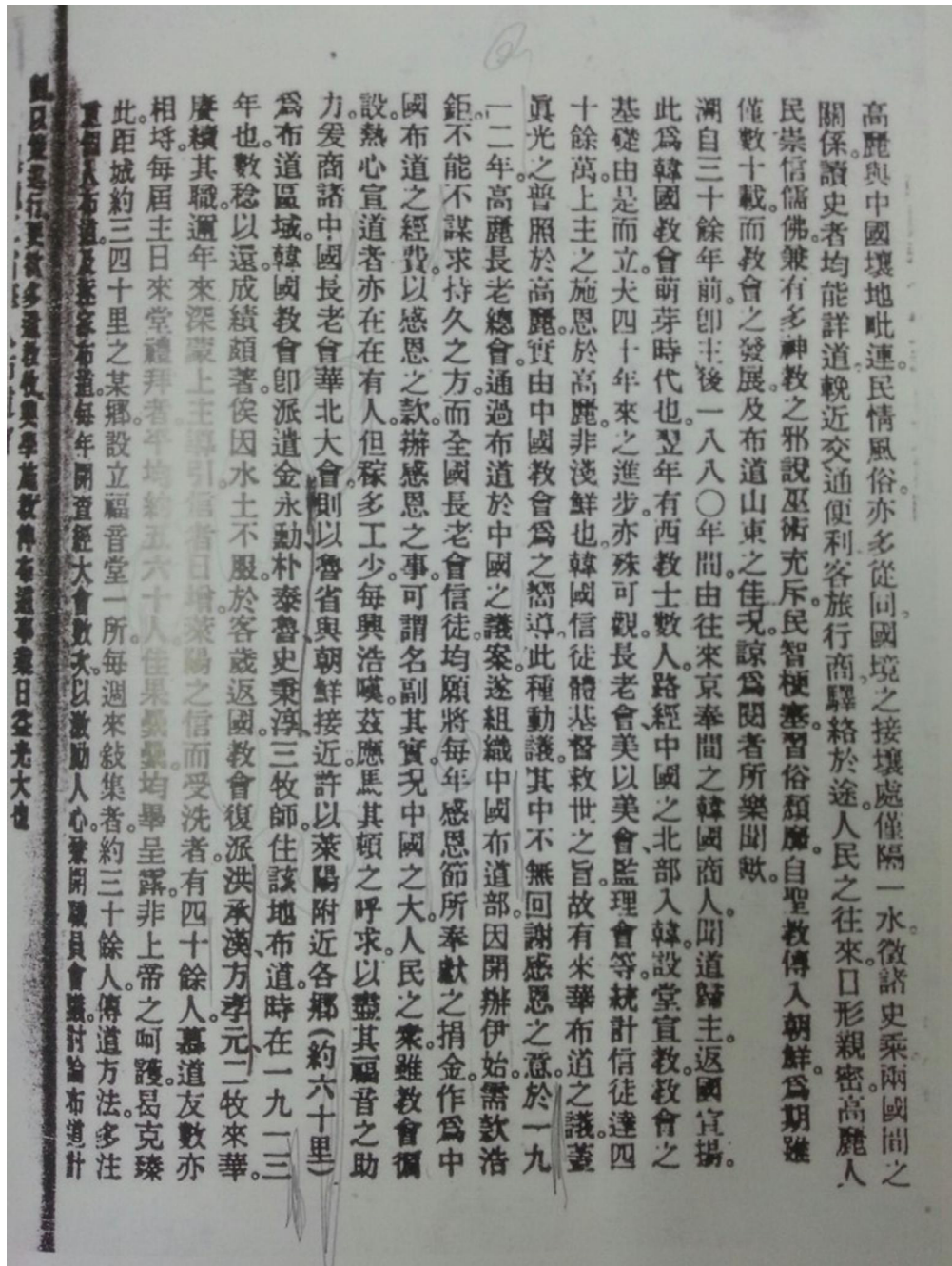
http://www.c3tv.com/newsmission/news_view.asp?seq=5659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1s1167a>

http://www.pckwm.org/News/NoticeView.asp?TD_Board=1628&ArticleId=13&page=1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40743&q=%EC%A7%80%EB%82%98>





상해에서 발행한 『中華基督教會年鑑』에 기재된 조선 선교에 관한 기록

[中華續行委辦會 編, 『中華基督教會年鑑』, 第5期 (上海: 上海廣學書局, 1918), 82;

방지일, 사단법인 방지일목사기념사업회 엮음, 『중국 선교를 회고하며-방지일 목사 산동 선교 사진집』 (서울: 흥성사, 2011), 147] .



별지 제 二 호

朝鮮長老會總會傳道事務局李君一永道安接來大扎祇悉一切貴總會所派之三位教士來敝會境內布道且欲遷名于敝會會友無不竭力歡迎不料貴總會因而帳鬱一果系遷來則於貴總會無干二恐捐補退縮伏思美國諸教士來敝國布道該教士名目雖遷敝會冊內而內容仍屬美國布道會(或名差會)布道會屬于總會故美國教士名在敝國督會實系與美國差會及總會不絕關係故美國之捐款源源不絕貴總會遣人來敝國布道宗旨目的諒與美國相似三教士雖遷名于本督會實仍屬貴國總會斷不能因遷名即與貴總會斷絕關係既與貴總會仍舊有關而捐補即當仍舊再三思之三教士不遷名于本督會多有碍難之處祈貴總會酌奪賜教是幸

山東督會正史

伊維廉

董文珍

鞠躬



1916년 제5회 총회 전도국
연보(捐補) 양년(兩年) 수입(收入) 비교표(比較表)
(1914년 5월 ~ 1915년 4월까지, 1915년 5월 ~ 1916년 4월까지)

별 지 데 六 호
捐補兩年收入比較表

1914年五月至1915年四月 1915年五月至1916年四月

平安北道	423,674	751,560
平安南道	398,830	816,755
黃海道	329,045	442,315
京畿忠清道	310,665	192,670
慶尙南北道	546,904	399,470
全羅南北道	95,590	23,370
咸鏡南北道	65,100	326,977
合計	2169,208	2953,107

1916年五月至1917年四月預算

宣教師月給	1685,00
子女金	324,00
語學先生月給	300,00
使喚月給	84,00
傳道費金	200,00
家屋賃金	350,00
舍廊費金	30,00
修理費金	100,00
特別費金	300,00
傳道局費	50,00
事務局費	50,00
合計	3473,00
昨年預算	2538,00

예수교장로회총회예오회회록

九十二



총회 전도국 회계 이일영 보고
1915년 5월 1일 ~ 1916년 4월 말일

예수교장로회총회대오회회록

九十三

별 지 데 七 호
總會傳道局會計李一永報告

1915年五月一日至1916年四月末日

작년회계에넘어온돈	860,045	
1915年五月一日	々지각교회연보	4502,217
1916年四月末日		
은형번리	32,900	
평양성각교회에서선교소사탁연보	65,890	
빅판명전도회에서온돈	25,870	
논에서는작년쇼출갑	199,775	
	合計	4138,697
중국선교소에게금년예산중보넌돈	1850,000	
중국선교소에게시히예산중보넌돈	350,000	
우표비	13,680	
돈차준부비	1,000	
전도국부비	30,520	
사무국부비	11,265	
각회계문부산갑	9,090	
출판비	5,100	
서촌동논에	종조갑	36,200
	동수리	23,500
	결전	7,900
잡비	8,700	
중국교회시찰두사름로비	45,000	
	合計	2391,955
쓴것메하고남아잇는것	1746,742	
중국선교소회계에게잇 돈	397,945	
	合計	2144,687



제6회 총회 전도국 회계 이일영의 회계보고
1916년 5월 1일 ~ 1917년 4월 말일

전
로
용
비

예수교장로회총회등록회록

대
八
호

총회전도국회계리일영시보고

一千九百十六年五月一日부터
一千九百十七年四月 말일까지

九
十

収

入

작년회계넘어온금.....	1746.
1916.5.1 연보입금.....	2734. 915
1917.4.30 온힘리조.....	51. 05
별연보.....	102. 18
논소출.....	74. 12
	<u>4709. 007</u>

支

出

선교소비용금.....	1924. 30
합경로회전도회보조금.....	50. 00
전도국용비금.....	14. 67
우편비용금.....	9. 07
사무국비용금.....	49. 38
잡비금.....	16. 00
	<u>2063. 42</u>

회계여지임치로온힘예금.....2645. 587

각로회입필

평북.....	674. 24
평남.....	686. 835
평회.....	380. 24
평총.....	353. 35
평정.....	75. 00
평파.....	281. 70
평상.....	283. 55

1916.5.1-1917.4.30 합연보입금 2160. 325
1917.5.1-1917.9.3 각회연보금 574. 59

합 計.....2734. 915



주후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통계

주후일월년구월십이년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통계									
	영의총회	남평안	북평안	황해	전라	경상	함경	도	합
목	11	28	26	10	20	18	14	122	122
장	11	96	15	34	25	18	16	225	225
강	0	3	3	0	0	0	0	6	6
조	33	43	35	36	29	40	15	230	230
남전도인	6	7	3	6	11	5	8	46	46
북전도인	18	18	1	6	6	16	5	70	70
미서인	16	14	2	9	18	22	47	128	128
금연세례인	766	1439	92	99	1533	1650	80	8893	8893
세례인도합	3961	1260	71	578	9514	7817	5232	53008	53008
금연세례	580	1389	1336	1123	2422	695	76	54031	54031
금연회습인	676	1348	1444	744	727	2045	2065	14049	14049
금연세례	580	1389	1336	1123	2422	695	76	54031	54031
금연회습인	676	1348	1444	744	727	2045	2065	14049	14049
회습인도합	1819	3600	7514	1651	1548	7736	2531	26440	26440
회인도합	750	3000	8294	3914	3954	5398	9342	28722	28722
장로장	2	9	0	0	5	0	0	16	16
신학도	15	54	40	2	2	13	16	180	180
대학도	1	1	0	0	0	0	0	2	2
중학도	2	2	4	0	56	11	2	25	25
소학도	62	156	203	185	39	96	100	539	539
대학도	8	54	18	1	0	2	0	83	83
중학도	165	480	296	23	286	133	133	1778	1778
소학도	723	3765	5527	3620	824	1507	2660	29940	29940
대학세	182	233	469	171	388	457	155	2554	2554
대학장	226	227	189	115	221	440	130	1438	1438
전도목회	96	737	954	41	703	458	236	1551	1551
회목회	55	66	72	10	302	91	24	457	457
가장목회	19	23	25	15	35	55	53	258	258
목회도합	74	364	547	43	960	633	70	1477	1477



주후1913년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 제2회 총계표

[illegible]

장로공의회 통계보고표 1907년 6월 30일까지									
신앙도	평안남북	경계강원	전라북남	경상남북	함경남북	도합	금년	도합	도합
합계	충청남북							1906년	1905년
목수	14	10	10	9	6	49	49	46	46
조수	72	16	19	19	14	160	160	155	80
의석연	11	16	6	14	11	58	51	44	
내전도	9	6	4	9	10	38	38	39	
전도직	108	39	44	50	42	283	226	192	
본도합	31	5	3	6	2	47	33	18	
장로	31	5	3	6	2	47	33	18	
지교회	348	123	109	145	60	885	844	407	
회당	333	366	121	225	42	887	546	394	
성찬창	123	126	199	130	84	886	433	161	
레홀연	83	12	61	130	14	886	433	161	
원입교	116	14	20	138	80	997	121	84	
인	43	14	8	13	3	91	61	1	
수송이	43	14	8	13	3	91	61	1	
의도합	90	15	16	17	10	268	43	7	
소학교	256	38	44	60	17	405	238	139	
학도	227	73	49	80	30	660	512	273	
연보전	653	979	869	616	514	4422	6216	3550	
신화	67	14	19	16	17	12	34	76	



주후1911년 예수교장로회 조선 노회 총계

주후일천구백십일년예수교장로회조선노회총계											
	경	기	남	북	평	남	북	남	북	합	도
부수	十一	十四	十六	七	九	八	十	八	十二	九十五	
장로	九	五十六	十七	二十五	四	十	七	七	十七	一百五十九	
장도수	〇	五	〇	〇	〇	〇	一	〇	〇	六	
조수	二十	四十九	三十一	三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八	十三	二百五	
남전도인	五	四	十一	五	七	四	二	一	二	四十一	
녀전도인	十七	十二	二	二	九	七	十一	七	四	七十二	
비서인	二十	九	二	七	十一	八	十二	十	四十八	二百二十九	
금년새예인	三百八十一	二千四百	二千二百	七十四	二千二百	六百八十	九百十九	五百三十一	五百八十一	九千七百	
세례인도합	三千二百	二萬三千五	九千八百	一萬五千	三千二百	三千九百	三千五百	三千三百	二千二百	四萬六千九	
〇회세례	五百卅五	四十五	三千二百	一萬八千	七十四	三百十一	三百五十一	六十七	六百九	八千五百九	
금년합송인	一千二百	五千四百	五千五百	〇	二千六百	九百五	三千八百	一千三百	六千五百	一萬五千七	
합송인도합	二千一百	七千三百	六千四百	二千九	二千六百	二千二百	四千一百	五千四百	二千五百	三萬五千五	
포살도합	四十七	七百三	六百卅六	六百七十六	六十六	四十一	百四十六	百九十六	百四十二	二百六十二	
장로정수	二	四	〇	〇	二	十	〇	〇	〇	十八	
선화도	六	五十三	四十二	二十	七	十三	二	八	七	一百五十八	
백화포	〇	一	〇	〇	〇	〇	〇	〇	〇	一	
홍화포	녀	一	二五	一	二	二二	〇	一一	三	二十三	
송화포	녀	三十一	二百八十八	一百二十八	五十四	二十五	二十五	二十二	七十四	三百三十一	
백화도	〇	四十九	〇	〇	〇	〇	〇	〇	〇	四十九	
홍화도	녀	百二十七	三百六十六	三百八十二	三十三	三十五	一百四十六	五十三	三百五十五	一千四百七	
송화도	녀	百七十六	三千九百五	三千八百	百三十三	百五十五	九百十九	百五十三	九百九	一萬三千六	
회비처소	四十七	百五十九	二百二百卅二	一百一	二百十二	二百五十一	百七十四	三百十	一百六十八		
회비유지	一百十九	三百一十二	三百九十九	二百廿二	八十五	二百四十九	二百三	二百卅四	一百廿六	一千四百四	
전도용비	二千六百六	九千九百六	四千四百五	六千四百	九百六	九百四	一千三百	一千五百	一千七百	一萬九千五	
합회용비	三千七百	二萬三千二	一萬八千	四万七千七	三萬六千	三萬八千	五萬	七萬八千	一萬七千	六萬九千五	
간장용비	六千一百	五萬四千	四萬五千	一萬三千	四萬四千	四萬八千	一萬	四萬四千	一萬六千	五萬二千三	
음비도합	七千五百	五萬五千	四萬三千	一萬八千	四萬四千	四萬八千	一萬	四萬四千	一萬六千	五萬二千三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세

(2013. 12. 31. 현재) [제99회 총회(2014.9.22.~2014.9.25) 참요]

번호	구 분	통 계 수		증감 (A-B)	증감율 (%)	비 고
		2013년(A)	2012년(B)			
1	노회수	65	65	0	0.00%	
2	교회수	8,592	8,417	175	2.08%	
3	목사수	17,468	16,853	615	3.65%	
4	전도사수	3,097	3,123	-26	-0.83%	
5	교육전도사수	4,361	4,560	-199	-4.36%	
6	장로수	28,886	27,931	955	3.42%	
7	안수집사수	63,991	63,354	637	1.01%	
8	권사수	150,087	144,341	5,746	3.98%	
9	서리집사수	609,486	610,834	-1,348	-0.22%	
10	제직수	852,165	846,167	5,998	0.71%	
11	세례교인수	1,734,983	1,720,872	14,111	0.82%	
12	전체교인수	2,806,839	2,810,531	-3,692	-0.13%	유아세례포함
13	결산액	1,281,434,750 천	1,285,088,121천	-3,653,371 천	-0.28%	2013년도 경상 수입 결산액



국문초록

1907년 9월 17일에 한국 교회의 제1회 독노회가 조직되었다. 이 때 한국 교회는 제주로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12년 9월 1일에 제1회 총회가 설립되었다. 이 때 한국 교회는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그런 다음 1913년 제2회 총회에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세 사람이 선교사로 선정되었고, 이들은 9월 하순경 그 식구들과 함께 그들의 선교지로 떠나게 된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최초의 공식적인 해외선교의 시작이었다.

제1회 독노회가 설립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목사를 안수할 수 있는 치리회인 노회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목사가 있어야 명실상부하게 한국 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국 교회는 노회 설립을 기념하여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자립 선언이었다. 제주 선교는 노회를 설립하게 된 기쁨의 표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물이었다. 이기풍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물과 같았다. 전(全) 한국 교회가 이기풍 선교사와 이기풍과 함께 떠나는 전도인들 한 두 명의 후원을 감당하게 된다. 제주 선교를 위해서 각 교회들이 헌금한 일은 한국 교회가 충분히 자립하였다는 확증이었다. 한국 교회는 제주 선교를 통해서 진정으로 자립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이 정신은 곧 5년 뒤에 제1회 총회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는 데에 동기가 되었다.

중국 산동 선교는 1912년 제1회 총회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07년에 제1회 독노회가 조직되고 5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한국 교회가 제1회 총회를 설립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만큼 진전(進展)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제1회 독노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 5년 내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갔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도 은혜롭게 성장하고 성숙해져갔다. 그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해갔다. 산동 선교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제1회 독노회 시절보다도 더욱 자립하였다는 선언인 것이다.

1912년 한국 교회는 제1회 총회를 설립하면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로 결의하였다. 산동선교는 총회 창립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다. 한국 교회는 중국에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선교사들로부터 전해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영적인 빛을 갚을 때가 되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중국 산동으로 세 가정을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별히 산동으로 파송되는 선교사 세 사람은 그 당시 한국 교회 내에서 유능한 인물들이었다. 이들 선교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한국 교회의 헌물과 같았다. 또 한국 교회는 이들을 통해서 중국과 만방에 한국 교회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였다.

한국 교회는 최초의 해외 선교지 선정할 때에 한국과 중국에서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와 중국 노회와 협의하였다. 또 한국 교회는 제5회 총회에서 중국 산동독회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하여 한국 선교사들을 한국 총회에서 중국 노회로 이명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의 해외선교사들은 선교 사역의 처음부터 총회로부터 산동에 분리된 교회를 따로 세우지 말고 중국 교회에 협조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을 산동노회로 이명을 시킨 것이다. 이런 이들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으로도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자립정신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립정신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한국 교회의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한 선교비 모금이다. 특별히 산동 선교비 모금이 단적인 증거이다.

총회 전도국은 제1회 총회에서 전국 교회가 일 년에 한 날을 감사일로 지키고, 그 날에 모아진 헌금은 전부 총회 전도국으로 보내 산동 선교비로 사용하도록 청원하였다. 한국 교회는 감사일을 “해외선교의 날”로 지키도록 하였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는 선교사 최초의 도선일(渡鮮日)을 감사일로 정하고 산동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도록 결의하게 되었다. 또 한국 교회는 총회의 결의를 지켜서 마음을 다해서 선교비 마련을 위한 헌금을 하였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였다. 이 일은 선교가 곧 한국 교회의 자립의 선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진정한 교회의 자립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교회 스스로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실시할 때에야 그 교회는 자립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요 자치하는 교회이다.



따라서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는 한국 교회 전체의 자립의 선언이다. 초기 선교사 파송은 한국 교회의 자립의 확언이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제주와 산동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이다. 이런 희생의 결과로 한국 교회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선교의 대국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초기 한국 교회의 제주와 산동의 선교사 파송이 한국 교회의 자립의 선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핵심어: 선교, 제주선교, 산동선교, 자립선교, 선교사 파송, 초기 선교사, 중국선교.



ABSTRACT

Missionary Sending of the Early Korean Church to the island of Jeju and Shantung in China.

Min, Kyung Woon

Department of Mission Theology

The Graduate Schoo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On Sept. 17, 1907, the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was organized. By the time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decided to send Rev. Ye Keui Poong as a missionary to Jeju. In 5 years the First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was established on September 1st, 1912. During the First General Assembly Meeting of the Early Korean Church it was decided to send missionaries to China. At that time Rev. Park Tai-ro, Sah Byung-soon, Kim Young-Hoon were selected as missionaries during the 2th General Assembly in 1913. They, together with their families, set sail for the mission field in late September of the same year. This was the just beginning of the first official foreign mission of the Korean Church.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the inauguration of the First Independent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was to constitute the ruling organization, the Presbytery, in order to ordain the Korean People to the ministry. If there weren't Korean ordained pastors among the Korean Church, the Church couldn't be truly called as the Korean Church. Also, in commemorating the inauguration of the National Presbytery the Korean Church sent Rev. Ye Keui Poong as a missionary



to Jeju island. The meaning of sending Rev. Ye as a missionary to Jeju was the self-supporting declaration of the Korean Church. The mission to Jeju Island was a sign of joy to the organization of the Presbytery and a "Thank-Offering" to God's grace. Rev. Ye Keui Poong was regarded as a thank-offering which the Korean Church offered to God. All of the Korean Church supported the missionary Rev. Ye and one or two evangelists who accompanied him. That the various churches in Korea collected a thank offering in behalf of the mission to Jeju was the affirmation that all of the Korean Church fully became the self-supporting church. Through the mission to Jeju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could really stand with their feet. This spirit of the self-supporting church would be the motivation to the First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which started to send missionaries to China in five years. The mission to Shantung China was launched by the time the auguration of the First General Assembly. In 5 years from the organization of the First Independent Presbytery the Korean Presbyterian local churches would grow very rapidly. That was why the First Assembly could be constituted. After the organization of the first independent presbytery the Korean Church significantly kept on growing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or the five years. And also the Korean Church grew and matured in spirituality. Above all the Korean Church would be developed to be the self-supporting church more than ever before. The mission to Shantung was the declaration of the Korean Church that it became more self-supporting than the first Presbytery's period.

In 1912 at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olutions was to send missionaries to China. The mission to Shantung was the commemoration and celeb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Assembly. It was also in gratitude to God



for the organization of the Assembly. The Korean Church began to have the confidence that we could give influence to China through the Gospel and felt that the time had come to pay back the spiritual debt of gratitude to the Lord for the blessings she had received through the Presbyterian missionaries. Therefore the Korean Church had decided to send three families to Shantung China. Especially these three missionaries who were sent to Shantung were very qualified and prominent ministers in the Korean Church at that time. Those three missionaries were likewise the thank offering of the Korean Church to God. And also through these missionaries the Korean Church declared her power of the Gospel to the China and all of the countries. On selecting the first foreign mission field,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conferred with th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aries in Korea and in China, and with the China Presbytery. Also, when the 5th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Church equally conferred with the Shantung Presbytery it was then decided to transfer the membership of the Korean missionaries from the Korean Assembly to Shantung Presbytery. The Korean foreign missionaries were ordered from the Assembly not to set up a separate church in Shantung but to cooperate with the Chinese church from the beginning of the missionary work in China. Thus the Korean Church completely decided to move the membership of the Korean missionaries to the Shantung Presbytery. All of these decisions came out of the self-supporting spirit that we, the Korean People, could govern our Korean Church. The most definite evidence about the self-supporting spirit was that the Korean Church collected the offering to support the missionaries. Especially the collection for the mission to Shantung as direct proof.

The Board of Missions in the First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Church overtured that all of the national churches in Korea should keep



one day of the year as a thanksgiving day and the whole amount of the offering was to be sent to the Mission Board and to be used for the Shantung mission fund. Each Thanksgiving Day should be observed as "foreign mission day" among the all of the Korean Church.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decided to keep the arrival day of the first missionary to Korea as the thanksgiving day and collected all the offerings from the churches in Korea. An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the Korean Church offered and made the mission funds with all their heart. Several organizations as well as churches were offering for the mission. This collection of the mission fund said that the mission was the self-supporting declaration of the Korean Church.

The real self-supporting declaration of the church was not that the church can govern the church by her own income without any help from outside, but that the church start the mission, by the time the church could become the self-supporting church. Therefore a self-supporting church or a self-governing church is a missionary sending church.

So the Jeju mission and Shantung mission was the self-supporting declaration of all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Missionary sending is the confirmation of self-supporting in the Early Korean Church. Whenever the Korean missionaries to Jeju and Shantung faced so many great hardships in their mission field, they endured all kinds of the sufferings and dedicated themselves for mission because they knew the self-supporting spirit. As a result of those dedications the Korean Church would be the power of the mission all over the countries in the world. Therefore we never forget that missionary sending of the Early Korean Church to Jeju and Shantung was the self-supporting declaration of the Korean Church.



Key words: mission, the Jeju Mission, the Shantung Mission, self-supporting mission, missionary sending, Early missionary, China mission.

